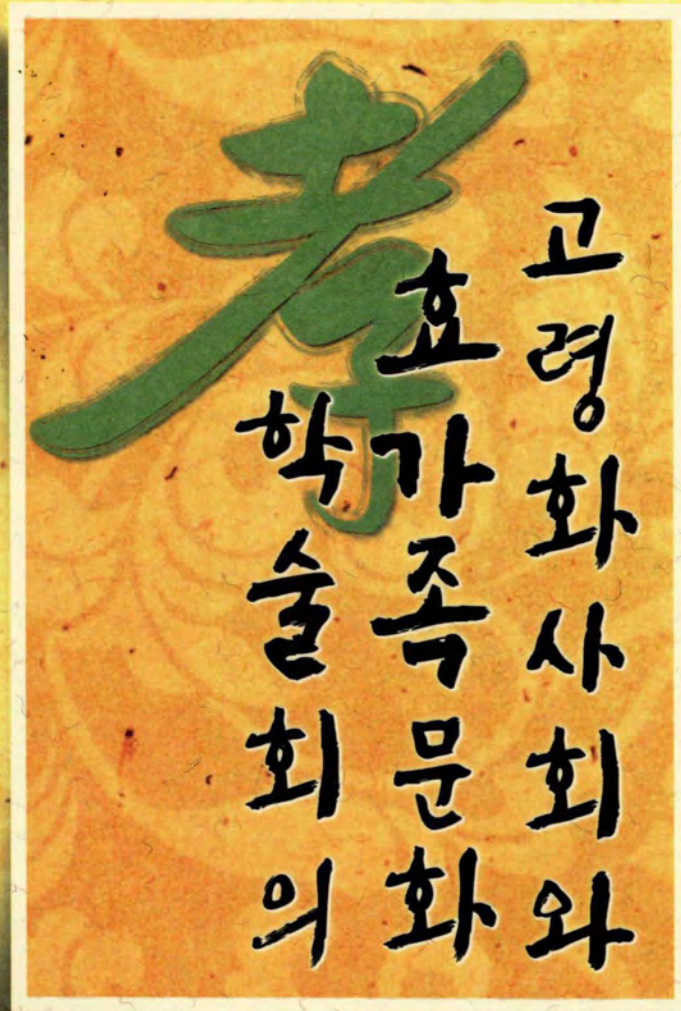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일시| 2006년 9월 22일(금) 11:00~17:30

|장소| 한국국제전시장 (고양킨텍스)

주최

한국사회학회



경기문화재단

후원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고령화사회와 효 가족문화 학술회의

일 시 : 2006년 9월 22일(금) 11:00 ~ 17:30

장 소 : 한국국제전시장(고양킨텍스)

주최 : 한국사회학회, 경기문화재단 후원 : 세계속의경기도, 보건복지부

학술회의 순서

11:00	개 회 식 / 사회 : 김종해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 211호실	
	- 개회사 : 임현진 (한국사회학회회장)	
	- 인사말 : 이공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1:20	기조발제 / 사회 : 공유식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제1발제 : 현대사회에서의 효의 의미를 생각하며 / 이동원 (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전 한국사회학회회장)	7
	- 제2발제 : 고령화 사회와 인생 이모작 /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19
12:00	오 찬	
13:00	주제발표	
	Session1. 고령화 사회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족문제’ 사회 : 이선이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 211호실	
	- 노년의 이미지와 정체성 /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부 교수).....	37
	-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노년의 이미지 / 김선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49
	- 노인의 성과 사랑 : 영화와 소설에 투영된 이미지 /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71
	• 토론 : 신광철 (한신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노년기 가족과 정보화 / 이어봉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91
	- 노년기 재혼과 가족 / 양옥남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109
	-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 은퇴를 전후로 하여 / 장은정 (경기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임연구원)...	127
	• 토론 : 김 욱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인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Session2. 고령친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새로운 고령친화 정책의 방향 사회 : 안호용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212호실	
	- 소비주체로서의 노인 : 패러다임의 전환 / 최혜경 (이화여대 인간소비자발달학과 교수).....	145
	- 고령친화 산업의 중요성 및 활성화 전략 / 이견직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161
	- 고령자의 홈케어와 미래에 대응하는 주거시설 환경계획 / 오은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이사).....	189
	• 토론 : 이호갑 (삼성 노블카운티 상무), 장석인 (산업연구원 실장)	
	- 신세대로서의 노인인 사회참여 : 21세기 한국의 국가-노인관계 /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9
	- 고령화 사회와 지자체 내 지역복지 계획 / 안혜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229
	- 고령사회 노인인력 활용과 전망 / 원영희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51
	• 토론 : 한정란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16:00	축하공연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 211호실	
16:20	종합토론 211호실	
17:30	폐 회	

제1발제

현대사회에서의 효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동 원

(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전 한국사회학회장)

여 백

현대사회에서의 효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동 원(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전 한국사회학회장)

1. 들어가며

오늘도 우리는 효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다. 부모를 때리고 버리는가 하면 추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은 방에 방치되어 있던 노인들의 일이 뉴스를 탄지 오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효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들먹여지고 효를 아쉬워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효는 그 사회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이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절대적 권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 하는 지배복종의 수직적인 관계의 틀 속에 있었다. 이러한 부모자식간의 관계의 틀이 일반 사회관계까지도 확대되어 남녀노소간의 기본적인 관계의 틀이 됨으로서 사회질서가 유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의 틀을 사회로까지 유지 확대시킴 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서구문화의 유입과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 하면서 우리 사회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다. 이질적인 문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은 우리문화의 바탕을 흔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궁핍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른들은 정신없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젊은 세대들은 밀물 듯이 밀려드는 새로운 문화에 흡수되어 갔다. 더욱이 우리는 일제 지배하의 36년 동안에 우리의 기본 바탕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이질적인 문화를 흡수하게 됨으로서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치규범도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히 효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가족간의 반인륜적인 사건이 연이어 생기면서 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효사상이 없어져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생긴 것처럼 학자들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미디어에서도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대응조차도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사람들만이 효 사상에 매달리는 현상에 그치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함으로써 일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효에 대한 연례행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효에 관한 세미나에 가면 늘 나이 드신 분들만의 잔치이다. 연사들은 효의 좋은 뜻을 살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열변을 토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뭇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나 매스컴에서도 정례 행사처럼 어버이날 등에 효 행사를 때맞춰 하지만 그리고는 그만이었다. 그리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효에 관해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처방과 실천 덕목까지 내놓았지만 그저 그 뿐이며 국가적인 홍보나 구체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이 효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거나 효란 단순히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은 다만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효 사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구호에만 그치는 소모전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통사회에 입었던 효라는 옷을 훌훌 벗어버려야만 우리 현 상황에 맞는 세련된 옷을 입을 수 있다. 어찌면 우리 세대들이 효의 환상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벗는 길은 우선 효를 놓는 길이다. 그다음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가치 규범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효라는 단어에 조차 신경과민 현상을 보이고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효라는 가치관이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제라도 우리의 효 사상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로 시작 하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아무리 효의 원 뜻이 좋고 한때 우리 사회를 유지 존속 시켜 왔던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효를 행해야 하는 주축세대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변화하였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효 사상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에 연연하고 효 사상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히 놓아 버리고 새로 시작 하자는 것이다. 부분적인 수술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효의 본뜻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효 문화를 이어갈 불씨를 찾았으면 한다. 사회규범이란 사회·가족·개인 간에 톱니바퀴처럼 서로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의 기본이 되었던 가치 규범이 오늘날처럼 수평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질서와는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거를 훌훌 털어 버리고 현 상황에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중요 덕목인 효 사상의 뿌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효의 본 의미와 기존의 연구

전통적인 사회에서 “효”는 효를 주축으로 한 가족의 기본적인 관계의 틀을 유지시키면서 모든 사회질서의 핵이라 할 수 있었다. 문헌에 나타난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효심과 효행으로 나누어진다. 마음으로부터 정성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간직하는 것은 효심이라 하고, 마음속의 정성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효행이라 한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질서의 근원은 효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효의 실천 근거는 생명의 준수로부터 출발하여 값진 생명을 준 부모의 은혜의 높음을 강조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를 치러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효의 본질은 생명의 근본을 사랑하고 보답하는 보은에 있으므로, 생명의 근본인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는 모든 행위의 기본으로 여겨졌다.

종종, 전통적 유교 윤리에서 강조한 효의 의미와 가치관이 왜곡되게 전달 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효가 내포하는 기본적인 윤리는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것인데 현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방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효의 진정한 의미가 상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어, 효경 등의 내용에는 자

식이 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효의 항목들만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행동 규범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자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분명한 것은 전통적 효의 기본적인 원리는 상호적인 배려와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효를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공손히 받드는 것, 음식이나 의복을 봉양하는 것, 부모의 올바른 교훈이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하실 때 바로잡아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에서 정의하는 기본적인 효의 의미와 내용은 유교와 비슷하나 그 범위가 부모자식관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교와 유교에 비해서 기독교에서는 효와 관련된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약하지만 십계명에 부모에의 경애가 포함되는 것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할 것, 부모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고를 잘 들을 것 등의 구절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은 서양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효 사상에서는 가족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효란 인류의 도리로서 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른들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존경과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맹자 역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남의 부모까지 경애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남의 자식까지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논어에서도 가족윤리인 효가 사회윤리의 기반이 됨을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효는 단순히 부자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보편성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러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효”를 재조명하기 위해 효 가치관과 실천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을 하였다. 여기서는 성규탁, 이병현, 김태현 그리고 연꽃마을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규탁(1994)의 연구는 효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효의 의미를 바탕으로 효 실천의 동기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다음의 13가지로 요약한다.

- 1) 부모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존경)
- 2) 부모를 위한 육체적 재정적인 희생을 하는 것(희생)
- 3) 부모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책임)
- 4)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 것(보은)
- 5)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는 것(가족 영속)
- 6) 부모에 대한 사랑 및 애정을 표하는 것(애정)
- 7) 늙고 병든 부모를 동정하는 것(동정)
- 8) 종교적 교의에 따라 부모를 모시는 것(종교 교의)
- 9)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 성원들이 화합하는 것(가족 화합)
- 10)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이루려는 것(보상)
- 11) 부모의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부모 부양을 하는 것(재산 상속)
- 12) 부모를 중심으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웃 화합)
- 13) 부모를 위해 가족의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것(가족 체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250명에게 설문 조

사를 하여 위의 13가지, 항목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8가지로 요약한다. 그리고 8가지 내용들을 ‘행동 지향적 효(희생, 책임, 보은)’와 ‘정서 지향적 효(가족화합, 애정, 존경)’, 그리고 ‘가족 지향적 효(가족영속, 가족 체면유지)’로 구분한다. 즉, 효의 의미와 실천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효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강요된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자발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을 내면화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지난 30여 년간 효행상을 수상한 817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의 효행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들은 주로 노령으로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식사준비와 시중들기, 목욕시키기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다. 효행동기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이고 다음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과 가족화합을 위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병현(1999)의 연구는 효의 내용을 다음의 9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35명을 대상으로 효의 9가지 측면의 실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문으로 세분화한다.

- 1) 생육의 효: 낳아주신 데에 대한 감사, 길러주신 데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 2) 봉양의 효: 부모 봉양에 대한 당위성, 경제적 능력과 부모 봉양과의 관계, 부모봉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 봉양을 위한 자기희생에 대한 의식
- 3) 양지의 효: 부모님의 사전 허락받기, 부모님과 이견이 있을 때 해결방식, 부모님 의견 존중, 일하고 있을 때 부모님 부르시는 경우의 반응
- 4) 순종의 효: 부모에 순종하는 풍습에 대한 인식, 부모님 지시에 대한 순종 정도, 중대사 결정시 부모님 의견에의 순종 정도
- 5) 공경의 효: 부모 존경에 대한 당위성, 짐을 든 노인을 볼 때의 반응, 웃어른에 대한 인사
- 6) 간언의 효: 부모가 옳지 않는 경우의 반응
- 7) 시봉의 효: 부모님 심부름 수행정도, 어른이 된 후 부모님 모시는 것의 당위성
- 8) 사후의 효: 제사 참석정도, 사후의 효의 의미, 사후의 제사 방법에 대한 의견, 연휴에 관광지에서 지내는 제사에 대한 인식
- 9) 뿌리 찾기 : 자신의 본관이해, 어머니의 본관이해, 가업계승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생육의 효가 실천정도가 그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봉양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답이 63%로 나타나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의 효와 순종의 효의 실천 정도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풍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경의 효, 간언의 효, 시봉의 효, 사후의 효, 뿌리 찾기 모두 인식과 실천이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435명을 대상으로 현대에 맞는 효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태현(2000)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효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효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 1) 신체적 차원의 효 2) 정신적 차원의 효 3) 경제적 차원의 효 4) 문화적 차원의 효

효 관련 사이트에서는 신체적 효를 부모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고 질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족들이 가정에서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을 간호하는 자녀들이 어려움과 경험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정신적 차원의 효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부모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 역시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들의 고충을 나누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의 효는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물품과 보험 상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효는 부모가 문화적 삶을 향유하면서 즐겁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노부모를 위한 각종 여가프로그램과 노인 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효 관련 인터넷 사이트 1개를 분석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자는 이 연구에서 효 실천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꽃마을(2003)의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10대에서 60대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효 의식 및 효행에 관한 측면과 효 교육 및 계승에 관한 측면으로 나뉜다. 각각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효 의식 및 효행에 관한 측면

- * 부모님께 순종하는 풍습에 대한 생각
- * 개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
- * 노부모 부양책임
- * 부모님에 대한 제사 여부
- * 부모님께 존댓말 사용여부
- * 식사 예절과 취침 전 인사예절 수행 여부
- * 웃어른 공경 여부
- *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실 때의 반응
- * 노약자석 양보 여부

2) 효 교육 및 계승에 관한 측면

- * 효 교육을 처음 받은 시기
- * 효 교육을 배운 매체
- * 효에 대한 교육을 해 준 사람
- * 효 교육을 받은 후 느낌
- *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서의 효에 대한 인식
- * 현재 우리나라의 효 의식 평가
- * 효에 대한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 * 효를 실천하는 주체
- * 효 교육 및 계승의 주체

위의 항목들에 대한 응답결과 효 의식과 효행의 측면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풍습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측면의 효행 실천 사항도 젊은 세대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은 젊은 세대일수록 아들딸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효 교육과 계승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도 효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 의식과 실천이 과거에 비해서는 약해지고 있지만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의 내용과 실천 방법이 개발되고 교육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와 기타 전문 교육 기관, 대중 매체를 통하여 효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3. 앞으로의 과제

위대한 역사 학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한국 문화가 장차 인류에서 기여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 일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앞에서 필자가 효 사상 자체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다소 비관적인 논리를 편 까닭도 우리의 문화 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문화의 효정신이 완전히 살아질까하는 두려움에서이다.

1) 아직도 효 문화의 바탕은 살아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효의식이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효의 뿌리는 살아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조성남 외 2004) 노부모는 가족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전 조사자의 77.1%나 되며 특히 20대30대의 연령층에서도 73%에서 75%정도이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는 주 책임자에 대한 태도는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노부모의 봉양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자는 겨우5%에 불과하고 가족이 우선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하지만 국가나 사회가 동등하게 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 56%이다. 이러한 태도는 세대간에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전적으로(1%)또는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9.1%)도 약 10%되며 가족과 국가가 동등하게 노인 봉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28%나 된다. 즉 가족이외에 국가나 사회가 부모 봉양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노인에게 효도 하는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 드리거나(63%)형제 자매 등 가족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나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를 보면 노부모 봉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비롯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나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녀들은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변화된 태도의 흐름을 읽어서 이것을 주축으로 효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지우거나, 자녀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의존 문화를 탈피 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에서 도피하고 오히려 부모를 정서적으로도 외면 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간의 독립된 관계의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및 심각한 병수발의 짐을 가족들에게 지워서는 안된다. 이제 모든 국민은 국가의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도와야한다.

그런 체제하에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우리의 오랜 미덕인 효사상을 가족간의 관계에서 강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꺼져 가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우리의 좋은 문화적 유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과거의 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효 문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 수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와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발상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효 문화는 점점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2)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세대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4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8%를 넘어섰고 202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저 출산 추세와 맞물려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구 구조 속에서는 자녀세대의 일방적인 부모에 대한 효 문화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세대간에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이익적인 관계의 틀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조부모내지 양조부모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성들의 직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육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세대가 3세대를 맡아서 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일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것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일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3세대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람으로서 자연히 세대를 뛰어넘는 통합적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구체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속에서 상호이익적인 기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세대통합 공동체(조성남,2004) 혈연을 넘어선 가족공동체-를 형성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효의 본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앤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부모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자녀세대에게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마련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효 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퇴계 이황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의 기본도리이며 이것이 곧 효의 기본원리라고 말했으며 효의 진정한 의미인 상호적인 관계를 현대 사회에 접목 시키는 작업이 과제 일 것이다.

3) 노인의 이미지와 역할을 재 정립해야한다.

여러 조사에서 노인은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이다’, ‘노인과 함께 지내는 것은 힘들다’, ‘경제적 부담을 준다’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자연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들은 젊은이들로부터 대접 받고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노인을 위해 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 하는 관습에 익숙해 있다. 노인이 되기도 전에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의존적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효를 받는 것에만 머무르다 보니 효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하고 일방적인 부모 봉양만이 효처럼 인식됨으로서 젊은 세대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 핵가족 경향 속에서는 각 개인이 노인을 모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 젊은이들은 효라는 애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연히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저히 본인이 인식하는 효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사회는 변화 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이외도 충분히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젊은이들은 일상생활에 얽매어서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여건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제 효를 받을 어르신 세대들이 거둬야 한다.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효의 참 뜻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숭선수범을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효 문화 운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사회를 위해서 자녀, 손 자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할 때 노인들의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며 젊은 세대들의 관계도 변화 할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사랑과 공경의 실천을 통해서 효 문화 운동은 시작 되어야 할 것이다.

4) 생애 초기부터 사회와 가족이 혼연 일체가 되어 사회화 시켜야 한다.

우리의 효 문화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 속에서 혼연 일체가 되는 덕목이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조부모의 역할을 보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효라는 사상을 친숙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 효 사상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자 중요한 규범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효를 삶의 최대의 미덕이라 여기고 이를 실천하였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덕목이 제일이었던 사회에서 효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켜나가는 튼튼한 정신의 동아줄 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변화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함께 변했다. 생각하는 가치와 덕목들도 변화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해왔던 사회화의 역할들이 점차 국가기관, 사회기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사회화의 주무대가 가정이었던 반면, 현재는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주무대에서 벗어나 사회·국가기관에서 다른 규범 및 덕목들에 대하여 사회화되고 있다.

따라서 효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가정과 사회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사회화 시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입식 교육으로 전통적 효를 그대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사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어른을 공경하는 효의 원뿌리, 근본정신은 지키되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효라는 개념의 재 개념화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이념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영덕 국무총리 시절에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대학교수인 아버지를 살해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준비 모임이 결성 되었고 여러 번의 회의 끝에 효 사상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되살리자는 취지 하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가족을 상대로 부모교육을 하고 그리고 가족, 아동교육 등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던 중 국무총리가 바뀌었고 그 뒤에 딱 한번 회의 소집 후 그것이 끝이었다. 만일 그러한 효 정신을 기초로 하는 인간관계 회복운동이 국무총리실의 지원으로 총체적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효 문화는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다. 또한 미래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효 문화를 우리 사회에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효에 대한 과거 지향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역사속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20대 30대 청년과 어린세대 속에서 효 문화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과거의 효 문화에 대한 우리의 향수를 과감히 놓는 길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효”를 구시대적인 정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양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효 교육은 필수적이다.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교육에도 새로운 인성교육이 겸비된다면 효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과 사회가 내리막길에 선 효 문화에 21C의 가치관과 사고를 반영하여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신 효 문화로서 재창조의 길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니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옛 말도 있듯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씨를 뿌리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초석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은 그리되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한걸음씩 탐을 쌓는 정성으로 합심해야 할 것이다.

효를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운동은 모든 다른 사회적 맥락과 궤를 같이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용단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서 효를 행하라고 아무리 간간함을 써도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효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오늘의 어른들이 효 문화의 참 뜻을 펼치는데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나이든 세대들이 먼저 거듭나야 할 것이다. 효를 현시대적 상황에 맞는 규범체제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데 나이든 세대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효 문화의 풍토 속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지금의 어르신 세대들이 사라지기 전에 효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실천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효 문화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학계를 비롯한 지도층에서는 효 문화의 기본 정신은 살려 계승 하되 효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사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효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효 사상을 재창조하여

계승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전 인류에 귀중한 유산을 보급하는 길일 것이다.

제2발제

고령화 사회와 인생 이모작

최 재 천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여 백

고령화 사회와 인생 이모작

최 재 천(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Next Society」(2002b)에서 미래사회를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할 수 없이 간단명료한 드러커의 경고에 나는 최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 고령사회'라는 부제를 달아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최재천, 2005)라는 책을 출간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보았다. 이 글은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의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본 학술대회의 취지에 적합한 약간의 새로운 정보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의 비율이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18년과 2026년에 각각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출산율이 적어도 2004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내놓은 것이다. 2005년 출산율이 1.08로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 중 최저를 기록한 현재 추세라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나는 2020년을 겨냥하여 집필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에서 그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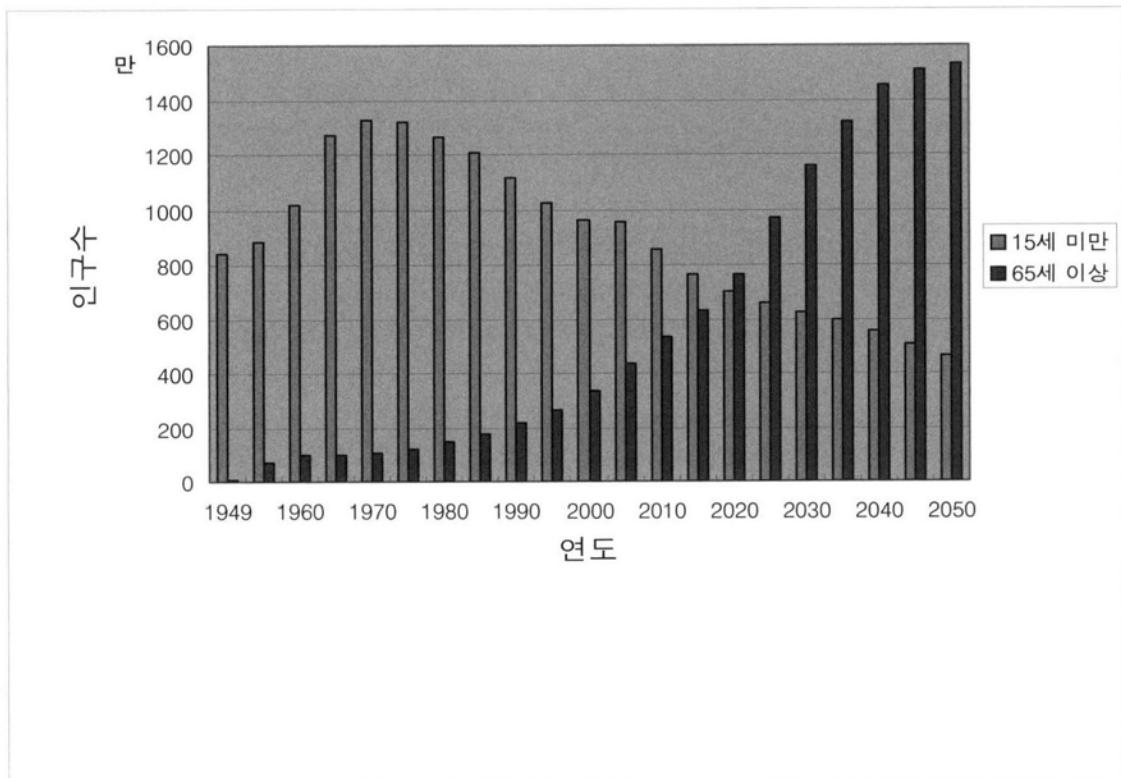
2020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가? 여성의 평균수명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생 80시대를 맞았다. 2020년이 되면 남성들의 수명도 80에 육박할 것이고 여성들은 인생 90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바야흐로 인생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의 1명은 100세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인생 100세 시대는 그 동안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오기도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원했던 일이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모순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대치는 그 동안 막연히 우리들이 생각했던 숫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4900만을 정점으로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5천만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생각하면 다분히 성급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국가 차원의 산아제한정책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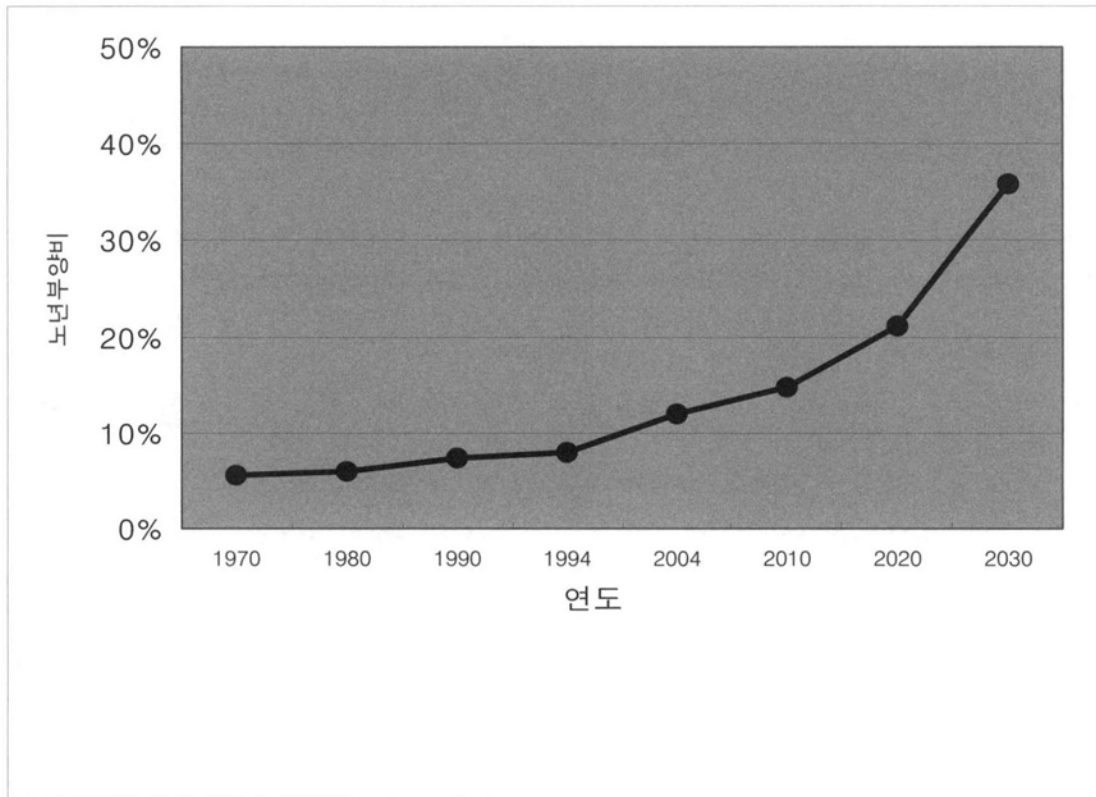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드디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인구보다 커지게 된다. 이 기형적인 가분수사회에서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 노년부양비가 12.6%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년부양비도 거의 두 배인 2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교



<그림2> 노년부양비 추이



우리나라 최근 역사에서 2002년만큼 신명 나던 해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일본과 함께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경기는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부가가치 면에서도 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건이었다. 그 때 우리가 IT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시내 대규모 전광판을 통해 전세계를 상대로 우리를 알린 구호가 있었다. 바로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이었다. 그러나 2020년이 되어 거리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넘쳐날 때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외치려 한들 과연 그 역동성이 제대로 표현될지 의심스럽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죽어가는 대한민국(Dying Korea)’이 될 것이다.

지금 나는 고령인구와 어린이인구가 역전되는 2020년을 겨냥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령인구와 어린이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느냐는 것이다.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그 시기는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의 일이다. 10년이란 세월은 예전에는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다분히 상대적인 것이다. 요사이 10년은 예전의 10년과 절대적인 측량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느낌이 다르다. 게다가 10년을 기다리고 나면 우리 모두 그대로 격변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만다. 10년이 온전하게 남은 문제가 아니다. 길게 봐야 그저 6~7년, 짧게 보면 그저 한 5년 남은 문제이다.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세대 구분이 필요하다

세대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곤충이나 양서류처럼 몸의 형태나 삶의 방식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다단계의 삶을 사는 동물이라면 모를까 인간은 연속적인 성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곤충이나 양서류의 변태(metamorphosis)에 가장 근접하는 사춘기(puberty)를 제외하면 인간은 일생 동안 그리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전학자 스티브 존스(Steve Jones)는 호르몬 분비에 따라 특히 남성의 일생을 일곱 시기로 나눈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수정과 태아 시기를 거쳐 제3기인 출생 시기를 맞고, 사춘기를 지나 제5기인 청년기를 살며, 여성이 완경을 하는 시기를 지나면 남녀는 서로 상대의 호르몬을 전보다 훨씬 많이 분비하게 되다 결국 생식이 완전히 멈춘 제7기에 이른다 (Jones, 2003).

그밖의 구분들은 대체로 상당히 주관적이거나 사회적인 기준에 의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자는 우리 삶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정의했다. 논어는 "40에 의혹이 사라지고(不惑), 50에 천명을 알게 되고(知天命),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耳順), 70에는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不踰矩)"고 적고 있다.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인 「탈무드」에도 남자의 일생을 20세 전만 5, 10, 13, 15, 18세 등으로 세분할 뿐 대체로 10년 단위로 나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10년 구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10진법에 따른 구분일 뿐 별다른 생물학적 의미는 없어 보인다.

최근 들어 유럽인들은 인간의 삶을 대개 네 시기로 나눈다. 피터 래슬렛(Peter Laslett)에 따르면, 제1시기는 의존(dependence), 사회화(socialization), 그리고 미성숙(immaturity)과 교육(education)의 시기이고, 제2시기는 독립(dependence), 성장(maturity)과 책임(responsibility)의 시기이며 돈을 벌고(earning) 저축하는(saving) 시기이다. 그는 또 제3시기를 개인적인 성취(personal fulfillment)의 시기로 정의하고, 제4시기는 또다시 의존(final dependence), 그리고 노쇠(decrepitude)와 죽음(death)의 시기라고 설명한다 (Laslett, 1991).

그러나 최근 래슬렛과 마찬가지로 제3시기(the third age), 즉 마흔 이후 30년을 강조하는 책을 펴낸 사회학자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넷으로 나눈다. 그에 따르면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제1연령기'는 배움을 통한 1차 성장의 시기이다. '제2연령기'는 제1연령기에서 이룩한 1차 성장을 바탕으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체 생활을 한다. 20대와 30대가 이 연령기에 해당한다. 40대에서 70대 중후반에 이르는 '제3연령기'는 고령화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 생애 중 가장 긴 시기이다. 새로운 성장 즉 2차 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노화'의 단계인 '제4연령기'를 거치며 우리는 생을 마감한다 (새들러, 2006).

흥미롭게도 이 같은 4단계 구분은 힌두교의 구분과 매우 흡사하다.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100년으로 보고 인생을 25년 단위(아슈라마)로 상당히 정확하게 4등분한다. 첫 아슈라마는 '학습기(브라흐마차랴)'로서 힌두교도들도 학생의 신분으로 삶을 시작한다. 그 다음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낳아 기르는 의무를 행하는 '가정

생활기(그리하스타)’이며, 세 번째 아슈라마는 ‘은둔기(바나프라스타)’로서 사회생활을 마무리하고 절대금욕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순례기(산야사)’에 들어서면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에 접어든다 (랄, 2005).

하지만 거듭 강조하건대 이 같은 세대 구분들은 개인 차원에서 볼 때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다분히 주관적인 나이(subjective age) 개념에 따른 구분들이다. 나는 최근에 출간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에서 우리 인생을 자식을 낳아 기르는 ‘번식기(reproductive period)’와 자식을 떠나 보내고 사는 ‘번식후기(post-reproductive period)’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환갑 잔치를 해드리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식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바야흐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즈음의 우리 삶은 번식후기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번식기에 거의 맞먹는 정도에 이르렀다.

노화생물학자 스티븐 어스타드(Steven Austad)는 그의 저서 「인간은 왜 늙는가」(2005)에서 조만간 인간의 수명이 150세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150년 전에 150년을 살게 되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사뭇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다. 그의 이 같은 대담한 예언은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 근거한다. 그는 노화생물학자들이 머지않아 노화의 비밀을 캐낼 것이고 그 비밀을 이용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춰줄 약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최대수명은 120세 정도를 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선택된 수명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진화생물학자들의 견해지만 과학은 그 동안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들을 수없이 가능한 일로 바꿔놓았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약물만 복용하면 수명을 20년, 3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인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생물에겐 번식기와 번식후기가 따로 없다. 대체로 번식을 멈추면 서둘러 삶을 마감한다. 침팬지와 고래가 번식을 멈추고도 잠시 삶을 영위하는 걸로 관찰되어 있는 걸 제외하면 자연계를 통틀어 자식 낳기를 멈추고도 수십 년을 사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 인간은 참으로 신기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번식기는 과연 언제까지인가?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만 유지하고 원만한 성생활을 즐기면 80대에도 정자를 생산할 수 있다. ‘토크쇼의 제왕’이라 불리는 CNN의 래리킹도 67세였던 2002년에 23살 연하의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2003년 69세의 나이에 35세인 부인으로부터 딸을 낳았다. 2001년 타계한 ‘희랍인 조르바’의 배우 앤서니 퀸은 1996년 47살 연하의 부인에서 13번째 자식인 늦둥이 딸을 얻었다. 그의 나이 81세였다. 2005년에는 유명한 라틴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아버지가 90세에 42세의 아내에게 둘째 아이를 배게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따르기도 했다.

출산에 관한 한 인간 여성은 매우 독특한 진화를 했다. 인간 여성은 아예 정해진 숫자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양쪽 난소에 약 200만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게다가 사춘기를 거치며 이 중 약 40만 개만 추리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이 40만 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약 35년 동안 4주를 주기로 일정 수의 난모세포들을 키운 다음 그 중에서 대개 한 개의 난자만 배란시켜 임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모든 여성들은 50세를 넘기 전에 가지고 태어난 난모세포를 다 사용한다. 이를 우리는 흔히 ‘폐경’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폐경’의 어감이 좋지 않아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완경’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신기한 것은 예전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길어졌으니 40만 개의 난모세포라도 좀 아껴 써서 오랫동안 배란을 해도 팬찮을 듯싶건만 예나 지금이나 완경 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 주변에는 부인이 완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여인으로부터 자식을 얻는 남성들이 있지만, 그런 일은 극히 일부의 남성들에게나 벌어질 뿐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인의 완경과 함께 자식 낳기를 멈춘다. 따라서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 번식기는 여성의 생물학적 리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인간의 번식기, 즉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간은 첫 50여 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30년의 번식후기를 살고 있다. 이제 곧 인생 100세 시대를 맞으면 번식후기가 번식기와 거의 비슷해진다. 만일 어스태드가 예측하는 대로 노화를 방지해주는 약물이 개발되어 진정 150세까지 살게 된다면, 정작 번식기는 50년을 살고 번식후기를 100년 동안 살아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번식기 동안 얻은 삶의 지혜로 적당히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긴 세월이 우리들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재정적인 대비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확실하게 할 일을 찾아두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 만큼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인생 이모작과 ‘내림 세대’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에서 번식기와 번식후기는 생물학적으로 또렷이 구분되는 시기들이다. 자식들을 키워 출가시킨 부모들은 경험으로 잘 알듯이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 못지 않게 자식이 집을 떠나는 것 역시 엄청난 사건이다. 자식이 집을 떠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고들 한다. 이제 곧 인생 100세 시대를 맞으면 우리는 자식도 없이 사는 번식후기를 번식기만큼이나 길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 중 대부분은 번식기보다 훨씬 더 긴 번식후기를 살게 될 것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조기퇴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38세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는 ‘삼팔선’이나 4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4.1세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56세가 되도록 퇴직을 하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가 그리 크게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62세가 되어도 퇴직을 하지 않으면 오적이라는 ‘육이오’가 무색하도록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나이는 68.1세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후 얻은 직업에서 버는 근로소득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 선진국 모두가 한결같이 정년시기를 조정하려는 엄청난 일을 시도하고 있다. 정년 시기를 늦추려면 당장 청년실업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정부는 몇 년 전 오히려 교원 정년을 62세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어찌 됐건 나는 정년 시기

를 조정하는 일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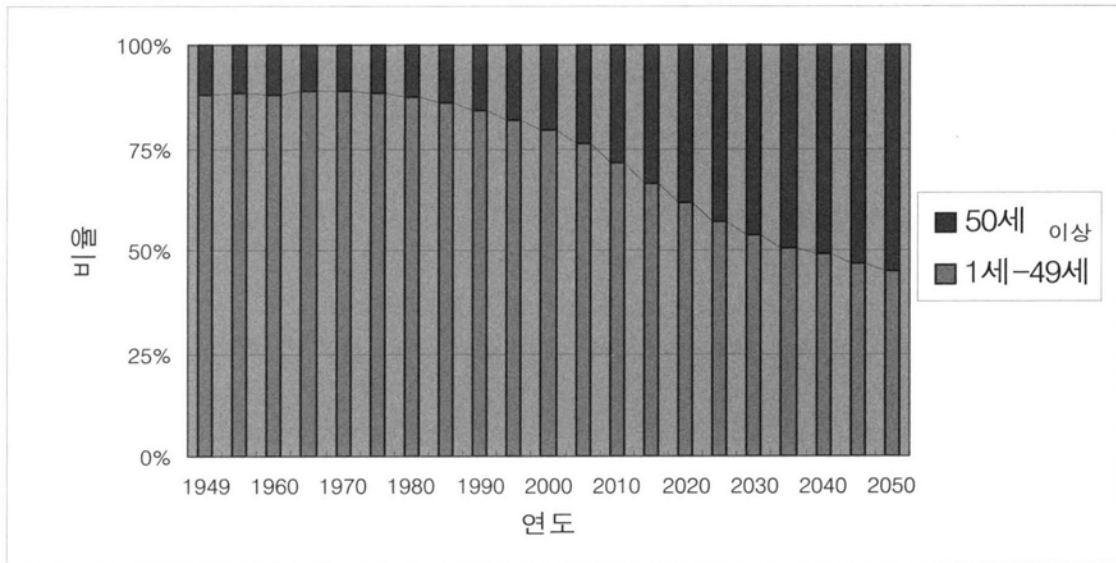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OECD는 정년을 70세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李瀾)은 이미 당시의 연령과 벼슬 자리의 수 등을 고려하여 70세에 정년을 맞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평균수명이 40도 채 안 되던 시절의 얘기다. 피터 드러커(2002)는 미국 정부가 공적연금제도를 채택한 1936년 당시 연금수령연령으로 잡은 65세를 당시의 평균연령과 현재의 평균연령을 비교하여 계산한 79세를 정년 시기로 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의 김용익 전 위원장은 2004년 12월 17일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75세를 ‘노동정년’으로 조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어렵사리 재조정된 정년 시기는 필연적으로 불합리한 시기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년과 은퇴의 개념은 대단히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긴 진화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위적인 제도일 뿐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은퇴하지 않았다. 큰 발을 내다 힘에 부치면 작은 텃밭을 매고, 나중에 그것도 힘들면 방 안에서 새끼를 꼬거나 길쌈을 매다 돌아가셨다. 은퇴와 정년은 근대 전문직업사회의 산물이다. 나는 아직도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도 있고, 건강도 받쳐주는데 사회가 날더러 모든 걸 포기하고 뒷방노인이 되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분히 인권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퇴란 없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일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정년을 재조정하느라 소모적인 투쟁을 불리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사오정’과 ‘오륙도’의 추세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하려 한다. 번식기로 규정되는 제1인생과 번식후기의 제2인생을 철저히 분리하여 살자는 제안이다. ‘두 인생 체제’에서는 제1인생의 직업을 제2인생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세를 전후하여 제1인생의 직업에서 은퇴하고 다시 제2인생으로 뛰어들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이미 오래 전부터 50세를 회원자격연령으로 설정해 놓고 50세 생일에 맞춰 협회가입신청서를 받는다. 사회구조 자체를 그에 맞도록 변화시켜 모두가 당당하게 은퇴하고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제1인생의 직업으로부터 은퇴하고 또 다시 제2인생을 위한 직업에 뛰어들자고 하는 것은 사실 은퇴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들 사전에 은퇴란 없는 걸로 하자는 얘기다.

인구학자들은 인구를 흔히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나는 우리나라 인구를 50세를 전후하여 번식기와 번식후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2004년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1949년부터 1980년경까지 우리나라는 50세 미만의 인구가 50세 이상의 인구의 7배 수준으로 대단히 안정적인 번식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며 50세 전후 인구의 비율이 변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 6.1대1, 1990년에 5.2대1, 2000년에 3.9대1을 거쳐 2005년 현재 3.2대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들어설 2020년경에는 그 비율이 1.6대1로 다섯 명 중 두 명은 번식기를 넘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매일 줄잡아 1500명 이상이 50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로 미루어보면 1936년과 1937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드디어 번식기 인구나 번식후기 인구가 같아지는 상당히 기형적인 사회가 된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생물이기를 포기한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 3> 우리나라 50세 전후의 인구 변화 추이



50세 이후의 제2인생을 엉겨주춤 첫 인생에 걸쳐 사는 삶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다. 조만간 인구의 절반이 살게 되는 제2인생이 더 이상 잉여인생이 아니라堂堂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여생’이란 말보다는 ‘후반생(後半生)’이란 표현이 조금 낫기는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후반생이란 말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여전히 남은 인생이라는 여운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나는 후반생을 새로운 인생 즉 ‘제2인생’이라고 부른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제1인생을 ‘번식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2인생은 ‘환원인생(還元人生)’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황혼의 여생이 아니라 천도교에서 말하는 대로 우주의 성령 속의 영적 실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의미 있는 환원 과정을 보내고 싶어 한다. 제1인생이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를 시기라면 제2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제1인생 세대를 ‘오름 세대’ 그리고 제2인생 세대를 ‘내림 세대’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2001) 교수는 노인 세대를 아예 ‘신세대(new generation)’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구본형(2004)은 공자에게 ‘불혹의 나이’였던 40대가 2500년이 지난 오늘에는 ‘유혹의 나이’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가 말하는 유혹은 위험하고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도 지닌다.

번식도 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언뜻 보아 전혀 적응적이지 않아 보인다. 고래나 영장류 중에도 번식기가 지난 후 한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개체들이 있긴 하지만(어스태드 2005), 우리 인간처럼 번식을 멈추고도 몇 십년을 더 사는 동물은 자연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참으로 별난 동물이다. 생물이라면 모름지기 번식을 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건만,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산

아제한을 하고 있다. 35억년 생명의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출산율을 낮추는 생물은 일찍이 없었다. 현대생물학적 용어로 다시 설명하면, 생물은 무생물과 달리 자신의 DNA를 보다 많이 전파하기 위하여 DNA에 의해 만들어진 ‘생존기계’에 불과한데(도킨스, 2001) 인간은 그 기본 ‘임무’마저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물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동물들에서 번식이 끝남과 동시에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조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번식이 끝난 개체가 살아 있는 것은 그리 적응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번식수명보다 평균수명이 이렇게 길게 진화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와서 훨씬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예전이라고 전혀 없었던 현상은 아니다. 화석 증거를 보더라도 그 옛날 석기시대에도 드물긴 해도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장수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는 다른 동물에는 없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진화한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 도지사는 "여성이 생식 능력을 잃고도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할머니는 문명이 가져온 것 중 가장 유해한 것"이라는 망언을 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이다. 나는 오히려 할머니의 역할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늘 막강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이란 워낙 여자들보다 수명도 짧고 대부분 전쟁이나 사냥 중에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어느 인류 집단이고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은 거의 예외 없이 최고 연장자인 할머니 몫이었다.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족장의 상담역을 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임금이 대비나 대왕대비를 알현하여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고 윤허를 받았다. 조선일보에 오랜 세월 ‘이큐태 코너’를 쓰다 최근에 작고한 이규태 선생은 할머니를 "조상대대로 시행착오 끝에 잔존한 가장 알맞은 생활문화만을 한 몸에 체질화한 지혜 덩어리"라고 일컫는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젊은이들의 세상이라지만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명한 여성 고령자를 가진 인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유리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적어도 그 여성 고령자가 축 내는 음식의 양보다는 훨씬 더 큰 지식의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생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그 동안 보다 확실한 진화적 근거를 찾아 다녔다. 드디어 지난 2002년 영국 런던대학 연구진에 의해 할머니의 존재가 유아 사망률을 절반이나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에는 특히 외할머니의 영향이 대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950~1974년 아프리카 잠비아의 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외할머니가 없는 가족의 사망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월 11일자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할머니가 있는 가족에서는 자녀들이 더 빨리 결혼했고 손자 손녀들의 태아도 짧았으며 그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19세기 핀란드와 캐나다에 살았던 2800명의 여성들의 가족사를 조사한 결과 환경 이후의 여성들은 10년에 평균 두 명의 손자들을 더 돌본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가 이처럼 장수하며 자손을 번창시키는 효과는 그 딸이 환경을 맞은 다음부터는 급격히 떨어졌다 (Ladhenpera et al., 2004).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캐스퍼리(Rachel Caspari)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상희(Sang-Hee Lee)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사회의 고령화는 적어도 3만년 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이들은 4종의 근대인류 화석들의 치아 마모의 정도를 분석

하여 다른 영장류들에 비해 인류는 확실하게 수명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이 분석한 4종의 인류 모두에서 이 같은 인구 고령화 현상은 고루 발견되었지만 특별히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크로마뇽인은 함께 살던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무려 다섯 배의 고령자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그와 함께 전체 인구의 규모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3만년 전 현생 인류는 다른 영장류나 인류에 비해 두드러지게 수명이 길어지며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지만 손자들을 돌보며 자손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번식후세대가 급증한 시기는 또한 인간이 동굴 벽화를 그리고 장신구를 사용하며 장례 의식을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번식기가 지난 후에도 장수하게 된 ‘고령 세대’가 인류의 문화 발달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Caspari and Lee, 2004).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번식후기는 결코 부담만 주는 잉여시기가 아니었다. 노인들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축내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병과 노쇠로 인한 의존도 때문일 것이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가끔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고려장도 드릴 밥 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약한 그들을 돌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 머지않아 60대는 말할 나위도 없고 70대와 80대도 건강상태나 의욕에서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국민 5,944명을 대상으로 국민체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2월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청소년들과 비슷한 체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력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 드러커(2002a)는 미래 사회를 한 마디로 지식 사회라고 규정했다. 미래 사회는 더 이상 근육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넓은 경험을 하며 온갖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온 구성원들을 모두 일터에서 몰아내는 일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가는 깊게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다. 게다가 그들이 건강 상의 문제로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면 모를까 미래 사회의 ‘노인’은 결코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노인이 아니다. 사회는 자꾸만 늙어가는데 우리는 철없이 젊음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제2인생의 재원이 대부분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체제를 유지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이다. 물론 제2인생을 대비하여 제1인생 기간 중에 저축을 장려해야 하지만, 제2인생에서도 기본적으로 벌어서 쓰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드러커는 미래 지식사회에서는 크게 보아 60세 이하와 그 이상의 두 종류의 노동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는 50세를 기점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생물학적인 예측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이 두 노동력은 수요와 행동방식,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제2인생의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제1인생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2인생을 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은퇴자들 즉 제2인생의 재취업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004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거의 30%대를 유지했는데 2003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섰다. 2003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28.7%로 2002년의 30.7%에 비해 2.0%p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참가율은 23.0%에서 21.5%로 1.5%p 감소한 데 비해 남성은 42.7%에서 39.8%로 2.9%p 감소하여 여성에 비해 불황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을 연장하여 고령자들을 보다 많이 노동인구에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고령 인구를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경험이 힘이다(Experience Works)’는 이름의 미국 중년을 위한 재취업 전문 비영리 단체의 안드레아 J. 우튼(Andrea J. Wooten) 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은퇴자들의 재취업은 사회통합은 물론이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은퇴자 대책에 대해 시혜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은퇴자들도 자신의 재취업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구걸 심리가 아니라 떳떳이 자긍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0년 내지 15년 후면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령자들이라도 고용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 은퇴자협회(KARP)의 주명룡 회장은 직장에서 더도 말고 10년만 굴욕이 되더라도 참고 버티면 된다는 이른바 ‘진드기 작전론’을 설교하고 있다.

우튼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은퇴자 단체는 1965년 설립되어 매년 12만5천 여명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국의 은퇴자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그리고 ‘받는 자’의 입장에서 ‘주는 자’의 위치로 변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제2인생에서는 국가로부터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노인을 더 이상 가족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당연히 국가가 돌봐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밥상을 받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제2인생에서는 더 적게 먹고 몸도 더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다.

미국에는 요즘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세대’라는 뜻으로 ‘2Y2R(too young to retire)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나 사회가 정해준 정년을 거부하고 스스로 은퇴 시기를 결정하며 은퇴 후의 삶도 새롭게 창조하는 이른바 ‘신노인 세대’를 말한다. 그들은 "한번 추수를 했다고 해서 다시 추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데 두려움도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은퇴란 젊은 시절 돈을 버느라 빼앗겼던 삶의 의미와 여유를 되찾는 기회일 뿐이다. 비아그라까지 챙겨 삶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평생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산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연연해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삶의 르네상스’를 즐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맞아 죽을 얘기일지 모르지만 ‘효’는 애당초 전혀 생물학적이지만 못한 개념이다. 자연계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 어느 동물에서도 효는 찾아볼 수 없다. 보다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 데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효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인류 집단 모두에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이다. 어떤 형태로든 진화적인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눈에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 권력구조에 도전할 염려가 적은 사람으로 비춰져 일찍 제거되지 않아 인간 사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극한 효의 진화는 이해하기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개미 세계에서는 가장 늙은 개체들부터

전쟁에 나간다. 비정하기 짝이 없지만 철저하게 효율을 중시하는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라 했다.

제1인생에서 돈을 번 사람이 늙어서도 계속 재산을 불려가는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제2인생에서는 번 돈을 편안히 다 쓰고 세상을 떠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시중은행에서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역(逆)모기지’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모든 경제활동을 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여유재산은 없어도 집은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 노인들은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매달 대출 받아 쓴 다음 만기에 즈음하여 필요하면 집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집을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쓰고 갈 수 있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다음에 가 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미 풍요로운 사람들이 제2인생에서도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제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2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게 갖되 충만하게 살고 욕구를 최대한 줄이는 데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던 스코트와 헬렌 니어링의 삶(니어링, 1997)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제2인생을 위해 제1인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제2인생에서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삶을 살 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소유의 종말’(리프킨, 2001)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내림 세대’를 위한 대학

언젠가 내가 여교장선생님들의 모임에서 고령화-저출산 강의를 했을 때의 일이었다. 내가 강의가 끝난 다음 논평을 하시기로 하신 것 퇴임하신 한 여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던 중 나는 나도 모르게 크게 박수를 치고 말았다. 그 선생님은 퇴임하시자마자 동네 아파트촌 부녀회 불링 동우회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시며 노는 것도 퇴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퇴임한 교장 선생님이 동우회에 참여하시면 우선 대단히 반가워 하지만 불링 실력이 수준 미달이면 이내 눈총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퇴임 거의 10년 전부터 꾸준히 불링 실력을 쌓아 현재 동우회에서 중상위권 실력을 발휘하며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고 계신다고 하셨다.

제2인생 즉 내림인생을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확실한 소일거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마냥 길어지는 후반생을 버텨내기 어려워진다. 은퇴하면 집에서 손주들이나 돌보겠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그 긴 여생을 채울 수 없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기껏해야 10년 남짓이면 퇴임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에 퇴임하고 80년 이상을 사는 지금 30여 년의 내림인생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다못해 손주를 보는 방법도 공부를 해서 할 일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20년 남짓의 직업생활을 위해 그 끔찍한 입시지옥을 뚫고

살아온 우리가 내림 인생 30년을 위해서 아무런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나는 이르면 이룰수록 좋지만 적어도 4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하여 내림인생을 위한 공부를 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이 끝난 다음 여러 형태의 공부모임 또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교육마저 사교육의 손아귀에 뺏길 수는 없다. 아이들과 부모 모두 사교육지를 지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계는 그야말로 거덜나고 말 것이다.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대단히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87개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향후 5년간 8개의 국립대와 79개의 사립대가 통폐합 과정을 거쳐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에도 대학들의 미충원율이 11.7%에 이르는 현실과 심각한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이 방안은 지극히 당연한 조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대학들에게 문을 닫는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제안하는 두 인생 체제에서는 어쩌면 대학의 수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피터 드러커(2002)는 지식사회에서 교육이란 끝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가 진정한 지식사회라면 지식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림인생을 위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무보수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라도 배워서 제대로 할 것을 권한다.

전반적인 인성 교육과 제1인생의 직업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이른바 정규교육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림인생을 준비하는 중년 학생들을 위한 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또는 지금 이미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 통폐합될 처지에 있는 국립대학 중 어느 대학이 출선하여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으로 탈바꿈하면 뒤따를 대학들이 많을 것이다. 우선 국민의 대다수를 지식기술자로 만들기 위한 정규교육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들의 근로생활 도중에 그들의 지식을 최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많은 지식기술자들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내림인생마저 사설학원에서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비록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이 같은 특성화를 꾀하는 대학에도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림인생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상당 부분을 사이버 공간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림인생이라고 해서 생산적인 직업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두뇌의 노쇠나 신체 기능의 감퇴를 무시한 채 나노과학이나 순발력을 요구하는 운동 종목에 재도전하는 중년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문 중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 나는 법학, 신학은 물론, 문학이나 문화비평학 등 많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도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당당한 대학이어야 한다. 나는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 마련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이 앞으로 상당한 변신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한 소일거리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내림인생을 위한 대학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최소한의 법정 기준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해준 까닭에 우리나라에 이처럼 기형적으로 대학이 많아진 것을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대학이 많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경영을 기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2004년 현재 81.3%)이 미국(63.3%)이나 일본(49.1%)에 비해 높은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교육만 시킬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실한 대학들은 이 기회에 당연히 통폐합되어야 하겠지만 제2인생 교육을 위하여 특성화하는 대학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대학가라고 한다. 대학에 얼마간의 기부금을 내거나 정기적으로 납입금을 내면서 젊음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비합리적인 목가적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은퇴하면 전원에는 가서 살고 싶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체력이 뒷받침해주고 남이 날 찾아와줄 때 전원에는 파묻힐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날 찾지 않고 기력이 쇠잔할 때에는 전원생활은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날 찾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 다닐 곳이 많은 문화중심지에서 살아야 한다. 대학은 이런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관이다.

결어—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철저하게!

미국 노인학협회 존 헨드릭스 회장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가히 혁명적(almost revolutionary)"이라고 평가했다. 혁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가 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갈등 때문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속도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해질 나라는 없을 것이다. 갈등은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령화의 초기에 벌써 갈등이 이 정도라면 과연 얼마나 극심해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책이 나올 확률은 그만큼 더 높다. 필요는 진정 발명의 어머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고 배려하여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녹이고 화합을 가로막는 온갖 제도적, 문화적 여건들을 차례로 걷어내야 한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개혁은 그저 목청만 높이는 선동적 개혁보다 훨씬 강하다.

예전 세대들에 비해 몸은 훨씬 건강한데 사회로부터 강제로 밀려나는 세상이다. 억지로 주어진 '뒷방노인'의 역할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민족 특유의 '체념의 미학'에 기대어 그러저럭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뒷방노인으로 살아갈 기간이 '사회인'으로 사는 기간 못지않게 길어졌다.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일찌감치 내림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진다.

제1인생 사람들이 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제2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다. 물론 두 인생이 일의 성질에 따라 칼로 베듯 정확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제1인생에서 하던 일을 제2인생에서도 그런대로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나 예술가들은 50세를 전후하여 구태여 붓을 쥐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2인생을 새롭게 준비하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이 같은 새 개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연히 정년 조정 등에 헛되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우리 사전에는 ‘은퇴’ 또는 ‘정년’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하자. 모두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 변신하며 사는 것이다. 변신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을 까닭은 정말 없다. 변신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도 이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찍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데 엉거주춤 땀절이나 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그런 관점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정부가 현실성이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를 정부 혼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각자가 적극적인 변신을 꾀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향조정식(top-down approach)보다 상향조정식(bottom-up approach)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고령화 문제의 한복판에는 넘어야 할 높은 갈등의 언덕이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보다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있다. 2002년 4월 8일자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지적했고 2005년 1월 OECD의 ‘고령화와 고용정책’에 관한 보고서도 밝힌 대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2020년까지는 다른 회원국가들보다 경제활동인구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당분간은 노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인구 고령화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이용하면 이미 때를 놓쳐버린 선진국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앞으로 10년은 그야말로 금보다도 더 소중한 시기다. 헛된 이념투쟁과 부질없는 마녀사냥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본형. 2004. 「나 구본형의 변화 이야기」. 휴머니스트.
- 니어링(H. Nearing). 1997.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석태 역. 보리.
- 도킨스(R. Dawkins). 2001.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 역. 을유문화사 (2001)].
- 드러커(P. F. Drucker). 2002a. 「피터 드러커의 지식경영」. 이재규 역. 한경비피.
- 드러커(P. F. Drucker). 2002b. 「Next Society」. 이재규 역. 한국경제신문.
- 랄(V. Lal). 2005. 「힌두교」. 박지숙 역. 김영사.
- 리프킨(J. Rifkin). 2001. 「소유의 종말」. 이희재 역. 민음사.
- 어스타드(S. N. Austad). 2005. 「인간은 왜 늙는가」. 최재천.김태원 역. 궁리.
- 새들러(W. Sadler). 2006.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김경숙 역. 사이.
- 장경섭. 2001. "압축성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

- 화」. 13(1): 1-29.
- 존스(S. Jones). 2003. 「자연의 유일한 실수, 남자」. 이충호 역. 예지.
- 최재천. 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 사회」. 삼성경제연구소.
- Caspari, R. and S.-H. Lee. 2004. "From the Cover: Old age becomes common late in human evolution". *PNAS* 101:10895-10900.
- Ladhenpera, M., V. Lummaa, S. Helle, M. Tremblay, and A. F. Russell. 2004. "Fitness benefits of prongled post-reproductive lifespan in women". *Nature* 428:178-181.
-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노년의 이미지와 정체성

한 경 혜

(서울대 아동가족부 교수)

여 백

노년의 이미지와 정체성

한 경 혜(서울대 아동가족부 교수)

I. 들어가는 글

‘성공적 노화’는 최근 서구의 노인문화를 주도해가는 화두이다. 소위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의 주된 패러다임으로 ‘성공적 노화’모델이 제시되면서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이 제목 하에 많은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개최되는 등, 노년학 연구 분야의 청사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과 함께 성공적 노화 획득을 위한 처방전 류의 책이 급증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주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제 ‘성공적 노화’는 노년의 이미지와 정체성 담론의 주된 테마로 자리 잡아가면서 노인들의 일상의 구조와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년기의 ‘상실, 저하’에 초점을 맞춰온 과거의 패러다임과 비교해 볼 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을 없애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학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대중적 호응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극히 최근 들어 미국노년 학계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뚜렷이 합의 되지 않은 채 개념정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공적 노화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성과 가치개입성, 모델이 간과하고 있는 노년기의 현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유포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등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식 노화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경혜(2000)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 신노년층 문화의 특징과 미국식 성공적 노화개념의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성공적 노화모델이 노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서구식의 성공적 노화를 뒷받침할 구조적, 사회정책적 준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을 반영하는 신노년 이미지가 자리잡으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서구에 비하여 더욱 심각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내의 노년학계에서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소개되고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 문제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이러한 노화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성찰 없이 진행되면서, 실증연구의 숫적 증가가 이루어지

1) 국내에서 발표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90년대 중후반에 심리학계를 통해 주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Baltes와 Baltes(1990)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처음 소개되었다(윤진, 1995; 김영선·윤진, 1997; 안지연·김애순·한광희, 1998), 반면 2000년대에는 주로 미국의 노년학분야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의 노년학연구들을 통해 Rowe와 Kahn(1987)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성공적 노화모델이 소개되고 있다.

고 성공적 노화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한경혜(2000)의 시론적 논의 외에는 성공적 노화모델이 노인의 삶에 어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²⁾.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내 노년학 분야 연구와 대중매체를 통해 성공적 노화모델과 신노년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러한 담론의 확산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는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와 최근 10년간 주요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실린 노인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히 성공적 노화 모델을 둘러싼 비판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성공적 노화 모델을 둘러싼 비판적 논의³⁾

성공적 노화의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최근에 이 개념이 크게 부각된 것은 미국 맥아더 재단이 '성공적 노화'라는 타이틀로 묶여지는 일련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기존의 노년학은 노화의 병리학적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력해온 반면, Rowe와 Kahn은 질환이 없는 상태를 다시 '보통의 노화'(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로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통의 노화는 특별한 질환이나 기능장애는 없지만 연령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하강적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적 세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날을 보내는 노년의 모습이다. 반면에 성공적 노화는 우리가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겨오던 이런 일반적 노화를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개념화한 것이다.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요소로 1)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low risk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2)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3)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통하여 삶에 대한 능동적 관여(active engagement with life)를 유지하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식습관, 운동 등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과 자기개발, 활발한 사회적 참여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는 생활유형이라고 본다. 이들은 아무리 노령이라도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면,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보통의 노화에서 최적의 건강과 활력의 상태인 성공적 노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성공적 노화가 '개인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관점은 생에 대한 통제성(mastery)과 자기효능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개인주의적, 성취지향적 문화에 뿌리를 둔 매우 미국적 시각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인, 노화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계의 이러한 침묵은 최근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학계의 뜨거운 논쟁과 대비된다.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과 관련제도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건강가정'의 개념과 그 기저에 있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다. 여성계에서는 '건강'의 개념이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가치개입적임을 지적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특정한 가족의 모습을 이상적 가족의 표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따라서 개인과 가족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담론 역시 이와 유사한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노년학계에서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3) 여기에서 소개되는 논의는 한경혜(2000)의 내용에서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을 없애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노인기의 '상실, 저하'에 초점을 맞추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비하여 환영할만한 대안적 관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성공적 노화 개념이 대중매체에 소개되고 일상용어화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스테레오 타입을 창출해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노인을 유형화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선 너무나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marginalize)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의 세 요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노인들, 이들 다수의 '보통' 노화 노인들은 '실패'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노화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 측면의 영향을 간과한 채, 일차적 책임을 개인에게 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생애과정 및 노화의 과정은 각 개인이 속한 구조적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적 건강도 계층에 뚜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를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취로 보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모든 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원과 기회, 동기에 균등하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성공은 개인의 성취이며 실패도 개인의 잘못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루지 못한 노인은 자기관리를 못한, 자신의 노후에 대해 책임 있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된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노화과정에 대한 논의의 지나친 미시화(over-microfication)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노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상실을 막고 지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노화과정에서의 상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상실에 대한 적응과정 자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늙는가'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Balts(1993)가 지적 한대로 노화는 '상실과 획득'이 공존하는 과정이며, 어찌 보든 이 둘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 관계망의 크기 축소는 연령증가와 함께 사회관계의 동기가 변화함에 따른 노인들의 능동적 선택행동이라는 Cartensen(1991)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생각해 보자. 이 이론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실증적 검증이 되었는데, 사회관계의 수의 감소는 상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인이 선택한 적응적이고 건강한 노화과정의 측면임을 잘 보여준다. 상실, 저하, 축소를 막아야 하는 것으로만 조망하는 Rowe & Kahn의 모델은 문화적 상대성을 간과한 채 미국적인 관점과 이론에서 보는 노화를 보편적인(universal) 것으로 그려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의 논의와 연결되는 선상에서, 독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노년기 의존성에 대한 적절한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립성 또한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성은 허구이며, 많은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인간 존재와 인간의 생애과정은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것이고, 노년기의 의존성은 막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고, 또한 한없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의존성/지원간의 변증법은 집합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독립성 편향적인 성공적 노화 담론은 어느 시점에서는 의존성의 증가를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노년기의 삶의 현실과, 그 단계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롭고 성공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제한점은 소위 '제3의 시기(the third age)'와 대비되는 '제 4의 시기(the fourth age) 즉 초고령층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더욱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범주에 드는 노인의 수는 급감한다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의 노인인구집단도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성공적 노화 담론이 또 다른 억압이 되는 노인인구의 수가 결코 무시할 만한 크기가 아닐 것이다.

III. 국내의 성공적 노화 모델 관련 연구와 신노년 담론

앞에서 성공적 노화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연결하여 국내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노년학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의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모델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인들의 노화 유형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홍현방, 2002, 2003; 하정연·오윤자, 2003; 김미혜 외, 2005; 백지은·최혜경, 2005; 성혜영·조희선, 2005)와 한국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규명하는 연구(박경란·이영숙, 2002; 성혜영·유정현, 2002; 강인, 2003; 김미혜 외, 2004;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김미혜·신경립, 2005)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자아통합이나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척도를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노인들의 노화의 상태 또는 결과(outcome)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성공적 노화의 모델을 노인들이 도달해야 할 노화의 이상적인 표준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표준을 근거로 어떠한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노화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 '성공적 노화'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 자체가 노인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 노화모델이 제시하는 표준에 도달하기 어렵도록 하는 사회구조적 층위들이 노년기의 삶에 깊이 베어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 개념 자체의 모순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노인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노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성공적 노화요소의 결핍을 막아보자는 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들은 기존의 성공적 노화개념이 서구중심적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국문화에 적합한 성공적 노화모델을 개발하자는 의도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성공적 노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종합하고 범주화한 결과를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노인들의 인식은 서구의 성공적 노화모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습(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자율/자립성, 개인의 성장, 부부 및 자녀와의 유대 등)으로 귀결되고 있어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신노년문화의 담론(한경혜, 2000)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인식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구조적인 측면들을 간과한 채⁴⁾ 응답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요건으로 제시하

4) 이에 대한 증거는 특히 성공적 노화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박경란과 이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 노인들이 개인의 성장과 같이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또 다른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분류된 역할완수 차원에서 여성은 가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남성은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인식 자체가 성별화된 구조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고 각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노인들의 의식에서 부족한 부분(예를 들어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은 노인교육을 통해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하는 등 상당히 가치개입적이고 계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연구들은 위의 두 가지 연구방향을 유지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최근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공적 노화모델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성혜영과 유정현(2002)은 Rowe와 Kahn의 모델이 제시하는 노인상은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젊은이와 다를 바 없는 슈퍼노인(super elder)를 연상시키고, 노인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젊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비판적 논의를 소개하였다. 백지은과 최혜경(2005)도 서구의 성공적 노화의 지표들이 모든 노인들이 동일하게 달성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이상의 문제의식은 이론적 배경 차원에서 간략히 소개될 뿐 실제 연구과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노화모델의 서구중심성을 탈피하고 한국적 노화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다. 박수경과 문수경(2005)은 신체적 건강과 독립성, 인지적 기능을 강조하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심리적 임파워먼트⁵⁾로 재정의하여 신체장애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모델이 많은 노인들을 성공적 노화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주변화 할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성공적 노화모델에 장애 노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라는 점 외에 사회구조의 다양한 층위들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결과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 장애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의 패러다임 역시 신체장애 노인들 중에서 성공적 노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비교적 경증의 장애를 가진 노인이라는 제한된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신노년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이 지난 10년간 다룬 노인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90년대 중후반의 노인에 관한 기사는 노인 소외, 빈곤, 치매, 자살, 학대, 우울증 등의 ‘노인문제’를 다룬 기사와 함께 대체로 열악한 노인복지현실을 지적하는 기사가 기초를 이룬다. 이 시기에 간간히 만학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인물소개 기사가 등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노인문화’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가 소수 등장할 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2000년도 이후부터는 각 매체들이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편적인 노인복지를 표방하면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어진 노년’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후’의 삶과 노인문화에 대한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의 심층적 의미를 간과하고, 남녀의 인식 차이를 이들의 다른 요구로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를 위한 교육 내용에 이러한 욕구의 차이를 반영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5) 박수경과 문수경(2005)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자신과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려는 내적인 힘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들 연구에서 신체장애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힘으로 개념화하였다.

을 부각시키게 된다. 각 신문매체들에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노화’나 ‘생산적인 노년’에 대한 담론은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세대 노인에 대한 개별적 인물소개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인문화를 주도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각 신문사마다 “신노인”, “No老 세대”, “앙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 세대”⁶⁾, “애플(APPLE)족”⁷⁾ 등의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소개하고, 신세대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기획기사가 봇물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기사들의 패턴은 대체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인세대 변화와 새로운 노인문화를 소개하고, 기존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비판하며 새로운 노인문화 창출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노인문화와 ‘노후’에 대한 관심은 “즐겁고 행복한” 노년 또는 “아름다운” 노인이 되기 위한 비결, 노화를 막고 젊게 사는 비결과 같은 유의, 일종의 ‘노년생활 지침’을 제시하는 기사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문에 등장하는 신노년층은 일하는 노인, “کمدسا”, 자원봉사 노인, 만학도 또는 평생학습으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노인, 노익장을 과시하는 건강노인, 노인예술가 등으로 패턴화되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늙음을 거부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공적 노화모델의 노인상과 매우 닮아있다. 이들에 대한 수식어는 “젊은”, “나이를 잊은”, “아름다운” “제2의 (인생)” 등과 같이 젊음지향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노년층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테마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늙음에 대한 부정이다.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들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경우 “집에서 하는 일 없는” 보통 노인들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젊은이처럼 일하는” 노인, “젊은 감각”을 가진 노인들,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화를 동일하게 향유하는 노인들로 그려진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젊은 감각도 훈련과 재사회화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자주 접촉하며 젊은이 문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젊은이 따라잡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둘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다. 연령에 비하여 예외적인 건강을 자랑하는 노인을 소개하는 기사물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한 신체적 단련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노인의 건강 돌보기 방법에 대한 기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외모에 대한 관심에까지 확장된다. 셋째, 자원봉사를 통하여 남을 도우면서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보람을 찾는다. 독거노인 돕기, 청소년 선도, 장애인 돕기, 환경지킴이, 병원 등 단체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원봉사에 아주 고령노인까지도 참여하는 모습들이 주된 아이টেماً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정년 이후에도 “일”을 지속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개의치 않고 은퇴 후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노인들, 은퇴농장 일이나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히 최근에 올수록 고령화위기와 함께 ‘노인도 사회에 부담만 되지 말고 기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다섯째, 노인학교, 컴퓨터 배우기, 대학원 진학에서 댄스교습

6)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세대란 노령에도 경제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사는 50~80대의 신노년 세대를 일컫는다(한겨레신문, 2004. 6. 9.).

7) 애플(APPLE)족이란 활동적이고(Active) 자부심 강하고(Pride) 안정적으로(Peace) 고급문화(Luxury)를 즐기는 경제력(Economy)있는 노인층을 뜻하는 마케팅용어이다(조선일보, 2006. 5. 31.).

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움’에 대한 참여의 열정이다. “노인들의 인터넷 열풍”, “PC원로방 회원수의 계속적 증가”, “74세 할아버지 박사과정 입학” 등 노인들의 학습열풍이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여섯 째, 자녀 및 가족 중심의 삶으로부터 개인으로 삶의 구심점이 옮겨간다. 신노년층의 삶의 모습의 묘사에는 가족, 자녀는 별로 등장하지 않고, 독립성이나 자아실현이 중요한 가치로서 제시된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거나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자기 자신 또는 부부 둘만의 삶을 즐기는 노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면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구매력 있는 신노년층을 겨냥한 실버산업을 전망하거나 노후보장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 실버타운, 실버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기사에서 나타나는 신노년층은 국내의 연구에서 다뤄진 ‘성공적 노화’ 개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성공적 노화모델과 신노년층 문화의 테마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노인은 매우 ‘바쁜’ 노인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남을 돕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노인들은 바쁘다. “얼마나 바쁘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바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아플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는, 뒷방에 앉아 있는 노인이 아니라는 표현의 연장선에 있다.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삶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일 중심 윤리(work ethics)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은 현역에서 은퇴는 하였지만 무엇인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노인들에게 삶의 어떤 연속성을 부여한다. ‘바쁜 생활’은 또한 노화로부터의 방어기제의 성격을 가진다. 바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중년기의 삶’과 유사한 삶의 유형을 계속한다는 측면에서도 ‘늙는’ 것을 극복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바쁨’ 규범 확산에는 노년학자들도 한 몫을 하였다. ‘사회적 세계의 축소를 거부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노화’라고 보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생각해보자.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 노년학자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반면에 활동이론은 노년학의 주도적 관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활동이론에서 그려내는 성공적 노화는 Gubrium(1973)이 지적하였듯이 ‘외형적으로 바쁜 라이프스타일’이다. 건강에 부여하는 중요성, ‘바쁜 생활이 건강에 좋다’, ‘신체적 건강이 건강한 정신을 가져온다’는 믿음, ‘딱 짜인 생활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와 인성을 보여주는 훈장이다’라는 의식 등이 모여져 서구의 노인문화는 ‘바쁨’에 대한 수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우리 신노년층 문화도 유사한 모습이다.

성공적 노화모델과 신문매체의 신노년 담론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노인상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힘쓰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매일 꾸준히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재취업 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주로 다루는 ‘노후대비’에 관한 기사나 ‘노년기 생활지침’에 관한 기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경제, 건강, 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노년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노인과 관련된 기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빈곤, 자살, 소외, 요양보호 등의 ‘노인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최근까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치나 연구결과 등에 대한 보도에서 드러나는 ‘보통’ 노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외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노인집단은 신노인과 구노인으로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노년층에 대한 기사의 경우 평범한 노인들과 차별화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기사에서 드러나는 신노인과 구노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표 1> 신문매체 등장하는 노인의 이미지

신노인	구노인
부유함 · 윤택함	가난함
생산적 · 활동적	무기력 · 게으름
독립적	의존적
미래지향적	과거에 고착
젊고 건강	늙고 병들
적극적인 사회참여, 정치적 주도권	소외, 수동적

이처럼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이분화된 이미지는 성공적 노화모델에서 노인들을 ‘성공적 노화’ 집단과 성공적 노화를 성취하지 못한 ‘보통의 노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문제는 성공적 노화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인집단 분화의 결정적인 요소로 개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신노년 문화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제 노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환경을 적절히 통제하면 성공적 노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성공적 노화연구의 기조이다. 이처럼 신노인과 구노인의 구도에 상응하는 노년의 행·불행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노인집단의 다양한 층위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한 채 이미 주변화된 많은 노인들을 더욱 타자화시키고 또 다시 주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성공적 노화 연구와 신노년 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노화에 필연적 과정인 상실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한다는 점이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나이를 잊고 젊게 살아가는 노인들”에 관한 기사는 ‘젊음의 끝없는 연장’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노화과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약화와 죽음의 과정을 은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진웅, 2000; 한경혜, 2000). 국내의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들 역시 여러 측면의 상실을 막고 지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노화과정에서의 상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고, 따라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상실에 대한 적응과정 자체’가 ‘얼마나 잘 늙는가’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극히 부족하다. 서구의 성공적 노화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이러한 모델에 근거한 노년의 이상적인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년기 삶에 대한 불완전한 문화적 각본만을 담고 있는 노년담론을 유포하고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는말

성취 지향적 문화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의 노년담론이 국내 노년학 분야 및 대중매체에 비판적 성찰 없이 수입이 되면서, 현 노인세대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은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성공적 노화 연구 및 신노년 담론이 전개되는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노년, 노화에 대한 부정이 성공적 노화의 주요 테마를 이루고 있으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늙어감을 연기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70대에도 50대같은 노인’이 성공적 노화의 표본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화, 연령에 따른 변화와 상실의 불가피성에 대한 부정은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 기간을 열심히 살며, 감사하고, 생에 대한 궁극적 성찰을 방해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치 중년기의 연장이 성공적 노화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적 추세에 대한 반동으로, 생은 시작, 중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자는 움직임이 서구에서도 일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식적 노화 (conscious aging)’라고 부르는 이 운동은 노년학자, 의사, 심리학자, 철학자들이 주동이 되어 ‘황금기’는 수사에 묻혀버린 노화의 실체를 알고, 받아들이기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년기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노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다.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생의 3/2를 성공적으로 살아온 세대로 일컬어진다. 이들은 나머지 3/1의 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년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별고, 쓰기 바빴던’ 생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년기 생의 의미 추구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도, 서구식(정확히 말하면 미국식) 성공적 노화 모델과 담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보다, 그에 내재된 제한점과 비판점에 대한 성찰과 다양한 대안적 담론의 모색이 노년학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윤진(1995).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한국노인 대상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안지연·김애순·한광희(199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년집단과 중·노년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발표논문집.
- 나항진(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131-163.
-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22(2), 75-93.
-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하정연·오윤자(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31-144.
- 홍현방·최혜경(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홍현방(2003).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대전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1, 49-72.

-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23(2), 1-10.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25(2), 35-52.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박수경·문수경(200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인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77-89.
-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성혜영·조희선(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원형중(2005).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3), 79-96.
- 정진웅(2003). 노년의 꿈, 타자화된 노년과 공상적 노년담론을 넘어서. 당대비평, 22, 319-329.
- 한경혜(2000).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Holstein, M. B. & Minkler, M. (2003).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787-796.
- Rowe, J.W. & R.H.Kahn.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노년의 이미지

김 선 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여 백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노년의 이미지

김 선 영(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4%를 차지 고령사회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초 구한말시대(1905-1910)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22.61세 여성은 24.44세였고, 1945-1950년에도 남성의 평균 수명은 50세(남성: 45.55, 여성: 50.69세)가 안되었다.(김정근, 1984) 지난 1971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62.3세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2000년 현재 평균수명은 75.9세이다. 또한 산업화가 시작된 후인 197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3.5%였다(보건사회통계연보, 1994)

이런 인구학적인 상황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을 불러일으킨다. 논의의 중심주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 부양의 부담과 관련하여 그리고 노동, 복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즉 부양과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노인과 관련된 것이다.

산업사회와 현대화와 더불어 노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못되었다. 현대화에 의한 노인의 지위하락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노동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현대화의 정도가 낮은 농경사회의 노인들이 현대화의 정도가 높은 산업사회의 노인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⁸⁾ 코길(Cowgill D.O.)은 현대화의 과정에서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 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이유로 노인 지위가 하락하였다고 보았다. 먼저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은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대가족제도가 붕괴되었고, 핵가족제도로의 전환은 노인들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성인 자녀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교육의 대중화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켰는데, 교육의 대중화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시켜 개인주의 사상의 가져왔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셋째,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농경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토지는 노인들의 소유로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현대화된 산업구조 내에서는 노동 능력의 감소와 불리한 경쟁력은 소득의 감소를 의미함으로써 노후생활은 경제적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넷째, 현대의료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노인의

8) 노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현대화 이론의 주장이다.

지위를 하락시켰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더 가난하고 더 고독하고 더 오래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성호, 1995)

노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실지로 농경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가 산업사회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비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노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고령화사회라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노인은 늙고, 병들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양과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노인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항상 부양과 복지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어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는 노인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노인에 대한 이미지- 즉 노인은 늙고, 병들어, 부담이 되는 존재로 가족과 사회의 자원을 낭비 또는 고갈시키는 존재-를 보다 긍정적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을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존재로 계속 인식하는 경우 노인정책은 시혜적인 차원을 벗어날 수 없으며, 노인들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노인 스스로 갖게 되는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를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고, 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게 만들어 결국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며 노인 개인들의 삶의 질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노인의 정체성을 구성해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역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광고라고 보고 텔레비전 광고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정형화된 이미지 즉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해내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는 광고의 본래 목적인 상품의 판매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 및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광고라는 특성상 반복 노출된 내용들은 우리의 삶을 정형화하는데, 특히 매체의 특성상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그 이미지는 더욱 고착화된다. 따라서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묘사된 노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은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의 노인층은 거대한 사회적 자원으로 변모되어야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가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앞에 두고 노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며, 노인의 정체성 구성과 관련하여 광고가 창출하는 노인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그러한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A. 광고와 이데올로기

광고는 구조화된 방식의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도의 상징체계로 구조화된 광고텍스트의 모든 기호들은 텍스트 내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광고의 부호화 과정은 어떤 기호형태들의 포섭과 배제를 야기하며 제한되고 편향된 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Hall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방식, 또는 주어진 표상의 체계가 자연화되도록 이바지하는 방식이라고 볼 때 광고는 이데올로기적이다. 광고 텍스트 속에 표현된 상징들의 과잉은 우리 사회에서의 지배적 담론을 유추하는데 유용하다.

광고를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라고 하지만 데이비드 포터(David M. Potter)⁹⁾는 광고의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생활을 인도하는 소수의 ‘사회통제수단’ 중의 하나이며,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을 지닌 사회제도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광고는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비의도된 결과’(William Leiss, 1986)를 갖게 되는데, 이처럼 광고의 ‘비의도된 결과’는 광고에서 이루어지는 은유와 환유의 방식을 통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행복감, 성별 역할, 스테레오 타입, 부의 사용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한다. 광고는 경제적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상품관계를 보편적 관계로 인식시키고, 사회적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함으로써 광고는 사회와 문화에 내재된 관념이나 가치를 선택하여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단순한 상품의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한 사회내의 의식, 가치, 이념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며, 또한 단순한 반영을 넘어 의식, 가치, 이념을 창출하는 문화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성영신 외, 1991)

브라이언(Wilson Bryan, 1989)에 의하면 광고는 무의식중에 지각되며 일단 기억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영속적인 기억으로 변화하며 사람들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텔레비전 광고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의미를 담아내기 위하여 은유와 환유적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일상의 은유들은 은유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해독되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눈에 띄이지도 않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회적 상식이나 통념의 일부가 되고, 당연한 보편적 진리가 된다. 이 같은 상식들은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항상 자의적인 사회적인 산물이며 문화적 가치에 따른 선택의 반영이고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 개입된다. 결국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텔레비전 광고는 그 은유와 환유의 선택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을 활용하고, 이들 광고를 통해서 다시 그와 같은 사회적 통념은 재생산된다.

광고는 우리에게 상품정보, 이미지, 자본주의 미덕을 전달하는 메시지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측정하는 기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광고가 누적되고 편재하면서 갖는 장기적인 효력은 현실을 혼동하는 효과¹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은 현실의 가정이 화목하고 이상적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된다.

9) 킴 라츨은 데이비드 포터를 현대사회에서 광고를 사회 제도라는 사고방식으로 명확하게 처음 다룬 사람으로 꼽고 있다.

이제 광고는 더 이상 현실을 복제(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현실을 능가하는 우상이 되어, 현실은 광고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광고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이미지는 결국 노인을 향한 사회적 태도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wayne & Greco, 1987)

텔레비전 광고에서 노인이 어떻게 묘사되어지는지는 광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가 만들어내는 노인 이미지로 인해 노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결국 광고에서 노인의 정형화(stereotype)된 묘사와 노인들의 왜곡된 이미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유발시켜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B. 선행연구

노년학(gerontology) 분야에서 미디어 분석을 통해 노인의 이미지 생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김지은, 2003; 이은미, 1990; 안옥희 외, 2002, 원영희·김미혜, 1999 등) 이들 연구에서는 TV,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노인과 노인의 특성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신체적 특성에 근거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은 주로 느리고, 정적이고, 아프고, 약한 존재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심리적 측면에서 고지식한 존재, 사회적 측면에서 소외되고, 한가한 존재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해 형성되어있는 고지식하고, 소외되고, 한가한 이미지는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장위주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연령차별주의가 젊음과 생산성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노년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황혼기로 평가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구성하는데 일조한 결과라고 보았다.

광고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다. 광고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뻔뻔스럽고, 건강하지 않으며, 재미없게 묘사되고 있다.(김상훈 외, 1997) 또 노인은 대부분 일하지 않는 상태로 집안에 있거나 집안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노인에 대한 정형화되고 고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하며 노인 스스로에게까지 내면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를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원영희와 김미혜(1997)의 광고와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는 노인층을 비롯한 일반층에게 영향을 주며 특히 노인층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노년기에 사회적 지위 약화와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들은 일반 세대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기반한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우리의 연구가 보다 최근의 연구에 모여져 있는 것과 비교해서 외국의 경우는 연구 시점이 좀더 앞서 있지만 결과는 유사하다. 대중매체에 묘사된 노인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Aronnff, 1976)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묘사된 노인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노인 40%와 여성노인 10%만이

10) 이를 보드리야르는 하이퍼리얼리티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며 하이퍼리얼은 모델이 현실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이 되면서 모델이 현실의 결정 요소가 된다고 본다.

성공적이고 행복하여 좋은 상태로 묘사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초기의 내용분석 연구에 의하면, 노인은 광고에 잘 등장하지 않으며, 뻔뻔스럽고, 건강하지 못하며, 재미없게 묘사되는 등 부정적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rris & Feinberg, 1977; Gantz 등, 1980; Langmeyer, 1983) 후속연구에서는 광고에서 노인이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점차 노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reco, 1988)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연구가 더 지배적이다. Festervand 와 Lumpkin(1985)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의 노인 묘사에 노인들은 뚜렷하게 나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한다.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의 광고가 노인을 실제대로 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광고가 노인들을 고독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노인들이 등장하는 광고는 대부분 의약품과 건강관련 제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미애, 리대룡 1999, 김미혜, 원영희 1999, 김미애 2001)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노인들은 광고에서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V, 신문 등의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노인과 노인의 특성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정형화(stereotyping)하며, 우리는 미디어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TV와 신문, 광고 등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가 사회 성원과 노인 스스로의 시각과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광고 분석

A.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텔레비전 광고를 대상으로 텍스트분석을 하였다. 광고는 수많은 기호가 서로 얹혀 있는 텍스트로 기호학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텍스트 분석에서 사용될 기호학은 광고가 보여주는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든 기호에서, 기의에 대한 기표의 관습적이고 자의적인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한다.

광고가 보여주는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이 내보낸 광고 중에서 모두 226개의 광고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광고 모델에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¹¹⁾이 최대한 1명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광고는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의 성격에 따라 1) 유명 연예인으로 연령대가 노인이라고 보아지는 경우, 2) 일반인 모델로 노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이 경우는 일반인 모델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지만 배경적 인물로서의 노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3) 외국 노인

11) 노인이라고 정해진 범주를 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누가 노인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선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노인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번 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으로 외모나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적 특징(모델의 실제 나이 등) 등 포괄적으로 노인으로 범주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등장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노인 이미지는 광고 모델로 나온 유명 연예인 자체가 노인이어서 드러나는 노인 이미지가 있고, 광고에서 노인 역할이 필요하여 일반인 모델이 광고에서 요구하는 노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거기서 드러나는 노인 이미지가 있다. 첫 번째 분류의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가 사회의 평균적인 노인 이미지보다 더 강력하여 그것 자체로 사회의 평균적인 노인 이미지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보다는 두번째 분류의 범주에 해당되는 광고에서의 노인이 개별적인 노인으로 인식되어 보다 보편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이리틀을 광고하는 김혜자는 분명 이제 노인이고 노인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광고에서의 노인 이미지는 김혜자가 가지고 있는 고상함이나 신뢰감보다 더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광고를 보며 이제 김혜자도 많이 늙었구나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서 노인이 되어가는 김혜자라는 인식이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사회의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노인 이미지는 광고에서 일반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노인의 모습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물론 개별적인 다양한 노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노인을 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이미지를 다양화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편견을 사회적으로 걷어내는데 본 연구가 의의를 두고 있는 점에서 비록 평균적인 노인 이미지는 아닐지라도 품위있고 신뢰감을 주는 개별 노인들의 이미지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광고로는 인사돌(이순재), AIG생명(양희은), 자이리틀(김혜자), 케토톱(고두심), 이가탄(송대관, 태진아), AIG 활기찬 노후보장(김도향, 현미), AIG 암보험(양희은), 해찬들 매주뜰(김수미), AIG 무배당 다보장 보험(하일성), 한국전력(최불암), 파파존스(히딩크)이 해당되고,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광고로는 늘푸른 오스카빌,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 농협, 천년약속 광고가 해당되었다¹²⁾. 세 번째 범주는 매일 도마슈노, 롯데리아, 야쿠르트, 미래에셋, KT 001 광고가 해당되어 총 20개의 광고가 광고 안에서 노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호분석을 위해 선정한 광고는 첫 번째 범주에서는 이가탄 광고를, 두 번째 범주에서는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을, 세 번째 광고에서는 외국인들만 나오는 광고로 매일 도마슈노 광고를 선택하였고,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같이 나오는 광고로 KT 001광고를 선택하여 총 4편의 광고를 텍스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개별적으로 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이가탄 광고를 선정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이 광고는 광고에 등장하는 광고모델의 이미지보다는 노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노인 이미지 형성에 보다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노인 이미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전체 사회의 노인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는 일반인을 모델로 하여 노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광고라고 하겠다. 이 광고들이 보여주는 노인 이미지는 사회전체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신화 속의 노인 이미지로, 그나마 좋은 이미지들을 떠올려본다면, 시골 고향의 고생하시지만 언제나 푸근하고 친근한 어머니나 무뚝뚝하고 굵은 주름이 패여 볼품없지만 속정 깊은 미소를 머금은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이다. AIG 무배당 실버보험의 광고가 이런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에너지절약 공익광고도 이 범주에 해당되지만 공익광고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공익광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상업 광고와 달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범주를 일반 노인의 이미지라는 의미에서의 분류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한국의 노인의 이미지와 서양의 노인 이미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인은 긍정적 이미지라고 할 때조차도 그리운 추억 속의 이미지나 사랑해야 할 존재로 그려지지, 활동적이고 여전히 젊고 건강하고 자신이 평생 해온 일에 대해 존경받는 전문가의 모습으로는 그려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의 광고에 등장하는 서양의 노인은 한결같이 노인의 이런 모습으로만 그려진다. 심각한 인종차별 현상이다. 서양노인의 모습으로만 그려진 매일 도마슈노의 경우와 서양노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등장하는 KT 001의 경우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 분류에 의해서 각 범주에서 하나씩 선정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속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호학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기호학 분석에서는 광고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수용하여 사회적 문맥 내에서 텍스트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려한다. 광고의 분석은 장면(sequence)을 영상 기표와 음성 기표로 구분하고 영상 기표를 다시 비언어적 기호와 언어적 기호로 구분하여 전체 광고의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 이미지가 촉발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분석한다. 각 장면의 분석은 크리스티안 메츠(Christian Metz, 1976)의 다섯 가지 채널인 모델의 이미지, 문자언어, 목소리, 음악, 음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B. 분석 결과

1. 이가탄 : 회화화되는 노인 이미지

광고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타겟으로 삼는 연령층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도록 하려는 광고 원래의 목적인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라는 경제적인 측면을 충실히 따르는 경우 그러하다. 젊은이들만이 즐기는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용품이 그러하며,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 광고가 광고의 대상 연령층이 정해지는 것들이다. 광고주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에 충실하여 광고에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광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상품의 대상 연령층의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의약품 광고들은 의도하지는 않지만 노인은 아픈 사람, 약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한다.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약이 필요해지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광고가 어떻게 이미지화하는가 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 광고에 반영된 측면이기도 하다. 여기서 분석하려는 이가탄의 광고는 사회가 노인에게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이미지를 생산하는지를 분석해보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광고는 광고 모델이 유명 연예인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이미지와 광고에서의 이미지가 분리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음악 장르라고 여겨지는 트로트 가수를 오랫동안 해 온 송대관(1946년생)과 태진아(1953생)는 실제로 외모에서 늙은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다. 더구나 지금처럼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는 50대 중반이나 60세를 갓 지

난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상대적인 이유로(광고에는 젊은 모델로 넘쳐나고 있다) 분명히 노인이다. 적어도 실제 나이 때문에 노인의 이미지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트로트 가수를 오래해 왔다는 것으로 노인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

광고는 두 사람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가탄(약)의 도움이다라는 광고의 본래 목적으로 읽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광고는 시작하자마자 빨간 천에 흰 붓글씨가 두드러진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 천 위에서는 천하 잇몸, 무적 잇몸이라는 글씨가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온다. 빨간 천(무대 커튼처럼 보이는)을 배경으로 송대관과 태진아 두 사람이 무대 위에 각자의 음식상을 앞에 놓고 마주보고 앉아 있다. 두사람 중에 좀더 젊은 태진아가 먼저 오이를 통째로 한 입 크게 깨물어 먹는 모습이 보이자, 이에 질세라 송대관은 오징어를 통째로 입에 물고서 찢어 먹는다. 태진아도 역시 오징어를 통째로 찢자 송대관은 놀란다. 그래서 송대관은 보다 더 심한 것으로 옥수수를 선택해 옥수수를 게걸스럽게 먹고, 상대에게 질세라 태진아도 옥수수를 게걸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가탄 덕이라는 말도 잊지않는다. 그리고 접시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고 꼬지에 끼여 있는 음식을 긴 꼬지 채로 들고 입에 쏙서 넣듯이 먹는 태진아의 모습과 송대관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된다.

노인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이 광고가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는 노인이 되면 잇몸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먹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에 기대어 노인들의 음식에 대한 게걸스러운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시절처럼 거침없이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오징어를 이빨로 찢고, 옥수수를 먹을 때 입밖으로 옥수수 알맹이가 튀어나오도록, 팔 길이만큼이나 긴 꼬지에 긴 음식을 입에 쏙서넣듯이 먹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는 노인들의 음식에 대한 갈증을 빌미로 노인들을 음식에 대해 탐욕스럽고, 음식 먹는 예의도 없는 모습으로 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노인을 회화화하고 있다.

또한 이 광고는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광고의 주고객이 되는 노인들이 이 광고를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하는 점이다. 물론 잇몸이 부실하고 이도 흔들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어본지도 오래되고 했으니 얼른 저 약을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광고가 알려주는 정보적 의미의 내용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즉 2차적 의미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음식을 마음놓고 한 번 먹어보고 싶은 욕구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게걸스러운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잇몸이 부실해서 맘껏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음식 앞에서 품위까지 잃어가면서 입에 음식을 쏙서넣는 이미지의 노인을 노인들의 입장에서 누가 반기겠는가. 광고의 주고객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것으로 우리사회가 노인에 가하는 폭력일 수 있다. 노인의 이미지를 회화화시키는 폭력인 측면이 보인다.

장면	1차적 의미화 과정			2차적 의미화 과정
	영상 기표		음성 기표	함축의미
	비언어적 기표	언어적 기표(자막)		
#1	흰 붓글씨의 글씨가 두드러지는 빨간	천하 잇몸		나이가 들면 잇몸 건강에

	친(무대 커터처럼 보이는)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무대 위에 각자의 음식상을 앞에 놓고 마주보고 앉아 있다.	무적 잇몸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2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먹는 모습(송대관)			나이든 사람들은 사과를 이렇게 먹기 힘들다.
#3	오이를 통째로 한 입 크게 깨물어 먹는 모습(태진아)			걱정 없이 음식을 먹고 싶다.
#4	오징어를 통째로 입에 물고서 찢어 먹는 모습(송대관)			튼튼한 이빨과 잇몸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5	오징어를 통째로 찢는다(태진아)		이가탄 덕 좀 보셨군(태진아)	오징어를 찢을 만큼 튼튼한 잇몸을 가졌다.
#6	상대방이 놀란다(송대관)		엉~(송대관)	
#7	옥수수를 게걸스럽게 먹는 모습(송대관)			나이든 사람들의 식탐
#8	상대에게 질세라 상대방도 옥수수를 게걸스럽게 먹는다(태진아)			식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샘도 있는 모습
#9	접시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고 꼬지에 끼여 있는 음식을 긴 꼬지 채로 들고 입에 쑤셔 넣듯이 먹는 모습(태진아)			식탐의 정도가 게걸스럽기까지 하다.
#10	송대관 얼굴 클로즈업		빠도 이가탄이란 말이지(송대관)	
#11	무대 폴 샷(처음 화면 배경과 동일) 팔을 앞으로 뻗어 서로 상대를 가르키며 일어선다. 뒷 배경의 자막이 선명하게 보인다.	친하 잇몸 무적 잇몸		
#12	전체 꽉찬 화면 안에 어금니와 잇몸이 클로즈업 자막이 나레이터의 설명에 따라 강조된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남자 나레이터)	
#13	흰 붓글씨가 씌어 있던 빨간 친이 아래로 떨어지고 배경에 상품인 이가탄 상품이 로고처럼 보이고, 송대관과 태진아는 각자의 손에 이가탄을 들고 등을 대고 서 있다.	잇몸 튼튼 이가탄!	놀라운 잇몸이군! 이가 튼튼 이가탄(“)	나이든 사람들이 잇몸이나 치아 걱정 없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약의 도움이 필요하다.

2. AIG 무배당 실버보험 :

우리사회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자녀관계이고, 특히 가족의 모습이 변해가면서부터는 ‘효’라는 것이 연상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AIG 무배당 실버보험의 광고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 즉 효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재로 광고를 구성하고 있다. 광고의 메시지는 노부모의 건강 걱정은 손쉽게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행간들의 함축적 의미들은 자식들은 노부모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며, 노인 건강은 골절, 화상, 장기 손상에서 치매까지 걱정되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보험 들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광고는 일반인처럼 보이는 노인이 모델을 한 광고로 여성 노인 이미지를 어떤 모습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지만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옷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궁상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시골집이지만 넓은 터에 자리 잡은 살림살이가 제법 탄탄해 보이는 경제력을 가진 집으로 보인다. 시골도 아주 평화롭고 운택한 마을처럼 보이는 곳이다. 녹음 우거진 산을 배경으로 더 넓게 펼쳐진 별판을 가로질러 키가 큰 가로수가 서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서너 사람이 멀리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우체부는 서울에 사는 딸이 친정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그런 시골마을이 배경이다. 단발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보이는 여자 노인은 친정엄마로 분홍색 스웨터에 옅은 브라운 색 치마를 입고 장독을 닦고 있다. 부지런하고 깔끔한 살림살이가 느껴진다. 장독 위에는 넓은 소쿠리에 빨간 고추가 널려있고 뒤로 시골 집 풍경의 돌담과 황토벽, 그리고 툇마루에 쌓아놓은 늙은 호박 등은 시골집의 넉넉함을 느끼게 한다. 보험서류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 착한 우체부와 돈보기를 쓰고도 잘 알아보지 못해 우체부의 설명에 의존하는 모습은 착한 우체부의 모습에 가려 그냥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실은 서류 같은 것에 무능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험의 보장 내용을 일일이 읽어주는 친절함 우체부의 말에서 강조되는 골절, 화상, 장기 손상, 치매 등 노인들의 병명은 항상 노인 질병으로 걱정되는 것들이다. 광고를 볼 때마다 노인 본인은 본인대로,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온 가족은 노인성 질병 이름을 다시 각인하게 된다. 이런 걱정에서 놓여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서울 사는 딸이 해줬고 딸이 너무 고맙다.

이 광고는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다. 착한 딸과 시골 노인이지만 대체로 깔끔한 이미지의 할머니와 친절함 우체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광고이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에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신화를 더욱 굳건히 한다. 즉 착한 딸의 신화, 부모에 대한 ‘효’라는 신화를 더욱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만든다. 사람들이 이 저항 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이고 이는 다시 신화를 강화시키고 이데올로기화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효에 대한 신화나 착한 딸에 대한 신화를 좋은 이미지라는 이유로 방치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효와 관련한 신화는 우리사회에서 효와 노인 부양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부양이라는 이미지와 직결되면서 결국 노인은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광고는 사회적 가치인 효에 기대어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겠지만,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라’라는 지나친 설득은 광고를 볼 때마다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인은 부양되어야 하는 부담스런 존재로서 인식된다.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부양의 존재로 노인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

또 이 광고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 안에서 변화하는 관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광고는 딸과 친정엄마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가족 안에서 변화된 관계 양상을 보여주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고 딸과 친정엄마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딸이 친정부모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젠 딸도 부모에 대한 책임이 생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가족의 변화하는 관계들의 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번에 수집된 광고 중에서 해찬들 메주들 광고에서도 보여지는데, 이 광고는 김수미와 송광호가 장모와 사위의 관계로 나온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전통과 비전통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전형적인 장모와 사위의 관계와는 다른 모습이다. 장모가 사위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장모의 세련된 외모에서나 사위에게 말하

는 말투에서는 비전통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AIG 광고에서나 메주뜰 광고에서 가족관계의 중심에는 딸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가족관계가 딸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장면	1차적 의미화 과정		2차적 의미화 과정	
	비언어적 기표	언어적 기표(자막)	음성 기표	함축 의미
#1	초록의 시골길 (녹음 우거진 산을 배경으로 더 넓게 펼쳐진 벌판을 가로질러 키가 큰 가로수가 서 있는 한적한 시골길에 서너 사람이 풀 샷(FS)으로 멀리 자전거도 타고 걸기도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	아~ 이거요(우체부: 젊은 남자 목소리)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
#2	단발머리에 회색회색한 흰머리가 보이는 여자노인이 분홍색 셔터에 열린 브라운 색 치마를 입고 장독을 담고 있다. 장독 위에는 넓은 소쿠리에 빨간 고추가 널려있고 뒤로 시골 집 풍경의 돌담과 황토벽이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	서울 사는 따님이 어머님 보험 하나 들었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그곳에는 친정 어머니가 계신다.
#3	시골집 전경 풀샷(기와 지붕에 빗마루에는 호박 등이 쌓여 있고 바깥 돌담이 전면에 보이면서 전체 집을 들여다 보는 시선) 마당 평상위에 채반 2개에 된가 널려 있고 그 평상위에 우체부와 할머니 걸터 앉아 우체부 손에 들려 있는 뭔가 서류 같은 것을 드러다 보고 있다.			연로하신 어머니는 서울 사는 딸이 보낸 소식을 우체부를 통해 설명을 듣는다. 혼자서는 잘 알 수 없는 서류이다.
#4	여성노인의 돋보기 쓴 얼굴 클로즈 샷 (화면 아래쪽 분할하여 회사 로고와 보험상품 안내 및 전화번호 등 자막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힘들다)	여성노인 오른쪽 옆에 50~75세라면 건강검진없이 전화로 가입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이라고 (“)	노인은 건강검진 없이 보험 들기도 어렵다.
#5	여성노인 웃는 옆얼굴 클로즈 샷 (자막이 우체부의 설명 음성과 일치할 때 자막글씨들이 크게 부각되는 기법으로 강조)	여성노인 왼쪽 옆으로 골절, 화상, 장기손상까지 폭넓은 보장	골절, 화상, 장기손상까지 다양하게 보장되구요(“)	여성 노인은 골절, 화상, 장기 손상 등이 항상 염려된다.
#6	여성노인 정면으로 클로즈 샷 활짝 웃으면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다.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치매 간병비 담보특약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지만 읽기는 힘들다.)	여성노인 클로즈업된 오른쪽 옆으로 월 870원 추가로 치매까지 보장	어휴~ 치매까지 보장되는 거네요(“)	노인들의 치매가 걱정된다.
#7	나이들어 주름진 손이 AIG 무사통과실버보험이라고 적혀 있는 서류를 쓰다듬고 있다. (화면 아래는 여전히 분할되어 설명 있다)		치매까지(할머니 목소리)	치매까지 걱정해주는 딸이 고맙다.
#8	화면 양쪽 끝에 할머니와 우체부가 마주보며 웃고 있는 투샷 화면 중앙과 아래 화면에는 자막	월 19,180원으로(실버형) 최고 5,500만원 보장	한달에 2만원 정도네(우체부)	딸의 소식은 우체부가 전해준다.
#9	시골 돌담집을 배경으로(집 옆에는 큰 나무가 있다)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할머니 나물 담긴 소쿠리를 양손으로 가지런히 모아 쥐고 정면을 바라보고 웃고 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여자인레이터: 정은아)	자식이 이런 일을 해주어서 흐뭇하다.
#10	여성노인 얼굴 클로즈 샷 활짝 웃는 얼굴	당신의 사랑 그분이	당신의 사랑	효도를 하는 방법은

	오른 쪽에 치우쳐 있다. 왼쪽에는 자막	아실 수 있게	그분이 아실 수 있게 (")	부모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11	나레이터 정은아 모습(푸른 색 셔츠 입고 전화기를 오른 손에 들고 전화번호를 말한다	지금 전화하세요 080-5060-700	080-5060-700	정은아는 딸의 이미지와 동일시된다.
#12	전면 자막 네모난 파란 색 바탕의 박스 안에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 080-5060-700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 (")	
#13	화면의 오른쪽에서 정은아 전화거는 손모양 제스처하는 모습 원샷		AIG (띠링 띠링 벨소리)	

3. 매일 도마슈노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장수는 사회적 관심이다. 그러나 장수는 단지 오래 산다는 것보다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산다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관심이다.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는 곳은 우리나라의 장수마을이 아니라 서양의 어느 마을이다.

지중해 풍(실제로 불가리아는 지중해가 아니라 흑해에 면해있지만 느낌으로의 서양적인 분위기는 흑해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보다는 지중해라고 할 때 서양의 이미지가 더 쉽게 잘 전달된다)의 붉은 기와지붕의 집이 전면에 있으면서 멀리 마을이 보이고 자막으로 불가리아의 장수마을이라고 소개된다. 유럽풍 2층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치형 돌다리들과 같은 장면들은 이국에 대한 동경이 느껴지는 서양의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이고, 그런 돌길 위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악수도 나누며 사교적인 모습들을 보인다. 오래된(전통 있어 보이는) 마을 풍경으로, 붉은 기와지붕들이 보이는 좁은 길에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다. 짐마차에 모자 쓴 남자가 작은 나귀가 끄는 수레에 타고 가는 모습이 보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활로 보이기보다는 바쁘고 삭막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오히려 다가온다. 마을광장(마을 광장의 돌바닥은 전통 있는 오래된 느낌을 준다)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옷통을 벗은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듯 마주 잡고 겨루고 있다. 아주 흥겹고 활기찬 모습들이다.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나이들어 보이는 남자들이 주를 이루고 가끔씩 여자와 아이들도 눈에 띈다. 광장은 좌판 등으로 재래시장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담고 있어 평화로움을 더욱 고조시킨다. 그런데 막상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나이든 노인이다. 노인 두사람이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번쩍 들어 올리는 데 그 사람은 수염까지 허연 할아버지이다. 번쩍 들려올려진 사람도 나이들었지만 힘겨루기에 이긴 사람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다. 뒤로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인다. 시장의 분주한 모습(수박을 흥정하는 듯 수박을 들어 보이는 손, 장보러 나온 듯한 사람의 상반신, 수박, 감자 등의 야채들 클로즈 업, 좌판 위로 키작은 아이의 모습 등)들은 이런 장면들은 매일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있는 일로 이들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다. 건강하고 젊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은 축복받은 장수의 모습이다. 단지 우리나라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서양 노인들의 모습이다. 서양인 그리고 남자의 모습으로 젊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 하나의 기표를 형성하여 노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여

전혀 젊고 건강한 노인은 서양 남자 노인, 서구적인 외모의 할아버지다. 서구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혹은 동경은 노인의 이미지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엔 여자는 없다. 젊고 예쁜 서양 여자와 젊고 잘생긴 서양 남자에 대한 동경이 서양 남자 노인에게까지는 연장되었지만 여자 노인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여자 노인은 서양의 이미지에서조차 긍정적으로 등장되지 않는다. 소외와 배제의 측면이 드러난다.

불가리아의 광고는 노인의 역동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 젊은이 못지않은 활기찬 모습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단지 그 노인의 모습은 우리의 노인이 아니라 서양의 노인이며 그것도 서양의 남자 노인이라는 것이다.

장면	1차적 의미화 과정			2차적 의미화 과정
	영상 기표 비언어적 기표	언어적 기표(자막)	음성 기표	함축 의미
#1	지중해 풍의 붉은 기와 지붕의 집이 전면에 있으면서 멀리 마을이 보인다	해발 1000m 불가리아의 장수마을, 스몰리안	축복받은 (여자 나레이터)	고풍스러운 서구 이미지로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2	유럽풍 2층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치형 돌다리 위 길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악수도 나누며 사교적인 모습들을 보인다.		자연 속에서(")	이국적 이미지로 평화롭고 활기차다.
#3	오래된(전통 있어 보이는) 마을 풍경으로, 붉은 기와지붕들이 보이는 좁은 길에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고, 집마차에 모자 쓴 남자가 작은 나귀가 끄는 수레에 타고 가는 모습 등이 보인다.		그들의 젊음이(")	이국적인 시골풍 이미지로 전통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4	마을광장(돌바닥이 전통 있는 오래된 느낌을 준다)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옷통을 벗은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듯 마주 잡고 겨루고 있다.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나이들어 보이는 남자들이 주를 이루고 가끔씩 여자와 아이들도 눈에 띈다. 광장은 좌판 등으로 재래시장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멈춰있다.(")	나이트 할아버지들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 안에서 살고 있다.
#5	씨름하는 두 사람 상반신 클로즈 샷 나이 들어 보이는 두 남자가 서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들도 힘자랑도 한다.
#6	씨름하는 모습 풀 샷			
#7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뒤로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젊음의 비밀(")	노익장이 과시된다.
#8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아 올려 쓰러트리 는 모습 풀 샷/ 쓰러진 사람은 검은 머리고, 들어 올려 승리한 사람은 흰 수염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다.			더 나이 들어보이는 할아버지가 이겼네!
#9	시장의 분주한 모습(수박을 흥정하는 듯 수박을 들어 보이는 손, 장보러 나온 듯한 사람의 상반신, 수박, 감자 등의 야채들 클로즈 업, 좌판 위로 키작은 아이의 모습 등)		불가리아(")	일상안에 이들의 삶이 녹아 있다.
#10	마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씨름에서 젊은 남자를 완전히 들어 올려 높히는 모습 고속촬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젊음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산균의 힘이 아닐까? (")	젊음이 못지않은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

#11	우유 빛 나는 액체가 화면 위에서(병에서) 아래로 쏟아진다.		불가리아유산균 (남자나레이터)	요구르트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한다.
#12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두 남자는 조금 떨어져 마주 보다가 경기 후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	불가리아 유산균 매일 도마슈노	매일 도마슈노	남자, 서양인, 두 기표가 만나 건강한 노인의 이미지

4. KT 001

우리나라의 광고에 노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다른 연구¹³⁾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본 연구가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도 동일하다. 광고에 노인이 등장하는 방식은 노인의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데,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조연이나 주변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KT 001 광고는 젊은 주인공 한사람(혹은 두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조연들은 모두 노인들로 인물들이 짜여있다.

붉은 색 테이블 클로스 덮여있는 긴 회의 책상 뒤에 정장 차림의 조인성과 고릴라가 나란히 앉아 있고, 조인성이 고릴라의 땀을 닦아 주는 모습 뒤로는 외국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국제회의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중동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과 의장으로 보이는 서양인이 서로 긴밀하게 혹은 심각한 모습으로 심사숙고 하는 듯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두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각국의 대표인듯 고위층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우리의 새파랗게 젊은 조인성과 고릴라는 그렇게 살벌한 국제회의장에서 열심히 서류도 드려다 보고 마음도 조리고 하며 매우 열심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국제회의장 안의 모습은 긴장된 분위기이고 각국의 대표인듯한 사람들(노인)은 의사결정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테이블 앞에는 전화기가 사람들마다 한 대씩 놓여 있고, 그 옆에 각 나라의 대표임을 보여주기 위해 캐나다, 중국, 미국 국기도 놓여 있다. 여전히 새파랗게 젊은 조인성과 고릴라는 중요한 의논을 하며 회의의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동 전통 의상 입은 사람, 의장, 외국인들(여기에는 동양인의 모습도 있다)의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의장(미국 국기가 앞에 놓여 있다)처럼 보이는 서양인이 검지 손가락을 치켜들자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조인성과 고릴라도 기뻐하며 환호한다. 조인성과 고릴라와 의장이 악수를 하고 주변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 뒷배경으로 영어로 각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어 중요한 국제회의의 결정이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낸 조인성과 고릴라(KT 001)가 자랑스럽다. 조인성과 고릴라, 의장과 그 외의 외국인들 서로 손을 크로스로 맞잡고, 회의의 모든 참석자를 주먹으로 두 번 입을 두드리고 검지 하나를 하늘 향해 치켜 든다(KT 001을 상징하는 제스처).

KT 001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이다. 단지 우리나라만 빼고. 서양 노인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광고 안에서는 그렇다. 서양 노인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지위를 가진 인물로도 그려진다. 이번 연구에서 수집된 광고 자료 중에서 롯데리아 광고에서도 서양노인이 주변인물로 나오는데, 그 광고에서 노인은 자신의 일을 오랫동안 해 온 경륜있는 모습 즉 전문가 중에서도 경지에 오른 전문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롯데리아가 치즈 페스티벌을 한다면서 네

13) 김미애, 리대룡 1999, 황지영 2002,

덜란드 유럽 통치즈 축제라는 것으로 광고를 하면서 허연 턱수염 더부룩한 노인이 빨간 모자를 쓰고 활발하고 건강하며 여전히 현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적인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한다. 미래에셋 광고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우리나라 젊은 전문가가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에는 서양 노인(회색 구레나룻과 회색의 머리카락)의 외모를 지닌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서양 노인의 모습은 우리의 텔레비전 광고 안에서 전문가의 모습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전히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의 노인의 모습과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광고 안에서 우리의 노인 모습은 경망스럽고, 안쓰럽고, 아니면 아예 모습을 감춰버렸다.

장면	1차적 의미화 과정			2차적 의미화 과정
	영상 기표	음성 기표	합축 의미	
	비언어적 기표	언어적 기표(자막)		
#1	로고와 카피가 자막으로(한글은 화면 왼쪽 위에 작은 글씨의 무채색으로, 영어는 중앙에 크게 초록 색 컬러로 쓰여 있음)	라이프 이즈 원더풀 케이티 Life is wonder full KT		KT가 삶을 멋지게 만든다.
#2	국제회의장의 분주한 분위기, 붉은 색 테이블클로스가 덮여있고 긴 회의 책상 뒤에 정장 차림의 조인성과 고릴라가 나란히 앉아 있다. 조인성은 고릴라의 땀을 닦아 주는 모습 뒤로는 외국인들이 분주히 오간다		매일 무료 5분 통화 (남자 나레이터 마치 중계방송을 하는 목소리로)	조인성과 KT캐릭터인 고릴라가 중요한 국제회의의 중심에 와 있다.
#3	중동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과 의장으로 보이는 대머리의 서양인이 서로 긴밀하게 혹은 심각한 모습으로 심사숙고 하는 듯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두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모습이다.			외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이다.
#4	조인성과 고릴라 투 샷으로 고릴라가 서류를 드러다 보고 있다		결론이 날까요? (")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인성과
#5	전체적인 회의석상의 모습, 의장인 듯한 서양인은 옆에 앉은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는 듯한 모습. 긴 테이블 앞에는 전화기가 사람들마다 한 대씩 놓여 있고, 그 옆에 각 나라의 대표인 듯 캐나다, 중국, 미국 국기도 놓여 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뒤로 경호원(혹은 젊은 실무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다.		아무래도 매일 무료 통화까지는 어렵지않을까요 ? (")	
#6	조인성과 고릴라의 투 샷으로 두 사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모습			
#7	중동 의상 입은 사람, 의장, 외국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의장이 주먹을 입에 갖다 대는 제스처		말씀드리는 순간 001이 매일 (")	경륜있는 노인의 신중한 의사결정 모습
#8	의장(미국 국기가 앞에 놓여 있다)처럼 보이는 서양인이 검지 손가락을 치켜들자 양 옆에 앉은 사람들 박수를 친다.		무료 5분 통화 (")	회의의 의사결정을 할 만한 결정권을 가진 노인
#9	조인성과 고릴라 환호하는 모습			
#10	조인성과 고릴라와 의장이 악수를 하고 주변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 뒷 배경으로는 영어로 각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다.	001 뉴스 속보 매일 5분 무료 통화시대 개막 Everyday Free 요금제 - 가입 ☎	시대를 열었습니다 (")	중요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은 모두

		100, 월정액 1만원 납부시 매일 5분 무료 통화제공(미국본토 기준		노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조인성만 젊은이이다.
#11	뒷배경으로 영어 글씨가 적혀 있는 스크린 조인성과 고릴라, 의장과 그 외의 외국인들 서로 손을 크로스로 맞잡고	뒷배경 자막: International summit for world dialing 뉴스 속보 자막은 동일	해 났어요 (")	외국의 대표들 특히 나이 지긋한 대표들사이에서 조인성의 젊음은 돋보인다.
#12	화면 중앙부터 회오리			
#13	#10의 장면의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고 사진과 기사가 신문속의 장면으로 클로즈 업 된다.	신문기사로 자막 처리 001 매일 5분 무료 통화 전격 합의	아 네 손잡았어요 (")	
#14	회의 주요 참석자들 주먹으로 두 번 입을 두드리고 검지 하나를 하늘 향해 치켜든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전화 001	국제전화 001(로고송)	

5. 분석 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광고에서 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4편의 광고에 대해서 기호학적 분석을 하였고, 수집된 나머지 광고 자료도 참고로 하여 텔레비전 광고가 보여주는 노인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은 건강과 보험 상품의 대상이다. 즉 노인은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미지와 뗄레야 뗄 수 없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아프거나 아플 것을 염려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만이 유독 현실로서 그려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보험상품 등은 노인에게 정보적인 측면이 있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려지는 노인이 계속 아프거나 아플 예정이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은 노인의 이미지를 계속 부정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 고령화사회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 노인에게 대한 이미지는 노인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광고에서 노인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측면이다.

둘째, 품위 없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의 노인이다. 노인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품위쪼은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건강하지 못해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욕망이 노인을 품위 없고 우스꽝스러워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

셋째, 긍정적으로는 사랑받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부양의 존재로 부담으로 그려진다. 노인이 광고에 등장할 때는 관계 안에서 등장할 때가 많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등장할 때가 많다. 관계 안에서 노인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기쁘게 혹은 기꺼이 효도를 할 수 있는 대상

정도이거나,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나, 추억의 시간에서 아름답게 추억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사회의 미덕으로 생각하는(곧 가족 신화의 하나인) 전통적인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족관계이다. 그러나 노인이 이처럼 가족 관계 안에서의 호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양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독립적인 노인으로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노인을 호명하는 것은 독립적인 노인 이미지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노인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비독립적인 존재로 항상 가족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노인은 부양의 대상으로서 부담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런 중에서도 호명의 방식이 차츰 변하고 있다는 변화가 읽어진다. 이전에는 아들 중심의 관계에서의 호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딸 중심의 관계에서의 호명이라는 변화의 현상이 보인다.

넷째, 노인도 건강하고 활기차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 다만 서양 남자 노인의 경우에 한해서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바, 역설적으로 바람직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노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여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서양 노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노인 모습으로서 말이다.

그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없는 것이라든지, 광고에서 노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발견된다.

IV. 결론 및 제언

광고는 삶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낸다. 광고는 기존의 가치관과 지배이데올로기에 적합한 것만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추상적이고 생략된 시각으로 현실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태도의 조작’(Dyer, 1989, 황지영, 2002)에 기여한다. 광고에서 노인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광고에 대한 분석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거론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개인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 사람을 결함있는 인물로 명명(labeling)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노인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하는 태도나 기대에 따라서 형성해 간다.

Bristol(1996)은 태도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TV광고는 노년층을 사회화하고, 나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젊은 수용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할 수 있고, 노인의 호명 방식도 관계 속의 호명이 아니라 자율적인 개인(주체)로 호명함으로써, 나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광고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는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 규범까지도 손쉽게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박카스광고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박카스 광고는 지하철 노약자

석 보호와 그후 병역 의무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바람직한 표상으로 등장됨으로써 실제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이 비워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 이제껏 광고가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했다면 박카스의 경우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도 다른 연령층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노인 개인에 따라 부정적인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고정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도 개별 주체로서 고령화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현실에서나 광고에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를 두려운 것으로써, 노년기를 고통스러운 것으로써 보는 이미지는 궁극적으로 노인을 무가치한 존재, 비생산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온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은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애. 2001. “노년층 광고모델에 대한 광고실무자들의 지각”. 『광고학연구』 특별호, 2001년 겨울, pp57-70
- 김미애, 리대용. 1999. “광고가 노년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의 내용분석”. 『광고문화론집』 제5권 1호 (통권 6호). 1999년 여름
- 김상훈, 최환진. 1997. “광고의 노인 묘사에 관한 노인 수용자의 태도 연구”, 『광고연구』 37: 9-31
- 마정미. 2003. “오늘날의 신화는 광고에서 시작된다”, 기호학연대편, 『대중문화 낯설게 읽기』, 문학과 경계사
- 성영신 외, 1991, “TV 광고에 나타난 가족 가치관 연구”, 『광고연구』, 1991, 가을
- 엄창호, 신항식. 2003. “광고의 서사성에 관한 구조기호학적 연구: TV광고의 ‘의미생성경로’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 59호 2003년 여름
- 원영희, 김미혜. 1999. “신문매체의 노인광고 이미지 분석: 새로운 노인 이미지 정립을 위해”, 『한국노년학회』 66-113
- 유성호. 1995. “노인지위에 대한 현대회이론의 재고”.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박재간 외 편 1995, 나남출판
- 이숙자, 이대용. 1996. “노인상품의 신문광고 모델에 대한 노인층 구매자의 반응”, 『광고문화논집』 제1권 1호. 한국광고연구소/ 중앙대학교 광고문화연구회
- 이병관, 김봉철, 유의동. 2003. “TV광고에 등장하는 노인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 문화적 분석”. 『광고학연구』 제14권 2호. 2003년 여름
- 이효성. 1995. “상품광고의 사회적 구실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28호. pp251-283
- 최순남. 2002. 『현대노인복지론』 (제4판). 법문사
- 황지영. 2002. “인쇄광고에 표상된 노인모델 이미지: 기호학적 접근”, 『광고학연구』 13(2): 51-73/ 『사회과학연구』 18:97-127

- Andren, G., Ericsson L., Ohisson R. & Tannsjö T., 1978. Rhetoric and Ideology in Advertising, Stockholm, A.B Grafiska
- Barthes, Roland. 1972. Mythologies.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N.Y.: Hill and Wang,
- Barthes, Roland. 1977. The Photographic Message, Image, Music Text. trans by Stephen Heath. London: Fontana Press
- Bristol, T. 1996. Persuading senior adults: The influence of endorser age on brand attitudes. *Journal of Current Issues and Research in Advertising*. 18(2)
- Cowgill, D. O. 1986. Aging around the world.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Dyer, G. 1989, Advertising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iske, John.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and N. Y.: Routledge.
- Goody, J. 1976. Aging in nonindustrial societies. In Robert H., Binstock & Ethel,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pp. 117-129).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Kuypers, J.A. & Bengtson, V.L.,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rmal Aging, Human Development, vol. 16.
- Laslett, P. 1976. Societal development and aging. In Robert H., Binstock & Ethel,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pp. 87-116).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Metz, Christian, 1976, "On the Notion of Cinematographic Language", in Movies and Methods, ed. Bill Nich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Neugarten, B.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87-198
- Roberts, S. D. & Zhou, N.. 1997. The 50 and older characters in the advertisements of modern maturity: growing older, getting better?,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2)
- Silverman, P., & Maxwell, R. J. 1982. Cross-cultural variation in the status of old people. In Peter N., Stearns (Ed.), *old age in preindustrial society*(pp. 46-69). New York: Holmes & Meler Publishing, Inc.
- Swayne, L. E. & Greco, A. J., 1987. The Portrayal of Older Americans in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advertising*, 16(1). pp47-54
- Watts, T. D.. 1992. The disengagement and activity theories of ageing: some possible implication for future sports involvement of the aged. *New Studies in Athletics*, 7(1), 12-22
- Williamson, Judith.1978.*Decoding Advertisements: Ideology and Meaning in Advertising*. London: Marion Boyars Publishers. 박정순 옮김, 『광고의 기호학: 광고 읽기, 그 의미와 이데올로기』, 나남출판, 1998
- Yin, P., & Lai, K. Hung. 1983. A reconceptualization of age stratification in China. *Journal of Gerontology*, 38, 608-613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노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광고라고 보고 텔레비전 광고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기호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6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이 내보낸 광고 중에서 모두 226개의 광고를 수집, 그 중에서 광고 모델에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최대한 1명 이상 등장하는 경우를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일차적으로 선정된 광고는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의 성격에 따라 1) 유명 연예인 경우, 2) 일반인 모델인 경우, 3) 외국 노인이 등장하는 경우로 분류, 각 각의 경우로 이가탄, AIG 무사통과 실버보험, 매일 도마슈노, KT 001광고를 선택하여 총 4편의 광고를 텍스트분석을 하였다.

텔레비전 광고가 보여주는 노인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은 건강과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되어 노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정형화시키고 있다. 둘째, 품위 없고 우스꽝스러운 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긍정적으로는 사랑받는 존재로 그려질 때조차도, 결국에는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부양의 존재로 부담으로 그려진다. 넷째, 노인의 이미지에서 서양남자노인의 이미지에서만 차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없는 것이라든지, 광고에서 노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점도 같이 발견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광고에 대한 분석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거론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도 다른 연령층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노인 개인에 따라 부정적인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고정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도 개별 주체로서 고령화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현실에서나 광고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s of the elderly in television advertisements by using the semiotics, which is estimated as an useful method of advertisement analysis.

Major findings ma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gative identity is reproduced through the stereotypical images of the elderly having problems of health.

Second, there has been no dignity of the elderly who were shown ridiculous in television advertisements.

Third, the elderly were portrayed as being of burden even when the elderly were represented with attractiveness.

Forth, there has been positive images of the elderly only in case of the western men.

In order to improve these images of the elderly, more several and various realities of the elderly should be presented in television advertisement.

노인의 성과 사랑 :
영화와 소설에 투영된
이미지

함 인 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 백

노년기의 성과 사랑: 영화와 소설에 투영된 이미지 “가지 않은 길”¹⁴⁾

함 인 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 들어가는 이야기

최근 들어 노년기의 성과 사랑이 노년기 연구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Arber 외, 2003a). 지금까지의 노년기 이미지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배우자 사별로 인한 정서적 고립, 노화로 인한 건강의 위협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부양의 대상이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노년기야말로 생애주기 상 그 어느 단계 못지않게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자아 정체성 및 관계성 전반에 걸쳐 의미심장한 변화를 초래하는 시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노년기 삶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삶의 다양성이 곧 삶의 기회의 불평등 지표로 간주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 때 노인의 삶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축으로는 젠더,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및 국적, 최근 들어 섹슈얼리티 등이 논의되어 왔다. 대신 노년기의 결혼 지위 자체는 단순한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서 다른 집단과의 구별을 위한 범주로 간주될 뿐, 노년기 삶의 양식에 불평등을 가져오는 주 요인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희소했다.

그러나 점차 기대수명의 급격한 연장이 진행되면서 더불어 노인의 생애주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배우자 내지 파트너의 존재 유무 자체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Thompson, 1994).

한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노년기 남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노년기와 젠더 이슈를 결합한 논의는 주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연금, 건강, 부양 등의 영역에서 여성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차별적 지위를 다루어온 결과,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간과되어 왔음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친구 및 친족관계를 원활히 유지해가는 “kin-keepers”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도 여성 노인은 자유와 자율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반면, 남성 노인이 경험하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노인은 홀로된 노인 모임을 통해 긍정적 보상과 정서적 유대를 지원받으나 남성 노인의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 및 안전판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제적 우위 및 여성의 정서적 우위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겠다(Gilleard and Higgs, 2000).

한편 노년기 연구에서의 남성 소외는 노년기 남성다움 및 남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극

14) “가지 않은 길”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Scott Peck의 저서 [The Road Less Traveled]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 글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노인의 성과 사랑을 이야기함에 영화 및 소설과 같은 허구(fiction)적 상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진행 중인 사실(fact)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원래의 제목을 다소 수정했음을 밝혀둔다.

히 회소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성 연구는 일반적으로 지배적 남성성을 체현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남성에게 집중될 뿐, 노인 남성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일부 선구적 연구(Guttman, 1987; Henry, 1988)에 따르면 노화가 남성성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있다. 곧 노화가 수반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남성 특유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의 본질을 탐색함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년기 남성의 남성성 및 자율성을 탐색함은 중요하다. 남성의 전성기는 생애주기상 대체로 45세부터 60세로 알려져 왔다. 이 시기 남성은 정치 경제 학계 종교계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에는 극소수 남성만을 제외하고 다수의 남성은 올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무대 중앙으로부터 서서히 퇴진한다. 이 과정에서 은퇴라는 경험은 가장(breadwinner)으로서의 역할 상실 및 동료들과의 연계망 위축 등을 가져옴으로써 남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Courtenay, 2000).¹⁵⁾ 나아가 성적 능력 감퇴, 신체적 건강 약화, 물리적 힘 감퇴 등이 수반되면서 남성의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자체가 필연적으로 남성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곧 대다수 남성들에게 노년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픈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남성성과 연계되어온 ‘분리’(separateness)로 인해 노년기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에 방해가 되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노인 다수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여성적 각본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년의 여성화로 인해 남성의 노년기 경험이 꺾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보다 적은 수의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관계성에 있어서도 여성의 잣대(feminine ruler)를 적용하기보다는 친밀성 및 우정의 양식에 나타나는 젠더의 차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노년기 연구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성과 사랑을 주제로 다음의 문제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결혼 지위가 노년기 관계성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둘째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년기 새로운 친밀성으로 부상하고 있는 “별거 동침”(Living Apart Together; 이후 LAT라 칭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셋째, 노년기의 우정 및 친밀한 관계는 젠더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자아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노년기의 성은 이전의 생애주기와는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질문에 답함으로써, 노년기야말로 성과 사랑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동시에, 노년기에 부과되었던 고정관념 및 편견을 거두어내고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해보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15) 한편 Susan Sontag(1978)에 따르면, 나이 들은 남성에게 훨씬 상처가 적다고 주장한다. 남성은 일정한 벌(금)없이 노화가 “허용(allowed)”되나, 대다수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젊음과 성적 매력은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가치인 만큼,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더욱 강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란 것이 Sontag의 주장이다(Featherstone and Hepworth, 2000).

2. 노년기의 사랑

2-1. 노년기의 결혼 지위와 친밀성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 연구는 주로 가족주기(family life-cycle)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Borell and Karlsson, 2003). 가족주기 모델에서는 결혼에서부터 배우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주기(stage)를 지나가는 동안 충족시켜야 할 ‘발달 욕구’ 및 ‘발달 과업’을 할 당해왔다. 동시에 부부가 평생 해로하는 것을 정상적 규범으로 간주함으로써¹⁶⁾,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한은 주로 가족의 축소(contraction) 및 쇠퇴(decay) 이후의 ‘발달 욕구 및 과업’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이로 인해 등장한 개념이 ‘빈 둥지 가족’(empty nest family)과 배우자 사별기(widowhood)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의 둥지를 떠났을 때, 후자의 경우는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난 후,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삶과 친밀한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도, 이것이 노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여파로만 다루어지는 한계를 안게 된다. 실제로 성인 자녀가 이혼한 경우 이것이 노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홀히 다루어져온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결혼 지위는 다음의 4 범주로 구분된다. 1) 기혼 혹은 동거 2) 사별 3) 이혼 혹은 별거 4) 독신이 그것이다. 이들 결혼 지위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양식이 결정되는 방식에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은 전체 생애주기를 통틀어 남성에게 정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의 2/3, 85세 이상 남성의 1/2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42%, 1/10로 감소하고, 8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4/5가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한다.

현재로서 노인 이혼은 상대적으로 흔치 않은 소수만의 경험이다. 곧 65~74세 노인의 5%가 이혼, 85세 이상의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혼한 노인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불이익 및 고통은 향후 이혼 세대에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노인 독신의 비율 또한 회소하여 85세 이상 여성의 10%에서 65~74세 여성 노인의 경우는 6%로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는 85세 이상 4%, 65~74세 6%가 독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사망은 보통 40 내지 50여 년을 지속해온 파트너를 잃는 것이기에 충격이 매우

16) 이 모델은 1950년대 결혼 안정성이 유례없이 높았던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혼율의 증가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분화로 인해 모델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ice, 1994). 이로부터 일원론적 가족주기 모델은 개개인이 선택하는 다양한 경로에 주목하는 다원론적 생애주기 접근법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Hareven, 1996). 서구의 경우 21세기 초반 노년기로 접어드는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독특한 생애주기 경험을 갖고 있다. 곧 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취업 경험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이혼율의 꾸준한 증가와 비(非)이성애적 관계의 증가를 경험한 세대이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는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분단을 경험했고 충공기를 지나왔으며,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땀 흘린 세대요, 특별히 여성 노인의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헌신했으나 자녀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현재 노인들의 상황은 재정적 상황이든 정서적 측면이든 그들의 이전 생애주기가 준거가 되는 만큼 노년기의 생애주기 연구가 필히 요구된다 하겠다.

크다. 특별히 남성 노인의 경우 사별은 애정 및 정서적 지원의 원천을 잃는 것이기에 타격이 더욱 크다. 이는 대다수 남편들이 부인을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일차적 상대(confident)”로 인정하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남성 노인들은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 재혼을 향한 욕구가 여성 노인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 노인에게 배우자의 사별은 비교적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경험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1/2이 배우자와 사별했고, 평균적으로 9년은 사별 이후 혼자 사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다만 어느 한편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가 결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종전의 기대와는 달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초고령기에 접어들어 사별한 남성 노인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1-2021 기간을 추론해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사별로 인한 배우자 상실이 50%에서 35%로 줄고, 남성 노인의 경우는 17%에서 13%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¹⁷⁾

한편 향후 가장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현상은 고령 노인의 이혼이다. 영국의 경우 1981년의 2%에서 2001년에는 5~6%로 증가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1년에는 남성의 13% 여성의 14%로 노인 이혼율이 증가하리라 추정된다. 이에 따라 1998년에는 여성 노인의 경우 이혼한 노인 보다 사별한 노인이 25배 많았으나,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50(사별) 대 100(이혼)으로 나타나리란 추론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들 결혼 지위가 성별에 따라 노후의 물질적 재정적 상황 및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연구한 결과, 기혼 남성 노인이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곧 기혼 남성 노인의 경우는 재정적 물질적 안락감에서부터 가족,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공히 가장 높은 안정성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배우자인 여성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가능하다. 3/4 이상의 남성 노인이 결혼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의 대부분이 죽는 날까지 배우자와 함께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으로 인한 혜택을 입는 집단의 숫자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 노인도 가족의 경제 상황 및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 혜택 받는 집단이다. 그러나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1/3만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은 높은 신뢰도를 갖춘 주요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의 원천이 사라진 것으로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초래한다(Davidson, 2001). 노부부의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재정 상황은 그들의 결혼 시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별 노인은 유배우 노인 보다 물질적으로 열악하고 이동성이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가족, 친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은 배우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인을 사별한 경우는 자신의 집으로 친지나 친구를 초대하진 않지만, 친지 및 친구 방문이나 이웃과의 답소는 부인 사별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적으로는 극히 소수이나 이혼한 노인의 경우 가장 단절된 형태의 가족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한 남성 노인은 결혼 해소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물질적으로도 열악하고, 가정중심(home-based)적인 사회적 관계망에서 친구, 친지, 이웃 관계 모두 매우 불리한 것으로

17) 노년기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ater life) 현상은 간파해서는 안 될 특징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 불균형은 점차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곧 영국의 경우 1981년에는 1.53으로 여초(女超)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2001년에는 1.37로 완화되었고, 2021년에는 1.23으로 더욱 완화되리라는 것이다.

나타났다. 이혼한 남성 노인의 경우는 자녀 및 손자녀들과의 관계가 가장 소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로부터 받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남성 노인에 비해 낮았다(Solomou 외, 1999).

이혼한 여성 노인의 경우는 물질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가계 수입도 가장 낮고, 거주 환경도 열악하며, 이동성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친지,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혼 및 사별한 여성 노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신 노인의 경우 직업 유형 및 사회적 접촉에 있어 독신을 유지하기 충분한 특성을 보인다. 곧 싱글 남성 노인의 다수 및 소수의 싱글 여성 노인은 부모 집에 거주하며, 여성의 경우는 커리어를 가진 경우가 많다. 1940년 대 중반까지 공무원과 교사를 하려 할 경우 기혼자를 배제했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혼여성의 취업을 적대시하는 강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했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이해가 가는 현상이다.

따라서 독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수입, 집 소유, 자가용 소유 등 물질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사회적 접촉에 있어서도 친구 및 친지 방문과 관련해서 유배우 및 사별한 여성 노인과 별 차이가 없으나, 친지 및 친구를 집으로 불러 초대하는 경우나 이웃과의 잡담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적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접촉이 제한적인 관계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결국 노인들은 사회적 접촉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그들의 고립을 강화하고,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및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결혼 지위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2-2. 노년기 새로운 친밀성의 유형: LAT의 등장

노년기 파트너십 지위¹⁸⁾의 형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젊은 노인’(young old-보통 65~74세)이 가족 형태의 다양한 분화를 야기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곧 이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의 향상 및 고령화로 인해 이혼 대 사별의 비율에 획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1968-2000 기간 중 사별은 절반으로 줄고 이혼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65-69세 노인의 경우 이혼 확률이 사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눈에 띄는 변화는 가족 개념의 특성이 보다 개방화·유연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거주 지역의 유연성¹⁹⁾이 눈에 띄는데, 이를 하여 “다(多)살림 가족(multi-household families)”의 등장(Borell, 2003)이 그것이다.

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유형의 등장은 스웨덴이 대표적인데, 오늘날 스웨덴

18)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65세 이상 커플의 재혼은 흔치 않다. 65세 이후의 재혼율이 극히 낮은 이유로 ‘마땅한 상대를 찾기 어려워서’는 명분이고,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는 ‘다시금 전통적 결혼 역할에 ‘발목 잡히는’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가 지목되고 있다. 결국은 재혼 상대의 병 수발(nurse)을 하다 늙지나 앓을까하는 두려움이 재혼을 저해하는 동기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황혼 이혼자, 독신 노인, 사별 노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음이 눈에 띈다. 곧 장기간의 친밀성을 허용하되 단 결혼 내지 동거를 필연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Borell, 2001)가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19) 공간적으로 개방화 유연화되고 있는 가족 조합의 예로는 주말 부부(commuter marriage), 동성 커플의 선택혼(families of choice), 이혼 부부의 교환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자녀는 엄마 아빠 가족에 동시에 속하는 이중 멤버십을 유지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에서는 노년기 사실혼 관계 내부에서도 분화가 진행되어, “별거 동침”(이후 LAT로 표기함: Living Apart Together)이 결혼 및 동거에 따른 공동거주(co-residence)의 대안으로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즉 남녀 노인이 각자 자신의 집을 지니고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가는 LAT가 결혼과 동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LAT 관계의 경우 함께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분업이 이루어지나, 각자의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여성 노인의 경우 자연스럽게 할당되었던 가사노동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살핌)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 사이의 친밀성을 서술하는 용어²⁰⁾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 동거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만큼은 지난 20년 동안 “sarbo”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여기서 sar는 떨어져 있음(apart)을 뜻하고, bo는 함께 생활함(live)을 뜻한다. 따라서 sarbo란 거주를 공유하지는 않으나 오랫동안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관계를 지칭한다 하겠다.

이들 커플의 관계성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비자발적 별거 커플과 비교해볼 때 자신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별거 가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들 관계의 특징은 상호 신뢰가 높고, 이해도도 높으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상대에 대한 충실성(faithfulness) 또한 이들 관계의 핵심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LAT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여성 노인이 주도적인 경우가 많은데, 재정적 이유 때문에 라든가 이전 결혼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은 아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보다 빈번히 지적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파트너의 생활습관이나 방식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 ‘실제로 동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예; 한 사람은 애연가인데 다른 사람은 흡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처럼)’ ‘자신만의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할 경우 발생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등을 들고 있다.

곧 여성 노인들은 LAT를 통해 친밀성과 자율성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만의 거주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통제력이 최적 상태에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더불어 여성 노인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친밀성 및 관계성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취할 수 있다. 이 때 여성 노인들은 자신의 집을 지닌 상태에서 독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자신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가사노동을 분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demarcation)이 된다. “그의 집은 그의 것, 나의 집은 나의 것”이란 표현 속에는 여성 노인 자신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나아가 LAT 커플은 결혼한 부부들이 부부공유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별개의 재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는 관계를 유지해가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특성이다.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서로간의 헌신이나 희생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다(giving and receiving)”. 파트너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해본 결과, 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상대의

20) 일정한 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해당 용어가 지칭하는 현실의 존재를 지각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간호를 담당할 것이라 답하고 있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 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상대방을 매일, 전일제로 돌보겠다고 답하고 있음도 흥미롭다.

단 상대방을 간호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바, 이것이 LAT 방식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동기이기도 하다. 곧 분리된 가구를 유지하게 되면 암암리에 부과되는 사회적 요구(그녀가 파트너라면 의당 상대방을 간호해야 한다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사랑하기에 결혼하지만, 동시에 상대에 대한 서로의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한다. 덕분에 부부간 유대는 구조적 연대에 묶이게 마련인데, 이들 구조적 연대는 배우자 간에 상호 도덕적, 정서적 유대가 무너진 이후에도 결혼 관계를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반면 LAT 관계는 결혼 및 동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조직적 기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은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친족 및 친구 관계를 공유하지도 않는다.

별개의 가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친밀성을 유지하는 LAT 관계는 궁극적으로 결혼이나 동거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는 아니다. 커플²¹⁾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뚜렷한 대안의 하나이긴 하나, 결혼이나 동거처럼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낮은 단계의 제도화 관계로 규정될 수 있는 이들 LAT 커플은 파트너 사이에 법적 강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며, 파트너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문화적 관행이나 정착된 행위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LAT 관계의 초점은 친밀성(intimacy) 자체에 맞추어져 있고, 주로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균형 및 도덕적 헌신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적 연대에 의존하기보다는 관계성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상호 만족에 의지하게 된다.

LAT 관계는 황혼 이혼자, 독신 노인, 사별 노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관계의 친밀성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동시에 개개인은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상호 몰입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 결혼 관계에서 기대되던 상호 몰입이 주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개인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면, LAT는 전통적 성역할과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LAT가 배타적으로 여성들만의 전략이자 이해관계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정서적 선택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고령화될수록 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한다. 곧 노인들이 성인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더욱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Carstensen, 1992), 전략적으로 정서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AT 관계는 노인의 사회정서적 욕구 및 이의 충족 기제를 설명함에 잘 들어맞는다 하겠다.

다만 LAT 관계가 한국사회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세대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가족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가족의 제도적 특성은 부계혈연중심 가족을 고수하는 동시에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긴 하나 개별 가족 수준에서 선택하는 가족생활 유형의 다양화 및 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LAT 커플의 등장 또한 비현실적인 예측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21) LAT 커플의 경우 숨겨진 집단(hidden population)이긴 하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건강 상태가 동년배 집단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3. 노년기 자아 정체성과 우정

노년기 젠더 및 자아 정체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사각 지대에 머물러왔다. 특별히 남성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남성성에 관한 연구는 학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나, 남성을 “젠더화된 개인”으로 조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Coltrane, 1994: 41). 그 결과 남성성 연구는 지금까지 다음의 두 가지 경향으로 대별되어 왔다(Calasnati, 2003b).

첫째는 비(非)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남성성이 개인의 인성을 규제해왔지만 그것이 곧 남성의 특권을 구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입장에서는 남성들 간의 유대를 찬양하고, 남성성=OK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남성 자신의 내면적 파워를 주창할 것과, 깊이 내재된 남성다움을 발현할 것, 그리고 남성 내부의 전사(戰士) 기질을 부추길 것을 권유한다(Kimmel, 1994: 136). 이 관점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다수 남성이 스스로를 권력 에너지로 충만한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더불어 자신들의 파워가 부족함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는 친(親)페미니스트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향해 휘두르는 파워에 주목하며, 남성의 여성 지배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온 방식 곧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관심을 집중한다(Connell, 1995). 이들 지배적 남성성이 남성다움의 태도와 기질 그리고 행위의 규범적 집약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개별 남성은 자신들의 남성적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육체적 힘, 직업적 성취, 부의 축적, 성적 방종(prowess), 특정 감정(슬픔이나 수치심)에 대한 자기 통제력 등의 목록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은 이들 문화적 이상을 갈망하나 스스로가 이들 이상을 구현하지 못했노라 판단하는 가운데, 남성성 내부에도 경쟁적 속성들이 공존하게 된다. 이 때 남성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성다움의 의미 및 경험의 모순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남성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남성들이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무력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나, 남성의 무력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파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에 민감하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Kimmel, 1994: 135). 남성의 무력감은 오로지 극소수만이 실제로 남성다움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고 동시에 파워의 획득을 중심으로 사회조직이 구조화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수의 남성은 다양한 사회적 위계서열상의 차별에 의해 “탈권력화”(dis-empowered) 되어 있다. 그러나 남성성을 관통하는 중요한 지점은 이들이 여성과 여성성으로부터 차별화된다는 사실로부터 자부심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남성은 젠더가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불평등을 관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젠더화된 자아”를 창조하여 유지해가고 있는 셈이다(Coltrane, 1994: 44).

젠더와 노화의 관계가 노년기 생애주기를 지나면서 남성성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교차되는가를 분석함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데 노년학의 실상을 보면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젠더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적이 없다는 보다 심각한 오류²²⁾를 발견하게 된다 (Hooyman, 1999). 지금까지 노년기 남성의 경험은 탐색되지 않은 기준을 형성했다고 할

22) 남성 노인이 배제된 이유로는 여성 노인이 수적으로 다수라는 인구학적 사실, 더불어 노화 및 연령 차별주의가 남성 및 여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곧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으며, 남성 노인들은 유배우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는 비율이 높고, 배우자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는 비율이 낮으며, 여성 노인에 비해 장애를 경험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여성 노인을 보다 “문제적 상황”에 있다고 보아 연구를 집중했다 할 수 있다(Gibson, 1996).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년학은 젠더 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남성 노인의 특권을 “맥락화” 하고, 남성 노인의 삶에 내재하는 부정적 측면을 문제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남성의 기대수명이 짧은 것이나 남성성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을 단순한 인구학적 지표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를 문제시²³⁾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N. Chodorow(1991:169)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기본적인 자아 감각은 이 세상과 연계되어 있고, 남성의 기초적 자아 감각은 이 세상과의 분리로 구성된다.” Webster(1995: 101) 또한 여성의 자아 정체성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 속에 녹아들어 있고 이를 지향하는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 “여성은 자신을 호혜적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정의한다. 이 관계의 통합적 구성 요소는 이해와 nurturance이다.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목소리”는 언어를 통한 교환의 기능을 통해 발달된다. 즉 친밀한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의 폭을 공유하면서 형성된다.” 그런 만큼 여성의 정체성이 보다 표현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남성의 정체성은 도구적이며 자율적 속성이 강하다. Webster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정체성이 친밀성을 우선하며, 여성에게는 친밀성과 정체성이 공존한다.

한편 Miller(1983)의 연구에서는 대다수 남성들이 자신의 친구 관계로부터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 간의 친구관계는 깊이도 의심스럽고 진실 되지도 않거나와 심지어는 어색함(wariness)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Pleck(1975: 233) 역시 여성들의 우정은 정서적 친밀성이 주를 이루나 남성들의 우정은 사회성(sociability)이 주를 이룬다고 본다. 곧 “남성의 사회성은 남성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성 역할 사회화 및 이의 실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바, 이는 자아 탐색, 개인의 성장 및 성숙, 나아가 친밀성의 증대 등을 위한 매개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eidler(1989:7)는 남성성이란 기본적으로 부정적 정체성으로서, 스스로를 풍부한 감정 및 연계성으로부터 반대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남녀 간 우정의 유형 연구²⁴⁾에 따르면(Hess, 1982), 남성성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친밀성에 대한 “학습된 무능력”(learned incapacity)은 특별히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에 치명적으로 부정적 영향²⁵⁾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들 간의 친밀성 및 표현적 관계는 노동시장 내 경쟁에서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노년기에는 값진 재산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가까운 친구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보통의 친구든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관계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곧 남성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친구를 굳이 대체하려 하지 않으며, 친밀한 친구관계에 대한 욕구도 감소하는 동시에, 가족 대소사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참여에 대한 관심 또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노인들에게서

23) 남성성을 실현하는 것이 남성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 속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특권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및 신체적 안전을 간과함으로써 야기된 결과이다. 물론 여성성을 구현함은 여성의 종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4)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 성별 사회화 및 사회구조적 제약이 특별히 자기 개방(self disclosure) 및 친밀성(intimacy)을 중심으로 한 우정의 범위에 있어 성별 격차를 야기한다. 젊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친구 및 지인의 범위가 넓고 수 또한 많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 개방은 회소한데 이는 직장 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응하기 위함이고, 직장 내 승진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5) 젊은 노인(60세 부터 74세)과 고령 노인(75세 이상)을 대상으로 1968/9년 및 1982/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친구관계는 변화보다 지속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음도 주목을 요한다. 보통 친구와의 활동은 주로 공공영역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친한 친구와의 활동은 서로의 비밀과 신뢰를 나누고, 흥미로운 경험 및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동시에 이들 우정을 나누는 활동이 빈번히 각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Field, 1999).

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래 <표 1>은 젠더별 우정의 특성을 범주화한 것이다.

<표 1> 젠더별 우정의 특성

여성의 우정: 연결성(connectedness)에 의해 규정	남성의 우정: 분리성(separateness)에 의해 규정
* 친밀성 - face to face 관계 * 상호 개방 * 대화 중심 * 만나는 공간: 사적 영역	* 사회성 - side by side * 자기 개방의 회소성 * 활동 중심 * 만나는 공간: 공공 장소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우정 연구는 친밀성의 정의가 여성의 잣대에 따라 규정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Cancian, 1987:74; Duncombe and Marsden, 1998). 이성애 관계에서의 “감정 노동”을 분석한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관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 작업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남성들은 이른바 ‘그림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커플의 경우는 젠더화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성별화된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여성들은 솔직한 자기개방 및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친밀성을 유지해가는 반면, 남성들은 자기개방 경험의 결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재로 친밀성을 향한 어떠한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우정이 여성의 잣대(feminine ruler)로 재단되는 한, 남성 노인의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망의 편협함과 협소함으로 인해 부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성 노인의 친밀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결정적 요인은 부부관계의 역사 속에 내재한 지속 및 단절인 만큼, 외로운 남성 노인을 여성 노인의 경험에 비추어 재단함으로써 그들을 불필요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3. 노년기의 성

남성과 여성의 성적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아이디어는, 생리적으로 두 성의 성적 반응이 매우 유사하다는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Masters and Johnson, 1966). 곧 성적 본질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요 젠더에 따라 상반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소극적이고 nurturing한 것으로 개념화(Gott and Hinchliff, 2003a)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자연적인 것으로 알려진 섹슈얼리티도 매우 복잡한 방식을 거친 사회적 구성물임은 물론이다. 성적 이해 및 표현에 있어 생물학은 성차를 가져오는 잠재적 요인의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과 남성이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가 여부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푸코, 1979; Weeks, 1997).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 ‘정상적’(normal)이고 ‘합당한’(appropriate) 성 행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섹슈얼리티와 노화의 관계를 탐색할 때 매우 명백해진다. 오늘날 성(性)이 이전 시대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노인의 성은 여전히 탈성화되어 성화된 세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Hawkes, 1996).

대중문화는 물론 정책에서부터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노인은 무성적(asexual) 존재란 고정관념이 만연되어 있다. 실제로 노후의 삶에서 성생활은 중요하지도 않거나와 적합성도 높지 않다는 고정관념은 섹슈얼리티 및 성적 건강을 연구함에 노인 집단을 총체적으로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맥락에서 성생활의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해 노인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최근 노인의 성생활을 다룬 연구를 보면, 노인의 다수가 적극적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성행위는 젠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진행 중인 질적 연구(Gott and Hinchliff, 2003b)에 따르면 여성 노인의 섹슈얼리티 이해는 기존의 남성적 틀²⁶⁾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남성은 성생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 자신의 성적 매력을 지각함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파트너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가질 때 성적 만족도가 극대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성관계는 모든 연령층의 성인에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적 충동으로 간주되나, 이는 고령화와 더불어 감퇴된다고 본다. 현재 고령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초기 생애주기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성관계는 수동적 의무이자 감내해야 하는 불결한 것 등으로 내면화해온 경향이 지배적이다.

성관계는 결혼생활의 정상적 부분을 구성하기에 결혼 초기 성 행위는 여성의 ‘의무’로서 남성의 충동을 관리하는 동시에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임무로 간주된다. 나아가 남편을 통제하고 파워를 행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기도 한다. 단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는 실제로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남편의 성적 욕구를 생애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는 위험부담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혼외관계가 발생할 경우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기도 한다.

부인의 의무로서의 성생활은 노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감소된다.²⁷⁾ 이유는 남성 노인의 성적 관심 및 수행 능력이 감퇴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 노인 스스로 보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젊은 시절엔 의문조차 품지 못했던 성 역할에 대해 도전도 하고 저항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Person(1980:619)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의 젠더 정체성은 섹슈얼리티에 근거하고 있고, 성생활 실행을 위한 욕구 또한 매우 강한 반면, 여성의 젠더 정체성 및 자기 존중감은 성생활 이외의 다양한 수단에 의해 공고화된다고 한다.

남성 섹슈얼리티의 핵심은 수행 능력이다. 성적 수행 능력은 ‘남성다움’과 ‘젊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성 불구는 매우 상징적인 자아 정체감에 대한 도전이 된다. 70세에 이르게 되면 남성 노인의 67%가 발기 불능을 경험한다. 섹슈얼리티는 오늘날의

26) 덧붙여 성 및 성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이성애를 기준으로 남성중심적 성교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 경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27) 물론 중류 계급 부부의 경우는 결혼 의무가 노년기에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inn and Arber, 1995). 따라서 노화가 여성 노인으로 하여금 전통적 여성 역할(성적 쾌락의 제공자로서의)에 도전하도록 하는지 여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남성성 개념에 핵심적 요인이기에, 발기 불능은 결과적으로 생애적 남성다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죽음보다 더 불행한 운명”으로 해석된다.

다만 성 불능이 남성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충격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60대 젊은 남성 노인들의 발기 불능은 내재적 남성성에 대한 도전이자 노화 자체를 인지하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곧 발기 불능을 상징하는 “몸의 추락(body drop)”(McKee, 1998)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실패와 자아 정체감의 전이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어, 자신들이 더 이상 중년의 젊음에 머무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70대, 80대 남성의 경우 자신이 이미 노인임을 인정하고 나면, 발기 불능을 오히려 정상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를 굳이 남성성에 대한 도전으로 비약하지는 않는다. 이제 고령이 되면 남성다움을 구성함에 있어 성적 능력은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노년기 성 생활은 노인 자신에게도 당황스러운 경험이고 잠재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남성 노인들은 성 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걱정과 노화에 대한 우려를 명백히 연계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Viagra와 같은 노화 저항 기술²⁸⁾의 가용성에 힘입어 노인이란 자아 정체성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노화 저항 기술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도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곧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의견과 이는 ‘인공적’인 것으로 자연스런 노화 과정에 개입하는 불순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공존한다.

노화와 더불어 남성중심적 성관계의 실행이 장벽에 부딪치면서 애무도 성관계로 여겨지고 있고, 성관계 횟수가 감소해도 사랑을 향한 갈망은 그대로 있기에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노인들의 경우는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사랑이요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한편 여성 노인은 노화에 대한 인식에 성적 요소가 촉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노후에 더욱 활발한 성생활을 한 여성 노인의 경우 노인 시기야말로 성 행위가 “향상”(improve)될 수 있는 때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나이 들면서 여성은 성 행위를 수행함에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며, 둘째 나이 들면서 여성에게 성 행위의 의미가 출산으로부터 자신만의 쾌락으로 변화해가며 이러한 태도 변화는 폐경기부터 시작되나 노후까지 연장되기 때문이고, 셋째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의식 변화가 여성 노인들의 성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Gannon(1999)에 따르면, 노화와 폐경은 여성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임신과 출산으로부터의 자유의 증가로 간주된다. 특히 이 의미는 피임약이 개발되기 이전, 그리고 성관계를 결혼과 출산으로부터 분리하기 이전 세대의 여성 코호트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노화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최근 여성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가시성 및 관심의 증가가 여성 노인 자신들의 섹슈얼리티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아니면 그들의 현재 믿음 및 행위는 젊은 시절 이미 결정된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성생활은 또 다른 성교 파트너를 가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시점 내지 성적 은퇴 시점이 올 때까지는, 삶의 질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데 성생활 은퇴 시점을 예견함에 있어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흥미롭다. 곧 남성 노인의 경우는 심각한 건강의

28) 여성의 성적 기능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을 위한 Viagra에 해당되는 기술은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노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함에 성적 기능 여부에 직접 의존하기보다는 성적 매력에 대한 개념 자체에 도전함으로써 일정한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노화에 있어서도 이중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Sontag, 1978).

위험을 받는 경우, 아니면 발기 불능일 때 성생활 은퇴라는 입장을 수용하고, 여성 노인의 성생활에 중지부를 찍는 계기는 배우자의 죽음 아니면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나타났다(Gott and Hinchliff, 2003a).

사별 이후 재혼을 결정함에 성교의 역할을 탐색해본 결과 역시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곧 Davidson(2000)에 따르면 여성 사별 노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생활을 원치 않는다’는 선언은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 이유인 반면 남성 사별 노인에게서는 유사한 답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노인의 성 관련 태도 및 가치관은 그들의 젊은 시절의 지배적 가치관 및 최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의 합작품이라 하겠다.

참고로 한국사회 노인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통계자료(29)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별로 부인의 성생활 만족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이 4.06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3.86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6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생활 만족도의 평균값은 낮아지고 있어 30대 3.60, 40대 3.49, 50대 3.29로 50대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p < .000$).

<표 2-1> 부인의 연령별 성생활 관련 태도

단위: 평균값*

성생활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전체	통계적 유의미도
성생활 만족도	3.86 (159)	3.60 (897)	3.49 (879)	3.29 (434)	4.06 (348)	3.46 (2727)	F=35.647 df=4, 2722 p<.000
성생활 비중	3.32 (161)	3.24 (906)	3.15 (879)	2.98 (435)	2.77 (352)	3.11 (2736)	F=48.445 df=4, 2731 p<.000
부부관계 만족도	4.04 (160)	3.77 (907)	3.56 (879)	3.38 (434)	3.37 (349)	3.60 (2729)	F=34.967 df=4, 2724 p<.000

* 평균값은 각 변수별로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 비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다음 성생활 비중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져 20대의 평균값이 3.3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연령의 순서대로 30대 3.24, 40대 3.15, 50대 2.98 그리고 60대 2.77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성생활 비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바($p < .000$),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생활 비중이 낮아진다는 상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부부관계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20대의 평균값이 4.04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대 3.77, 40대 3.56, 50대 3.38로 떨어지면서 60대 이상의 평균값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p < .000$).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생활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던 부인의

29) 통계자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여성개발원(2003) [한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패턴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곧 남편의 성생활 만족도는 20대에서 4.03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30대 3.75, 40대 3.52, 50대 3.43, 60대 이상 3.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령별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0$).

성생활 비중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경우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져 20대에서 3.50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30대 3.44, 40대 3.31, 50대 3.18로 낮아진 이후 60대 이상에서는 평균값이 2.97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들 연령별 성생활의 비중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은 물론이다($p<.000$).

부부관계 만족도는 부부가 공히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곧 부부관계 만족도의 평균값이 20대가 4.21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대 4.00, 40대 3.78, 50대 3.66 그리고 60대 이상 3.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한편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음은 실제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연령 혹은 세대에 따라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인지 여부는 longitudinal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남편의 연령별 성생활 관련 태도

단위: 평균값*

성생활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전체	통계적 유의미도
성생활 만족도	4.03 (80)	3.75 (777)	3.52 (929)	3.43 (487)	3.27 (440)	3.54 (2713)	F=31.077 df=4, 2708 p<.000
성생활 비중	3.50 (80)	3.44 (778)	3.31 (931)	3.18 (487)	2.97 (440)	3.28 (2716)	F=54.037 df=4, 2711 p<.000
부부관계 만족도	4.21 (80)	4.00 (777)	3.78 (931)	3.66 (487)	3.59 (440)	3.80 (2715)	F=31.781 df=4, 2710 p<.000

* 평균값은 각 변수별로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만족도, 비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4. 나오는 이야기

지금까지 노년학 분야에서 소외되어온 주제 “노인의 성과 사랑”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년기 배우자의 존재 유무는 노년기 삶의 불평등을 구성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의 존재는 특히 남성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락감을 가져오는 주요 기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부인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함에 일차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하다(Davidson, 2003). 실제로도 배우자

는 서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족, 친구 및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접촉)는 노인들의 건강 및 정신적 안락함에 역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Umberson, 1992). 이들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또한 결혼 지위 및 물질적 자원과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독거노인이라 할 지라도 가족 및 친구들과의 접촉이 잦은 경우는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의 종류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다양한데, 각각의 관계는 삶의 질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한다.

현재 노인들의 코호트 특성상, 대다수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서구의 경우 이혼율 증가 및 재혼율 감소로 인해 앞으로는 solo 노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구학적 성비로는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나, 앞으로의 트렌드는 65세 이상 남성의 다수가 싱글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4명 중 1명이 solo이나 다음 세대에서는 3명 중 1명이 solo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Davies 외, 1998).

따라서 향후 노년학의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은 이들 solo 남성 노인 집단이 될 것이다. 여성 배우자가 없을 경우 실질적 도움 및 정서적 친밀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곧 이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자가 없기에 사회적 embedded-ness의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Davidson 외, 2003).

노후의 가사 및 돌봄의 책임을 놓고 성별 수렴(congruence) 현상, 이를 하여 ‘노인의 여성화’(feminization of older men)(Thompson, 1994)가 진행되고 있음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는 특별히 배우자를 잃은 남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노후의 안락한 생활양식 및 안정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자신들의 결혼생활의 자취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년 중심적 사고방식의 편견 극복도 노년학의 과제이다. 곧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슬로건 하에 생산성과 활동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궁극적으로 노인은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할 때만이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Calasnati, 2003a). 이에 따라 노인은 명백히 소외되고 있고, 노인의 정체성(특히 남성 노인의)은 그 자체로 주변화 되고 있다(Thompson, 1994). 이를 극복하고 노인중심적 시각을 새롭게 구축할 때만이 “가지 않은 길”을 향한 보다 균형 잡힌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아, 2000.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박금순 편저, 1983 「변화되어 가는 부부관계」 한국부인회 총본부.
박숙자 외 편역, 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사회비평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이동원 외, 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학지사.
- 이재경, 2002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 한국여성개발원, 2003 [한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Arber, Sara, Kate Davidson and Jay Ginn (eds.). 2003a. "Changing Approaches to Gender and Later Life". pp.1-14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Arber, Sara et. al. 2003b. "Re-Examining Gender and Marital Status: Material Well-Being and Social Involvement". pp.148-67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울리히 벡 외 지음,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외 옮김, 새물결.
- Borell, K. 2003. "Family and household: family research and multi-household famili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 Borell, Klas and s. G. Karlsson. 2003. "Re-conceptualizing Intimacy and Ageing: Living Apart and Together". pp.47-62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Calasnati, Toni. 2003a. "Masculinities and Care Work in Old Age" pp.15-30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b. "Theorizing age relations". in S. Biggs 외 eds. *A Need For Theory*. New York: Baywood Press.
- Cancian, F. 1987. *Love in America: Gender and Self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stensen,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e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31-38.
- Chodorow, N. 1991.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in M. Humm ed. *Feminism*.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Coltrane, S. "Theorizing masculinities 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s". in H. Brod and M. Kaufman eds. *Theorizing Masculinities*. California: Sage.
- Connell, R. 1995. *Masculin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urtenay, W. 2000.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and their influence on men's well-being; A theory of gender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0: 1385-401.
- Davidson, K. 2000. "What we want: older widow and widowers speak for themselves". *Practice*. 12(1):45-54.
- _____. 2001. "Later life widowhood, selfishness and new partnership choices: A gendered perspective". *Ageing and Society*. 21:297-317.
- Dividson, Kate et. al. 2003. "Exploring the Social Worlds of Older Men". pp.168-85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Davies M. 외, eds. 1998. *Next Generation*. London: The Henley Center.

- Duncombe, J. and D. Marsden, 1998. "Step-ford wives and hollow men?" in G. Bendelow and S. Williams eds. *Emotions in Social Life: Critical Themes and Contemporary Issues*. London: Routledge.
- Featherstone, M. and M. Hepworth, 2000. "Images of Aging" in J. Bond 외 eds. *Aging in Society: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London: Sage.
- Field, D. 1999. "Continuity and change in friendship in advanced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8(4): 325-46.
- 미셸 푸코, 1979. [성의 역사] 1. 나남출판.
- Gannon, L. 1999. *Women and Aging: Transcending the Myths*. London: Routledge.
- 앤소니 기든스. 1996 「현대인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변동구조」 배은경 외 옮김, 새물결.
- Gilleard, C. and P. Higgs, 2000. *Cultures of Aging: Self Citizen and the Body*. Harlow: Prentice Hall.
- Ginn J. and S. Arber, 1995. "Only connect: gender relations and aging" in S. Arber and J. Ginn eds. *Connecting Gender and Aging: A Sociological Approach*.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Gott, Marryn and S. Hinchliff. 2003a. "Sex and Ageing: A Gendered Issue". pp.63-78 in S. Arber et, al.(eds.). *Gender and Ageing: Changing Roles and Relations*.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b. "How important is sex in later life? The views of older peopl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8):1617-28.
- Guttman, D. 1987. *Reclaimed Powers: Toward a New Psychology of Men and Women in Later Life*. New York: Basic Books.
- Hawkes, G. 1996. *A Sociology of Sex and Sexua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Hess, B. 1982. "Aging, gender role and friendship". *Educational Horizons*. 60(4): 155-60.
- Kimmel, M. 1994. "Masculinities as a Homophobia". in H. Brod and M. Kaufman eds. *Theorizing Masculinities*. California: Sage.
- Kulik, L. 2002. "Marital equality and the quality of long-term marriage in later life". *Aging and Society*. 22(4): 459-81.
- Masters, W. and V. Johnson, 1966. *Human Sexual Report*, Boston: Little Brown.
- McKee, K. 1998. "The Body Drop: a framework of understanding recovery from falls in older people". *Generations Review*. 8: 11-12.
- Miller, S. 1983. *Men And Friendship*. CA: Gateway Books.
- Person, E. 1980. "Sexuality as the Mainstay of Identity: Psychoanalytic perspectives". *Signs*. 5:605-30.
- Seidler, V. 1989. *Rediscovering Masculinities*. London: Routledge.
- Sontag, Susan. 1978. "Doble standard of aging". in V. Carver and P. Liddiard eds. *An Aging Population* Lonon: Hodder and Stoughton.

- Thompson, E. 1994. "Older men as invisible men." in E. Thompson ed. *Older Men's Lives*, California: Sage.
-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behavi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4(8): 902-17.
- Webster, J. "Age differences in reminiscence functions". in B. Haight and J. Webster eds. *The Art and Science of Reminiscing*.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Weeks, J. 199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 외 번역, 현실문화연구.

노년기 가족과 정보화

이 여 봉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여 백

노년기 가족과 정보화

: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이 여 봉(강남대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전세계적으로 수위를 다투는 정보화³⁰⁾ 속도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 현상이다. 한국은 2018년에 즈음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며, 2050년 경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a)³¹⁾. 반면에 인구에 비례해서 추산한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2위(황주성, 2004; 이소연·김인순(2004)에서 재인용)이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로 정보화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또한 한국이다. 사회의 정보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보화 사회 속에서의 노년은 이전 시기를 살았던 노인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고 가족 안팎에서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거시 사회적 맥락에서도, 노년층이 정보화를 어떻게 흡수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적절히 통제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이자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의 노년층은 그 수적 우세로 인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화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노년층의 상황과 노년층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휴대폰과 화상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금세기의 디지털 정보통신은 사회의 각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외에도 매체 자체의 끊임없는 진화에 대한 지속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데, 학업이나 업무 등과 연관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아날로그 세대로 지칭되는 현재의 노년층에게 디지털 매체란 생소하고 사용법을 익히기 쉽지 않으며 때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

30)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중탁, 2000). 따라서 이는 정보기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31) UN의 고령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고 14% 미만일 때 고령사회(aging society)로, 14% 이상 20% 미만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그리고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된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해당 문화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글자를 알고 씬을 할 줄 아는 능력에 버금가리만치 중요해지고 있다. 오랜 세월애 걸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중요시되던 시대를 살아온 오늘의 노년층에게, 사회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정보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 정도가 노년기 삶의 질과 가족관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오늘날의 노인들이 정보화의 물결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정보화는 노년기 가족관계와 부양세대의 욕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년층의 정보화는 어느 지점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쓰여 졌다.

2. 현 노년층의 정보화 현실

오늘날의 노년층은 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 왔고 노년기에 즈음하여 비로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후의 세대와 구별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는 특히 오늘의 노년층에게 생소하고 힘든 도전이다. 게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기술을 대체해가는 사회에 재빨리 적응해야 하는 것은 노년의 생물학적 특성상 쉽지 않다. 그래서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년층은 정보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범주이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젊은 층은 급격히 정보화의 선두로 나아가는 반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장노년층의 정보소외현상이 심각하다(표 2). 특히 노인들의 90% 이상이 정보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다, 노년층 내에서도 실질적인 정보 격차가 상당히 크다.

표 1.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5년 6월	97.3 %	97.2 %	89.8 %	67.2 %	34.7 %	11.0 %
2006년 6월	98.1 %	98.1 %	91.6 %	71.0 %	37.5 %	15.2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6b).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표 2. 정보화 격차에 관한 국제간 비교

	미국	영국	한국	
장·노년층	37.1	44.0	14.0	한국: 50-74세, 영국: 55-64세, 미국: 50대 이상
10대 연령층	68.6	89.0	91.3	한국: 7-19세, 영국: 16-24세, 미국: 9-17세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장노년 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물론 그 원인을 한국 젊은층의 정보화 속도가 여타 사회보다 더욱 급격하기 때문에, 노인 인터넷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정보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가 통합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에 있어서의 세대 간 격차가 커질수록 세대 간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가는 젊은 세대만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진행될 경우 노년층은 낙오되고, 사회적인 생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럴 경우 거시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숙련된 노령생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잃고 실질적인 피부양 인구를 늘림으로써 사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가족 내부에까지도 세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60세 혹은 65세부터 그 이상의 모든 연령층을 노년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70대 후반에 이르고 90대의 생존자가 그리 드물지 않은 오늘날, 60대 이후의 모두를 한 범주로 묶는 것은 무리이다. 노년층 내의 연령과 건강 차이 뿐 아니라 학력과 경제적 수준 및 과거의 직업과 경력 그리고 거주 지역별 특성도 다양하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 및 활용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표 1>에서 나타난 '60대 이상의 인터넷 사용층'이란 실질적으로는 비교적 젊고 고학력이며 경제적으로 윤택한 남자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 즉 <표 1>에서 단순화한 것처럼 젊은층과 노년층의 대비로 이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나 상황 그리고 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의 학력과 경제력 및 지역 정보화 상황, 그리고 성과 연령 등의 변수로 인해 노년층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질성은 정보화가 더욱 진전되고 현재의 중장년 세대가 노년이 되면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화는 노년층 내에도 계층을 재생산하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되어, 앞으로도 이질성을 증폭시킬 것인가?

독신노인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정보화에 동참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새로운 문명에 접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Gilly 등 (Gilly, Schau, and Wolfenbarger, 2003)은 노년층 역시 주변의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주변 가족이 컴퓨터를 사서 연결해 놓는 등의 계기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을 지적함으로써, 정보화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한 가구 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국내의 조사 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 2006a) 역시 가족적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정보화 기기의 복잡성과 더불어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근육통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인터넷에 친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다(Gilly, Schau, and Wolfenbarger, 2003). 최근의 정보화 기기들은 과거의 TV나 유선 전화 및 가전제품들에 비해 확실히 복잡하고 사용자와 기기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따라 그 활동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처음 접하는 노년층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 시간이 어느 연령층보다 많은 노년층의 특성과 문화적 대세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눈을 뜨게 함으로써 자존감 및 자아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보 기기의 특성이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정보 문화를 습득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Gilly, Schau, and Wolfenbarger, 2003).

개별 노인들이 처한 상황과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한 정보화의 유인요인과 장애요인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표 3>은 이제 막 노년으로 진입하려는 세대에 관한 통계 결과로서, 현재의 노년층보다는 정보소외의 양상이 덜하지만 노년층의 경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³²⁾. 전체 인구 대비 컴퓨터 이용자나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 외에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소외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 . 장·노년층의 정보 매체 이용율(50세-64세)

	컴퓨터			인터넷		
	보유	이용능력 보유	실제 이용	인터넷 접속가능	이용능력 보유	실제 이용
장·노년 여성	52.3%	11.8%	10.3%	45.9%	9.4%	9.4%
장·노년 남성	59.6%	26.1%	23.1%	49.4%	19.2%	19.2%
장·노년 전체	55.7%	18.5%	16.3%	47.5%	14.0%	14.0%
인구 전체 (6-64세)	70.1%	66.7%	66.7%	68.8%	68.8%	65.5%

출처: 인터넷 정보문화센터(2003).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성 뿐 아니라 학력이나 직업(혹은 은퇴전 전업) 등과 같은 변수별 격차가 노년층에서는 여타 연령층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a).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1% 정도여서, 기본적인 교육적 수준의 격차가 여타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크다(통계청, 2006)³³⁾.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의 67% 정도가 앞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의향이 없고(홍명신, 2003) 인터넷 비이용자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노년층 내부의 분리현상은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기만의 개인용 컴퓨터를 갖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의 인터넷 운용환경이 TV나 라디오 등 지금까지의 삶에서 익숙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노년층이 정보화 기기에 접근하여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자체가 과학기술에 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반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노인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홍명신, 2003). 그렇더라도 숙련 기간 역시 교육수준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이므로, 숙련기간 및 숙련 후의 활용능력 역시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노년층은 정보화 기술을 익히는 데 가장 취약한 범주인 반면에 인터넷의 이용에 따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타연령층보다 더욱 민감하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a). 이는 아마도 여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혼자서 지내는 여가시간이 많은 노년층의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보 능력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격차 역시 어느 세대보다도 노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노년층 중 소수만이 정보 능력을 지녔으므로, 주변에서 쉽사리 비교가 되지 않을 뿐이다.

32) 실제 고령층, 특히 후기 노년층의 경우엔, 무선표집을 할 경우 적절한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힘들 만큼 인터넷 사용자가 적은 실정이다.

33) 2002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78% 정도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미루어 현재의 중년층이 노년으로 진입할 무렵에는 노인인구의 학력 격차는 훨씬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노년기의 역할 이론들에서 바라본 노년층 정보화

노년기의 삶을 바라보는 이론은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네 이론들의 관점에서 노년층 정보화의 유용성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유리 이론

유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라 사회와 개인이 궁극적인 유리 즉 죽음에 대비해 점차 사회적 역할을 양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여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Harris, 1990). 그래서 젊은 시절 동안 자신 밖의 사회에 몰두해서 지냈던 경쟁과 적극성 및 미래 지향성 등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평형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Harris, 1990). 그러므로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줄이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노인 자신의 생활만족감을 높이며, 지식과 기술이 떨어진 노인에게 재훈련을 시키는 대신 젊은이들로 교체하는 것이 사회의 기능과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다(Cumming and Henry, 1961: 이해영,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노인들이 굳이 생소한 정보기술을 젊은 세대와 같은 수준으로 익히려는 것은 노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노년의 생물학적 쇠퇴는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활동이 젊은 세대와 똑같아야 한다는 고집은 오히려 노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입장에서 역시 부담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부터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하기에는, 노년으로 지칭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정보화 소외계층으로서 감수해야 할 일상적 손실이 만만치 않으며, 노년층의 정보화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의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여가는 것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유리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초기 단계의 정보 기술만으로도 홀로 여가를 보내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 능력은 노년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노화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은퇴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과 목표를 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노인 정보화와 관련하여 유리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때, 노년층의 생물학적 쇠퇴 과정을 인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 정보 능력을 갖추는 선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2) 활동 이론

전통문화 속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수의를 준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오늘

의 노인들은 유리과정에 저항하고 죽는 순간까지 활동적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물러남을 개인과 사회의 상호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설명한 유리 이론이 전통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었다면, 오늘의 문화에서 물러남은 노인 개인의 의지에 배치되는 일이다(Harris, 1990).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노인이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닌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을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생활 만족도가 저하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실된 역할을 대체할 다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높은 것은 활동의 양이 아니라 활동의 종류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비공식적인 활동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공식적 활동은 생활만족도를 오히려 낮추며, 혼자서 하는 활동은 생활 만족도와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Lemon, Bengtson and Peterson, 1972; Longino and Kart, 1982; Harris, 1990). 이는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필요성을 지지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유리 이론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은퇴로 인한 활동의 공백을 비공식적 활동으로 채울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활동 이론의 타당성 또한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기 연구들에서 특기할 것은,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회에 연결되어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직업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는 중장년기보다 직업으로부터의 은퇴로 인해 사회연결망이 감소하기 쉬운 노년기에 더욱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 노인들로 하여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활동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화로 인한 생활 만족도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노년층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 능력을 획득하도록 개인과 사회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노년복지와 직결되는 일이다.

3) 사회적 와해이론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은 역할 상실이나 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자아개념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는 노인이 건강과 관련된 위기를 경험할 때 의존적인 존재로 낙인을 받게 되어, 이전에 소유하던 기술 자체가 위축되고 스스로 무능한 자아를 수용하게 되면서 사회 심리적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사회적 와해이론은 노인들이 처한 환경적 지지망을 확충하고 노인 개인의 장점을 발견하여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엔 와해의 고리를 단절하고 자아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해영, 2006).

정보화시대에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지망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가상의 공간은 면대면 접촉이 없이도 관계맺음을 허용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의 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족 외부의 지지망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는 노인들이 사회적 와해를 굳이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

4) 교환이론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개인적 노화를 자원의 지속적 감축 - 낮은 소득, 낮은 교육수준, 건강 저하 - 으로 보고, 노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를 노년층과 사회 간 교환과정의 산물로 바라본다(이해영, 2006). Rosow(1965; 최성재·장인협, 200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노인의 지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지식 및 경제적 자원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 그리고 속해 있는 사회 조직의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데, 전통사회를 벗어난 이래 노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잃어가는 시기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노년층 특히 이제 막 노년기로 진입하는 초기 노인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제적 자원을 지니고 있고 충분히 건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년은 여전히 교환 자원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비교적 활발하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학력과 경제력을 지닌 노년층이 정보 능력을 갖춘 비율은 여타 노년층에 비해 훨씬 높다. 따라서 학력이나 경제력 등의 여타 자원을 소유한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간에는 교환 자원의 소유 유무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보에서 소외되어 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통해 노년층과 여타 세대 그리고 노년층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술한 네 가지 이론들이 각각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설명하는 논리가 다르고 때로 상반되기도 하지만, 정보화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근본적인 대립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와해이론과 활동이론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정보활용과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반면에, 교환이론은 노년층 내의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정보화 접근성 강화 및 정보의식 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유리 이론은 노년층이 시간과 개인 차이를 두고 여러 면에서 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교육 목표 및 방법 역시 노인의 시각에서 재구조화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모두는 다소간의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년층의 정보화 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언들이다.

4. 노년층의 정보화와 가족관계

1) 가족 부양부담의 경감

노인 스스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노년기의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고 개인적 활

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가족들이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부양부담의 경감이란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터넷이 지닌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관계망으로부터 점차 유리되어 갈수록, 노인은 오히려 대화의 상대를 필요로 한다. 직업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일구어온 배우자 및 동년배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한 소외감을 가족들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반면, 세대가 다르고 생활주기가 다른 가족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은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노인 스스로 세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한다.

둘째,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운동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쇼핑을 위해서도 주변에 의존하기 쉽다. 그런데 신체적 쇠퇴로 인해 운동성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 बैं킹 및 인터넷 주식거래 등을 통해 일상사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노인 개개인의 사생활 및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과거 노인들의 주 오락이던 바둑이나 카드 등이 컴퓨터 및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특정한 상대를 찾지 않고도 혼자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료하게 느끼는 시간을 줄이고 소일거리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즐길 만한 콘텐츠가 많을수록, 이러한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개인미디어로 불리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노년층에게도 예외 없이 열려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의 추억을 반추하고 화제로 삼고 싶은 것이 노년기 특성의 하나이지만, 이를 들어줄 상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성원에게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듣는 이는 억지로 참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이러한 노년의 욕구를 분출하고, 연령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속내를 드러내고 혹은 노인 스스로 축적된 지식을 원하는 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기능들로 하여, 노인의 컴퓨터 기기와 인터넷 활용 능력은 가족들의 정서적·도구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2)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의 노년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데서 나아가, 인터넷은 부양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담으로서의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후속세대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노인을 부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 하나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적 선입관에 직면할 필요 없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세대의 관심사를 만나면서 멘토이자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가상공간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익명적 상대를 대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은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에 기초해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장덕진, 2005). 이에 비추어 볼 때, 노년층이 인터넷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가상공간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는 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공동체에의 소속과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동시에 인생을 길게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지난 세월 동안 종사했던 분야나 쌓아온 지식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가상공간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둘이,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근무 가능성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직무와 자격간의 불일치(job-skill mismatch)로 인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노년층이 비어있는 자리를 메워줄 수 있다면 사회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설사 과거의 직업적 지위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라고 여겨질 경우에도, 일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은 많다. 더구나 재택근무일 경우엔 노년층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왜냐 하면 면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경우 고용주나 피고용 노인 양쪽 다 기존의 조직사회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체면문화나 연령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사회는 실질적인 부양인구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재택근무는 인터넷 활용능력을 기본으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정보 능력을 갖춘 노년층에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3) 세대 이해와 의사소통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세대의 생각에 노출될 경우, 자신과 다른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는 오프라인의 가족관계에 적용되면서, 가족 내의 세대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세대갈등의 경계는 생애주기적 특성보다 기술적 조건에 따라 규정된다는 김선업(2000)의 주장은, 기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세대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확장될 수 있다. 조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손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적 통로를 확보할 경우, 성인자녀와 청소년기 손자녀 간의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하고 가족관계를 복원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함께 터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만남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의 채널을 통해 실제의 가족성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간의 이메일 활용과 가족관계의 질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이해영·이여봉, 2002)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메일을 정서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높아서(이해영·이여봉, 2002),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젊은 세대는 할아버지/할머니 혹은 아버지/어머니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의 통신매체를 통해 다가올 때,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신저는 문자매체여서, 직접 대면하여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에 관해서도 털어놓기 쉽고 상대방의 정리된 의견을 읽을 수 있는 장으로서, 가족 간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통로이다.

4) 독거노인과 인터넷

인터넷이 노인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안의 노인들과 그 부양가족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독신가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노인들이다. 인터넷은 독거노인들이 건강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외부의 폭넓은 지원망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한 친척이 없는 경우의 지원망이 배우자나 자녀 모두 있는 사람들의 지원망보다 반드시 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McRae and Costa, 1990)은, 가족 외부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소연과 김인순(2004)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족 외부의 사회적 관계망이 익명성과 낮은 친밀도로 인해 오히려 가족지원의 경우보다 정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터넷은 온라인을 통한 지원망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온라인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인들끼리의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층의 인터넷 사용률이 낮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독거노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다는 데 있다. 이는 물론 독거노인들이 여타 가족성원들의 컴퓨터 사용 모습을 관찰하여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노출될 가능성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제약과 낮은 학력 등이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되어 인터넷 소외 범주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될 경우에도, 동거 상태나 학력 및 경제적 조건 등의 변수로 인해 노년층 내부의 정보 격차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노년층 정보화에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평준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5. 노년층의 정보 소외, 해소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의 정보 격차에 관한 시각은 양분된다.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정보화가 진전되면 정보격차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정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기 사용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의 혜택이 보

편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Compaine, 200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에서 재인용).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정보격차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보 불평등에 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면, 디지털을 활용한 매체의 급속하고 지속적인 진화로 인해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를 신속히 따라잡지 못하고 지체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신기술이 끊임없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학력과 경제면의 불평등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b, 2006).

물론 현재 중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노년층보다는 웃도는 상황에서¹⁾, 앞으로 이들이 노년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노년층의 정보 소외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보화 지수로 보자면, 노년층의 정보화 걸음보다 젊은 세대는 더 큰 보폭으로 앞서 가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화 및 정보 활용면의 거리는 크게 좁혀지는 것 같지 않다. 게다가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이 되고 평균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시점에 이르면 노년층의 정보화 경향 역시 연령 자체보다는 학력과 소득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개인적 동기가 부족하지만, 중상층 이상의 고학력 노인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지수가 타 연령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한국전산원, 2001). 특히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어떤 연령층보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의욕 역시 높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에 비견한 노년층의 정보소외 뿐 아니라 노년층 내의 정보 격차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을 목표로 노년층의 정보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보 접근성 면에서의 격차는 매체의 편리성³⁴⁾이 확보되고 가격이 낮아지며 공공시설에서의 활용폭을 넓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개별적 수준에 맞춘 교육을 수요층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정보 활용 면에서의 격차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의 세 측면 - 접근성, 활용성, 수용성 - 중 수용성, 즉 정보의식³⁵⁾은 사용자가 지녀온 주관적 생활세계 및 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단순히 정보화에 초점을 둔 훈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면서도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다. 그 모든 정보들을 다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정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선별해서 수용하는 능력은 기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그리고 많이”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천천히 신중하게 그러나 유연하게”의 문화적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보수용 차원은 총체적인 문화적 성숙도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각 생애단계 및 활동영역이 요구하는 정보 능력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똑

34) 실제로 컴퓨터 운용체계가 도스(DOS)일 때 보다는 현재의 윈도우 체제에서 훨씬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35) 정보 사용자가 주어진 정보의 가치나 유해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한다 (김문조·김종길, 2002)

같은 수준의 정보화 단계에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보 격차란 객관적 수준에서의 통계적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술이 보급된 이후에는 각 개인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수준과 실제 정보 능력 간의 격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쌍방향적 정보 매체의 속성에 노년층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성향을 접목함으로써 노년층이 각자의 수준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쓸 수 있다면, 주관적 수준에서의 정보 격차가 해소된 상태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6. 노인의 정보화 교육과 가족

정보화로 인하여, 연장자가 아랫세대를 가르쳐 온 기존의 가족규범이 흔들리고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교육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윗세대의 권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이와 같은 교육역조현상에 대해 경직된 가족위계구조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박부진·이해영, 2000). 그래서 가족내 의사소통구조가 과거의 I자형 및 Y자형에서 오늘날에는 삼각형 및 원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김재은, 1997; 조정문 외, 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는 부모가 자원을 지니고 자녀를 부양하는 위치에 있거나, 노부모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논리이다.

산업화 이후의 노년은 대개의 경우 가족 내의 결정권 등을 성인 자녀에게 양도하고 피부양 위치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여타의 젊은 가족 성원에게 일임하는 것은, 반복적 교습을 위한 시간과 인내라는 또 하나의 부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 뿐 아니라, 노인은 노인대로 자궁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양자 간의 관계는 오히려 갈등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족성원들이 노인의 정보 학습을 지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 학습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경우에는, 학습을 매개로 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역시 “가족을 통한 복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노인 정보화 교육과 훈련은 공적인 기관의 주도로 노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며 여가시간이 충분한 노년층을 공식적인 강사로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르치는 노년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얻을 수 있고, 배우는 노년은 동기집단(cohort)으로서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좀 더 쉽게 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의 정보 격차라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통해 오히려 노년층 내부의 정보융합을 모색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7. 나가며

본고를 통해, 인구의 노령화와 정보화 그리고 가족이라는 삼박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궁극적인 관심은 노년 인구층의 비대가 가족과 사회의 부담 및 노년층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정보화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소외를 심화시키게 될지에 관한 것이다.

정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불편 없이 정보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노령의 생물학적 쇠퇴나 학력 격차 등은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꿈꾸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a).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컴퓨터 작동법을 몰라도 상관없는 단계에 이르면, 학력과 건강상태 뿐 아니라 성이나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동화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보 격차나 정보 소외란 개념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분은 자동화된 환경에 의해 보충될 것이며, 의존적 노인을 위한 부양서비스 역시 컴퓨팅 환경에 의해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유비쿼터스 사회의 초입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뿐, 상상속의 삶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고루 찾아가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유비쿼터스의 이상과 별개로, 현재의 시점에서 노년층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 기술을 보편적으로 갖도록 하는 방안에 골몰하는 것이다.

개인의 상황과 성, 학력, 정보 학습을 위한 준비상태³⁶⁾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적 필요나 흥미 정도에 따라 정보 학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해당 기술을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시점에서 충분할 만큼 동등하게 정보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노년층 모두가 그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당한 수준의 정보능력을 갖춘 노인과 컴퓨팅에 관해 초보인 노인은 정보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각각 다를 것이므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자 하는 노인과 자녀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거나 이메일을 읽는 것이 인터넷을 하려는 유일한 목적인 노인 또한 정보화 훈련 목표를 달리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인해 개인과 가족과 사회가 잘 조화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율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보 기기는 본래 차가운 기술일 뿐이지만 그로부터 향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즉 정보의 수용성은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문화와 노년층이 익숙해온 아날로그 문화가 접점을 만들어내며 노년기 가족을 다독일 가능성을 엿보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존 이론과 현 상황에 비추어 노년층의 정보화와 가족생활에 관해 전망하고 제언하고자 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검증이 추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노년층의 정보화가 본인들의 삶과 가족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노년층이 어느 정도의 정보 능력을 습득하고 어느 만큼의 정보 격차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하건대 노년층의 정보화 추세는 노화이론들 중 어느 것에 보다 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

36) 여기에서 정보 학습을 위한 준비상태란, 정보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한글, 영어, 타자실력 등의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컴퓨터에 익숙한 정도를 의미한다.,

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르고 정보화가 좀 더 진전된 시점에 이르러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pp. 123-155.
- 김선엽. 2000. “정보화와 세대 갈등,” 『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집, pp. 3-12.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제38집 4호, pp. 101-132.
- 박부진·이해영. 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 한국가족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집, pp. 15-34.
- 박부진·이해영. 2001.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과 문화』 제12집 2호, pp. 99-126.
- 이소연·김인순. 2004. 『여성노령인구의 정보화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60-13.
- 이해영. 2006. 『노인복지론』 창지사.
- 이해영·이여봉. 2001. “이메일 활용과 가족관계,” 『가족과 문화』 제13집 2호, pp. 107-135.
- 장덕진. 2005. “웹사이트 이용자의 클릭패턴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9집 4호, pp. 101-130.
- 장중탁. 2000. “노인복지 정보화 추진전략,” 『노인복지연구』 8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7-29.
- 조정문·임정덕·김성국·이대식·김영삼·조영복·신종국. 1999. “정보화 시대의 공동체,” 『한국사회학』 제33집 여름호, pp. 389-415.
- 중앙일보. 2006.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 2006. 1. 2.
- 최두진·김지희. 2004.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 방안,” 『월간정보격차』 통권 2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최성재·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 총조사』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a. 『장·노년층 인터넷이용실태 분석』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b.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06. 7.
- 한국전산원. 2001. 『취약계층의 콘텐츠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1. 11.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장·노년층 정보격차실태 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a.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노인생활혁신 방안』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b. 『노인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방안』
- 홍명신. 2003. "노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23, No. 2, pp. 187-203.
- Gilly, M.C., H. J. Schau, and M. F. Wolfinbarger. 2003. "Seniors and the Internet: Consuming Technology to Enhance Life and Family Involvement," Proceedings from the Home Oriented Informatics and Telematics(HOIT) Conference, Irvine, CA, April 6-8, 2003, Section 6: Demographics and the Internet, pp. 1-15.
- Harris, D. K. 1990. *Sociology of Aging*.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 Kuypers, J. A. and V. L. Bengtson. 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A Model of Nomal Aging," *Human Development*, 16.
- Lemon, B. W., Y. L. Bengtson, and J. A. Peterson.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27, pp. 511-523.
- Longino, C. F., Jr. and C. S. Kart. 1982. "Explicating activity theory; A formal repl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7, pp. 713-722.
- McRae, R. R. and P. T. Costa.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Guilford Publications: New York.

노년기 재혼과 가족

양 옥 남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여 백

노년기 재혼과 가족

양옥남³⁷⁾(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 글의 목적은 노인의 재혼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이 겪는 갈등과, 노인의 재혼 현황을 살펴 보면서 우리사회 노인의 재혼 규범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결국 노인의 재혼 문제는 가족문제와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보고 서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재혼 규범의 아노미 현상에 대해 논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현대 가족 속의 노인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노인재혼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대안으로서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주제어: 노인재혼, 재혼규범의 아노미, 세대갈등, 가족갈등,

I. 서론: 노인재혼 규범의 아노미 현상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허약해지기 마련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생애주기 가운데서 노년기는 반드시 오도록 정해져 있다. 인간에게 있어 노화(aging)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한다. 신체구조와 기능, 생활적응과 행동유형, 그리고 생애과정(life course)에서 오는 지위와 역할의 변화 등이다. 또한 정신적 차원에서는 욕망, 감정, 생각 같은 것들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인생을 크게 나누어 배우는 단계, 일하는 단계, 노후의 봉사과 휴식 단계로 본다면 전 생애기간의 1/3에 해당하는 노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간적 차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노인의 모델을 그려보자면, 경제적·정신적 여유 속에서 즐겁고 자유로우며,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노인 상(像)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에서 ‘이상적 노인 상’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노인집단이 사회 속에서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생활양식 등에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노년기가 20~30여년으로 길어져 노인들 사이에서도 세대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노년기는 연령단계별로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따른 욕구(needs)와 행동유형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근래에 뉴에이징(new aging)이라 해서 신세대 노인(new silver generation)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패턴을 소유하는 실버세대와는 가치관, 태도, 여가에 대한 관념, 생활양식 등에서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난다. 이와 같

37)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베이비 붐 세대가 에이지 부머(age boomer)가 되어 문화활동의 주역 내지 관람자로서 문화산업에서 실버마켓(silver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동아일보, 2006).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전망 역시 전후 10~20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노년기로서 성장할 무렵인 2025년경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다. 그것은 저출산·고령화, 이혼율의 상승 등이며 앞으로는 노년기 재혼에 대한 화두가 관심을 끄는 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는 이혼 등으로 홀로된 노인의 경우 생활의 역동성을 찾고 고립감을 해소 하는 등 함께 할 사람을 만나려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노인의 전화에 의하면 이미 10여전에 상담을 해오는 남성노인의 경우 ‘외롭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수발을 들어줄 여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재혼을 호소해온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이성교제가 있게 되는데 노인의 이성교제는 은밀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복지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 노년기 이성교제의 잠재적 인구는 증가하는 편이지만 아직은 비공개적인 교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추세이다. 노인의 이성교제가 개방적이지 않고 또 혼인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노인자신의 체면이 손상된다는지, 가족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경험하거나 재산 관리상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통계상의 노인재혼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4년도 65세 이상의 재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견주면 약0.5% 상승되었다. 특히, 이혼 후의 재혼이 크게 늘어나 10년 전에 비해 남성노인은 3.5배, 여성노인은 5.0배나 된다(통계청, 2005).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노인의 재혼이 더 많은 현상에 충격을 받는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재혼규범은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아노미(anomie)란 행동에 대한 규범이 다양하거나 없어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일반적인 노인의 행동규범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특히 노인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보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혼한 예로서 “그 사람은 상처(喪妻)한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재혼을 하지?” 라는 말 속에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계(social clocks)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기에 대한 ‘그 때’가 아직은 이르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이란 시대에 따라 잠재적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므로 이러한 원리가 노인의 재혼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의 목적은 노인의 재혼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이 겪는 갈등과, 노인의 재혼 현황을 살펴 보면서 우리사회 노인의 재혼 규범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노인의 재혼 문제는 가족문제와 맞물려 있는 현상으로 보고 다음에서는 현대 가족 속에서 노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II. 현대가족 속에서 노인의 위치는 안전한가?

현대가족은 전통가족에 비해 그 규모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화, 소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그리고 가족해체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 같은 요인들은 노인의 가족 내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가족의 노인부양체계가 약화되면서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다. 노인의 재혼문제는 미시적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가족적인 문제이기도 하여 먼저 현대 사회의 가족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족이란 친족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된 일부의 사람들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제된 성인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기든스, 1994). 가족의 유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부장적 가족제도 내에서는 가족간의 사랑이라는 이념이 부각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자면 낭만적 애착관계 보다는 의무사항을 더 강조하는 체계로 존재하였다. 현대에 와서 가족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이며, 가족의 변화 경향은 우리사회의 가족과 노인의 재혼문제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기든스가 제시한 **세계적인 가족의 변화 방향**을 여섯 가지로 간략히 정리해본다.

첫째, 확대가족과 친족집단은 약화되고,
둘째, 배우자의 자유선택이 증가하며,
셋째,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많아지고,
넷째, 친족결혼은 점차 줄어들며,
다섯째, 성이 억압되었던 사회에서는 성적 자유가 더 늘어나고,
여섯째, 어린이의 권리가 확대된다.

위에서 살펴본 가족변화의 추세와 더불어 사랑·결혼·이혼의 사건들, 그리고 과거에는 언급하기조차 꺼려했던 우리사회 노인의 재혼에 대한 경향도 이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확대가족과 친족집단이 약화되면서 핵가족이 증가되어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배우자의 자유선택이 증가하게 된 것은 그만큼 자녀의 독립성이 더 강조되며, 상대적으로 노인의 권위는 약화된다. 그리고 우리 전통사회에서 성이 억압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젊은 층의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현상이 가중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도 영향을 주어 노년기 이성교제가 보다 성행하고, 이것이 노인의 재혼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가치관의 측면에서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해 살펴본다.

2) 노부모 부양의식이 변하고 있다.

(1) 효의 가치 변화

오늘날의 노년층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고 사회를 일구어온 사회구성원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더욱이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석연찮은 현실도 맞게 된다. 우리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의미와 구성에 있어서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의 최소 단위로서 혈연중심의 친족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가족주의가 지배적인 행위 양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기 때문에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관행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김혜영, 2004). 나아가 관행의 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를 갖는다. 또한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원칙이 존재하였다. 즉,

-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며,
- 부모의 귀와 눈(耳目)을 즐겁게 하고,
- 부모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 부모의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봉양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때에는 우선 자녀 자신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즐겁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일반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확대가족, 또는 수정확대가족의 체계여서 효의 가치관은 아직 가족전통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효를 실천하는 동기 중에는 먼저 도덕성이 중요시 된다. 즉,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인데 왜 효를 하는 것이 옳은 지에는 보은설과 당위설이 있다(서선희, 1998). 자녀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니 효를 한다. 두 번째는 혈연에 기반을 두어 부모에 대한 사랑, 애착, 책임감에서 효를 하며, 세 번째는 종교적 차원에서 효의 동기가 유발된다. 유교적 가족관계에서는 효가 부모관과 연결되는데 부모는 ‘내 생명을 준 존재’이므로 결국 가족의 종교성을 돕는 기제가 효이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효는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는 가치관의 변화, 윤리의식의 쇠퇴, 가족의 세속화 같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2) 부양의식의 변화

다음에서는 산업사회 이후로 효의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의식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통계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2년 통계청의 “노부모 부양에 관한 견해”에서는 전국의 약 3만 가구, 만 15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가족이 노인부양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지배적이다. 무려 70.7%의 사람들은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우세하게 가진다. 또 1998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노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98년에 89.9%에서 2002년에 70.7%로 감소되었고 노부모를 ‘장남이 모셔야한다’는 22.4%에서 15.1%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아들들이 부양해야한다’는 7.0%에서 13.9%로 큰 비율의 상승을 보이며 ‘아들과 딸이 같이 부양 책임을 가져야한다’에서는 14.5%에서 19.5%로 높아졌다. 덧붙여 2002년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모두 향상되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부모와의 관계는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노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2002)의 자료를 <표 1>에서 살펴본다. 여기에서 제시된 노부모 부양 의식은 5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즉, “스스로 해결한다, 가족이 부양한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양한다, 정부와 사회가 부양한다, 기타” 등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은 가족부양(70.7%)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이 부모부양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순서를 따져보면 ‘자식 중 능력자’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높아 21.2%의 비율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아들과 딸(19.5%), 세 번째는 장남(15.1%), 네 번째는 아들(13.9%),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의 차례이다. 그러나 딸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능력을 가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해지고 있는 경향은 과거와는 다르게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식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전체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전국	100	9.6	70.7	18.2	1.3	0.2
서울	100	11.3	64.8	22.3	1.5	0.1
경기	100	8.7	71.6	18	1.5	0.3
강원	100	10.7	75.4	12.8	1	0.2
충청도	100	9.8	73.1	15.8	1.3	0.3
전라도	100	8.0	77.5	13.3	1.1	0.2
경상도	100	11.4	72.8	15.7	1.3	0.1
제주도	100	8.4	72.3	18.1	1.1	0.1

자료: 통계청. 042-481-2272,2275의 자료를 재구성.

그리고 가족 다음으로는 가족과 함께 정부·사회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하고, 세 번째는 정부·사회, 그리고 기타의 순서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아도 가족 지향적 추세이며, 그 가운데에서 전라남도가 77.5%의 비율을 보여 가족부양을 가장 지지하는 편에 속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자식 중 능력자’가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

각이 21.4%이며, 두 번째로는 '아들과 딸(22.3%), 세 번째는 장남(18.6%), 네 번째는 아들(14.4%), 마지막으로 딸(0.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순위는 비율적인 분포는 달라도 전국 평균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가족이 부양책임을 맡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 다음은 '가족과 정부·사회', 나아가 '정부·사회', 그리고 '스스로 해결'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정부·사회' 다음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즉 가족이 먼저 부모 부양을 해야 하지만 더불어 정부와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터이어서 그만큼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겠다.

3) 부모부양으로 인한 세대 및 가족 갈등

세대간의 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공간인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가정 내에서는 세대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노출될 수가 있다. 우리의 전통가족은 일반적으로 끈끈한 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동체로서 존재해왔다. 따라서 가족은 긴밀한 정서적 유대 속에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져 오히려 서로를 심리적으로 구속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족 내의 세대차이는 '친밀성'과 '갈등'이라는 모순을 내포하면서 끊임없는 변증법적 지양을 계속해가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발전의 계기가 상실될 때에는 가족간의 갈등이 빚어져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원 사이의 세대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간에 격차가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의 폭이 크고 빠를수록 세대간의 의식격차(generation gap)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사회학회 편, 1994). 세대차이는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다른 성장 배경에 의해 개인의 의식, 행동, 생활양식 등에서 괴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는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접착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각 세대간에는 정서 및 시각의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양옥남, 2005).

특히 한국사회의 노인세대는 농촌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중첩적으로 경험하면서 변화에 발맞추는 젊은 세대와 갈등을 빚을 소지를 남긴다. 이에 덧붙여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인교육이 부족하고, 세대 격차를 줄이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노인을 둘러싼 세대간의 의식격차는 사회와 가족 내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놓여있는 노인의 소외감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마침내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이 가족 내에서 설 자리가 흔들리는 실정에 있다.

가족의 노인부양은 사적부양으로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의 형태로 구분된다. 경제적 부양은 식사문제와 더불어 의료, 주거, 용돈, 사회활동 비용 등을 해결해드리는 것이다.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성격을 배려하고, 고립감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도우는 측면이다. 따라서 말상대가 되어드리고, 의논드리며,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리고 서비스부양이란 신체적 상황에 따라 수발을 하는 것이어서 식사, 세면, 목욕, 심부름, 건강체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은 만성질환에 노출되기도 하여 부모부양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의 장기요양보호 노인가정 6백가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주부양자는 배우자, 며느리, 딸과 사위, 아들 등의 순서를 보인다. 특히 수발용품구입과 의료비 부담의 문제가 크며, 수발자의 40%가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노인부양자의 84.5%가 교양·취미활동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2003)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간 갈등은 22.3%, 형제간 갈등은 22.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문제가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다섯 가족 중 한 가족은 남편의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아내부모 부양문제에는 부부간 갈등이 11.7%, 형제간 갈등이 10.3%여서 남편부모의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인다. 더욱이 부모가 노환이 있을 시에는 부양문제로 갈등을 겪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의존성이 높은 초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시에는 부양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표 2>에서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표 2> 부모부양 문제에 따른 가족 갈등

구분	가족갈등 내용
부모부양 문제	부부갈등, 22.3%, 형제간 갈등, 22.1%
노환을 앓는 부모부양 문제	부부갈등, 35.6%, 형제간 갈등, 37.9%
부양자의 특성에 의한 갈등	남편의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경험.

자료: 양옥남(2005). “부모·자녀간의 세대갈등과 대안: 노인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문화원 편. 『21세기 한국가족』, p. 121에서 재구성.

나아가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때에는 부양스트레스 및 가족스트레스가 유발되기도 한다. 가족스트레스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체계의 유지가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며(홍옥화, 2001),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즉, 규범적 스트레스는 가족주기에 따른 사건이 원인이 되며, 취학, 입시, 취업, 혼인, 노환,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 같은 경우이다. 또한 비규범적 스트레스는 급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구성되며, 즉 주위 사람들의 급작스런 사망, 질병, 입원, 정신질환, 유산, 장애아의 출산, 파산, 가족부양자의 실직, 유기, 가족성원의 자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예기치 않은 죽음 등이다. 여기에서 노인부양과 관련되는 가족 스트레스는 부모의 노환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부모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의 수발을 받으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4) 노년기의 주거 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사회는 아직 가족부양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부양보다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녀와 떨어져 산다고 해서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자녀와 동거한다고 해서 적절한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감안하거나 노인의 신체적 쇠퇴를 감안할 때,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신영,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노인실태와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가구형태는 10년 전인 199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노인독신가구는 14.9%에서 24.6%로 9.5%가 높아졌다. 또한 노인부부가구는 23.6%이던 것이 26.6%가 되어 3.6%의 상승비율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자녀와의 동거가구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 1994년에 53.2%이었는데 2004년에는 43.5%로 하강 폭은 9.7%나 된다.

〈표 3〉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

(단위: %)

구 분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계(가구)
2004	24.6	26.6	43.5	5.4	100.0(2,456)
동 부	22.1	24.5	47.7	5.7	100.0(1,689)
읍·면부	30.0	31.3	34.0	4.7	100.0(767)
1998	20.1	21.6	53.2	5.1	100.0(1,958)
1994	14.9	23.6	56.2	5.2	100.0(1,599)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그리고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 100명중 29명은 1세대가구에 거주하며, 16명은 혼자 생활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30.8%는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가구(부부로 구성된 가구) 거주비율은 28.7%, 2세대가구는 23.9%로 나타남. 또한,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는 16.2%로 나타났다. '90년에 비하여 1세대 가구는 크게 증가(11.8%p)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65~69세 연령층은 1세대 가구에, 70세 이상은 3세대 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 8.9%에서 2000년 16.2%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실태를 보면, 2000년도 65세 이상 인구중 29.9%가 3세대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1세대가구(28.7%), 2세대가구(23.9%)순이고,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는 16.2%로 나타났다. 1990년에 비하여 1세대 가구는 증가(11.8%p)한 반면, 3세

대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65~69세 연령층은 1세대 가구에, 70세 이상은 3세대이상 가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표 4> 노인의 거주형태

(단위:%)

		남성	여성	혼인상태 아님	혼인	도시	농촌
1990							
자녀와 비동거	31.8	38.4	27.96	22.5	41.9	24.2	40.5
기혼자녀와 동거	51.5	38.5	59.2	65.0	36.8	56.7	45.6
미혼자녀와 동거	16.7	23.1	12.9	12.58	21.3	19.1	13.9
2000							
자녀와 비동거	50.9	58.1	46.6	39.0	61.9	42.5	62.6
기혼자녀와 동거	35.7	24.3	42.7	50.6	22.0	41.0	28.3
미혼자녀와 동거	13.4	17.6	10.8	10.4	16.1	16.5	9.1

자료: 통계청의 1980-2000년 2% 표본조사 결과를 재구성.

그리고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 100명중 29명은 1세대가구에 거주하며, 16명은 혼자 생활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30.8%는 3세대이상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가 구(부부로 구성된 가구) 거주비율은 28.7%, 2세대가구는 23.9%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여성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독거노인의 84.6%는 여성노인이다. 여성노인의 경우 5명 중 1명은 혼자 노후생활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4명 중 1명이 노년을 혼자 보내고 있다(장하진, 박영란, 2002). 또한 고령자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의 거주 장소를 보면 자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49.0%로 가장 많고, 자녀가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고령자는 18.1%이다. 성별로 보면 자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고령자 비중이 남자(42.0%)보다 여자(53.3%)가 높다.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가운데에는 주거서비스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기는 신체적·심리적 기능이 약해지므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러므로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주택은 생활기능의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또한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설계를 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고 노인을 보호·수발하는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에게도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물리적 장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III. 노년기 재혼의 현황과 문제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노년기의 사별, 황혼이혼의 분위기로 홀로된 노인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의 재혼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그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2004)의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52.0%이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사별, 이혼, 미혼을 포함하여 48.0%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 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상승하여 70대의 경우 51.8%이며, 80대는 75.8%나 된다.

위와 같은 통계 결과에서 볼 때에도 노년층의 무배우 비율이 높아 노인 재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재혼 비율은 1981년 0.7%, 1990년 0.9%, 2000년 1.5%이며, 2004년에는 2.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의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게 되며 여성노인에 비하여 남성노인의 재혼 비율이 더 높다. 노인의 재혼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인재혼에 대한 노인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의 재혼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실패율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2006).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재혼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혼의 어려운 문제들이 뒤따른다. 예컨대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향이 많아(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99) 성인 자녀들은 홀로된 부모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하여 재산이나 상속에 대한 갈등, 계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염려 등으로 재혼에 대하여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서병숙, 1998). 성인자녀가 홀로된 노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하영갑, 1998)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에게 환영받는 혼인이 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기동, 1993)는 것이다.

노인 재혼의 실패원인으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 전통적인 사회규범과 노인자신의 규범의식, 자녀들의 부정적인 태도, 실생활에서의 생활양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실패와 문화적 괴리감을 들고 있다. 특히 성인 자녀들의 태도 여부는 노부모들의 재혼 결정과 성공적인 재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인부양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홀로된 노인들의 외로움을 감소하고 일상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배려는 세대를 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로 생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에 의하면 노인의 자녀동거가구는 '98년에 53.2%에서 43.5%로 감소하였고 노인가구 중 노인혼자 살고 있는 노인독인가구는 24.6%이다. 이는 더 이상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년도의 '재혼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상태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면 <표 >과 같다. 그러나 간편한 이해를 위해 '재혼에 찬성' 하는 편과 '재혼에 반대' 하는 편으로 구분하여 다음에서 재정리 해보기로 한다. 즉, 지역별로는 노인의 재혼에 반대(16.7%)하는 비율보다 찬성하는 비율(27.7%)이 더 높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동 소재지 보다 읍·면소재지가 더 찬성하며, 반대에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

한 이유를 추측해보건대 요즈음 농촌의 젊은 남성들 동남아 여성과 혼인하기 위한 상담들이 성행하며, 실제로 혼사들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년기의 재혼은 일반적인 재혼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를 관찰하자면(김태현, 한혜신, 1996) 노년기의 재혼 이유는 병이 들어 자식을 귀찮게 한다거나, 버림받을까봐, 또는 경제적 어려움,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대한 괴로움 등이 이유로 나타난다. 지난 '93년 12월부터 3개월간 한국노인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 2백36건 가운데 재혼과 성에 관한 상담이 취업, 건강, 노인시설의 문의에 이어 4위에 오른 적이 있다. 노인들은 '외롭다' '여자친구를 사귀고싶다' '수발을 들어줄 여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성의 필요성을 호소해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볼때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재혼할 가능성이 높고(배진희, 2004), 재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며, 실현 가능성도 보다 높은 편이다(이윤숙, 1990).

한편 생활만족 및 주관적 삶의 질 등과 관련한 연구(배진희, 2002)에서 보면, 노인 재혼이 생활만족도와 외로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년기 홀로된 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노인자신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낮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전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가옥 외, 1994).

<표 5> 노인의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건)

	남 편			처		
	1990	2000	2004	1990	2000	2004
재혼건수	33,348	43,617	56,671	28,153	48,324	63,555
65세이상	-	1,002	1,417	134	209	338
사별후	-	628	661	95	115	143
이혼후	-	374	756	39	94	195

자료: 통계청(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재구성

그러나 재혼의사를 가진 노인들은 많지만 성공적인 재혼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재혼의 어려움에 덧붙여 이성교제의 통로조차 매우 한정돼 있어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에 시달린다. 때문에 유원지에서 접근해 오는 여인들과 어울려 외로움을 달래려다 뜻하지 않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동아일보, 1994. 5. 8). 노인의 재혼이 개방적이지 못하며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는 이유는(김은진, 1955) 사회관념의 탓이기도 하며, 자녀의 부모 재혼에 대한 태도가 결렬됨이기도 하다(한혜신, 1996; 이정덕·최영아, 1997). 그러므로 노인 재혼의 성공 조건 중 하나는 친구나 자녀의 동조이며, 외국의 경우도 특히 자녀의 의견 및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다(Matin, 1972). 따라서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므로(건강·생활과학연구소, 1999) 자녀에게 환영받는 혼인이 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기동, 1993)

노인이 재혼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성격과 건강을 중요시 하며(방애심, 1998), 노인의 건강상태가 재혼 욕구에 중요함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발견된다(윤명희, 2000; 김은진, 1995). 그리고 성별에서의 남녀간 태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보다 희박하다. 그리고 연하의 남성과 결혼할 확률도 낮다(Treas & Hilst, 1976). 노인의 재혼 희망도는 홀로된 노인의 경우 많은 외로움을 안고 있어 재혼에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고, 외로움의 정도가 크며, 전혼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재혼을 보다 더 희망하고 있다(서병숙, 김은진, 1996). 아직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재혼이나 교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지만 노년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경향은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IV. 노인재혼에 대한 세대간 비교의 실증적 사례

이번에는 세대에 따라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 필자가 조사 분석 하였던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2002년도 서울, 경기지역의 일반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한 질문지에 의한 직접 면접 조사의 37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노인 재혼의 이유, 재혼 반대 이유, 재혼을 선택할 때의 중요사항, 재혼시의 교제기간, 노인 동거에 대한 의견, 노인 재혼시에 결혼식을 올릴 것인지 등에 대한 관계 분석의 항목들 모두가 유의미하였다.

먼저, 노인들이 재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외롭거나, 동반자가 필요하거나, 보호받기 위해, 자녀나 친지가 권유해서, 사랑을 하니까,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타 등의 항목을 작성하였다. 이 가운데서 청년과 장년층의 반응은 ‘동반자가 필요해서’ ‘외로우니까’를 중요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년층의 생각은 이와 다르게,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동반자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노년기의 3쁨에 속하는 고독 또는 소외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가 있다.

한편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의 재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2.9%로 기존의 사고에 대한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부부관계의 적응문제로, 자신과 상대방의 건강 때문에,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니까, 경제적 능력문제, 사회의 눈초리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며, 기타 등’이다. 전체적으로 동반자가 필요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그 보다 약간 낮아 42.2%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년층이 노인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새로운 부부관계의 적응문제’를 중요시 하며, 장년층은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니까’라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재혼문제에 상당히 관여해야 하는 장년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입장 역시 장년기 자녀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이유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고 답하여 청년기나 장년기가 미쳐 내다보지 못하는 측면을 관찰해 볼 수가 있다. 한편 청·장년층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인들은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노인의 재혼시 배우자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여기에는 ‘성격, 연령, 건강, 외모, 재산, 학력, 홀로된 사유, 자녀의 유무, 종교, 재혼경험’ 등의 항목들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청년기에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고, 장년기와 노년기는 공통적으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 두 항목이 서로 세대에 따라 의견이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하여 청·장년은 전혀 무관하며, 외모에서는 세 집단 모두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년층에서는 자녀의 유무나 재혼경험에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노인의 재혼과정에서 교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를 알고자 하였다. 개방형의 자기기입식 응답으로, 최대와 최소기간을 관찰하여 세 등분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결과 5개월 이하, 6개월~11개월 이하, 1년 이상의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세 집단 모두 다 1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장년기의 경우 1년 이상과 그 아래 수준이 차이를 많이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혼에 반대하신다면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는 청년층은 ‘상황따라’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 장년기와 노년기는 반대의 입장이 가장 많았다. 끝으로 “귀하는 노인의 재혼시 결혼식을 올리는데 찬성하십니까?”의 질문에서, 청년기는 찬성한다는 쪽이 30.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상황따라’인데 양자의 차이가 커서 2배수이다. 그러나 장년기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양쪽이 근소하다. 그리고 노년기는 찬성이 가장 많지만 세 항목에서 근소한 차이를 둘 뿐이다.

‘세대구분에 따라 재혼교제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서 세대구분에 따른 노인 재혼시의 교제기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구하는 분석의 검정통계량(F값)이 3.876이고 유의확률이 0.022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중비교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다중비교 결과 청년기는 장년과 노년기에 비해 차이를 더 많이 보여 노인의 재혼시에 교제기간이 더 오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장년기를 중심으로 볼 때 노년층 보다는 교제기간의 필요를 더 갖는 것이 좋다고 하며,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청년, 장년에 비해 유의미한으로 더 낮아 그리 오랜 교제기간을 원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V. 결 론

우리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가족관계는 보다 부부 중심으로 변하였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점차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는 생활습관, 가치관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공동체인 가족 속에서 오늘날 세대간의 마찰이 노인의 재혼문제를 둘러싸고 반영되는 측면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인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아직은 부정적이어서 노인들은 떳떳하지 못하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세대에 따라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노인재혼의 이유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청년과 장년층은 젊은 세대에 속하여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노인 자신은 외롭기 때문에 재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년층은 새로운 부부관계의 적응문제를 중요시 하는가 하면 장년과 노년은 자녀의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인의 재혼시 배우자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청년기에는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고, 장년기와 노년기는 공통적으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정적 요인은 감소하고 실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므로 세대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가 있다. 나아가 보다 더 보수와 개방을 표출하는 질문인 '법적인 문제 때문에 노인의 재혼에 반대할 경우 노인의 동거에 대한 의견'에서 청년층은 '상황따라 결정'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장년기와 노년기는 반대의 입장이 가장 많아 태도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노인의 재혼시 혼례식을 올리는데 대한 의견은 청년기는 찬성한다는 쪽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상황따라 한다' 이다. 장년기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양쪽이 차이가 근소하며 노년기는 찬성이 가장 많은 편이어서 예외적인 면이 부각되나 이것은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태도로 보인다. 노인의 재혼에 관한 문제를 두고 가족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세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제의 사례들은 주위의 관찰을 통하여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갈등 측면의 객관성 있는 증거 자료들을 만나기는 흔하지 않다.

아무튼 우리사회에서 노인재혼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은 표면에 크게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되며 직접 당사자인 노인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들이 증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의 재혼 문제를 위한 상담관련 기관이 별도로 마련될 것을 제안하며, 그러기 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먼저 배출되어야 하고, 한편 노인재혼을 위한 예비 교육이 노인자신과 가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 한혜신. 1996. 사별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38.
- 김혜숙(1986). 제주도의 이·재혼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22, 411-432.
- 계능과 콜맨(2003). 김중숙 역. 『재혼 가족관계』. 서울: 한국문화사.
- 데이비드 엘킨스 (David Elkind). 『2000 변화하는 가족』. 이동원의 역. 이대출판부
- 미셸 바렛 (Michelle Barrett) 외. 1994. 『가족은 반 사회적인가』. 김혜경 역. 여성사
- 박경란·임춘희. 1996. “재혼노인의 재혼과정과 생활변화”. 인제논집, 12(2), 657-684.
- 방애심. 1998.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연구. 강남대 석사논문.
- 배진희. 2002. “노인 재혼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석사논문.
- 배진희. 2004. “노년기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통권 25권 가을호. 평화당, 211-232.
- 보건복지부. 2006. 2006희망프로젝트
- 서병숙. 1995. “노인의 재혼”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271-285.
- 서병숙·김은진. 1997.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11.
- 서병숙·김혜경. 1998. “노인의 재혼에 대한 기혼자녀의 지각” 『한국노년학』, 18(1), 91-106.
- 양옥남. 2002. “노인의 비공식 지지에 대한 인지가 사회서비스 이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3). 168-231.
- 양옥남·김혜경·김미숙·정순돌.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 윤명희. 2001. 홀로된 노인의 생활실태가 재혼욕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석사논문.
- 이정덕·최영아. 1997. “사별 및 이혼한 노인의 재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255-272.
- 조기동. 1993. “혼자 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노년학』. 13(2). 153-162.
- 해리스(D.K. Harris). 1998. “Sociology of Aging: second edition”. 최신태·김모란. 공역. 『노년사회학』. 하나의학사.
- 통계청(2005). 2005 고령자 통계.
- 현경자·김연수. 2002.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9, 225-263.
- 한경혜·이정화. 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8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Booth A., Johnson D., and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3.
- Glenn, N. 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 Levinger G. 1965. "Marital Cohen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19-28.

- McCubbin, H. and Patterson, J. M. 1982. "Family Adaptations to Crisis in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26-47
- Treas, J. & Hilt, V.(1976). Marriage and Remarriage Rates among Older Americans. *The Gerontologist*, 16. 136-143.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 은퇴를 전후로 하여

장 은 정

(경기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임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은퇴라는 전환기적 사건을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은퇴 이후의 구체적 변화와 그 변화들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부부 모두의 시각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기존 논의들과 이론에 대한 고찰을 거쳐 은퇴 이후 주요 변화 요인으로 경제적 변화와 지위변화를 선정하여 이 변인들이 부부관계 변화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남편이 은퇴한 상태이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부부 103쌍을 판단표집 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및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 이후 부부 모두 경제적 변화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위 변화 인식에 있어서는 부인에 비해 남편이 더욱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로 관계 변화 인식은 경제 변화, 지위변화 인식에 비해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인의 부부관계 변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 되었다.

* 주제어 : 은퇴, 경제변화, 지위변화, 부부관계 변화 인식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 은퇴를 전후로 하여

장 은 정(경기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임연구원)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서 유엔이 지정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³⁸⁾로 진입하였다(통계청, 2000).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통계청, 2005).

이처럼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인구의 고령화는 가족구조 등을 포함한 사회 제반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사망률의 감소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10년경에는 남자가 76.2세, 여자가 82.6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 2005). 이는 1960년 남자가 51.1세이고, 여자가 53.7세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5년 이상이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 노인들은 결국 성인기의 4분의 1정도를 노년기의 삶으로 보내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Riley&Riley, 1986).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노년기의 삶은 특히 자녀들의 출가 이후 노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지 단계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노년기 부부관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는 지역사회나 직업에서의 은퇴라는 새로운 현실과 직면을 하게 되는 때이며, 이러한 은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변화된 상황에 새로이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생활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란 일에 의한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와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최신덕, 김종숙, 1983), 대개 노년학에서는 이를 노년기³⁹⁾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전환기적 사건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특히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부부만이 살아가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장기화 되는 추세 속에서 은퇴 이후 부부 재적응의 문제는 노년기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은퇴 이후 적응의 문제는 은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함께

38) UN의 정의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39)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범규에 따라 상이하다. 고령자 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며,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국민연금법상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규정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다(Fengler, 1975; Heyman, 1970). '하나의 결혼에는 그와 그녀의 결혼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듯이(Bernard, 1972) 은퇴라는 하나의 현상을 지각함에 있어서도 부부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은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지각을 포함시켜야 하며(Thompson & Walker, 1989), 이에 따른 차이와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특히 노년기 삶에 있어서는 여러 사회관계 중에서도 부부관계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은퇴의 영향력을 부부관계 내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은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근래의 일이며, 사실상 은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⁴⁰⁾.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의 필요성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은퇴 이후 노년기 삶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은퇴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연구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은퇴 경험의 다양성 및 은퇴의 성격 규명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며, 아울러 은퇴가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역동적 과정을 부부 모두의 지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은퇴 후에 나타나는 부부 관계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노년기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은퇴 이후 노년기 삶에로의 성공적 전이가 원만한 부부관계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정의

은퇴란 인간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전환기적 사건들 중의 하나로, 특히 이는 인생의 후기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적 사건이다. 은퇴에 대한 정의는 고용의 결여, 완전고용에서 부분고용으로의 변화, 은퇴 연금의 수혜, 은퇴 사실에 대한 자기 수용 등 그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서 애칠리(Atchley, 1976)는 은퇴란 전임(Full-time)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수입은 이전 직업으로 받게 된 퇴직 연금에 의존해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은퇴는 직업적인 경력(Occupational careers)이 중단되는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40) 은퇴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에 따른 은퇴자 자신의 개인적, 심리적인 적응만을 본 것이 대부분이었다(김애순·윤진, 1995 : 지연경, 1991 : 한희자, 강은실, 2001: 김은미, 2001). 물론 일부 연구들에서 이러한 은퇴를 부부관계의 변화와 연관해서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대체로 기술적 연구에 그치거나(신화용, 1996), 남편이나 부인 중 한 쪽의 지각에서 설명하는 단편적 연구들(이은영, 1996)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은퇴 자체에 대한 문제나 이와 관련된 가족 및 부부관계의 문제는 활발히 연구되어오지 않았던 반면 노년기 개인적 적응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기존 논의들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주로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기에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으나, 노년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경 가능한 변수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시점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L.K., George, 1980)

또한 장 인협과 최 성재(2002)는 은퇴를 유급의 직업적인 지위와 역할에서 물러서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퇴한 사람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은퇴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

은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은퇴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두 가지 상반된 견해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은퇴를 긍정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의 연구들이다(Bosse, Aldwin, Levenson & Workman-Daniels, 1991; Floyd, Haynes, Doll, Winemiller, Lemsky, Burgy, Werle & Heilman, 1992). 이 시각에서는 은퇴를 젊은 시절의 무거운 책임과 짐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로 인식한다. 이와 관련해서 에칠리(Atchley, 1971)는 은퇴를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보고 인생주기에 있어 오래 전부터 예견해온 단계로 여겼으며 노동을 인생의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단계의 잠정적인 과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퇴를 하나의 위기로 보는 시각의 연구들도 있다(Miller, 1965). 대표적인 학자로 밀러(Miller, 1965)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은퇴를 지위의 상실, 자아 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혹은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낙인 등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마이로브스키와 로스(Mirowsky & Ross, 1989)의 연구에서는 은퇴가 사회적 생산성 및 활동성과 관련된 고용상태로부터 개인을 분리시킴으로써 심각한 소외현상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스트라이브와 슈나이더(Streibe & Schneider, 1971)의 연구도 활동이론의 견해에 입각해 은퇴를 분리현상이나 소외로 설명함으로써 은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외 다른 학자들도 개인은 고용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긍정적이고 충만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은퇴는 곧바로 의존적이고 충만하지 못한 무력한 자아형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Hamilton and Wright, 1986 : Mirowsky and Ross, 1992; Ross, 1998). 이와 관련해 버제스(Buttess, 1960)의 경우도 은퇴는 단순히 은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준다는 것 외에도 역할과 지위의 상실이라는 면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그 태도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퇴의 태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견해의 합일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연구들은 은퇴가 노년기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서구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실상 은퇴제도가 일찍이 정착되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정착된 미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정년 연령, 은퇴에 따르는 준비부족,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경제적 역할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은퇴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대상으로 지각되는 경향의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은퇴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애순과 윤진(1995)은 60세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를 상실이나

위협상황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퇴 후 전반적인 적응 수준과 생활만족도가 떨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한 회자, 강 은실 (2001)도 은퇴 후 삶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은퇴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적인 상태변화 정도는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거주 지역, 종교, 은퇴 전 직업, 의료보험 종류, 현재건강상태, 은퇴한 이유, 은퇴 시기, 은퇴 전 직장의 근무기간, 은퇴 전 직업만족도, 은퇴 후의 생활비 준비 방법, 생활비 부담자, 생활비 부담방법, 사회활동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은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은퇴자들은 은퇴 후 정서 및 사회, 경제적인 상태변화 정도를 경험한다는 것을 제시함과 동시에 은퇴자들은 은퇴 후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 연경과 조병은(1991)도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은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내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련된 몇몇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서구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은퇴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생주기에서 맞이하게 되는 큰 변화이자 불연속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미비한 복지체제나 은퇴와 은퇴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현재 점차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변화되고 있는 사회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더 실질적 자료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은퇴 상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3. 은퇴 이후 부부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부부관계는 남편과 부인으로 개인들이 경험하는 관계 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이면서 동시에 가족제도는 물론 전체사회의 구조 및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따라서 행위수준의 부부의 행태와 관계 유형은 가족 집단 및 기타 사회조직과 전체사회구조의 특성과 연관하여 해석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조형, 1992).

한편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은퇴는 19세기 무렵 사회 경제적 변화의 역사 속에서 생겨나 이제는 필연적 과정이자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Quadagno, 1982, Leslie, 2001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제도로서의 은퇴는 여러 사회적 관계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특히 생애 주기 상 여타 다른 시기의 부부관계들 보다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연구에 있어서 은퇴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가족의 행태나 관계 유형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 되며, 더 나아가 이는 노년기 부부연구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욱이 노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매우 증가하는 시기로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Carstensen, 1992, 1995 : Lang & Cartensen, 1994)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족생활 주기 상에서 볼 때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 양육 기간의 단축 등으로 막내자녀 결혼 이후 두 부부만 남는 중·노년기가 필연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가 떠난 뒤의 노년가족 시기는 제2의 부부기로서 새로운 전망과 적응을 요하는 시기로 직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우리

보다 훨씬 빠르게 노년기의 확대에 직면한 서구 사회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Lee, 1988 : Atchley, et al, 1983 : Anderson et al, 1992, 김태현, 전길양, 1997,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기의 부부관계 연구나 서구의 연구에 비해 아직은 부진한 편이다. 특히 은퇴와 부부관계와의 연관성을 통해 노년기 부부문제를 접근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관련된 몇몇 연구들의 경우도 기술적, 탐색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태현, 전길양, 1996 : 신화용, 1996 : 조병은, 신화용, 1997).

또한 부부를 한 단위로 연구하지 않고 남자, 여자 각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지각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석에 있어서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행해진 노년기 부부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결혼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데 머물러 있으며, 은퇴와 관련해서도 은퇴자 자신의 개인적 적응과정에 대한 문제정도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는 사실상 노년기 부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나 은퇴의 영향을 부부관계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노년기 부부문제가 날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은퇴의 영향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의 역동성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은퇴에 따르는 부부 관계의 역동적 변화 과정 및 실태를 보는 한 일환으로 노년기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은퇴 전후를 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와 관련된 변화의 역동적 과정 및 그 영향력 등을 자세히 밝혀냄으로써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보다 새롭고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미진했던 은퇴 영향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노년기 부부 관계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퇴에 따른 주요 변화인 경제변화, 지위변화, 부부관계 변화 인식이 실제로 은퇴 이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은퇴 변인과 경제변화, 지위변화에 대한 인식이 최종 종속변인인 부부관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은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은퇴 이후 나타나는 주요 변인별 변화정도의 일반적 경향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1-1. 은퇴 이후 나타나는 은퇴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1-2. 은퇴 이후 나타나는 경제변화 인식 정도를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3. 은퇴 이후 나타나는 지위변화 인식 정도를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4. 은퇴 이후 나타나는 부부관계 변화 전반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은퇴 이후 나타나는 주요 변인별 변화가 부부관계 변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1. 은퇴 변인이 은퇴 이후 부부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2. 은퇴 이후 경제변화 인식 정도가 은퇴 이후 부부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3. 은퇴 이후 지위변화 인식 정도가 은퇴 이후 부부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남편과 부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은퇴한 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노년기 부부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며, 은퇴 후 이전과는 다른 비정규직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연구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은퇴자의 연령은 55세에서 70세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은퇴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은퇴에 따른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에 따른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의 표본추출 방법인 판단표집⁴¹⁾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표집하였고, 대상자인 노인들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서치 전문 조사원들의 방문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조사원들을 통한 본 조사에 앞서 본 연구자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 과정상의 유의점 등을 사전에 직접 교육하였다.

설문지는 총 260부(130쌍)가 배포되었고, 그 중 220부(110쌍)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7쌍의 설문지는 제외되었으며, 최종 분석 자료로는 총 206부(103쌍)가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Program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의 측정도구 구성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한 내적 일치도를 구성하였다.

41) 연구 성격상 모집단에 대한 지식과 연구목적에 기초해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가 있으며, 이런 형태의 표집을 유의적(purposive) 또는 판단적(judgemental) 표집이라고 한다(Earl Babbie, 고성호외 공역, 2002).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및 은퇴 이후 변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표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주요 변인별 남편과 부인의 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Paired t-Test) 및 독립표본 검정(T-test)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개별 변수들의 연관성 및 관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개 변수의 동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4. 주요변수의 측정

1) 은퇴의 정의와 측정

여러 이론적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은퇴의 조작적 정의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 55세에서 7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상태로 직업이 없거나 또는 사직한 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은퇴라는 현상 내부에도 은퇴 과정과 내용, 시기 등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기존연구들을 참조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은퇴의 변인들을 은퇴 이전의 직업, 은퇴의 이유(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노후 준비도, 은퇴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등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은퇴의 과정 및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퇴의 직접적 이유를 묻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정년에 의한 것과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것, 권고사직 및 명예퇴직에 의한 것, 그리고 기타의 4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정년에 의한 은퇴를 자발적 은퇴로 그 나머지 이유들에 의한 것을 비자발적 은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은퇴를 1로 비자발적 은퇴를 0으로 변환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 경제적 변화의 정의와 측정

경제적 변화는 은퇴 이후 나타나게 되는 객관적 측면의 경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실질 소득액수의 변화 정도와 주관적 측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생활비 만족도의 변화 정도의 두 가지 측면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생활비 만족도가 변화 없는 경우에서부터 더 증가한 경우를 0으로, 이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 지위변화 인식의 정의와 측정

은퇴 이후 지위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지위 변화를 가족 내에서의 지위변화와 사회적 지위변화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 두 항목의 값을 합쳐서 계산한 평균값을 지위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4) 부부관계 변화 인식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부부관계 질적 측면의 변화를 긍정적 변화 정도로 측정,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병은, 신화용(1996)의 연구와 손승영(1994), 최동숙(1991)등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은퇴 이후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친밀도, 의사소통 효율성, 여가공유도, 등을 설정하

였다.

회귀 분석에 있어서 최종 종속 변인이 되는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 정도는 위에서 언급된 하위변인들의 합을 통해 산출한 평균값을 그 최종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각각의 하위변인 및 이를 측정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친밀도

정서적 친밀도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는 남편과 아내가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적 지원과 심리적 의존도 및 가깝고 소중하게 느끼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6개의 문항 중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4개의 하위 문항을 정서적 친밀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친밀도의 Cronbach alpha 값은 0.847로 나타났다.

(2) 의사소통 효율성

의사소통 효율성에 있어서의 긍정적 변화는 은퇴 이전에 비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인지'와 '부부끼리 솔직하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 편인지'의 두 항목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 변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3개의 문항 중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한 2개의 하위 문항을 의사소통 효율성의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0.723이었다.

(3) 여가 공유도

은퇴 이후 부부간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책, 친지 방문, 백화점 쇼핑과 텔레비전, 비디오 시청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4개의 하위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각 항목의 내용을 은퇴 이후 더 많이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여가 공유정도가 은퇴 이후 더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0.835였다.

IV. 연구결과

1. 은퇴를 전후로 한 은퇴 상황 및 경제, 지위 변화

1) 은퇴 상황

남편의 은퇴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의 은퇴 기간을 살펴보면 2년 이하가 34%, 3년에서 5년이 33%, 6년 이상이 33%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유에서는 정년에 의한 은퇴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 14.6%,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은퇴도 동일하게 14.6%로 나타났고 22.3%는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전 직업을 살펴보면, 먼저 표준 직업분류표의 기준으로 작성된 직업분류에 따라 행정관료직 및 고위 관리자가 24.3%, 전문직이 3.9%, 기술 전문직이 11.7%, 사무직이 14.6%, 상업 및 판매직이 15.5%, 서비스직이 3.9%, 노무직이 4.9%, 기능직이 17.5%, 군인 및 기타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이후 경제적 준비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계획과 준비를 한 경우가 약 58% 정도에 달했고 막연한 계획 내지 거의 준비를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도 약 40%를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연금, 개인보험, 은행저축, 재취업 준비 및 창업 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은퇴에 따른 경제적 변화 인식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인들 중 독립 변인중의 하나인 은퇴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 관련된 일반적 경향을 해석하고자 한다. 주요 변인들로는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변인을 비롯하여 지위변화 인식, 부부관계 변화 인식 등의 변인들이 있다. 특히 주요 변인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남편과 부인에 따른 일반적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대체로 많은 가구가 이전의 직업적 활동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소득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줄어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6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2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경우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은퇴 후 경제 변화 문제를 살펴본 결과,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노년기 가족에 있어서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으며, 이는 앞으로 더 길어질 노년기를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년 연장이나 노인 고용의 확대 및 연금 제도 확충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주관적 측면의 만족도 변화를 설문한 결과를 남편과 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편들의 경우 생활비 만족도와 관련하여 은퇴 이전에 비해 더 풍족해진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9%로 매우 드물었으며, 이전과 별 차이 없다가 27.2%, 부족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71%로 대부분 은퇴 이후 소득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들의 경우 더 풍족해진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로 극히 적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로 남편들 보다 약간 많았고, 부족해진 것으로 느끼는 경우는 6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남편과 부인 모두 대체로 은퇴 이후 생활비가 이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실제 소득변화 정도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활비 만족도 변화와 관련된 남편과 부인의 응답을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비슷한 응답을 보임으로써 생활비 만족도 변화에 있어서는 남편과 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편과 부인은 생활비 만족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은퇴에 따른 지위 변화 인식

가족 내 지위변화 인식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이전과 비슷 하다는 의미하는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의 평균값은 3점에 다소 못 미치는 2.70으로 부인의 평균값인 2.93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부인 평균값의 경우 2.93으로 거의 기준점인 3점에 다다름으로써 은퇴 전후 지위변화에 대해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으로 보이나, 남편의 경우 이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부인에 비해 은퇴 이후 가족 내 지위가 더 낮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균값은 각각 2.36과 2.71로써, 남편과 부인 모두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역시 가족 내 지위변화 인식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경우가 부인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차원에서 지위 변화 인식에 대한 t-test결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부인들에 비해 남편들의 경우 은퇴 이후 지위변화 인식을 훨씬 부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부부간 은퇴 이후 지위변화 인식

변수	구분	남편		부인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위 변화	가족 내 지위변화	2.70	0.636	2.93	0.490	-3.380***
	사회적 지위변화	2.36	0.713	2.71	0.511	-5.263***

*p<.05, **p<.01, ***p<.001

4) 은퇴에 따른 부부관계 질적 변화 인식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은퇴 후 부부관계 질적 변화 인식 정도를 남편과 부인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먼저 남편과 아내에 따른 정서적 친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편의 평균값은 3.75, 부인의 평균값은 3.49로 부인과 남편 모두 대체로 정서적 친밀도는 은퇴 이후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남편의 경우는 부인에 비해 정서적 친밀도 변화의 긍정적 변화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매우 증가하는 시기로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실증적 연구들(Carstensen, 1992, 1995 : Lang & Cartensen, 1994)의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의 또 다른 하위 변수인 의사소통 효율성의 경우 남편의 평균값은 3.33, 부인의 평균값은 3.39로 부인, 남편 모두 은퇴 이전에 비해 대체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부간 여가 공유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모두 은퇴 이전에 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각 하위 변수 별로 남편과 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친밀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이후 정서적 친밀과 의사소통 효율성 및 여가 공유도 모두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 부부관계 긍정적 변화 전반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부부관계의 질적 변화 인식

변수	남편		부인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친밀	3.75	.72	3.49	.80	3.979***
의사소통 효율성	3.33	.68	3.39	.72	-0.944
여가 공유도	3.37	.89	3.35	.91	0.369

*p<.05, **p<.01, ***p<.001

5) 은퇴 이후 부부관계 질적 변화 인식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도와 의사소통 효율성, 그리고 여가 공유도의 증가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영향 정도는 남편과 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따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이 인지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은퇴 변인과 경제변화 변인, 지위 변화 변인 등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달리 부인의 경우에는 은퇴 변인들 중 경제적 측면의 노후 준비 정도와 생활비 만족도($\beta = -.20$)가 은퇴 이후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에게 있어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정도나 어느 정도의 수입 만족도는 남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위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준비나 만족은 뚜렷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부인에게 있어서의 노후 적응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준비 및 안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을 은퇴 후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 하고 있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의 결과들과도 일치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부관계 변화 인식에 대한 남편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보면 부인과는 달리 은퇴변인과 경제변화 및 지위변화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경우 은퇴 이후의 변화는 사실상 있지만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위에서 제시되어진 변인들이 아닌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남편의 경우 은퇴 변인과 은퇴 후 경제와 지위변화 자체가 부부관계에 위협을 주는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오히려 남편이 인지하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바람직한 부부관계 변화를 위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부부관계 질적 변화에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독립변수	구분	남편 β	부인 β
은퇴변인	은퇴기간	-0.021	-0.146
	은퇴이유	-0.018	-0.128
	은퇴이전직업	0.026	-0.070
	은퇴준비도	0.220*	0.232*
경제변인	소득변화	-0.015	0.091
	생활비만족도변화	0.022	-0.204*
지위변인		-0.173	-0.169
통제변인	연령	0.040	0.100
	교육	0.142	0.078
	건강	0.035	0.061
	종교	0.057	0.049
F		1.199	2.729**
R ²		.127	0.248

*p<.05, **p<.01, ***p<.001

*은퇴 이유 1 (자발적 은퇴), 은퇴이전 직업 1 (화이트칼라), 생활비만족도 1 (낮아졌다), 건강정도 1 (지병이 있다), 종교 1 (종교생활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은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사실상 은퇴를 기점으로 많은 생활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또 이에 적응해가야 하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의 노화과정과 더불어 겪게 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서의 은퇴는 기존 논의들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가는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인생의 도전적 측면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위협적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행해진 조사의 종합적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은퇴는 도전적 상황 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다소 많은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은퇴를 부정적 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위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가져왔던 직업적 지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은퇴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역할 상실 및 사회적 지위 상실의 문제를 가져다줌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부정적 측면의 경험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적응 문제 역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의 이러한 경제와 지위 인식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은퇴 이후에도 은퇴자들이 무언가 자기 자

신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은퇴라는 사건은 단순히 은퇴자 당사자에 국한된 개인적 사건이 아니며, 은퇴로 인한 변화와 적응 과정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퇴를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은퇴 이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은퇴자 당사자를 비롯해서 은퇴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배우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정 내에서 은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은퇴라는 사건이 부부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은퇴 현실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은퇴 후 부부관계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여러 현실적 변화와는 달리 관계적 차원의 변화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은퇴 이후 노년기 부부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론적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그동안 사회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은퇴의 문제를 관계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부부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부부를 단위로 자료 수집을 함으로써 남편과 부인의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결국 부부가 결혼으로부터 얻는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한 쪽의 입장만으로 부부관계를 분석해왔던 기존의 연구 방법에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고 남편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소득 수준, 그리고 건강 등의 면에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몇 결과는 표본 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퇴의 문제를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여건상의 한계로 인해 은퇴를 전후로 한 부부관계 변화를 측정하는 데 있어 회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에 보다 명확한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일 집단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결코 짧지 않기에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은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보다 바람직한 노년기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애순 · 윤진, 1995, "은퇴 이후의 심리, 사회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한국 노년학, 15(1).
- 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1), pp. 169-185
- 김은미, 2001, 「은퇴한 남자어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숙, 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 1997, 「노년학」, 교문사, pp.246-247.
- 김태현,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공유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7(2), pp.167-181.
- 배문조, 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 손승영, 1994,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8장,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 관계」, 사회문화 연구소 출판부.
- 신화용, 1996, "1980년 이후의 노년기 가족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신화용, 1996, "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 4(12).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 가족보고서 작성"(미간행).
- 윤진, 1986, 「성인 ·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선미, 2001,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은정, 2006, "부부간 인식차이에 따른 은퇴 후 가족관계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병은, 신화용, 1999,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 만족도", 한국노년학, 19(1), pp. 31-44.
- 조병은, 신화용, 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 가정학회지, 39(1).
- 조형,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 연구소.
- 지연경, 조병은, 1991, "내외 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 만족도", 대한 가정학회지, 29(2), pp.217-140.
- 최규련, 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재, 장인협, 2002, 「개정판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신덕, 김종숙(1983), 「노인과 사회」, 고시연구사, p. 156.
- 통계청, 2005, 「2005 고령자 통계」
- 한희자, 강은실, 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태 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 Anderson, T. B., 1992,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 wife and retired-wife couples",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pp.174-188). Newbury Park: Sage.
- Atchley, R. C., 1972,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Belmont, CA: Wadsworth.
- Atchley, R.C., (1976), 「The Sociology of Retirement」. New York: Schenkman.
- Atchley, R.C., (1977), 「The Social factors in later life」,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 Inc.
- Atchley, R.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 pp.183-190.
- Atchley, R.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Szinovacz,D, Ekerdt & B. Vinick(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Wadsworth.
- Bengston, V.L., C. Rogental, and L. Burton.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pp. 263-287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3rd ed.)」, R. H. Binstock and L. K. George, (Eds.). San Diego: Academic Press.
-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World Publishing.
- Boss, R., Aldwin, C. M., Levenson, M. R. & Ekerdt, D. J., 1991,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ociety", *Psychology and Aging*, 5, pp. 41-47.
- Buttges, E. W., 1960, 「Aging in Western Societies」,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Carstensen, L.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3), pp. 331-338.
- Carstensen, L. L., ,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Psychological Science*, 4(5), pp. 151-156.
- Carstensen, L. L and Lang, F. R., 1994, "Close emotional relationships in late life: Further support for proactive aging in the social domain", *Psychology and Aging*, 9(2), pp.315-324.
- Fengler, A., 1975, "A Attitudinal orientations of wives toward husband's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75, 6, pp. 139-152.
- Floyd, F. J., Haynes, S.N., Doll, E. R., Winemiller, D., Lemsky, C., Burgy, T. M., Werle, M., & Heilman N., 1992, "Assessing retirement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retirement experiences", *Psychology and Aging*, 7(4), pp. 609-621.
- George, L.K., 1980, 「Role Transition in Later Lif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amilton, Richard F., and James D. Wright, 1986, 「The State of the Masses」, New York:Aldine de Gruyter.
- Lee, G. R., 1988, "Marital Satisfaction in later life: The effects of nonmarital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775-783.
- Leslie Morgan, Suzanne Kunkel, 2001, 「Aging-The Social Context」 (2nd ed.), Pine

forge Press.

Mirowsky, John and Catherine E. Ross, 1989, 「Social Causes of Psychological distress」, New York: Aldine de Gruyter.

Streib, G. F., Clement Schneider, 1971, 「Retirement in American Society: Impact and Proc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소비주체로서의 노인: 패러다임의 전환

최 혜 경

(이화여대 인간소비자발달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자는 노인소비자를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소비주체로서 개념화하고, 노인 소비자들이 노후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를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고령 한국사회에서 노인소비자 연구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소비자에 대한 관심은 노인인구의 증가, 사회경제적 잠재력의 발견, 주체의식의 발전과 함께 증가해왔다. 그러나 아직 노인소비자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의 고정관념적인 노인관에서 벗어나 노인소비자의 이해를 깊이하고 노인소비자에 어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 연구들의 고찰은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통해 소비주체로서의 노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노화 연구분야에서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다른 연구들은 노인소비자 연구분야에서 잇슈가 되고 있는 노인소비자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긍정적 노화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노인의 무의식에 내재한 기본욕구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자는 성공적인 노화 연구들이 노인소비자 이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들을 중심으로 노인소비자연구는 (1) 노인소비자들간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 결과만이 아닌 노인소비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에서 파생되는 동기와 욕구에 민감해야 하며, (3) 노인소비자의 특성을 가족과 친밀한 관계의 맥락 속에서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노인소비자들이 노후의 삶에 대해 지니는 욕구를 탐구하고 규명할 수 있는 도구이자 노인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이후의 연구들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소비주체로서의 노인: 패러다임의 전환

최 해 경(이화여대 인간소비자발달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 정도로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또한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32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 2002).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것으로서 (통계청, 2002) 보건의료, 복지 등 노인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도 그만큼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가 성취한 외형적 경제성장은 근년에 이르러 웰빙 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노년의 삶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접근은 아직까지도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치료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데 급급하여, 노인들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삶에 안주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이전 세대의 노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양식을 지닐 것이다. 예를 들어, 해방직후 태어난 한국의 Baby Boom 세대들은 향후 10-20년 내에 새로운 노년세대를 이룰 것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노후의 경제적 자립능력에 가치를 두며, 또한 성장과정에서 서구문화를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Sadler, 2000), 이들 Baby Boom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에 진입하게 되면 한국 노인들의 생활습관과 문화를 빠르게 바꾸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은 풍부해진 지적·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확장된 노후의 삶의 질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며, 사회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의 견지에서 취사선택하는 주체적인 소비자적 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이제까지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노년학 분야에서도 과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노인에 대한 관심에서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현하고 충족하려는 노인소비자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소수의 기존 연구들도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에 그쳐, 노인소비자에 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소비자를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소비주체로서 개념화하고, 노인 소비자들이 노후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를 성공적인 노화 (successful aging) 연구의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고령 한국사회에서 노인소비자 연구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소비자는 마케팅이나 소비자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소비자 (older consumer) 또는 성숙소비자 (mature consumer)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노인인구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예비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50세 이상을 노인소비자로 정의한다 (박영근, 김판준, 2002, 23; Bartos, 1980). 노인소비자를 이렇게 정의하는 근거는 그 연령대에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보다는 주로 이들 연령층을 특징짓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및 퇴직준비와 관련된 욕구의 변화이다. 따라서 노인소비자의 개념정의는 자사의 삶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소비주체로서의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는 특정 연구의 경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노년기에 제기되는 다양한 발달적, 사회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려는 이론적, 실증적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노후 삶의 어떤 측면과 수준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학자들마다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고 그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다. 그러나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고령 사회에서 노년기에 지향할 바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이들 노력들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 분류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선 노인소비자에 대한 관심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소비자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노인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 제기하는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노인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결과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적용하여 노인소비자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노인소비자에 대한 관심의 발전

인구의 노화는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집단 중 노령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 구성에서 어느 연령집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의 그 연령집단에 대한 반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중반까지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시기로서 인식되었다. 노년의 행동특성을 다룬 연구들은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과 빈곤과 고립의 존재로서의 노인에 관심을 가졌으며, 노인의 소비자로서의 잠재력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리대용, 김미애, 2003; Moschis, 2003). 노인소비자 시장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인구의 하층 영역으로 간주되어, 기업에서는 젊은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노인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나 노인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나 정보수집도 드물었다. 노인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연구였다. 결국 노인들은 타산성 있는 시장이기보다는 주로 공공정책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인 핸디캡을 지닌 집단으로서 관심을 받았다.

미국에서 노인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의 인구의 노령화와 시장에서 노인들의 수와 잠재적인 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들이 누적되면서 1980년경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Bartos (1980)은 인구 중 50세 이상 집단을 다양한 생활양식과 구매력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성숙시장 (mature market)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성숙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어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노인소비자들을 염두에 둔 광고나 마케팅은 실제보다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마케팅 전략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Moschis, 2003).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의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본격적으로 노인을 의존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학자들은 이 시대 노인들의 특징을 “Third Age”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Laslett (1989)가 구별한 4개의 생애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세대를 언급하는 연령대가 Third Age와 Fourth Age이다. 특히 Third Age는 가족과 직장에서의 책임에서 벗어나서부터 Fourth Age의 특성인 만성적 질환과 영구적인 쇠퇴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생애단계의 부분을 나타낸다. Third Age에 속하는 노인들은 기대 수명이 길고, 건강상태도 좋으며 재정적인 복지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며 욕구충족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노년학 분야에서는 이들 Third Age에 속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숙시장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라든지 생애 후기의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와 저술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매스미디어에서는 노령인구 구매력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노인시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노인소비자의 이미지를 핸디캡이 있고, 소극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로부터 보다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유복한 이미지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 역시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의 시행착오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리대용, 김미애, 2003; Moschis, 2003).

Third Age처럼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노인의 이미지는 생애 후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개인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내포한다. 그러나 Third Age에 속한 노인들 중 많은 노인들이 계속 가족이나 일의 부담을 지니고 있고, 재정적인 걱정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생애는 단일한 진행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가 진행되는 맥락에 따라 노후 삶의 경험의 달라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노인소비자 연구에 헌신과 주의를 증가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Moschis, 2003).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성숙시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됨에 따라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에 대한 접근에서 노인소비자를 비판적이든, 낙관적이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인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소비자의 욕구를 더 잘 규명하고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성숙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누적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신체적, 경제적 복지를 위해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이라

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노인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며, 필요용품조차 대부분 자녀들을 통해 구매하였다 (이현기 외, 1988). 그러나 노인들의 노후 소득원이 보장되고, 개인주의적인 서구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자녀에 의지하기 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즐기고 고령자 자신들을 위한 능동적인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현기 외, 1998).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은 사회의 맥락과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한규석, 신수진, 1999), 지난 1세기 동안 정치, 사회, 경제에서 급격한 변동을 겪은 한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코호트간에 가치와 행동 특성에 있어서 코호트간의 차이를 더 크게 벌려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인코호트는 현재의 노인코호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양식을 지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상민 (1999)의 세대구분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노령집단에 해당하는 ‘해방전후복구세대’와 ‘근대화세대’는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고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내재하여 자신보다는 가족과 소속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녀를 통한 성취를 강조하는 세대이다. 하지만 더 젊은 연령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 노인들과는 달리 Laslett (1989)가 기술한 Third Age의 특성을 많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0, 50대인 ‘경제 부흥기 세대’는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가 공존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직업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보다 벗어나서 자신의 삶에 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실현하는 것을 중시할 것이다. 다음 세대인 386세대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거부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 경제적 여유, 화목한 가정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노년기에 Third Age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제 부흥기 세대’는 2010년도에 노령으로 진입할 것이며, 386 세대는 2020년도에 노령으로 진입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한국 노인인구의 생활양식은 물론 한국사회의 주도적 문화적 동향을 이루게 되면서 소비주체로서의 노인에 대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접근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곧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제도가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그들의 자원과 기여를 끌어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소비자와 성숙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고조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노인소비자들이 소비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재 노인코호트와 다음 노인코호트간의 가치관과 행동특성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동일 코호트내에서도 노인소비자들간의 실제 또는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III. 노인소비자 연구에서의 이슈들

소비는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지금까지 노인 소비자의 특성들을 규명해온 연구결과들은 노인소비자의 욕구와 행동특성은 그들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따라 독자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영근, 김판준, 2002; Cutler, 2004/2005; Moschis, 2003; Timmermann, 2004/2005; Wolfe, 2004/2005). 그동안 학자들이 노인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 제기한 이슈들 역시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1. 노년기 다양성의 이해

노화의 과정은 연령에 따라 단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altes 등 (1987)은 개인의 노화과정에는 연령규범적 요인, 역사규범적 요인, 비규범적 요인의 세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연령규범적 요인 (age-normative influences)은 생물학적인 성숙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같은 연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역사규범적 요인 (history-normative influences)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사적 세대(cohort)는 한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비규범적 요인 (non-normative influences)은 특정 연령이나, 특정 사회나, 특정 역사적 세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 세가지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화과정은 상당히 큰 다양성을 보인다. 그리고 개인의 노화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개인간 다양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커져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개인간 차이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느 연령의 소비자집단에서든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노인소비자들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큰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특징지어진다 (Timmerman, 2004/2005). 노인소비자들은 그들의 소득수준이 어떠하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품 뿐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하고 있다 (Timmerman, 2004/2005). 그런데 노인소비자들은 노화의 과정이 다양한만큼 그들의 욕구와 처한 상황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노인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노인소비자는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은 성숙시장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연령의 기준으로 모든 노인소비자에게 균등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소비주체로서 선택의 기회를 요구하는 노인소비자에 반응하여, 노인소비자 개인의 선택과 만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노인문화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노인소비자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숙시장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연결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제한함으로써, 노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노인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좀 더 긍정적인 노화의 이미지의 개발에 있다 (Featherstone & Hepworth, 1995). 노화의 이미지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작용을 평가하고, 해석과 재해석을 부여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인생의 후반기에 의미를 주는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노화의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연구자들이나 마케터나 정책결정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다. 노인소비자들도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Featherstone (1995)는 노인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수용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소비자로서의 욕구와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소개하였다.

Featherstone (1995)는 현대 서구문화 속에서 긍정적인 노화 이미지는 노화의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체와 행동과 커리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때론 마치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들이다. 이러한 노화의 긍정적 이미지는 노인들이 닮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건강관리나 성형수술, 평생교육과 직업기회 등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쇠한 신체와 질병, 내적 자아의 위축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을 위한 적절한 기초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이미지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능한한 숨기고 회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불편함을 탈피하고 보완하기를 모색하고, 이를 가능케해주는 가상현실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노화 이미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노인문화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노화의 의미와 노화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특정 시기에 특정문화에서 발견되는 믿음과 가치를 반영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긍정적인 노화의 이미지를 창조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서 긍정적 노화의 대중적인 이미지들이 출현하면서 기회와 수입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지에 따른 노후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하고, 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소비를 통해 노인연령집단의 문화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Katz, 1995).

3. 노년기 발달과업의 이해

노인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많은 부분이 소비자연구의 일차적인 표적인 의식적인 정신의 범위를 넘어선,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한다 (Wolfe, 2004/2005). 노인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동기는 노년기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생애과정을 통해 발달해가면서 주어진 발달단계에서 특정한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니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는 교육수준, 부의 정도,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

로 다른 코호트간에 소비자로서의 행동차가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견지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olfe, 2004/2005). 그러므로 노인 소비자가 어떤 발달과업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노인 소비자 연구에서 중요하다.

생애주기 이론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발달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질적으로 다른 발달과업이 요구되며 이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발달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발달과업의 성취는 개인의 중요한 발달목적이 된다. Jung은 사람들이 삶의 전반부에서처럼 삶의 후반부에도 많은 목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삶의 후반기에 개인의 관심이 내부로 향하며, 이러한 내부탐색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전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Jung은 서구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년기의 목적이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생의 전반기에 집착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대신 젊음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Erikson은 8개의 발달단계를 소개하면서 각 단계별로 발달과업을 성취함으로써 중요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 연령범주의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8단계는 삶의 유한성과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시기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평가가 이루어질 때 자아통합 (integrity)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자아통합의 과업을 통해 산출되는 '지혜 (wisdom)'의 미덕은 죽음에 직면하여, 삶에 대해 관망하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신체적, 정신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들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Jung과 Erikson의 발달에 대한 설명은 노년기 발달과업으로서 자아의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Wolfe (2004/2005)는 기본적인 인간욕구에는 세대간의 차이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Maslow 욕구수준에서 그들의 낮은 수준의 욕구를 본질적으로 충족시킨 개인은 젊은 시절의 물질적인 경향을 뛰어넘는 진보된 상태인, 자아실현의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발달과업을 성취하려는 보다 본질적인 무의식적 동기는 노인들의 자아실현이나 자아충족의 욕구로 표현되고 있고, 이는 다시 노인들의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성공적인 노화 연구와 노인소비자에 대한 이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은 단순히 정부나 기업이 제공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욕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사선택을 하는 소비주체이다.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한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은 노인소비자의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데, 노인소비자의 노후 삶의 기대를 통해 노인소비자의 욕구를 예측하고, 노인소비자 욕구의 다양성을 규명함으로써 성숙시장 세분화와 각 세분화된 시장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 정책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은 노인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연구결과들이 노인소비자 이해를 위해 시사하는 바를 논해보고자 한다.

1.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문헌에 나와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들은 긍정적인 기능 또는 심리적인 안녕감,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지적 성장 잠재력,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생활변화에의 적응, 사회적 통합 ((Abraham & Hansson, 1995; Baltes & Baltes, 1990; Meeks & Murrell, 2001; Moen, DempsterMcClain, & Williams, 1992; Morgan, et al., 1991; Seeman et al., 1995; Stern & Carstensen, 2000),) 등을 포함한다. 어떠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의미들을 포함하든, 이들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학문에서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기반이 되는 이론들도 서로 다르다.

활동이론과 (Activity Theory)와 유리이론 (Disengagement Theory)은 성공적인 노화 연구분야에서 고전적인 이론이다. 활동이론은 활동의 지속과 상호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측면임을 가정한다 (Havighurst, Neugarten, & Tobin, 1968). 유리이론은 성공적 노화를 연령에 따라 활동과 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Tornstam, 1996). 유리이론은 '정상적' 노화가 개인이 이전의 활동과 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하나의 가정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덜 활동적으로 되며 따라서 그들의 생활스타일에 있어 기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성공적인 노화 이론들은 대부분 활동이론 또는 유리이론에서 제시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기대를 따르고 있다. 이들 이론들은 첫째, 노년기에도 활동성의 유지를 강조하는 이론들과 둘째, 노년기의 주관적 지각을 강조하는 이론들, 그리고 셋째, 성공적인 노화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의 이론들로서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모델이나,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ing)의 개념, 건강한 노화 (Healthy Aging)의 개념들은 계속 유지되는 활동성을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활동이론의 맥을 잇고 있다 (Laslett, 1989; William, et al., 2002; Martha, et al., 2002; Martha, & Meredith, 2003). 이 중 Rowe와 Kahn (1998)의 성공적인 노화 모델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첫째,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위험수준이 낮아야 하며, 둘째,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셋째, 적극적인 인생 참여의 태도를 지닐 것 등 세가지 행동요소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각각의 행동 요소들은 그 자체에도 다양한 측면들이 결합되어 있다 첫째, 질병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병과 장애의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이며, 둘째, 높은 수준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요구되고, 셋째, 대다수의 노인들은 실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활동함으로 성공적인 노화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뛰어넘어 실제로 얼마나 활동하는가가 중요하다.

노년기의 삶의 의미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주관성을 강조하는 두 번째 경향은 유리이론의 전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자아발달이론은 생활만족도와 삶의 의미, 삶의 목적감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Costa, Metter, & McCrae, 1992; Gibon, 1995; Wong & Watt, 1991).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Conscious Aging의 개념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이론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사회역할로부터의 철회가 아닌 새로운 삶의 유형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nscious Aging의 개념은 삶을 영적인 수행과정으로 보고 개인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높은 단계의 성취를 열망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과 같은 단계라고 한다. 노년기는 일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중년기의 역할이나 목표를 뛰어넘어, 종교, 예술과 같은 수단을 빌어 치유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경향의 이론은 성공적인 노화는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여 노인이 활동수준이나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이다 (Baltes, 1991, Ryff, 1989a). Baltes(1991)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 (SOC 모델)이 그 예인데, 개인은 노화에 직면하여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해서 (selection),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화하고 (optimization),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한다 (compensation)는 이론이다. 이 SOC 모델에서 성공적인 노화란 획득을 최대화하고 상실을 최소화하는 개인-환경간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개념화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노화와 관련된 상실이나 쇠퇴에 직면하여, 현재의 기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영역에 선택적으로 자원을 집중시켜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자기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이나 수단에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기능수준에 대한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이론적 경향은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경험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Rowe & Kahn (1998)은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 힘, 그리고 생명력을, Fishcer와 Specht(1999)는 목적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자율성, 건강을 발견하였다. Chou 등(2002)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였으며, 한국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태현 등(1998)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신체, 정신 건강차원,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의 차원, 가족관계차원, 직업, 은퇴생활 및 사회 참여도 차원의 4가지 차원을 강조하였다.

성공적인 노화의 이론들은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노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노화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서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 의존하여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가에 확실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갖는 목적, 가치들과 관련한 노인인구의 이질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노인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묶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쇠퇴라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노인이 어떠한 결과상태를 보이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다보니 건강, 경제, 사회적 지위 등에서 탁월한 소수의 노인들만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이들의 접근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에게 강요하는 사회 경제적 속박들을 벗어나서 변화하려는 노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노인소비자의 주체적인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로서 자유, 기회, 활동, 생산성과 같은 서구의 관념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노인소비자가 처한 문화적 맥락

에 적합한 노화이미지와 생활양식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2.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

위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노인의 기대의 관점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Robert와 그의 동료들(2003)은 Manitoba Follow-up Study에서 2차 세계대전 캐나다 공군퇴역 군인 3,983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정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30%정도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들에 관심이나 목표를 갖는 것, 가족관계, 식이조절 등을 포함하는 건강 및 질병의 통제 등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였다. 또한 Peter (2001)은 ‘성공적인 노화’와 ‘비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정의를 묻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은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노인을 단순히 건강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의 감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의해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노년기에 대한 개인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축적된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것 등이 노인이 성공적인 노인으로 보여 지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박경란과 이영숙 (2002)는 남녀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관적인 질문을 통해 많이 언급되어진 개념을 기준으로 빈도를 측정하여 구성요소별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의 7개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자율로서 노인들은 건강의 자율을 청년들은 경제적 자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는 보고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지각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강인 (2003)은 노년기, 중년기, 청년기 여성 각자 35명씩 105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비형식적인 자유응답식 질문을 사용하여 내용빈도분석을 통해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의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은 한국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의 의미와 본질을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속성으로 삶의 맥락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심층면접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노인의 지각 속에서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나타내는 주제는 교육과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계층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노인들은 긍정적인 자신의 내면 모습, 타인과의 관계, 삶의 통제 등의 주제를 언급하였고, 중산층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수행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하층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한몫 추스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살아온 과정과 사회경제적 자원의 맥락에서 성공적인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지각과 기대는 기존의 성공적인 노화 이론들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방향과 구성요소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 이론이 가정하는 특정 결과, 특히 활동이론의 가정만을 성공적인 노화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노인들은 스스로가 노화의 과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과거와 현

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연속성을 유지하는가를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차원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노인소비자들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특정 가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며, 노인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지각 연구는 노인소비자에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슈들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들 연구들은 소비자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의식적인 정신의 범위를 넘어선, 내면 깊은 곳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발견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모됨의 의미를 통한 자아가치의 발견이 성공적인 노화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것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반영한 것이다. 둘째, 긍정적인 이미지와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어떤 결과를 자체보다 성취해가는 과정에 더 가치를 둔다는 연구결과는 노인소비자들이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수정 보완하면서 긍정적인 노화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 삶의 기대가 개인의 가치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노인소비자의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성숙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소비자의 다양성은 연령보다는 개개 노인의 욕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V. 노인소비자 연구의 방향을 위한 제언

본 연구자는 노인소비자를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소비주체로서 개념화하고, 노인 소비자들이 노후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를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틀에서 분석함으로써, 고령 한국사회에서 노인소비자 연구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소비자에 대한 관심은 노인인구의 증가, 사회경제적 잠재력의 발견, 주체의식의 발전과 함께 증가해왔다. 그러나 아직 노인소비자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의 고정관념적인 노인관에서 벗어나 노인소비자의 이해를 깊이하고 노인소비자에 어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 연구들의 고찰은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통해 소비주체로서의 노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노화 연구분야에서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다룬 연구들은 노인소비자 연구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소비자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긍정적 노화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노인의 무의식에 내재한 기본욕구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화 연구들이 노인소비자 이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들을 중심으로 노인소비자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노인소비자연구에서 연구자는 노화나 노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획일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인들이 갖는 목적, 가치들과 관련한 노인인구의 이질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개인간에 자신의 기대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다를 수 있으며, 개인도 상황에 따라 또다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활동성에 가치를 두는 노인소비자와 사회적 역할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노인소비자가 가지는 욕구와 욕구충족을 위한 소비행동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 외에도, 개인의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의의를 둔다면 노인소비자의 욕구를 규명하고 소비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노인소비자 연구에서는 노인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쇠퇴라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노인소비자가 어떠한 결과상태가 어떠한 욕구와 관련이 되는지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노인소비자는 자신의 주체로서 행동, 기능감, 또는 내부의 힘을 일으키는 의미, 동기, 목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Kabeer, 1999). 사실 많은 노인소비자들이 현재의 상황에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들에 대한 저항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노령의 인구에게 강요하는 사회 경제적 압박들을 벗어나서 변화하려는 노인들의 노력을 고려함으로써, 변화하려는 노력에서 파생되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욕구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제까지의 노인소비자 연구들은 노년기의 행복과 만족은 전적으로 노인소비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오면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해왔다. 한국문화는 가족과 친족 관계 속에서의 개인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자립보다는 조화 속에서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렇게 관계중심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데에서 더 진보하여 개인이 속한 가족과 친밀한 관계의 맥락 속에서 노인소비자의 동기, 욕구, 소비행동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상황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노인소비자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소비자연구는 (1) 노인소비자들간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 결과만이 아닌 노인소비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에서 파생되는 동기와 욕구에 민감해야 하며, (3) 노인소비자의 특성을 가족과 친밀한 관계의 맥락 속에서 탐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노인소비자들이 노후의 삶에 대해 지니는 욕구를 탐구하고 규명할 수 있는 도구이자 노인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후의 연구들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2. 리대용, 김미애 역(2002). 조지 모쉬스, 노인소비자마케팅, 서울: 시그마프레스(주).
3. 박영근, 김판준(2002). “노인소비자의 구매행태와 실버마케팅전략,” 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 19집, 121-133
4. Abraham, J.D., & Hansson, R.O.(1995). Successful aging at work: an applied study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through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0(2), 94-103.
5. Baltes, P.(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 580-594.
6. Baltes, P. B., &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B. Baltes & M.M.Baltes(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Caspi, A., & Elder, G.H.(1986).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 Linking social psychology and history. *Psychology and Aging*, 1, 18-26.
 8. Costa, P.T. Jr., Metter, E., & McCrae, R.R.(1992). Personality stability and its contribution to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7, 41059.
 9. Cumming, E., & Henry, W.E.(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10. Cutler, N. E. (2004/2005), "Silver industries: Introduction", *Generations*, 28(4), pp. 6-7
 11. Dittman-Kohli, F.(1990). The construction of meaning in old ag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Aging and Society*, 10, 279-291.
 12. Elizabeth, A., Phelan, M.D., Lynda, A., Anderson, Andrea, Z., Lacroix, Eric, B., & Larson, M.D.(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13. Havighurst, R.J., & Albrecht, R.(1953).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14. Laslett, P.(1987).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Ageing and Society*, 7(2), 133-1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 Laslett, P.(1989). *A Fresh Map of Life :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London : Weidenfeld and Nicholson.
 16. Maddox, G.L.(1968). Persistence of life style among the elderly: A longitudinal study of patterns of social activity in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In B.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 Meeks, S., & Murrell, S.A.(2001).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mediated by negative affect.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3, 92-119.
 18. Moen, P., Dempster-McClain, D., & Williams, R. M. Jr.(1992). Successful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on women's multiple roles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612-1638.
 19. Moschis, G. P(2003), "Marketing to older adults: an updated overview of present knowledge and practice,"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0(6), pp.516-525
 20. Peter, C.(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 perspectives on aging successful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2), 127-155.
 21. Robert B. T., Leedine, L., & Edward, C.(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The Manitoba Follow-Up Study. *The Gerontologist*, 43, 735-744.
 22.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23. Ryff, C. D. (1989a).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 35-55.
24. Ryff, C. D. (1989b).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25. Szmigin, I & Carrigan, M(2001). "Learning to love the older consumer",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1(1), pp.22-34
26. Timmermann, S.(200/2005), "Conclusion: Finding the gold in the silver industries," *Generations*, 28(4), pp.79-85.
27. Tornstam, L.(1997). Gerotranscendence : The Contemplative dimension of aging. *Journal of Aging Studies*, 11(2), 143-154.
28. Wolfe, D. B.(1997), "Older markets and the new marketing paradigm,"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4(4), pp. 294-304
29. Wolfe, D. B. (2004/2005), "The changing psychology of the older consumer: The myth of aging boomers' differences from their parents," *Generations*
30. Wong, P.T.P., & Watt, L.M.(1991). What types of reminiscence a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6, 272-279.
31. Wong, P.(2000). Meaning of life and meaning of death in successful aging. In A, Tomer(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New York: Brunner Mazel.

고령친화 산업의 중요성 및 활성화 전략

이 건 직

(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출간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Ⅰ)(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중요성과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이의 주수요자는 현재의 고령자(65세 이상), 주수발자 및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해당된다. 고령친화산업은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경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형성,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 아시아인의 체격과 정서를 반영한 고령친화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 및 경제 그 이상의 가치로 고령자의 사람다운 삶 영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요양, 의료복지기기, 정보, 문화/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료,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14대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12.8조원 (모태산업대비 2.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2020년의 시장규모는 각각 약 43.9조원 (모태산업대비 4.7%)과 약 148.6조원 (모태산업대비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고용창출 효과는 2002년 현재 약 23만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명, 2020년에 약 69만명으로 각각 연평균 8.6%와 4.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활성화 정책으로는 관련법 제정으로 통해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의 마련,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성공사례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 고령화 사회, 산업정책

고령친화 산업의 중요성 및 활성화 전략

이 건 직(협성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1. 서론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구구조 고령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5세 인구가 2000년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2019년경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심각성을 넘어 대단히 위협적 현상들이 널려있다. 우리의 고령화는 급속한 저출산과 평균수명연장을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판단과 세대간 사회적 연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이 무척 중요하게 대두할 그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나 40년 뒤에는 50대가 평균 나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이 10년에 5세씩 늘어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함에 대책 수립이 절실히 지고 있다.

고령화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인구의 상당수가 건강위험, 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에 떨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의 문제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소비자도 질 낮고 총량이 부족한 공익 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제조업 공동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정보화, 세계화와 함께 분배에 대한 요구가 용솟음친다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진통까지 맞물리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강한 고용보호제도 등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 내수·수출산업간 성장을 격차로 인한 경기양극화, 경공업·중화학 공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산업양극화, 중소기업·대기업간의 기업양극화와 IMF이후 더욱 심해진 빈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경제성장 기반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가 불거지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 대응책 마련 속에 그 다음에 다가올 더 큰 위협을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실버산업이라는 ‘고령친화’산업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베이비붐세대의 소비력을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에서 갖는 함의에는 우리만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는 드물게 고령화 사회 진입하여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공공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재정, 복지제도 및 인식 모두가 미흡하여 고령화의 충격 흡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장측면에서는 고령소비자 수는 충족되었으나 그 질은 불확실하여 공급기반 마련에 있어 신중하게 수요기반을 파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이 체 확립되지 못하고 민간 기업도 아직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소비자가 급증하여 복지욕구와 함께 고령친화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팽창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기초로 한 민간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로 대변되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마련은 국가 재정악화를 완화하고 복지국가에 근간을 확대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을 특히, 시장규모와 고용창출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령친화산업 전반의 활성화 비전, 방향,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한 후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친화성이 높다고 판단한 요양, (의료복지)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및 교육 등 14대 산업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고령친화성을 내포하고 있는 즉, 고령자의 소비 선호도가 높은 부문 중 현 관련 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소기의 연구성과를 생산할 적정수준의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연구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단계의 사업으로 향후 성과 목표, 측정 지표, 목표치 및 실행 계획을 포괄하는 성과계획단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시 비전을 수정하는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 서에서 지적하였듯이 급속한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추진과정부터 추진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

가. 인구통계적 측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특성은 크게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이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6년)에 진입하는 시점이 각각 18년과 8년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했다하는 일본의 경우보다 더 급속하다는 점이다.⁴²⁾

이는 첫째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을 때문이다.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는 동년 OECD 평균치인 1.6 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해외 대비 급격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 대비 2002년까지 증가된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8년으로 이는 일본 11년, 프랑스 8년, 미국 6년 등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1981년 66.2세, 1991년 71.7세 보다 각각 10.4세, 4.8세 증가하였다. 한편, 각종 질병 및 사고사에 의한 사망원인이 제거될 경우 남자는 11.0년, 여자는 6.5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유전자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전에 뒤따를 경우 평균수명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화 지수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노년화 지수는 2000년 34.3%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약 4배, 2040년 약 10배, 2060년 약 15배, 2080년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1.7%(3,370만명)에서 2050년 55.1%(2,443만명)로 감소하며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도 2000년 10.1%에서 2050년 62.5%로 6배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에서 2026년 생산가능인구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급변하게 되어 생산가능자의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림 1>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전인구의 평균연령이 10년마다 5년씩 연로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나, 2020년에는 43세, 2040년에는 53세로 10년마다 평균 5세씩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실감 있게 엿보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림 1> 여기에 제시

나.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먼저 노인인구의 성비 및 유배우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약 18년에 불과하였던 노인만의 생활기간(빈둥우리 시기, TONK(Two Only, No Kids)족)이 급대하여 1990년대 이후는 약 32년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50년대에는 약 9년에 불과하였던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1990년대 이후는 약 12년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주로 여성 노인들만이 남아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 단면으로 전체가구대비 노인가구의 구성비가 2000년 현재 8.9%이나 2020년에는

42) 일본의 경우, 각각 24년, 12년 소요

16.8%로 급격한 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계층의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등, 새로운 노년계층에 의한 새로운 노년문화가 급속히 형성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노인자원봉사 등 세대간 연대의식의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기제가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극복과 세대간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자립적·독립적 노인세대가 급증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다. 경제적 측면

1) 재정부담의 증가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저축감소,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지난 10년('92~'02)간 경제성장률이 5.6%였으나, 향후 10년('03~'12)간에는 4.4~4.6%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2020년에는 3.1%, 2050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될 전망이 보고 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율(수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연금 수급불균형구조(저부담-고급여)로 인해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쉽게 접해 볼 수 있다. 2002년에 4.5%이었던 국민연금수급율도 2010년에 13.3%, 2030년에 41.9%, 2050년에는 88.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장둔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세입기반은 취약한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90년에 0.14%에서 2002년 0.36%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금, 조기퇴직,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등 고령화에 의한 정부재정지출은 2000년 GDP의 3.1%수준에서 2050년 11.6%로 8.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21.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나 그 증가폭에 있어서는 OECD의 평균 5.8%포인트 증가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압박의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여기에 제시

2) 소비패턴의 변화

그러나 노인소비자 시장의 절대크기 증가와 함께 노령연금 수령자 증가로 인한 노인구매력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0세 이상 노인소비자 시장 크기는 전체시장대비 20.4%에서 2010년 28.7%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6.25 전쟁 후 1955년에서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816만명(전체 인구의 16.8%)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실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데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장노령계층이 전체 개인재산액의 3/4, 금융자산의 77%, 여유소득의 1/2, 총소비의 40%, 1인당 소비액이 전체 평균의 2.5배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약 60만명이던 노령연금 수령자가 2005년 109만명, 2010년에는 183만명에 이르고, 201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3억명으로 2020년에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소비자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중고령 이상 세대의 소득기회 및 소득금액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령자들은 자녀교육비 지출, 주택대출금 상환 등의 부담이 큰 50대까지는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들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 2/4분기 도시가계조사(통계청)를 보면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13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비성향인 79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표 2>는 고령친화성의 한 단면을 이해함에 도움을 주고 있는 1984년도에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가 되던 시점으로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1984년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부분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식품, 보건의료, 보험부문이며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에는 주택, 식품, 보건의료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은 연령증가에 비례해 소비비중이 급증하는 부문의 특성을 볼 수 있다.

<표 2> 여기에 제시

한편 기회요인으로는 먼저, 복지, 보육, 부양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노동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하나이며 다음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맞춤형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령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장하려는 새로운 산업기반이 구축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협적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시킬 혁신적 처방을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고령친화산업 정의 및 활성화 필요성

가. 정의 및 특성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대상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 하에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령자⁴³⁾라 함은 현재의 고령자는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미래

의 고령자도 포함하고자 하며 따라서 현재의 중장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편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비 및 투자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고령친화산업 범주에 포함된다 하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산업 분류방식과는 달리 소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재분류된 산업인 관계로 상품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음이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및 공급자를 나누어 살펴봄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수요자는 현재의 고령자(65세 이상)뿐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장래 고령자도 포함되며 특히, 고령자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인, 주수발자 및 도우미를 위한 소비 및 투자 제품과 서비스도 본 산업에 포함된다.

고령친화산업의 공급자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생물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실버산업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표현 자체가 일본식 영문으로 국제적으로 낯설며 실버(silver)라는 이미지, 즉, '골드(gold)'가 아니라는 이미지가 황혼을 연상시키는 등 다소 부정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산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가) 산업적 특성

고령친화산업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써 국제경쟁력 및 시장매력도 등 수익성 외에 진일보한 복지국가차원에서 공공성 제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권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다른 큰 특성이 있다 하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기존 산업에서와 같이 현 수준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소비하는 성격과 달리 저하된 각종 능력을 저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이라 하겠다. 특히, 이들이 신체적, 사회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 책무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은 공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되나 노인의 생존권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시장 기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노인복지제도와 다를 뿐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따라서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크다 하겠다.

이상의 노인복지와의 차별적 특성 외에 고령친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큰 시장 규모로 형성될 산업이지만 그 세부 내용은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

43)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65세 이상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으로 분류하고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사업에서의 노인은 경제적 활동의 은퇴시점인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대기업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적합형 산업으로 내수 확산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획위원회내 경제양극화 대책수립을 위한 TFT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성’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 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나)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

향후 등장할 실버세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질적, 양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비의 적극적 주체자로 은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있어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연령군단으로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형성하고 있는 첫 번째 노후대비 세대이다. 이들은 산업적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끈 세대이며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이끌게 될 산업이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2000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붐세대의 교육연수는 평균 약 12년으로 50세 이상 세대(약 8년)에 비해 4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소득보장정책 등이 더해져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고령자가 민간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20~3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는 80년대 민주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 높은 사회참여의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확산되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2명의 소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를 축적하고 주택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도 있다.

다) 베이비 붐 세대의 소득구조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소비주체인 고령자, 베이비 붐 세대 및 주수발자 등의 소득수준과 이들이 원하는 제품의 공급여부 등에 따라 좌우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소득수준 및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고령친화산업의 장래 발전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수준 및 노후 소득보장체계에 관해 살펴봄은 본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견함에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원천으로는 크게 공·사적 이전, 근로 및 자산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사적 이전은 주로 자녀들로부터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하며 공적 이전은 국민연금 및 생활보호 등으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을 말한다. 또한 근로소득은 고용, 취업 등 일자리를 통해 획득된 소득이며 자산소득은 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의 형태로 축전된 자산으로부터 획득된 소득이다.

주소득원의 형태를 보면 복지제도가 확충된 선진국일수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에 의한 소

득이 전체 소득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근로 및 자산소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체 소득원중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의 경우 77.6%, 일본의 경우 57.4%, 미국은 55.8%이며 근로 및 자산소득은 각각 4.6%, 21.6%, 15.5% 및 13.7%, 6.6%, 23.3%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각각 6.6%, 26.6%, 9.9%로 나타나고 있다(석재은 등, 2000). 즉, 선진국에 비해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이 턱없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자녀로부터 지급되는 사적이전이 전체 소득의 56.6%를 차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자녀의존이 과반을 넘고 있다 하겠다.

소득원별로 향후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사적이전의 경우 소자녀화 및 핵가족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부양체제가 약화되고 있어 점차 노후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는 자신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으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특징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현재 법적 평균 정년 연령이 53세로 평균 수명을 남자 72세, 여자 80세로 가정하였을 경우 각각 약 19년, 27년 동안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평균 정년 연령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산소득의 경우 그 구성이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에 치중하는 형상이어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역모기기 제도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연금, 기업연금 등은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으로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다.

공적이전의 경우, 특히 국민연금은 점차 그 수급액이 축소되고 지급 개시 연령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의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적이전 및 근로소득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어서 국민연금 및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일자리 확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직결되는 변수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전략품목인 역모기지제도와 자산관리제도의 활성화 또한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체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특성 및 성향

(1) 소비특성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태동과 급속한 성장기를 맞아 최대 수요층인 실버마켓, 이른바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살펴봄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고령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은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첨단제품'보다 기능적으로 단순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제품'이 보다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노령화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며 실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저항으로 인해 소비되지 않을 수 있는 특성도 갖고 있다. 즉, 노인은 스스로를 평균 15세 정도 더 젊다고 인지하고 있으므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 하겠다.

세 번째로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상 소비주체가 이동성이 적고 한정된 지역에 거주하며 지속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지역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역

밀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계층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고객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지역 위주의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고령자는 수요하기를 원하는 서비스가 융합되어 한번에 제공됨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복지+주거+기기+여가, 금융+여가+의료+주거+한방 서비스 등이 편리하게 one-stop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융합화를 통한 클러스터링으로 대고객만족도를 제고해야 산업경쟁력이 강화된다.

다섯 번째로 여성의 평균수명 증가로 독신여성노인 중심의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더욱 긴요할 수 있다. 2002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로 남성보다 7년이 더 길다. 또한 노인단독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여성노인 중심의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주효하다.

이와 함께, 제품과 서비스 개발시 국가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도 볼 수 있다.

(2) 소비성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원이 다른 구조로 전개될 양상이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본 평균소비성향은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2004년 2/4분기 도시가계조사(통계청)를 보면 노인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113으로 전체 가구 평균소비성향인 79를 상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4대에 비해 50대는 자녀교육비 지출 및 주택대출금 상환 등으로 가장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들지만 그 이후가 되면 20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 여기에 제시

이는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구나 베이비 붐 세대가 60대로 진입하는 2015년 이후에는 활황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 및 고령가구의 소비성향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2000년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소비지출액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오는 2020년까지 그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134.4)이며 다음으로 주거광열비(124.1), 식료품비(122.1), 피복신발비(120.6), 교통통신비(118.2)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상의 분야에 대한 고령세대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세대별 소비성향이 향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소비)증가 효과도 없다고 가정함에 따른 결과로 향후 각 세대의 소비성향이 변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할 경우 그 양상은 예측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3> 여기에 제시

한편, 2020년 이후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해 일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15.7%로 일본의 2005년(19.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2010년(22.4%) 및 2025년(29.2%)의 고령화 정도

는 우리나라의 2027년 및 2035년경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2020년 이후의 소비패턴 변화를 미리 짐작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수준(37.3%)이 일본(36.5%)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령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림 4> 여기에 제시

일본 세대구성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가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전된 우리나라의 변화 양상을 미리 짐작하기에는 또한 소득수준과 소비성향 등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령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보건의료비와 주거·광열비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 비 등은 증가했다 감소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이 계속되다보면 보건의료비, 주거·광열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5>는 1984년도에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가 되던 시점으로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그림 5> 여기에 제시

1984년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부분은 55~64세 노인가계의 경우 식품, 보건의료, 보험부문이며 65세 이상 노인가계의 경우에는 주택, 식품, 보건의료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은 연령증가에 비례해 소비비중이 급증하는 부문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규모는 20,862달러로 노인가계 중 55~64세 가계만이 이보다 높은 수준(22,264달러)의 소비지출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외 65~74세 가구와 75세 이상 가구의 경우 각각 15,038달러와 10,718달러로 낮아지고 있었다.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비중에 비해 고령가구의 소비지출비중이 증가한 부분으로는 55~64세의 젊은 고령가구의 경우는 식품, 금융 및 보건의료부분이며 65~74세 중(中) 고령가구의 경우는 식품, 보건의료와 함께 주택부분으로 나타났다. 젊은 고령가구에 비해 금융의 지출비중이 줄어든 반면 주택부분의 지출비중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75세 이상 고(高) 고령가구의 경우는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지출비중은 더욱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식품의 경우에는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지출비중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부분에 대한 지출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통, 오락, 보험 부분에 대한 지출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나. 활성화 필요성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는 드물게, 아시아에서는 일본다음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 고령층을 주 소비계층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아시아인에 적합한 정서, 표준 및 안전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향후 부각될 아시아시대를 대비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측된 5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에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측된 5대 위험이란 정부측면에서 재정 위험 및 저성장위험이며 고령층 측면에서 건강위험, 재무위험 및 생활위험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감소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인하며, 고령층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을 감소시켜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활동적인 고령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그림 6 참조). 고령친화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활성화 될 경우 정부 재정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고령친화 상품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생산된 상품은 또 다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정부 재정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울러 시장기능을 살려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 시킬 경우 고령자의 삶의 질은 보다 확대 강화될 것이다.

<그림 6> 여기에 제시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의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게 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그림 7 참조). 즉, 중소기업에 보다 적합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내수축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과 성장동력화로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조기 활성화된 고령친화산업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고령화 시대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여기에 제시

4.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 및 전략

가. 활성화 비전 및 전략

<그림 8>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향, 목표 그리고 비전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첫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시장성장을 및 시장점유율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 매력도를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8> 여기에 제시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목표는 첫째,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 동력화와 둘째,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 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의 단계적 추진, 둘째로는 전략품목의 발굴과 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전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추진, 셋째는 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기준 마련, 고령소비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관련법 제·개정 및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청 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및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이처럼 3대 방향 하에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실버를 골드로’라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나. 활성화 시기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크게 수요 및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5대 조건을 만족하는 2008년경에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은 여러모로 고령친화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해가 될 전망이다. 2008년은 베이비붐세대가 은퇴(53세)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동시에 고령자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민연금제도의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불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태동은 고령인구가 1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시점으로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일본은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 활황세는 소득수준이 2만달러를 넘어선 시점으로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수요기반이 강화되고 있어 공급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비전제시 및 행동계획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낙후된 R&D 능력을 고려할 때 2006~2007년 동안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제시와 함께 2005년에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 적합 산업인 관계로 지원시기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질 낮은 상품 공급, 상품 사기 및 기업도산에 의한 노인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이 특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할 수 있다.

5. 고령친화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전략품목

가.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규모

표 1은 14대 고령친화산업의 산업별 시장규모와 모태산업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여기에 제시

2002년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매출액기준 시장규모는 약 12.8조원이며 이는 모태산업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모태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자, 예비고령자 및 주수발자의 생물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인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보았기에 그 수요에 제한이 없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지칭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은 오는 2010년이 되며 시장규모가 약 43.9조원, 모태산업의 4.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약 148.6조원의 시장규모로 모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0%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다.⁴⁴⁾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의 시장규모는 2010년 및 2020년까지 각각 연평균 5.87%와 5.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기간 14대 고령친화산업은 각각 16.64%와 14.58%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2년 현재 모태산업 대비 시장규모가 가장 큰 고령친화산업으로는 요양과 장묘산업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산업(34.1%), 의료 및 복지 기기산업(33.8%), 한방산업(28.3%)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2020년에 이르러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나 고령친화성이 높은 산업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모태산업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2년에 비해 2020년경 가장 크게 확대될 산업으로는 정보, 농업, 교통산업 순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규모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2020년경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고령친화산업으로는 정보, 여가, 금융 및 의약품 산업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 고용창출력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고령친화산업 및 모태산업의 연간 고용창출 효과와 그 증가율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란 해당 산업 부문에서 10억 원을 생산할 때 산업 연관효과를 통해 전체 산업에서 유발하는 취업자수를 말한다.

<표 2> 여기에 제시

고령친화산업의 모태산업의 경우 2002년도 연간고용창출효과는 약 1,266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오는 2010년 및 2020년에는 기술변화 및 업종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 취업계수의 추세적 하락으로 각각 약 990만명과 약 715만명으로 이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

44) 시장규모 추정에 있어 교통 및 교통산업은 2001년을, 의약품산업은 2003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2002년을 기준으로 합계하였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함.

평균 3.0%씩,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2%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은 2002년 현재 약 23만명에서 2010년에 약 45만명, 2020년에 약 69만명으로 각각 연평균 8.6%와 4.3%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고용창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실업난 해소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의 각 부문별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전산업 취업유발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는 여가산업(13.9만명), 금융산업(8.5만명), 농업(6.1만명) 순으로 추정되며 그 증가율은 요양산업(89.7%), 정보산업(27.1%), 주택산업(17.5%)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0년에 있어서는 여가산업(29.8만명), 금융산업(10.0만명) 다음으로 정보산업(9.5만명)과 주택산업(7.4만명) 순으로 전산업에 파급시키는 고용유발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 여기에 제시

고령친화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모태산업대비 2002년, 2010년 및 2020년에 각각 1.85%, 4.56%, 9.6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

고령친화산업의 전략품목의 도출 기준은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및 공공성 등을 우선 선정기준으로 전 부문 공히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자체가 새로이 분류된 측면도 있고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특성 등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취득함에는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료분석 방법보다 업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공급자 델파이조사 및 수요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부문별 전략품목 선정하였다.

특히, 공공 정책측면에서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및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법제도 등 행정적 문제점 등에 관해 상호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쳤다. 또한 민간측면에서 노인단체 및 관련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차의 설명회를 통해 수요 파악 및 공급 능력 등 시장 여건에 관해 조사를 하였다.

이상의 전략품목 선정 기준을 토대로 총 105개의 유망품목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34개의 고령친화 전략품목을 선정하였다(표 4 참조).

<표 4> 여기에 제시

주요 전략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산업에서는 저상버스와 고령자 감응 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식품산업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2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의약품산업에서는 신경계와 순환계 용약과 대사성 의약품 등 3개 품목을, 장묘산업에서는 화장 및 납골용품과 웰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 개정 및 이장서비스 등 3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의류산업에서는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

선용 레저스포츠웨어 및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등 3개 품목을 전략화 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산업에서는 일자리 교육 및 훈련 등 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7. 고령친화산업 지원 정책 및 기대효과

가. 고령친화산업 주요 지원정책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인프라와 관련된 정부 재정이 빈약한 국가가 초고속으로 고령사회로 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민간을 통해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국민(특히, 고령자)의 건강권 및 생존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산업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1월 제57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팀’을 신설함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 지원 정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을 국회 상정하여 법적 기틀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의 마련,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R&D 투자 확대 및 세제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성공사례의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지원체제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보다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하여 시장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진국도 이미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신시장 창출 및 지원 강화, 관련된 기술인프라 정비와 확충, 전문인력육성, 표준화 개발 및 적절한 규제, 성공사례(best practice) 확산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개발에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나. 기대효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이로 인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에서 반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둘째로는 고령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공급과 안전 및 표준규격 제정 등을 통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시장기능을 통해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셋째로는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실질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체계의 중심 관점을 젊은 층에서 중고령층을 포괄해 균형화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전기도 마련할 수 있음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박래정, 양희승. 2005,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원.
- 이건직 외.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1)』, 고령화및미래사위원회·보건복지부.
- 이건직 외. 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일본경제산업성. 2004, 『신산업창조전략』.
- 통계청. 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
- 통계청. 2002, 『가계조사/장래가구추계』.
- 통계청. 2003, 『2002년 사회통계조사결과(가족, 복지, 노동 부문)』.
-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국은행, 2003, 『산업연관표』.
- Lazer, W. and E.H. Shaw. 1987. “How Older American Spend Their Money”, *American Demographics* 9(9): 40.
- US Census Bureau, 2001, 2001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 US Census Bureau, 2004,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03.

<표 1>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모태산업대비)

(단위: 억원, %)

부 분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모태산업대비 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 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 비중
요양산업	129	100.0%	49,299	100.0%	93,661	100.0%
기기산업	7,008	33.8%	21,208	36.0%	66,544	39.8%
정보산업	2,446	0.1%	42,375	1.3%	396,732	7.5%
여가산업	24,387	5.4%	73,370	8.5%	263,941	15.5%
금융산업	10,408	1.5%	55,240	2.9%	185,241	5.8%
주택산업	5,871	1.0%	26,778	2.8%	75,045	4.9%
한방산업	10,188	28.3%	21,153	30.7%	46,738	31.2%
농 업	3,383	1.0%	15,986	5.0%	29,564	10.0%
소 계	63,820	1.6%	305,409	4.5%	1,157,466	10.3%
교통산업	8,761 ¹⁾	0.9%	33,637	2.9%	94,841	7.3%
식품산업	8,664	2.5%	17,416	3.3%	41,687	4.5%
의약품산업	27,741 ²⁾	34.1%	48,017	43.8%	113,436	66.7%
장묘산업	13,115	75.0%	20,127	81.8%	34,552	90.5%
의류산업	5,298	4.8%	11,412	6.7%	33,030	11.2%
교육산업	935 ¹⁾	0.2%	3,594	0.6%	10,957	1.3%
소 계	64,514	3.4%	134,203	5.2%	328,503	9.1%
총 계	128,334	2.2%	439,612	4.7%	1,485,969	10.0%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표 2> 모태산업 및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 효과

(단위: 만명, %)

구 분	2002년	2010년		2020년	
	취업자수	취업자수	'02~'10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10~'20 연평균 증가율
모 태 산 업	1,266	990	△3.0	715	△3.2
고 령 친 화 산 업	23	45	8.6	69	4.3

<표 3> 모태산업과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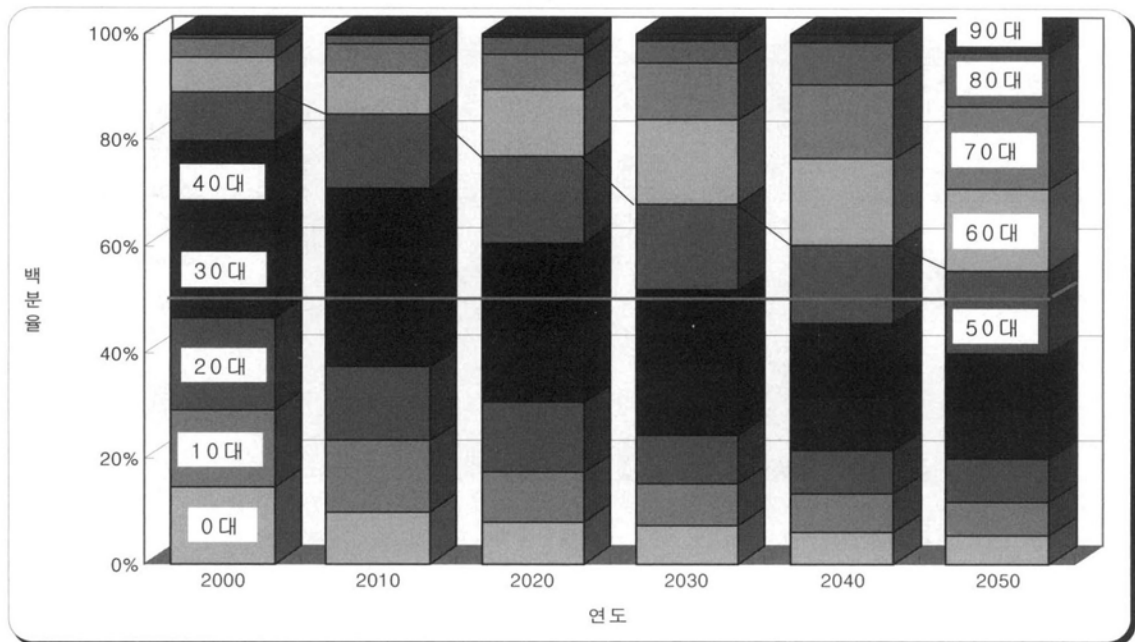
구 분		전산업취업유발효과		
		2002	2010	2020
모태 산업	요양	191	32,044	21,542
	기기	22,009	25,350	23,436
	정보	3,650,157	2,477,306	1,272,937
	여가	1,300,356	1,641,934	1,920,960
	금융	1,638,000	1,850,552	1,056,981
	주택	912,256	1,196,688	1,512,934
	한방	50,760	55,143	61,452
	농업	2,909,715	1,224,535	410,933
	교통	561,995 ¹⁾	216,049	58,674
	식품	252,221	137,941	65,022
	의약품	51,363 ²⁾	22,053	8,163
	장묘	28,766	12,229	4,237
	의류	157,495	92,683	47,958
	교육	1,122,009 ¹⁾	918,981	681,519
	소계	2,173,848	1,399,936	865,572
총계	12,657,291	9,903,489	7,146,747	
고령 친화 산업	요양	191	32,044	21,542
	기기	7,428	9,119	9,316
	정보	4,745	32,205	95,216
	여가	70,478	139,403	298,253
	금융	37,886	85,070	100,030
	주택	9,217	33,473	73,544
	한방	14,365	16,922	19,163
	농업	29,094	61,226	41,094
	교통	5,055 ¹⁾	6,256	4,268
	식품	6,403	4,511	2,918
	의약품	17,532 ²⁾	9,651	5,445
	장묘	21,574	10,003	3,835
	의류	7,518	6,197	5,384
	교육	2,739 ¹⁾	5,898	8,711
	총계	231,488	446,081	680,008
모태산업대비 비중		1.85%	4.56%	9.64%

주: 1) 2001년도 기준임. 2) 2003년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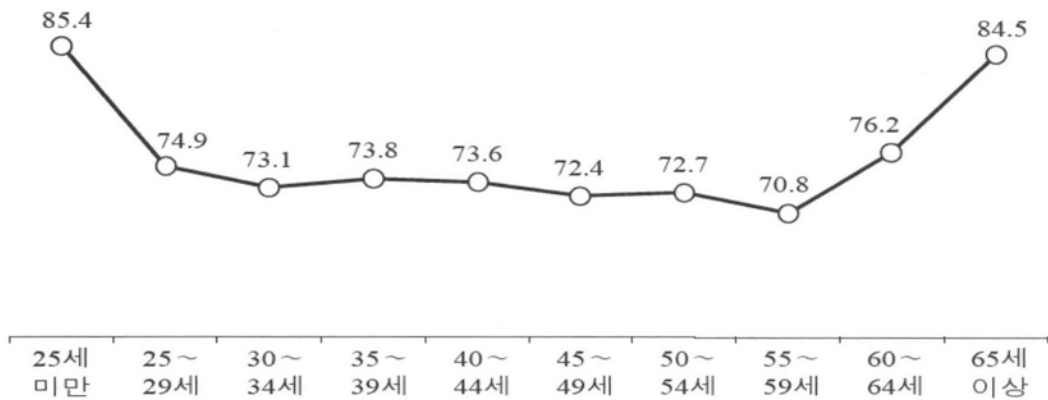
<표 4> 고령친화 34개 전략품목

부문	전략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그림 1>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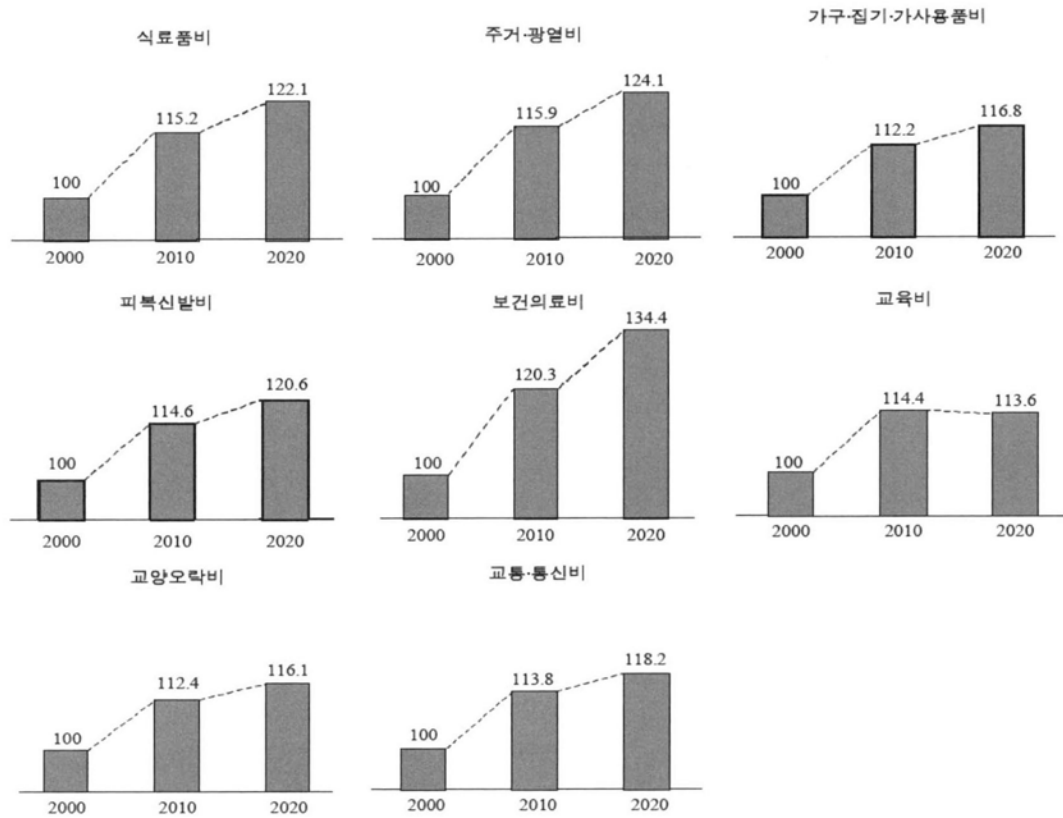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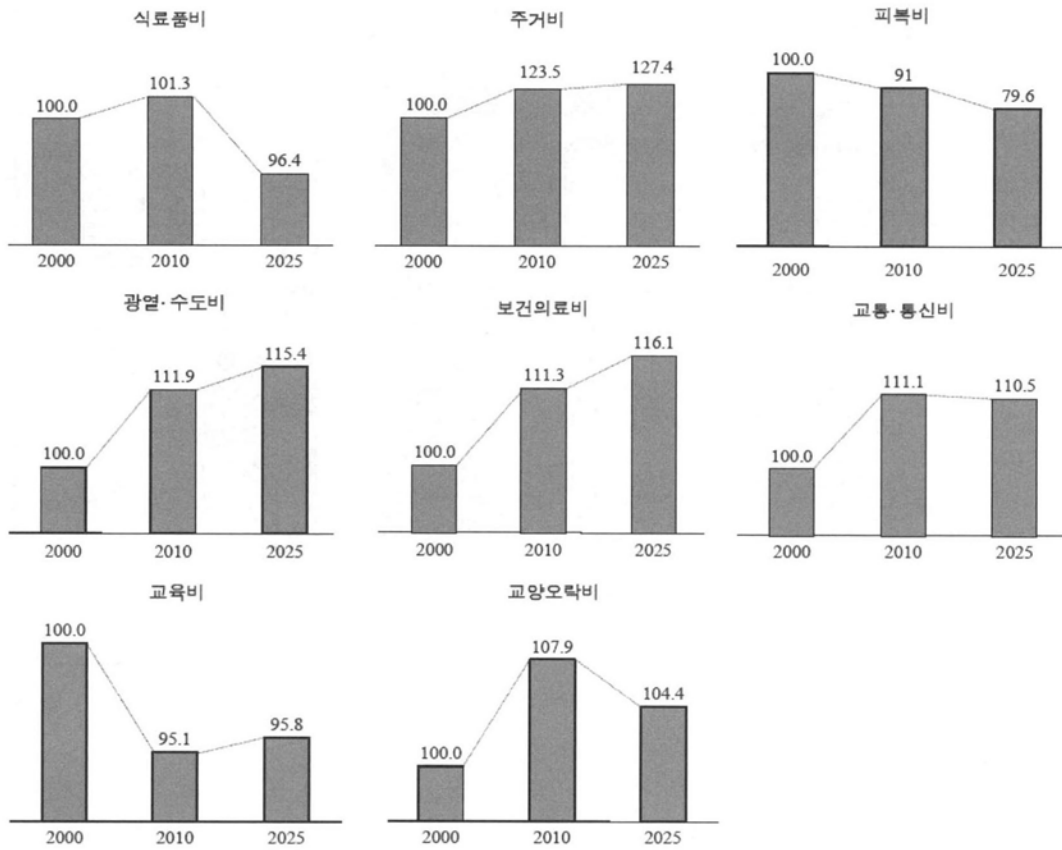
<그림 3> 세대구성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전망 (우리나라)



주: 2000년의 각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0으로 놓고 그 이후의 지출액을 해당연도의 각 연령대별 세대 수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하고 지수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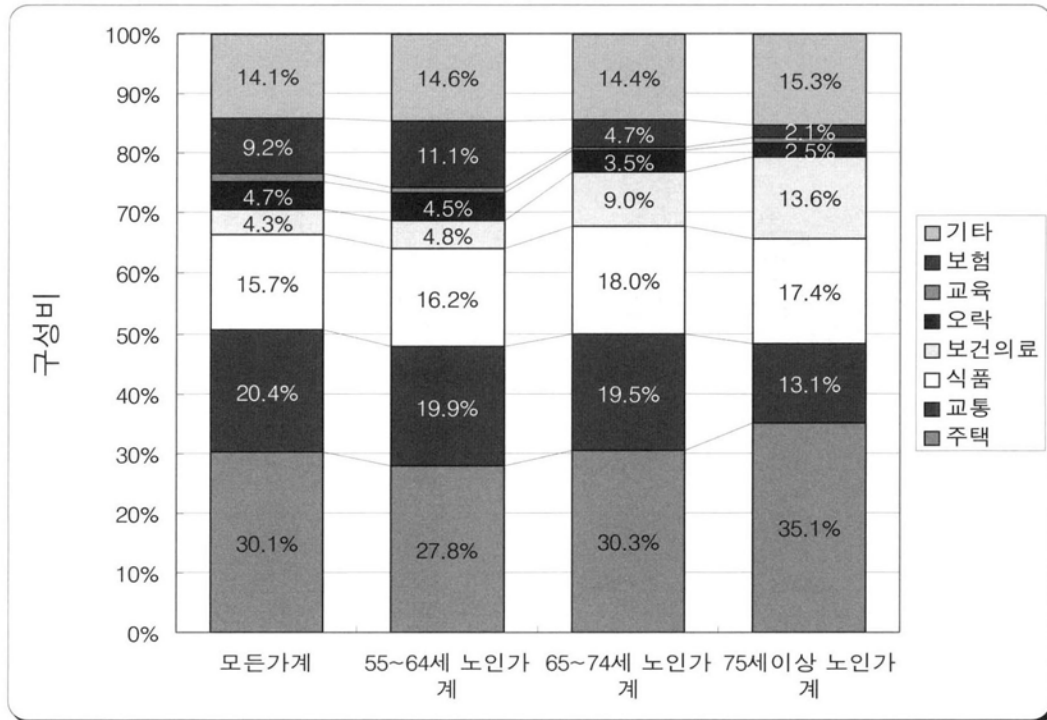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 장래가구추계, 2002.

<그림 4> 일본의 세대구성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2004, 『신산업창조전략』. 박래정, 양희승. 2005,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원.에서 재인용.

<그림 5> 미국 노인가계의 연평균 소비지출비중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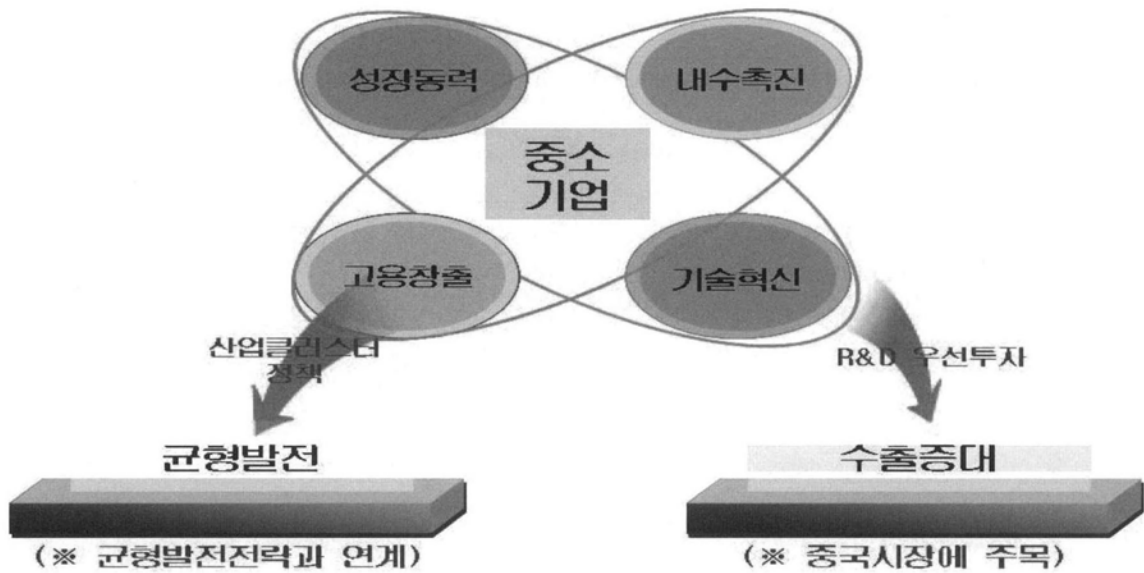


자료: Lazer, W. and E.H. Shaw. 1987. "How Older American Spend Their Money", *American Demographics* 9(9): 40.

<그림 6>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제도의 선순환 구조



<그림 7>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그림 8>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 목표 및 전략



Abstract

A Study on Analyzing Industries for the Elderly and Developing their Cultivation Pl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dustries for the elderly and thus to develop their cultivation pla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age-friendly sectors to satisfy the conditions on overseas competitive, market attractiveness and publicness? what is the strategic goods and services to overcome the above threats? what is the policy iss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decisive measures to cultivate the items?

The age-friendly industries consist of the sectors which supply the derived demand by physical ageing and reduced social economic abilities of the old and/or older people and supportive people for them. The industries are selected based on age-friendly attributes, the need and demand by old people, researcher abilities etc. These are the following fourteen sectors: long-term care, medical devic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eisure, culture and sports, finance, housing, oriental medicine, agricultural sectors, transportation, foods, pharmaceuticals, funeral goods and services, clothes and fashion, and education sectors.

The market size on the 14 industries for the elderly is estimated at 12.8 trillion won in 2002, 43.9 trillion won in 2010 and 148.6 trillion won in 2020. Also, the number of derived working persons is estimated at 2.3 hundred thousand persons in 2002, 4.5 hundred thousand persons in 2010 and 6.9 hundred thousand persons in 2020.

Among the elderly-friendly industries, the items with the rapid growth and promising business opportunity are selected as follows: home-based long term services, home-based health information systems, oriental medical devices, move supportive systems for nurse, home care, supportive device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digital contents for the elderly, age-friendly resorts, reverse mortgage, assets management services, house remodeling for the elderly, rental house for the poor elderly, oriental health care tour, oriental food for preventing old, oriental cosmetics for the elderly, oriental drug on chronic disease, age-friendly education for agricultural life, age-friendly agricultural theme town and farm for retired persons, buses with convenience to ride, high-tech signals induced the elderly, a fluorescent post, foods for care, health promoting foods, a neural medicine, a circulatory medicine, medicine for the metabolism, cremation and/or funerary related goods, well-ending related programs, reburial services, a smart-wear for supporting health, leisure and sports wear for improving health, inner wear for compensating body shape, and training and education for job.

This study recommends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make the supportive law and comprehensive formation for cultivating the sectors, to prepare the action plans on producing the nineteen strategic goods and services, to make safe guideline and standards for the goods and services, and to make best practices for all sides, public and private.

Key words: senior market, mature market, age-friendly industry, ageing society

고령자의 홈케어와 미래에 대응하는 주거시설 환경계획

오 은 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이사)

여 백

고령자의 홈케어와 미래에 대응하는 주거시설 환경계획

오 은 진(한국여성건축가협회 이사)

I. 서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가 예측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노인시설 건설 분야의 민간참여는 아주 저조하며, 주로 건강한 노인이 주 이용대상인 실버타운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의 실버타운에 대한 투자가 기대했던 것 보다 성공적이지 않고,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아파트도 증가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에는 노인병원과 요양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초기의 대규모 실버타운과 너싱홈 중심의 노인주거시설들이 주로 발전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또한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가정을 중심으로 한 홈케어를 강화하면서 노인주거의 유형도 다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과 노인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복합시설 환경계획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따라 매우 다른 환경적, 사회적 요구를 가지며 증상의 진행과 함께 수발이 어려워지고 증상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 노인이 건강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외국의 추세를 보면 신체적인 악화와 인지력의 감퇴로 오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의 복합시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홈케어와 복지시설간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건축 계획적인 면에 반영을 하고 있다.

1.1 고령자의 건강변화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의 필요성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가장 빈번한 사고인 골절로 인하여 갑자기 신체기능의 상실과 함께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주거는 건강한 고령자도 예기치 못한 건강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증상이 악화되면 서비스 형태도 보다 중증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치매 환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문제 행동의 증가 및 신체적 상태의 악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는 치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⁴⁵⁾ 따라서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환경변화

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익숙한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치매 환자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증상이 악화되어도 이리 저리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주거와 연계된 서비스 시설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환자의 이용시설 및 입주 시설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복합시설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은 경제 능력이 있고 건강한 60대 노인과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노인 질환으로 인한 다양한 신체 능력 및 정신적 능력의 차이는 노인 시설 환경 구성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한다. 노인은 신체 능력정도와 정신 능력(치매) 정도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9 그룹(A-I)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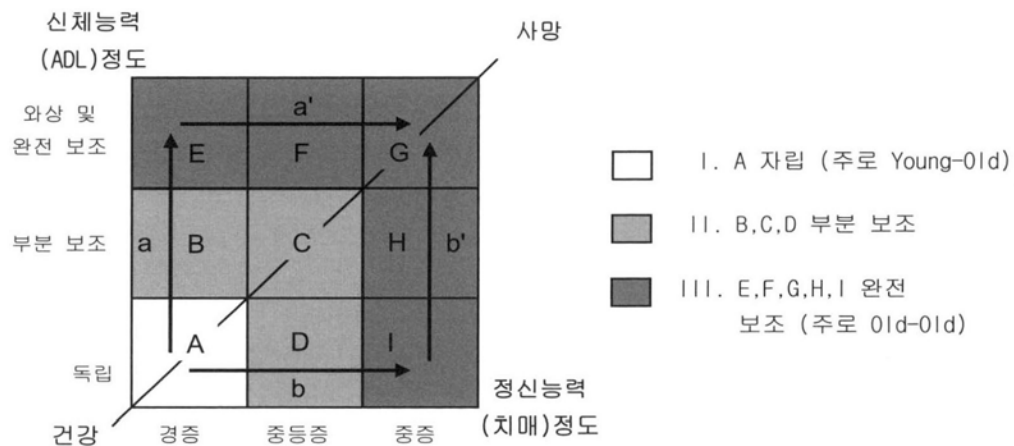


그림 1-1. 치매노인 보호유형⁴⁶⁾

그림 1-1의 9개 각 그룹의 노인들은 매우 다른 환경적, 사회적 요구를 가지며 A에서 I로 진행되면서 간병자의 어려움도 증가한다. 각 그룹은 그룹의 특성에 따라 건축 환경도 그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이 건강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⁴⁷⁾

신체적인 면이 약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보조가 필요로 되나 비교적 정신적인 능력은 손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a-a'진행방향), 신체적인 능력은 비교적 괜찮으나 치매 등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간호가 요구되는 경우 (b-b'진행방향), 또는 신체와 정신적인 면에서 같이 쇠퇴되는 경우 (c-c'진행방향)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쇠퇴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속적인 간호(continuum of care)가 가능한 서비스 형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이다. 치매 환자는 증상 악화에 따라

45) Calkins, M. (1988). "Design for dementia: Planning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and the confused", Owing Mills, MD : National Health Publishing.

46) 그림 1-1의 도표는 180명 규모의 요양원 이용자와 입소 상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을 분류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을 토대로 하였다.

47) 오은진, "요양원 건축의 치료적 환경 특성과 치매노인행동의 상호관련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8

서비스 형태도 보다 중중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게 되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문제 행동의 증가 및 신체적 상태의 악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어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1은 그림1-1에서 다양한 건강상태의 고령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거주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이 고려하여야 한다.

분류 그룹		대상 노인	환경 및 서비스 형태
I	A	정상 활동이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노인	노인 여가시설 및 휴양시설(기존의 실버타운 개념), 기존 노인 종합 복지관의 취미 교실
I	B	부분적 신체 보조 필요(경증 중풍 및 기타 노인 질환)	일반적 주간보호 및 단기 보호 시설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재활 필요, 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 이용
I	C,D	부분적 신체 보조와 치매로 인한 간병 보조 필요	재가에 머물면서 가정봉사원(홈헬퍼)의 도움을 얻거나 치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주간/단기 보호소, 경증 노인을 위한 그룹홈 형태의 시설 입소가 바람직함
III	E	와상 상태이나 정신 건강 양호	대,소변 간병을 포함한 모든 생활면의 보조가 가능한 요양 시설에서 잦은 환경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간호자의 심리적 지지가 많이 필요로 되는 그룹
	F	와상 상태이며 치매 정도도 중등도 이상인 상태	식사거부, 이식, 기저귀 착용거부 등의 문제 행동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한 요구에 응해 주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한 그룹
	G	임종에 가까운 상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임종 간호(호스피스 간호)와 더불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배려 필요
	H,I	신체 능력은 비교적 건강하면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치매가 심한 노인	배회 및 시설 이탈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안전한 보호를 위한 건축 환경에서의 배려와 1:1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그룹

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적 이용

1.2 홈케어와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의 필요성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추세는 지역사회 안에서 고령화를 가능케 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Aging in Place라는 용어로 잘 표현되는데 가능하면 고령자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오래 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노인복지시설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자기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홈케어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홈케어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리어가 없는 디자인(Barrier-free Design)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 오래 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존 주거 공간의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나 보험에서 보조하여 고령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시설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 있고 가족들의 방문도 용이하지 않으나, 도시에 노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도시지역의 높은 땅값으로 인하여 투자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홈케어를 위한 국내의 재가복지시설의 경우는 시설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도심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초기 투자비용도 적으므로 민간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에 부담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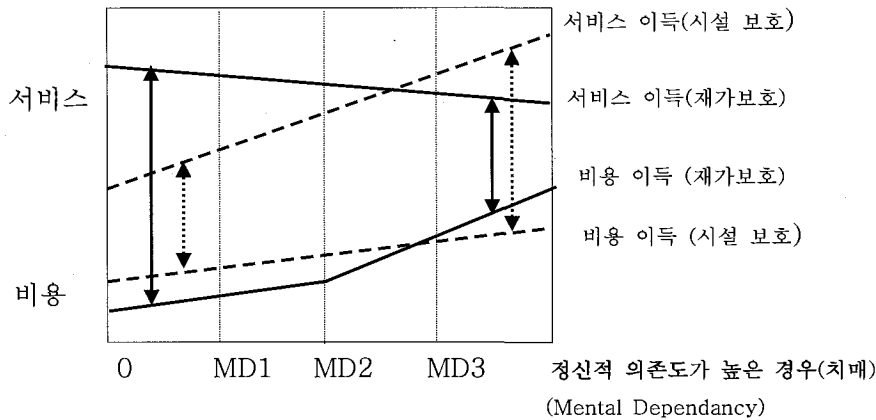
대상 노인		서비스 형태	적합 시설 유형
홈케어 (재가/주거 복지)	정상 활동 가능	노인 여가시설 및 휴양시설 (기존의 실버타운 개념)	노인용 주거(양로원)
	경증 뇌졸중 노인 질환	보행이 가능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적극적 재활 필요	일반요양원,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경증 치매	가정봉사원(홈헬퍼)의 도움 치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주간/단기 보호소, 경증 노인을 위한 그룹홈 형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그룹홈
시설 케어 (의료복지)	중증 뇌졸중	대,소변 간병을 포함한 모든 생활면의 보조, 안정적인 환경 필요	전문요양원 노인병원
	치매, 뇌졸중 복합	식사거부, 이식, 기저귀 착용거부 등의 문제 행동, 심리적 지지 필요	전문요양원 치매환자 그룹홈
	중증 치매 (신체 건강)	배회 및 시설 이탈이 가장 많은 그룹 소그룹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전문요양원 치매환자 그룹홈
	종말기 케어(호스피스)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임종 간호(호스피스 간호)와 더불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배려	전문요양원 호스피스 노인병원

표 2. 홈케어와 시설케어의 구분과 건축시설유형

고령자가 자신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홈케어인 노인 주간 보호 및 단기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는 간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치매, 중풍 등의 증상이 경증 및 중등 정도일 때는 적합하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는 친근한 환경과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간병자에게 낮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장기 요양원 입소를 가능한 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급된 형태의 노인복지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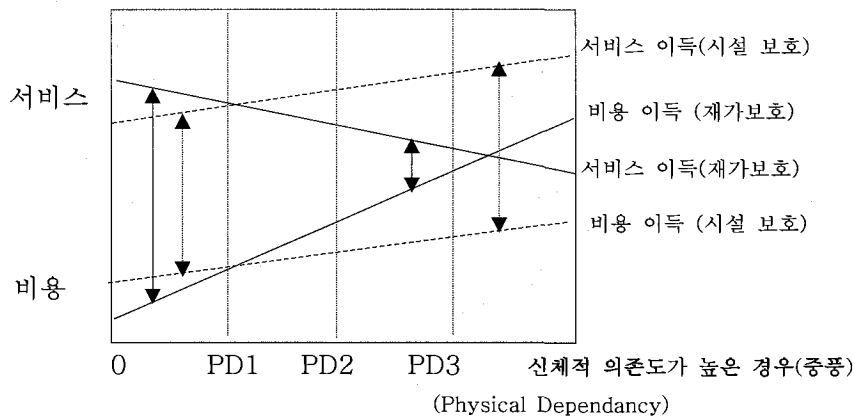
II. 홈케어 서비스 시설의 유형과 효과적인 공간계획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마비 환자가 많고 휠체어 이용자가 많은 중풍 환자는 주간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에 치매 환자는 경증 상태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동작은 양호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치매가 진전되어도 주간 보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간보호는 치매노인 보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중풍이나 다른 질환자와 혼합된 서비스보다는 치매와 일반 주간보호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한 중풍환자에 비해 질환의 중기에 이르기까지 재가복지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효용범위가 중기 이후까지 이른다.(그림2-1 참고) 반면에 신체적으로 제한되는 중풍 환자는 쉽게 피로를 느끼며,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초기 이후에는 효용도가 떨어지는데 반해, 시설보호는 효용도의 변화가 별로 없다.(그림 2.5 참고)⁴⁸⁾



←→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도(말기 이전에는 효율도가 높다)
 ←····· 시설복지서비스의 효율도(초기에는 재가복지에 비해 효율도가 떨어지나 신체적 쇠퇴가 병행되는 말기에는 유리하다.)

그림 2-1. 정신적 증상 변화와 서비스의 효율 변화



←→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도(중기이후에는 효율도가 급격히 감소함)
 ←····· 시설복지서비스의 효율도(효율도의 변화가 별로 없음)

그림 2-2. 신체적 증상 변화와 서비스의 효율 변화

또한 국외에서는 이러한 재가 복지 서비스가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가까운 장기 요양원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노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노인들이 환경에 쉽게 적응되도록 도와주고 있다.⁴⁸⁾ 치매 노인만이 아니라 모든 노

48) Knapp의 지역사회보호와 시설보호의 효율성비교 도표(권순정,1999:143)를 노인의 신체 의존도와 정신적 의존도 정도에 따라 재구성한 도표로 신체 의존도가 높은 중풍 환자에 비해 신체 의존도가 낮은 치매 환자는 재가 복지서비스에 더 적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장기요양시설로 입주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위축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재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시설을 이용하면서 익숙하여진 노인은 장기 요양 환경에도 쉽게 적응이 되어 매우 바람직한 서비스 연계 형태로 증명되고 있다.

장기 보호 시설(Long-term Care Facility)로의 입주는 서구에서도 가족들이 직면하여야 하는 어려운 결정중의 하나이며 어느 시기에 입주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점차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보호가 아니라 가능한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형태의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service)를 통하여 지역 사회 치료 공동체를 추구해가고 있다.

치매의 단계	주요 증상	이용 가능 시설 분류								
		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양로원	파견	주간	단기	요양원	전문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초기	건강증 배회	○	○	○	●	●	○	-	-	○
중기	문제행동, 배회	-	-	-	○	○	○	●	○	○
말기	신체적 쇠퇴, 문제행동	-	-	-	-	○	-	●	●	○
임종기	와상, 거식	-	-	-	-	-	-	●	●	●
비고	개 인 에 따라 증 상의 진 전 상 황 은 차 이 가 많 음	초기의 치매 환자에 게는 적합하나 노인의 독립거주는 불가능함		중기의 치매 환자까지 이용 가능하나 가족의 협조가 필요함			가장 일반적인 치매노인의 보호형태로 증상의 진전에 따라 환경이 바뀌는 것 보다는 같은 대지안에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설 형태가 바람직 하다.		치매환자는 초기부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요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원 입소중에도 병원과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요양병원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시설로 요양과 의료의 기능을 겸하는 시설이다.	

표 3. 치매성 고령자의 주거복지환경 및 의료복지시설의 연계적 이용체계

○ 이용 가능 시설 ● 이용 적합 시설

노인이 오래 동안 거주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은 하나의 시설 또는 근거리의 위치한 여러 개의 건물에서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 보호와 장기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매 환자나 일반 노인병 환자가 증상의 악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속적인 간호가 가능한 시설 또는 지역사회(Continuum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요구하고 있다.⁵⁰⁾

49) 淺沼由紀、谷口汎邦編(2002), 『高齢者複合施設-建築計畫・設計シリーズ,15』, 市ヶ谷出版社

50) Cohen,U. "Contemporar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이러한 개념은 치매 노인이 가능한 한 가정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부합하며, 주간 보호,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프로그램은 간호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부여한다. 치매 환자에게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익숙한 환경 안에서 의미 있는 접촉의 기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연속적인 간호 개념은 레저 시설 위주의 실버타운 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고령자 주거복지시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III. 국외의 복합시설 공간사례

국외의 고령자 주거공간의 최근 경향은 소규모노인시설인 그룹홈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시설의 건축계획도 가정과 같은 느낌의 소규모 간호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유니트 케어 개념의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홈케어 서비스가 편리하게 고령자에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장기거주 복합시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3.1 미국과 프랑스의 복합노인주거시설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너싱홈이나 실버타운보다는 소규모 가정형 노인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노인아파트인 세인트 앤서니 홈(St. Anthony Home)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령자 주거시설과 홈케어가 복합된 홀리 패밀리 센터(Holy Family Center)라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린이집이 결합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어린이집은 각각의 전용 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세대 간 접촉을 통하여 보다 활력 있는 노인서비스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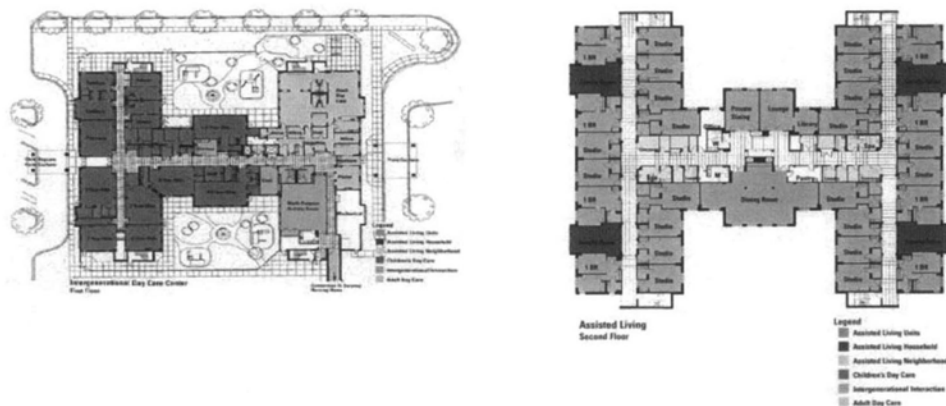


그림 3-1. 노인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집과 공간을 공유하는 인디애나 노인주간보호센터(www.aia.org)

프랑스의 파리의 지역사회 종합노인복지 서비스 센터인 프랑스 브레또노 노인복합시설 (Hopital Bretonneau Centre de gerontologie) 사례는 주거와 다양한 건강상태의 고령

Press, 1993

51) www.aia.org Design for Aging Review Four

자를 위한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종합된 시설이다. 이 시설은 프랑스 파리 17구와 18구의 7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장기보호 105명, 단기보호 30명, 중간시설 62명(care of continuation and readjustment) 등의 입주시설 과 주간보호 15명 2개소, 호스피스 8명, 3개의 홈케어팀 (통증완화, 노인심리, 평가 및 상담), 홈케어 전시 및 교육을 위한 교육용 아파트("Les Points Paris Emeraude 18") 등 다양한 이용시설과 거주 시설 및 의료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브레또노 노인복합시설의 건축구성은 기존의 아동병원을 레노베이션(renpvation)하여 홈케어를 위한 교육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과 신축 건물이 잘 조화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림 우편의 앞쪽이 기존 건물로 홈케어 관련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 뒤쪽의 두 개의 동은 1층에 진료 및 서비스 시설과 행정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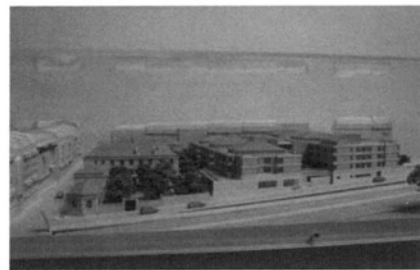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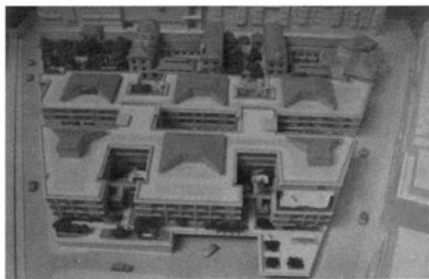


그림 3-2. 파리 노인복합 거주시설의 배치 계획

2,3층에는 장기 요양시설, 4층에는 호스피스와 단기보호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중정을 두어 건물 내로 자연 채광의 유입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각 공간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2,3층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요양 거주 공간은 각 층이 6개의 15명 거주 유닛으로 형성되어 있다. 각 유닛은 1~2개의 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실에는 개인 옷장과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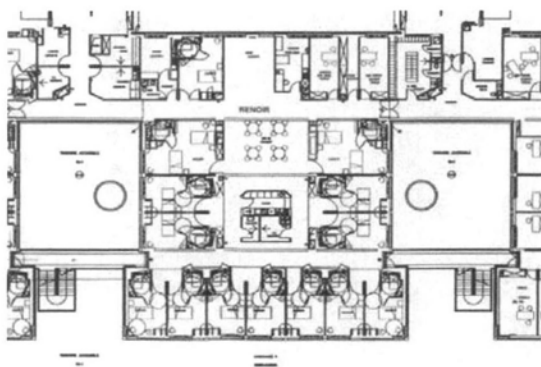


그림 3-3. 입주자 거주 공간의 유닛 계획 및 유닛 내의 식당공간

치매환자의 특징인 실내 공간에서 방향 감각이 감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몽마르트르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각 유닛은 유명한 화가의 이름과 그 화가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길찾기를 위한 표식들도 화가의 유명한 그림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특징을 주도록 하였

다. 이렇게 디자인에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함으로 고령자들이 이 공간에 더 친밀감을 느끼도록 디자인 된 것이다. 밑의 유니트는 3층에 위치한 르노와르 유니트로 그의 작품 “부채를 든 소녀”를 걸어 놓고 그 그림을 연상시키는 부채모양의 유니트 표식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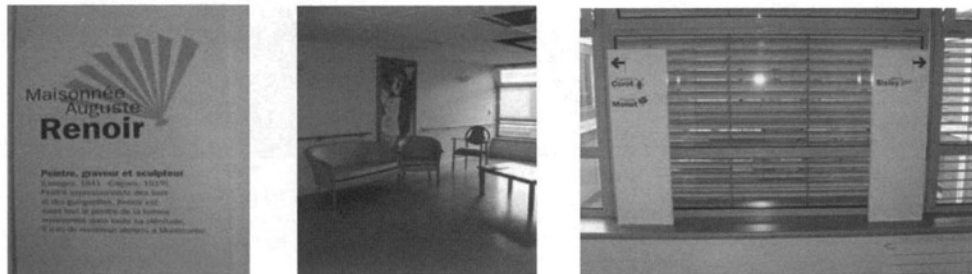


그림 3-4. 거주유니트 내의 고령자의 지남력 장애(Orientational Difficulties)를 배려한 길찾기(Way finding)디자인

로비와 공공 공간은 병원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비 층의 카페테리아는 파리의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야외 카페 공간도 제공하여, 노인들과 가족, 직원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5. 공용 공간의 카페와 의류 매장 디자인

오 프레파 포르테(Au Prêt-à-porter) 라고 의류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기부된 옷 들을 판매 점포같이 디스플레이를 하여, 노인들이 옷을 고를 때 쇼핑을 하는 것 같은 기쁨을 주고 있다. 4층의 호스피스 유니트에는 안전한 옥상정원을 두어 종말기 환자들이 외부에 나가 자연에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옥상정원은 가족 휴게실과 면하여 있다. 1층의 옥외 카페는 분수가 있는 정원에 면하여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레노베이션 공사가 완료 되면 더욱 편안한 옥외 카페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집과 노인들이 같이 가꿀 수 있는 정원과 애완동물을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동물원(Petting Zoo)도 있다. 주간보호시설과 인접한 재활치료실에는 다양한 촉감을 체험하는 보행훈련로(walk-way)와 옥외 재활치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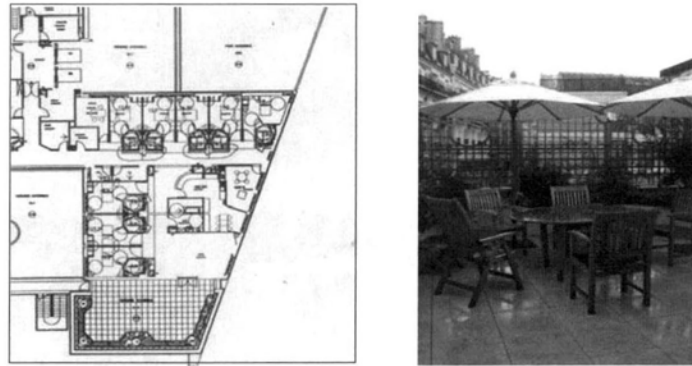


그림 3-6. 호스피스 유니트와 옥외정원

브레또노 노인병원은 동선계획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 직원 휴게 공간이 있다. 또한 각 요양실에는 직원들의 부상방지를 위해 고령자를 드는 동작(Lift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에서 화장실까지 천정트랙(Ceiling Track)을 설치하여 허리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1층에는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직원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들에게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세대간 접촉이 가능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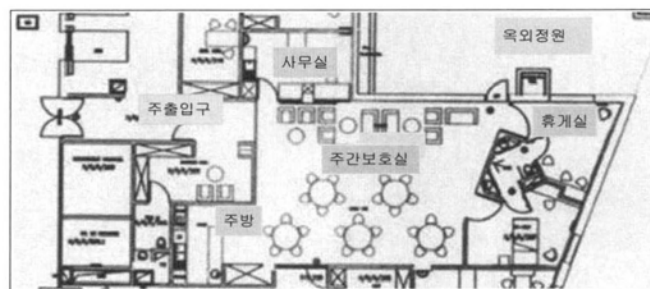


그림 3-7. 복합거주공간 내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3.2 일본 실버하우징의 효율을 높이는 생활지원센터(Life Support Advisor Center)

일본은 고령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장기적인 준비 하에 다변화하여 왔으며, 초기에는 시설복지에 중점을 두어 노인홈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생활을 지원한다고 하는 재택복지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데이서비스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개호보험 실시 이후에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의 건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노인홈의 시설정비비 보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작성하는 배치계획과 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따라서 신규 장기 요양 시설의 신축이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기준도 정부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주도의 시설 설치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민간의 개호보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가능한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간의 재가 서비스센터의 설치 비율은 다른 시

설이나 서비스 유형과 비교하여 매우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데이서비스센터는 65세 이상(65세 미만이라도 초로기 치매 등의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개호보험에 있는 개호도가 요지원, 요개호의 인정을 받은 고령자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개호도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이 세워져, 송영·입욕·식사·리허빌리테이션·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간시설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복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택서비스 시설만이 아니라 의료시설,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내 시설 등에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 데이서비스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대교류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노인서비스 시설의 복합화는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⁵²⁾

일본의 노후용 공동생활주택인 실버하우징에는 그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도와주는 고령자 생활지원센터(Life Support Advisor center)를 두고 있다. 이 센터는 고령자 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자 생활지원센터(LSA Center)는 상주형과 파견형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활지원요원(LSA:Life Support Advisor)은 고령자 주거 30호 마다 1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주형은 중앙정부가 1/2, 현에서 1/4을 지원하고 파견형은 중앙정부가 1/2, 현 1/4, 시정촌 1/4의 비용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⁵³⁾

또한 실버하우징 단지 내에 데이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정부에서 전체 비용의 1/2를 지원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1/4를 지원하여 전체 비용의 1/4만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기준 면적은 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15인 이상 이용시설의 경우 기본사업을 위해 165m²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급식 및 입욕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시설에 비해서는 비교적 넓은 공간기준을 가진 데이서비스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개호보험에는 면적 규정이 없어서 민간의 소규모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서비스와 복합된 서비스 시설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⁵⁴⁾

실버하우징과 같이 입주 초기에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입주 기간이 연장될수록 건강 상태의 변화가 오게 된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인 고령자 전용주거단지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활지원센터(LSA center)의 설치에 도심의 일반 주거단지에서도 매우 손쉽게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시로이시(白石市) 시영 다카노스 제2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실버하우징으로, 18세대의 소규모 실버하우징으로 고령자만이 아니라 장애자와 일반세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생활지원센터와 집회시설이 같이 설계되었다. 기존의 실버하우징이 고령자 위주의 시설로 세대간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데 반하여, 시로이시 실버하우징의 경우는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면서, 세대간 교류가 원활히 되고 고령자가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⁵⁵⁾

52) 淺沼由紀、谷口汎邦編(2002), 『高齢者複合施設-建築計画・設計シリーズ,15』, 市ヶ谷出版社

53) 홍형욱 외, 신개념 주거공간 노후용 공동생활주택,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54) 오은진, 박혜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요증가와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41-50



고령자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된
데크 공간

그림 3-8. 일본의 세대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배치계획의 실버하우징 사례
(일본 ADA 건축사무소)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고령자들만을 위한 독립시설보다는 고령자들이 어린이나 젊은 세대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노인주거시설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자들만을 위한 시설보다는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IV. 국내의 주거 특성과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연계

4.1 아파트 단지내 홈케어 서비스 스테이션의 필요성

국외의 사례에서 논의된 것 같이 홈케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 편리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인복지법상에 재가복지시설(在家福祉施設)로 규정되어 1980년대 말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복지시설보다는 국내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단지에 친근하게 적용하기 위해 홈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홈케어라는 용어도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적절하지 않지만,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일반적인 주거단지에 복합 설치되기에는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절한 용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재가복지시설의 유형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가정봉사원 교육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노인재가복지시

55) 와타나베 마코토, 키노시타 요코, “세대간 단절을 치유하는 고령자주거:하나의 집 주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일노인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2006.6

설은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0.75%에 해당하는 30,862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시설유형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300개소, 주간보호시설이 278개소, 단기보호시설이 82개이며 특히 주간보호시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⁵⁶⁾

2004년 말의 전국 주간보호 이용노인의 수는 무료에 4,245명, 실비에 604명으로 1개소당 평균 이용인원은 17.4명이며, 노인인구의 0.12%에 해당하는 노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용인원은 미국 기준의 1/10에 해당하며 일본과 비교하여도 매우 작은 인원만이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주간보호 시설의 연구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의 수도 노인 인구에 비해 작지만, 위치도 고령자가 쉽게 접근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⁵⁷⁾

현재 대부분의 재가복지시설들은 정부의 보조와 이용자들의 이용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실버도우미를 제외하고는 민간의 참여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나, 재가복지사업의 유형이 일반적인 노인시설에 비해 사업자의 부담이 적으므로 오히려 민간의 참여가 매우 바람직한 사업 형태이다.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신축 시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서비스 공간에 대해서는 용적율의 적용을 제외시키거나 다양한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한 법규나 재개발 아파트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소규모 임대 아파트를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들을 설치하여 잠재적인 수요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우리의 주거 문화는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의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많아 외국의 임대 형식의 노인 아파트와 국내 노인의 주거 욕구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내의 노인 서비스 시설도 우리 문화에 맞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 시스템에서 재가복지시설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로 설치된다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위주의 거주 형태는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효과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대 경로당 시설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임대 형식의 주간보호센터와 병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로 설치된다면 관리나 이용 측면에서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정원은 5인 이상이며 시설 규모는 기본 연면적 100m² 이상에 5인 초과 시 1인당 5m²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20명 정원의 경우는 175m²의 규모로 가능하며 다른 시설과 병설될 경우는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필요시설 구조 및 설비는 이용정원 10인 미만인 경우는 거실, 식당, 화장실만 갖추면 되고, 10인 이상의 경우는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국내의 경우는 하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임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설치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⁸⁾ 국내에서도 일본의 LSA Center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센터를 아파트 단지

56)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57) 오은진, 박혜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요증가와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41-50

에 설치하고 단지 내 고령자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 가사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고령자가 너싱홈이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고령자들만을 위한 노인 주택으로 입주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4.2 도심의 소규모 노인시설과 유닛 케어 환경 구성

최근에는 국내에서 주택을 개조하여 10인 정도의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의 소규모 노인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치매노인은 소그룹의 가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문제행동을 줄이고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으로 가정적인 유닛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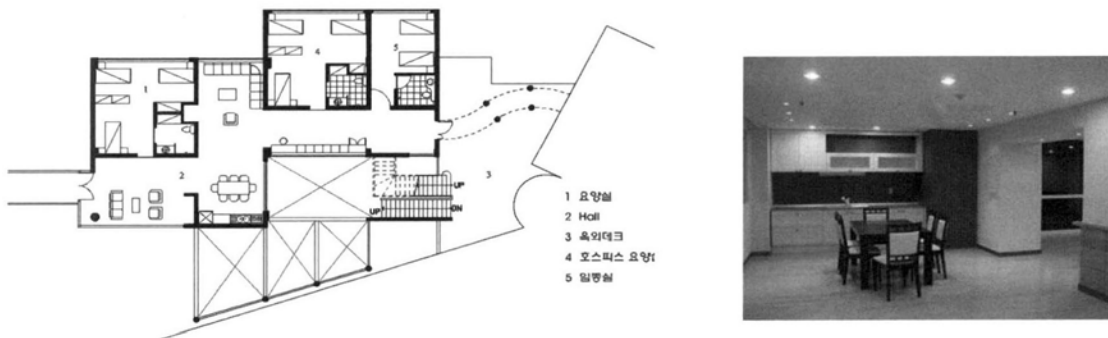


그림4-1. 소규모 유닛(8인)로 구성된 순매전문요양원의 호스피스 요양동

노인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리빙룸 개념의 소휴게실과 일상적인 노인들이 생활이 유닛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간의 위계영역이 보다 안정감을 주도록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유닛의 크기에 대해서는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더욱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인시설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 현실에 맞고 경제적인 형태의 시설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유닛 케어 개념의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간호 단위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5월에 개원한 파인밸리 신양전문요양원의 경우는 8명의 유닛을 기본으로 하여 노인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 각 유닛에 소휴게실을 두고 있어 공간의 위계영역이 보다 안정감을 주도록 형성되어 있다.⁶⁰⁾ 이러한 소규모 유닛의 노인시설은 도심에 설치하기에도 부담이 적으며 아파트 단지과 가까운 곳의 주택이나 메디컬 상가 개념의 빌딩에 위치하여 홈케어 시스템과 연계가 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것이다.

58) 오은진, 박혜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요증가와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41-50

59) Calkins, M. (1988). "Design for dementia: Planning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and the confused", Owing Mills, MD : National Health Publishing.

60) 권순정, 오은진, 안희창 “노인전문요양시설 표준건축모델연구”, 서울복지재단, 2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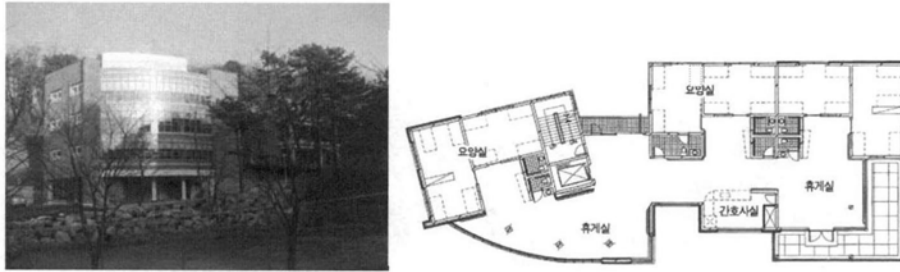


그림 4-2. 유니트케어 개념의 파인밸리 신양전문요양원 평면도와 전경

4.3 홈케어와 실버산업의 발전 촉진

홈케어의 발전은 주거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개념의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는 배리어프리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 그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대상자의 기본적인 접근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산업제품보다도 더 복잡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그 건물을 사용할 사용자에게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⁶¹⁾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한 사람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모두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건축 공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주 사용자는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한 노인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앞으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들을 위한 홈케어가 일반화 될 것에 대비한다면 주거공간이나 노인들의 장기 거주 시설의 디자인에서는 노인들의 신체적인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생활환경의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접근에 있어서 수발자(care-giver)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발하는 가족이나 의료 인력의 효율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간 계획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 목표에 포함된다.

노인의 경우 휠체어를 혼자 조정하기 어렵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거나 휠체어에서 화장실 양변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매우 힘들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국내의 노인들은 근력이 약해서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나 편마비가 있는 경우 대부분 혼자서 이동이 힘들다. 노인 수발자의 경우 노인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 부상이 자주 발생한다. 허리 부상 및 근육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보조 기구 및 기기가 필요하다.

61) 이특구 외,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93-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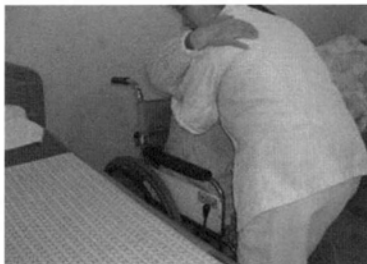


그림 4-3.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수발자의 허리 부상에 조심하여야 한다. 노인의 이동과 일어서는 것을 보조해 주는 리프트 기기

이동만이 아니라 수발자로서 목욕 보조는 가장 힘든 수발 형태이다. 이러한 수발자의 작업 패턴을 고려한 목욕 보조 기계는 매우 유용한 제품으로 현재 많은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럴 경우 노인의 신체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수발자의 작업 패턴을 인체 공학적인 면에서 분석하여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목욕기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도 저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다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홈케어와 아파트 단지의 결합을 통하여 이러한 실버관련 제품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다.

V. 결론

앞으로 도심내 노인복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니어 생활 지원센터’의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과 주변 지역을 위한 홈케어를 지원하는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니어 생활 지원센터’에는 경로당의 기능을 보다 강화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낮 동안 필요한 노인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현대의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중요한 단지 내 거주 노인들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수발 비용을 매우 효과적으로 절감할 것이다. 또한 각 가정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두고, 필요에 따라 봉사원(실버 도우미)을 파견하도록 한다. 공동 주방에서는 노인 가정에서 제일 원하고 있는 반찬 배달(meal delivery system)을 제공한다면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 거주하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주거의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생활 지원센터’는 100평에서 150평 규모이면 가능하며 임대나 분양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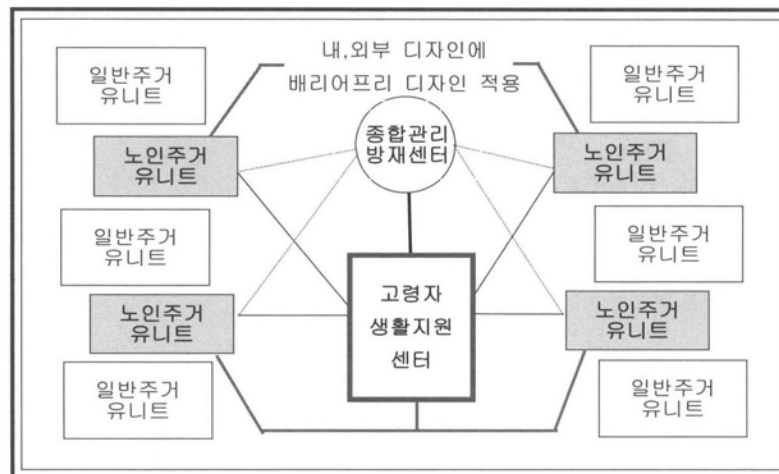


그림5-1.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한 아파트단지 내 노인홈케어 서비스 시설의 제안

응급 시 대처 시스템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고 있는 종합 방재센터에서는 노인 독거 가정의 응급구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시간 독거노인이 주거 내에서 움직임(motion detect system)이 감지되지 않을 때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자 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지만, 기존의 시설들의 결합을 통하여 용이하면서도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권순정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량추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2. 권순정, 오은진, 안희창 “노인전문요양시설 표준건축모델연구”, 서울복지재단, 2005.11
3.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4. 오은진, “요양원 건축의 치료적 환경 특성과 치매노인행동의 상호관련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8
5. 오은진, 박혜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요증가와 시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41-50
6. 와타나베 마코토, 키노시타 요코, “세대간 단절을 치유하는 고령자주거:하나의 집 주체”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일노인복지 심포지엄 자료집 2006.6
7. 이특구 외,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2권 2호, 2006.7. pp93-104
8. 홍형욱 외, 신개념 주거공간 노후용 공동생활주택,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8.
9. 浅沼由紀、谷口汎邦編(2002), 『高齢者複合施設-建築計画設計シリーズ,15』, 市ヶ谷出版社

10. Calkins,M.(1988). "Design for dementia: Planning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and the confused", Owing Mills,MD : National Health Publishing.
11. Cohen,U. "Contempotar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12. Perkins^{2]}, 『Building Type Basics for Senior Living』

신세대로서의 노인과 사회적 시민권: 21세기 한국의 국가-노인 관계

장 경 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여 백

신세대로서의 노인과 사회적 시민권: 21세기 한국의 국가-노인 관계⁶²⁾

장 경 섭(서울대 사회학과)

1.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7월 1일 현재 337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 4,727만명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중앙일보], 2000/7/11).⁶³⁾ 약 30년 전인 1970년의 고령인구가 9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했던 것에 비교할 때 절대 규모나 비율에서나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시점인 21세기 첫 해에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오는 2022년에는 전체의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가 되고,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록적인 변화를 예측했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다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들보다 매우 빨라, 예를 들어 이 기간들이 미국에서는 각각 71년과 15년이라고 하며 스웨덴,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더욱 길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엄청난 예측조차 넘어서는 초고속의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다.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00-2005년 사이에 65-69세 인구는 22.1%, 70-74세 인구는 36.4%, 75-79세 인구는 27.7%, 80-84세 인구는 42.3% 그리고 85세 이상 인구는 34.7%가 증가함으로써 고령인구 규모는 가히 폭발적으로 커졌다 (통계청, 2006). 200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는 무려 9.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류의 산업화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될 정도의 급속한 산업화 및 이에 수반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해 온 한국사회는 고령인구의 규모와 비율 증가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경험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했다. 경제구조와 사회질서의 압축적 변화와 함께 ‘압축적 노령화’(compressed aging)를 경험하게 된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가 일구어 온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다 (Chang, 1999). 어느 사회에서처럼 노년기의 보편적 향유는 사회발전의 핵심적 결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급증하는 노인들이 실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년기 삶을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초기 산업화에서부터 최근의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폭발적인 경제·사회적 변화

62) 발표문 내용은 부분적으로 필자가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가족과 문화], 13집 1호, 2001)이라는 제하에 발표한 것을 동 학술대회 조직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수정·보완했다.

63) 이 글에서 ‘고령인구’와 ‘노인인구’는 동의(同義)로 혼용되지만 특별히 물리적 연령대를 표시할 때는 ‘노인인구’를, 사회문화적 세대집단을 표시할 때는 ‘노년인구’를 사용한다.

는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사회에서보다도 빠른 속도로 퇴화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겪어 온 다른 여느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현대 노인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인식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년기의 집단적 연장은 새로운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직접 체험하는 노인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다른 세대들은 새로운 인생기로서의 노년기를 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년기가 중장년에 이은 인생의 연속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고령인구의 등장이 결코 역사적 연속상황일 수 없다. 따라서 현대 노인들은 일종의 ‘신세대’(new generation)로서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며 이들이 다른 세대들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이나 배제, 고립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호 협력, 교류, 경쟁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다. 의존적 노년기는 노인들 자신에게도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일일뿐더러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과 사회에게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 것이다.

민주적 산업사회에서 다른 세대 시민의 대(對)국가 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령인구와 국가 사이의 관계도 포괄적인 행복권 보장을 의미하는 ‘사회권’(social rights) 혹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권의 내용은 새로운 사회구성체의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화)사회의 정의 자체로 인해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 등을 참고해 미리 확정할 수 없다. 가용한 공공재원을 활용해 단순히 고령인구를 빈곤·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시혜적(보은적?) 사회정책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령사회의 주체인 고령자(노인)를 객체화시켜 이들에 내재한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발전자원(developmental resources)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고령사회는 고령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및 정치사회적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들의 ‘새로운 역사적 진입’을 다른 세대와의 발전적 공존으로 이끌기 위한 경제구조와 사회질서 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본질을 확립해야 한다.

2. 산업(화)사회, 고령(화)사회

근대 산업문명은 본질적으로 ‘노인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근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고령인구의 절대규모나 상대적 비율의 증가에 상관없이 노인 지위와 역할의 부정적 변화에 수반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첫째,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참여하기가 연령적으로 어려운 특정 노인집단이 발생한다. 이 노인집단은 농업과 농촌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로 농촌에 잔류하여 ‘농촌노인인구’를 형성함으로써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야기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들이 도시 빈민지대 인구의 일부를 형성한다. 둘째, 산업화의 속성이 지속적인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낙오집단들이 양산되는데 이들이 고령인구에 집중되기 쉽다. 이러한 낙오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정년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근에는 정년제도가 오히려 일정 연령까지 도태를 유예시킨다는 판단하에 조기퇴직, 정리해고, 단기 계약제노동을 보편화시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맞물려 변화와 새로움을 이상시하는 근대적

지식문화체계가 확립되면 고령인구는 보수성과 전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정신적인 극복대상으로 물리기가 쉽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계승해야 할 정신적 가치나 지혜의 담지자가 아니라 즉각적 세대교체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넷째, 이상의 거시적인 변화들은 가족이 수행해 오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들의 상당 부분을 탈가족화 혹은 사회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족내에서의 가부장적 지위를 통해 충족시키던 다양한 욕구들을 더 이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노인 주도의 사회·경제 활동들은 가족을 조직적 기반으로 했는데, 가족의 기능 축소는 결국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근대 산업문명의 역설은 이처럼 산업화의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뒤쳐져서 따라가야 하는 노인인구의 절대규모와 상대적 비율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산업화와 이에 수반한 도시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사망률과 출산율이 시차를 두고 각각 급속히 하락함으로써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율이 일정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어떤 산업화 사회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극소수만이 누렸던 고령기의 삶을 대다수 사회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위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고령인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수와 비율이 증가한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통합력은 이전의 농경문명에 비해 산업문명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물론 전통적 농경문명이 한정된 생산력으로 인해 노인들뿐 아니라 증가하는 모든 인구를 물질적으로 부양하기 어려운 한계를 산업문명은 획기적으로 극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문명은 늘어난 노인들에게 중심적인 경제·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근본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인들에게 지역, 계층,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중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특히 고령인구에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적 제조업, 서비스업에의 노인 취업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에 그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농업은 갈수록 위축되어졌다. 그리고 대다수 농촌에 거주해 왔던 노인들에게 도시공간에서의 새로운 삶은 적응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어서 희망없는 농촌생활이라도 그대로 영위해 나가야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39.5%, 1985년 39.0%, 1990년 46.3%, 1995년 48.2%, 2000년 45.5%, 2005년 44.7%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239).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1980년에 농림어업 66.8%, 광공업 6.7%, 서비스업 26.5%였으며, 이후 농업의 급속한 위축을 반영해 20년 후인 2000년에 농림어업 40.6%, 광공업 9.6%, 서비스업 49.8%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239). 각 산업별 취업자의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이 1980년 21.2%, 1985년 26.1%, 1990년 39.2%, 1995년 50.2%, 2000년 58.1%, 2003년 62.6%로 급상승해 왔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2], p.188;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48). 제조업은 1980년에 3.3%에서 1985년에 3.6%, 1990년에 5.3%, 1995년에 7.2%, 2000년에 7.1%, 2003년에 8.3%로 완만히 상승해 왔다. 서비스업은 1980년 6.6%, 1985년 7.7%, 1990년 9.3%, 1995년 10.3%, 2000년 10.9%, 2003년 11.9%로 더욱 완만히 상승해 왔다. 이같은 추세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들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2·3차 핵심산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일종의 사양산업인 농업에 주로 잔류하게 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결국 농촌에 머무르면서 경제활동 기회를 유지해 왔다. 비록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었지만 이 경우에도 원시적인 개인노동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⁶⁴⁾

노인들의 이같은 경제적 소외는 곧 생활수준의 저하로 이어졌다. 1988년 한국인구보건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군지역에서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는 각각의 월 최저생계비인 155,438원과 89,636원에도 못미치는 140,000원과 74,000원을 각각 월 평균생활비로 쓰고 있었다 (김수춘 외, 1995, <표 4-3>). 중소도시지역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172,146원과 99,638원이었고, 실제 월 평균생활비는 각각 189,000원과 95,000원이었다. 대도시지역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독신가구의 월 최저생계비는 각각 182,146원과 105,893원이었고, 실제 월 평균생활비는 각각 249,000원과 120,000원이었다. 농촌 노인들은 최저생계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였고 대도시 노인들은 이보다 약간 낮은 생활을 하였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전국 비노인가구 중에는 32.4%였지만 노인가구 중에는 62.2%나 되었다 (정경희 외, 1998). 해당 비율은 농촌 (군부)에서 더욱 높아 비노인가구의 43.9%에 비해 노인가구는 무려 72.2%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55.7%만이 소득을 갖고 있었고, 이들을 포함해 소득에 만족하는 동연령 인구의 비율이 10.4%에 그쳤고, 불만인 비율은 무려 다섯 배인 52.9%에 달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31). 30대, 40대, 50대 인구는 모두 유소득률이 70%를 넘었고, 소득 불만족도가 각각 46.6%, 50.8%, 51.6%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더욱 낮아, 같은 해 60세 이상 인구의 9.6%만이 만족했으며, 44.1%가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36). 소비생활 만족도는 다른 연령층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빈곤은 높은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로도 나타나는데 정부의 매우 보수적인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989년에 12.8%, 1991년에 14.2%, 1995년에 9.7%, 1997년에 8.3%, 1999년에 7.5%, 2001년 9.3%, 2004년 8.4%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480).

3. 효(孝)의 이념과 현실

한국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처를 전통적 문화자원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 왔었다. 즉 핵심 가족이념으로서의 전통적 효(孝)규범을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도 유지시켜 노인문제를 가정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한국 정부는 고수했으며 이것이 이른바 가족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형의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정책당국의 입장에 상관없이 대다수 노인들의 현실적 생활은 부모-자녀간 상호부양 규범의 한 축인 '효행'을 통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규범으로서의 효가 당장 노인들의 일상적 삶을 보호하는 중대한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산업사회 노인문제의 근본적 성격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응책 마련을 지체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및 정책적 담론들이 노인문제를 가족문제로 한정시켜 보게 하고 노인들을 의존적 사회집단으로서 인식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인문제 대책을 결정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 길지 않은 노년기조차도 실제로 경험하는 인구 비율이 극히 낮았고 가정과 사회의 운영에 노인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던 전통시대의 규범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대다수 인구가 급속히 연장되는 노년기를 살지만 가

1) 이에 관한 구체적 사례연구로 박숙자(1999) 참조.

정과 사회에서 뚜렷한 역할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있어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치 중 하나가 가족주의이고 가장 분명하게 공유되는 규범이 효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가족주의와 효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어서 가족중심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효규범은 기능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성용, 1996). 사회에서의 경쟁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질 때 부모의 자녀 사랑(훈육), 자녀의 부모 공경, 형제간의 우애 등으로 표현되는 가족성원 사이의 내부 단결은 핵심적 생존원리가 된다. 특히 자녀의 부모 공경, 즉 효는 세대 사이에 불가분의 조합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이념적 및 도구적 기초가 된다. 자녀의 효행을 명시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부모이더라도 기본적인 효행조차 이루어지지 않거나 앓을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자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다.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부모의 자원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효행의 실천은 그러한 의존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 물론 순수한 효는 이같은 도구적 교환관계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긴밀한 지원·의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가 이러한 현실적 관계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규범은 연령, 학력, 지역 구분 없이 지배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마저 나타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효규범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자녀책임 의식은 1998년에 전국적으로 89.9%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06).⁶⁵⁾ 이 의식은 1983년에 71.7%, 1988년에 79.3%, 1991년에 78.7%, 1994년에 87.3%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34), 효규범이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부모의 노후부양을 장남 혹은 아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하락해 온 데 반해, 아들·딸 모두 혹은 “능력있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⁶⁶⁾ 자녀의 노부모 부양책임으로 나타나는 효규범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약화되는 조짐이 없으며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자 혹은 아들 중심의 효에서 모든 자녀에 의한 공동 분담의 효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장자 혹은 아들의 노부모 부양은

65) 같은 해에 노후부양의 자녀책임 의견이 연령별로는 15-19세 85.5%, 20-29세 90.0%, 30-39세 91.9%, 40-49세 91.6%, 50-59세 88.7%, 60세 이상 89.0%였다. 지역별로는 도시(동부) 89.4%, 농촌(읍면부) 92.3%였다.

66) 1983년과 1998년 사이에 장남의 부양 책임을 드는 비율은 22.1%에서 18.3%로, 아들 모두의 부양 책임을 드는 비율은 21.7%에서 13.8%로 낮아졌고, 아들·딸 모두의 부양 책임을 드는 비율은 27.1%에서 46.2%로 급증했다. 1994년에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 책임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한 결과, 이 항목에 27.2%, 아들·딸 모두의 부양 책임에 29.1%, 아들 모두의 부양 책임에 11.4%, 장남의 부양 책임에 19.6%가 찬성했다. 1998년에는 능력있는 자녀 45.5%, 아들·딸 모두 14.5%, 아들 모두 7.0%, 장남 22.4%의 비율로 부양책임이 지적되었다 (이가옥, 1999, <표 37>). 2002년에 “가족과 정부, 사회”라는 애매한 항목이 추가되자, 이 항목에 18.2%, 능력있는 자녀 21.2%, 아들·딸 모두 19.5%, 아들 모두 13.9%, 장남 15.1%의 비율로 부양책임이 지적되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06).

결국 이들의 아내, 즉 자부의 주도적 역할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결국 자부에 의한 시부모 봉양의 형태로 실현되는 효에서 아들, 딸, 자부, 나아가 사위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효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들어나는 한국인들의 강력한 효규범은 반드시 개인적인 성찰과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동조하려는 일반적인 태도의 반영일 수 있다. 아울러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은 의지와 상관 없이 적극적인 노부모 봉양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노부모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자녀 부양 비율은 규범과는 차이가 많아, 1994년에 전국적으로 62.1%였고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33), 1998년에는 58.2%로 더욱 낮아졌다([한국의 사회지표 2000], p.142). 자녀 이외의 노부모 생계부양 책임자는 다름 아닌 노부모 자신이었으며 기타 사회적 수단에 의한 해결 비율은 극소했다.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을 보면, 2002년에 전국적으로 55.9%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40.1%가 자녀나 친척에, 3.8%가 정부나 사회단체에 의존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489). 2005년에는 같은 비율들이 59.1%, 36.2%, 4.5%로 나타나 자녀나 친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고, 자립하거나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부모의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일반적 봉양 의무를 당연시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하는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나이가 젊고 학력이 높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노부모 가운데 생계부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 수단, 즉 국가의 사회보장 등은 노인들의 생계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강한 효규범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선택에서는 현재의 노인들이나 장래의 노인들이나 독립적인 생활의 불가피성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위에 소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 가운데 40.7%는 부부 혹은 혼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촌 노인의 47.3%, 도시 노인의 35.7%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가옥 외, 1994).⁶⁷⁾ 좀더 최근 상황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에 전국적으로 45.8%, 도시 48.3%, 농촌 41.3%였으며, 2005년에 전국 52.5%, 도시 52.5%, 농촌 52.6%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과반의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노후를 대세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491). 비노인층의 경우 자신들의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 세대에 걸쳐 매우 낮다. 1992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노후에 자녀와 별거하겠다는 비율은 20대 75.6%, 30대 70.9%, 40대 75.1%, 50대 65.8%로 나타났다 (최성재, 1992). 이러한 비율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독자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회구를 나타내는 지, 아니면 자녀에 의한 노후 봉양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소극적 수용을 나타내는 지 분명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미래 노인들의 생활에 있어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의존의 비중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와의 노후 별거에 대한 수용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89년 기혼부인 조사에 의하면, 실제 시부모와의 영구동거 비율은 29세 이

67) 그러나 장남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도 전체적으로 36.8%, 도시에서는 38.3%, 농촌에서는 34.8%로 나타나 장자선택의식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하 17.3%, 30-39세 16.3%, 40-49세 33.7%, 50-59세 49.6%, 60세 이상 61.1%로 나타났다. 시부모와의 평생 별거 비율은 29세 이하 65.4%, 30-39세 56.3%, 40-49세 41.8%, 50-59세 28.0%, 60세 이상 23.9%로 나타났다 (공세권 외, 1990). 이상의 수치들에서 알 수 있는 바는, 현재 노후 문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의 (시)부모를 동거부양했었지만 막상 자신들의 노후에는 마찬가지로의 효행을 자녀들로부터 기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전통적 가족문화와 현대적 가족문화의 중간에 낀 샌드위치 세대로 느낄 것이며, 급격히 연장되는 노년기를 대비해 독자적인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음을 갑자기 느끼게 된 첫 세대인 것이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효규범에 의해 강력히 통합되어 보이는 한국 가족들의 상당수는 세대간 및 남녀간 가족관의 현격한 차이에 의해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 한국 가족의 내부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관, 가족성원의 경제·사회적 성공을 가족의 존속 목적으로 삼는 도구주의적 가족관, 부부관계 및 부모-미성년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서정주의 핵가족관, 가족을 개인들 사이의 실용적인 결합이나 소비공간으로 보는 개인주의적 가족관 등이 혼재해 있으며, 세대별로 이러한 이질적인 가족관들에 대한 노출 및 수용의 정도가 다르다 (장경섭, 2001). 현대 한국인들의 가족규범에는 한국사회가 갖는 압축적 근대성의 한가지 표현인 일종의 ‘우발적 다원성’(accidental pluralism)이 존재하지만, 막상 이를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가족문화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한국 가족의 최대 문제거리일 것이다 (장경섭, 2001). 이처럼 복잡한 현실에 직면한 노인들이나 예비노인들은 차라리 독자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4. 개발자유주의와 고령인구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은 실제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문제들을 누적시켜 왔다. 자본주의 산업화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착취, 소외,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서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등장이 귀결되었다. 자본주의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한국에서는 이에 수반된 사회문제들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덧붙여 그러한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동원된 방법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략적인 대기업 지원, 무자비한 노동계급 통제, 사회복지의 극단적 억제, 광범위한 환경파괴 용인 등이 1980년대까지도 이루어졌으며, 최근 경제위기 이후에 다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재강화되는 조짐도 보인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 복지, 환경 등에 대해 취해진 이같은 극도의 보수주의적 입장을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Chang, 2006)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이 그 전형으로 꼽히는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사회적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발자유주의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산업자본주의적 축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반 사회요소들에 대한 공적 투자를 철저히 억제하거나 훼손을 방임하는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구의 (반복지국가적)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까지 도입되어 개발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 신자

유주의는 한 술 더떠 사회요소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뿐 아니라 이를 무차별적으로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작용까지 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도 예외없이 이처럼 집요한 보수적 (반)사회정책주의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에 대한 사회보장 예산의 비율은 1981년 2.4%, 1983년 3.4%, 1985년 3.2%, 1987년 3.6% 등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다 급속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1989년 5.2%, 1992년 7.2%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반영해 다시 반전되어 1995년 5.6%까지 떨어졌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며 1999년 7.3%, 2000년 9.1%, 2000년 10.8%로 급상승하였다가 2005년에 1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2], p.412;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 466). 이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만 따로 잡으면, 전체 국가예산의 1%도 안되는 수준이 지속되어 왔다.⁶⁸⁾ 이와 대조적으로 1990년대 들어서도 보건·사회보장·복지서비스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 선진국들에서는 존재조차 불분명한 소위 경제사업에 쓰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예산, 국방예산 등도 보건·사회보장·복지서비스 예산을 초과했다. 보건, 사회보장,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같은 지출 수준은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 서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여러 개도국들보다도 낮은 것이다.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맞물려 지속되어 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노후 부양이 국가의 사회보장같은 공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은 1983년에 7.8%, 1988년에 5.0%, 1991년에 5.9%, 1994년에 2.9%, 1998년에 1.9%로 최근에 올수록 오히려 감소해 왔다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3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06). 이러한 보수성은 연령, 교육수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보편적이었다.⁶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노후생활비 마련을 국가와 사회보장제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4년 20.5%, 1998년 25.5%로 나타났다 (이가옥, 1999, <표 39>). 실제 국가의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수단은 노인들의 생계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회적 수단에 의한 노부모 생계(생활비)해결 비율은 1994년에 전국적으로 0.3%였고,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0.5%, 중졸 0.2%, 고졸 0.2%, 대졸 이상 0.2%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시부) 0.3%, 농촌(군부) 0.1%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0], p.142). 이 비율은 1998년에도 대동소이해 전국적으로 0.2%였고,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1.0%, 중졸 0.3%, 고졸 0.1%, 대졸 이상 0.2%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동부) 0.2%, 농촌(읍·면부) 0.2%였다. 이후 기초생활보

68) 이 비율은 1991년 0.13%, 1993년 0.22%, 1995년 0.12%, 1997년 0.19%, 1998년 0.24%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여 왔다 (이가옥, 1999, <표 8>).

69) 1994년에 노후 부양의 공적 해결을 주장하는 비율은, 연령별로 15-19세 4.0%, 20-29세 3.0%, 30-39세 2.5%, 40-49세 2.6%, 50-59세 2.4%, 60세 이상 3.2%였으며, 교육수준별로 초졸 이하 2.4%, 중졸 3.1%, 고졸 2.8%, 대졸 3.5%였고, 지역별로는 도시 2.8%, 농촌 3.0%로 다양한 사회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사회지표 1998], p.134). 1998년에 동 비율은 연령별로 15-19세 3.0%, 20-29세 2.1%, 30-39세 1.5%, 40-49세 1.6%, 50-59세 1.8%, 60세 이상 1.9%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2.1%, 농촌 1.2%로 모든 집단에서 4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4], p.206).

장제 도입을 반영해 동 비율이 전국적으로 3.8%, 도시 3.7%, 농촌 4.1%로 높아졌고, 2005년에는 전국 4.5%, 도시 4.5%, 농촌 4.6%로 더욱 높아졌지만 여전히 공적 수단의 기여는 미미하기만 하다 ([한국의 사회지표 2005], p.489).

정부는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것과 별반 차이없는 무관심을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보이지만 노인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유난히 많은 정책담론을 내놓고 있다. 강력한 효규범이 시민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가 노인들의 빈곤과 소외를 방지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른바 가족복지론이었다. 가족 중심의 한국적 특색을 가진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제기된 이 주장은 실제로는 국가를 대신해서 가족이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떠맡아야 한다는 국가면책론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 기였던 1995년 초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한국대표단이 이른바 “가족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형” 정립을 선언하여 여러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막상 그 후속조치로서 어떠한 가족복지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된 적이 없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오고 있는 세계 각국이 가족성원간의 강력한 부양규범을 떠받들고 있는 유교이념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터라,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용두사미적 행태는 실망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치적 구두선으로서의 가족복지론조차 김영삼 정권 후반기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신자유주의 색채가 짙은 이른바 “생산적 복지론”이 대두되었으며 여기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게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복지는 ‘가족에 의한 복지’, ‘가족을 통한 복지’, ‘가족을 위한 복지’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정책담론은 명목적으로는 가족을 통한 복지를 주로 지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에 의한 복지를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란·장경섭, 1995).⁷⁰⁾ 김동일 (1991: 54)은 가족 중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인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는 “외형상으로는 전통적 가치와 현재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규범의식에 합당해서 그럴 듯하게 보이나, 이것은 가족의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의 제고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유희의 인상까지 주는 가족복지론은 세대, 학력, 지방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강력한 노부모 부양규범과 사회복지에 대한 소극적 의식과 맞물려 나름대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가족복지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칭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주로 노인에 대한 가족 차원의 보호·부양 노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독려를 지칭하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보호와 부양이 가족 차원에서는 주로 전통 유교이념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국가가 경로효친의 규범을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없어진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가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규제와 함께 유교적 가족부양 규범

70) 효규범을 살린 가족을 통한 복지로서의 가족복지를 노인문제에 적용시키려는 주장으로 성규탁 (1995), [새 시대의 효: 부모 자녀 관계의 재조명]을 참조할 것.

의 직·간접적 권장이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국가유교주의’(state confucianism)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매년 5월의 경로주간에는 각 시, 도, 군, 구 단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전통 모범가정, 장한 아버지 등이 표창을 받아 왔다. 정부는 심지어 효행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양옥남, 1999). 국가에 의한 유교이념의 강조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군사독재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등치시키는 “충효사상”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 가족복지론은 비민주적 정치질서에 이어 소극적 사회정책 기조를 연장하기 위해 유교이념을 활용하려는 수구적 노력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가족복지론과 이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국가유교주의는 경제성장 지상주의 국정을 뒷받침해 온 개발자유주의 사회정책의 중요한 수단들이라고 볼 수 있다.⁷¹⁾

5. 노인은 구세대인가 신세대인가

현대 한국의 노인문제 해결에 전통적 노년관과 근대적(서구적) 노년관은 모두 장애가 되고 있다. 전통적 노년관에서 노인은 주로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통솔해 온 가족내에서 자녀들의 자발적 도덕심으로서의 효성에 의거하여 노후 부양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성규탁, 1995). 그리고 근대적 노년관에서 노인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력의 가치를 상실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어려운 의존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Cogwill and Holmes, 1972). 이러한 두 가지 노년관은 일면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고령인구를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종속과 소외를 조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주의(ageism)는 청장년 중심인 현대 산업문명의 특징이라고 흔히 간주되지만 나이에 비례한 위계서열을 내세우는 전통문화 역시 역설적인 노인차별 행태를 야기할 잠재성을 갖고 있다. 즉, 전통문화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도덕적 위계질서에 의해 규정하여 현실 생활에서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이 젊은 세대의 도덕적 태도 변화에 따라 중대한 부침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별다른 경제적 자원이나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한편으로 동정적 봉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노인들에 대한 이같은 배제와 차별은 사회적 혼란기나 경제적 곤궁기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과거 역사에서 고려장 풍습이 반드시 일상적인 노인공경 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노인 공경에 관한 젊은 세대의 도덕적 태도는 현대에 들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

8) 이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산업혁명 초기에 국가의 매우 소극적인 사회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과 개인의 자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도덕적 훈육을 강화한 것이나(Donzelot, 1979),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복지국가체제의 축소나 비판을 위해 “가족가치”(family value) 캠페인을 벌인 것과(Somerville, 1992)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가족이념과 복지상황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필자의 논의로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Chang, 1997) 참조.

다.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노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청장년에게 노부모나 바깥 노인들은 도덕적 공경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현실적 부담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효규범이 희석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막상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지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효규범이 노부모 봉양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설정시킴으로써 이를 실천하는 자녀에게나 포기하는 자녀에게나 모두 현실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 노인들은 결국 재산 상속을 자녀의 자신에 대한 봉양행위의 담보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정경희, 1999). 재산 상속과는 별개로 갈수록 많은 노인들과 예비노인들이 자녀의 불확실한 도덕적 봉양의지에 노후를 맡긴다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한편으로 자녀와의 노후 별거를 택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 소득원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가옥 외, 1994). 가족 바깥에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문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공동체나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경제구조상으로도 과거보다 훨씬 건강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고령인구를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찾기 어렵다. 아마도 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효규범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막상 노인들은 가족을 벗어나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 노년관이나 현대적 노년관이 모두 노인들에게 삶의 방식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는 엄청난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 미래 노인들 뿐 아니라 현재 노인들조차도 의존적 시기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사회 발전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육체적 건강과 문화·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노년기를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유복한 노인들의 수와 비율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세워볼 때, 노년기에 대한 노인 자신 및 사회 일반의 관념을 새롭게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노년기 이념에 대한 탈전통적(post-traditional)이며 탈현대적(post-modern)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의 전환에 관해, 라슬렛(Peter Laslett, 1989)의 논의가 시사적이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제1인생기(the First Age)에서 제4인생기(the Fourth Age)까지로 나누고 노년은 제3인생기(the Third Age)를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²⁾ 제1

72) 이처럼 인생의 정점으로서의 제3인생기를 살기 위한 핵심적 조건으로 “주관적 나이”(subjective age)가 젊어야 한다 (Laslett, 1989:24-27). 인간은 “연대기적 나이”(calendar or chronological age),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 “개인적 나이”(personal age), “사회적 나이”(social age), “주관적 나이”를 먹는데, 이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나이가 제3인생기의 확보와 영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대기적 나이는 물리적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나이고, 생물학적 나이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적 노화를 반영하는 나이고, 개인적 나이는 개인의 인생주기(life course)를 밝아나가는 데 따라 변하는 나이고, 사회적 나이는 가족, 친지, 회사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나이이다.) 따라서 제3인생기는 반드시 특정한 연대기적 혹은 신체적 나이를 가진 집단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연대기적 의미의 노령인구 가운데 제3인생기를 살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을 갖춘 사람

인생기는 “의존, 사회화, 미성숙, 교육”의 시기이고, 제2인생기는 “독립, 성숙, 의무, 소득, 저축”의 시기이고, 제3인생기는 “개인적 성취”의 시기이고, 제4인생기는 “최종적 의존, 노쇠, 사망”의 시기이다 (Laslett, 1989:4). 제3인생기는 흔히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함께 시작되며 아울러 가족부양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아직 활발하고 생산적이고 건강하며, 연금 등 나름대로의 소득기반이 있는 노인들이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살 수 있도록 노인 자신과 전체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년은 여기에서 분류한 제4인생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으며, 제3인생기의 개인적 성취는 대체로 제2인생기인 중장년의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구미 선진국뿐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에서도 경제발전, 건강 및 교육수준 향상, 사회문화적 진보에 따라 독립성, 활동성, 생산성을 갖춘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노년관을 뛰어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생기를 영위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생의 정점으로서의 제3인생기를 살기 위한 핵심적 조건으로 “주관적 나이”(subjective age)가 젊어야 한다 (Laslett, 1989:24-27). 인간은 “연대기적 나이”(calendar or chronological age),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 “개인적 나이”(personal age), “사회적 나이”(social age), “주관적 나이”를 먹는데, 이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 나이가 제3인생기의 확보와 영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3인생기는 반드시 특정한 연대기적 혹은 신체적 나이를 가진 집단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연대기적 의미의 노령인구 가운데 제3인생기를 살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연대기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들을 자동 배제시키는 경직된 고용체계를 수정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는 교육체계 등을 보완하여 노인들이 지속적인 지적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노인들 자신은 적극적인 노년기를 살기 위한 심리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슬렛의 이같은 주장은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체적 건강과 물질적 안정조차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한국같은 사회에서는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으로 중장년까지 조기퇴직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주장이 별로 큰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라도 노년기, 나아가 은퇴기를 생산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속도가 붙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노인들을 의존적 집단으로 설정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연대기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들을 자동 배제시키는 경직된 고용체계를 수정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는 교육체계 등을 보완하여 노인들이 지속적인 지적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노인들 자신은 적극적인 노년기를 살기 위한 심리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년기가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생의 절정기가 되어야 한다고 라슬렛이 주장할 때, 노인들의 자기부양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니다. “독립, 성숙, 의무, 소득, 저축”을 내용으로 하는 제2인생기와 구분된 “개인적 성취”만을 위한 제3인생기를 ‘압축적 노령화사회’로서의 한국에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제2인생기의 특징이 다분히 가미된 제3인생기를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이며, 많은 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원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령분화(age differentiation)가 아니라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노년기 확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O’Rand, 1996 참조). 노년과 청장년은 각각 소비와 생산이라는 구분된 활동영역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된다. 결국 새로운 성격의 노년기 확립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장년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집단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노령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이를 노인과 청장년이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노인들은 구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어떤 시대와 어떤 사회의 노인들의 경우와도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세대’(new generation) 집단인 것이다. 노인들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의 신세대인 것은, 급격히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있게 살기 위해 과거 사회에서 충분한 정보나 교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훈육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실험적인 삶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청소년과 마찬가지로의 감수성을 가지고 노년기의 삶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적 집단으로서의 노인층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6. 신세대 노인과 사회적 시민권

현대 사회가 기술관료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지적은 한국 사회에도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다. 특히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된 경제개발 전략은 이른바 개발관료에 의한 한국사회의 총체적 관리와 변화를 가져왔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들도 언젠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되어 종합적이고 진취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정부에 의한 노인문제의 기술적 해결은 대학, 연구소, 기업에 속한 복지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다. 아울러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복지단체들과 사기업들이 정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다양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상당수 사기업들은 이른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을 미래 유망산업의 하나로 상정하고 매우 공격적인 상품 개발에 이미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노인문제의 기술(행정)적 해결 가능성이 두 가지 문제에 의해 근본적으로 지체될 것이다. 첫째, 관료, 정치인, 시민들의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공통적인 소극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개발자유주의 경제성장 시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시대로 이어지는 경제 일변도의 국정 운영에 폭 젖어있는 한국의 행정관료들이 언제부터 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각오를 다지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Chang, 2006).

물론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이같은 변화의 조짐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혁신 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거의 무망하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을 버리고 ‘사회적 시민권’ 차원의 적극적인 이해를 갖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정계, 언론 등의 합의 속에 사회복지의 기초처럼 되고 있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론”은 특히 고령인구에 대해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전통적 및 현대적 노년관이 모두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기본적으로 비생산적 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정부 안팎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령화사회의 새로운 특성에 대한 인식의 지체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노인정책의 확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매체나, 행정관료들이나, 심지어 상당수 학자들까지도 노인문제를 과거의 가족부양체계 틀속에 놓고 인식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역사상 전혀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집단의 부양과 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이 기대될 수 있다. 만일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져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노년기 확립에 대한 합의가 노인, 국가, 사회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위에서 거론한 생산적 복지론도 반드시 노인들에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정부에 의한 선도적인 노인정책을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면 사적 부양수단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곤궁 노인들은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⁷³⁾ 특히 노인들은 아동, 청소년과 달리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를 적절히 조직화할 수만 있다면 정부와 정당에 중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노인들 표를 의식해 노인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투표권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일부 노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정치적 압력집단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는 어떤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한국사회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미래 노인문제의 철저한 해결과 관련하여 몇가지 한계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첫째, 직업, 계층, 지역, 교육, 성별, 연령, 혼인 등과 관련한 고령인구의 내부적 복잡성으로 인해 정치적 조직화의 안정된 기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노인들의 정치적 조직화가 일부 활동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이 다른 복지부문에서처럼 사회·경제적 혜택을 독점하는 복지귀족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73)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은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T. H. Marshall, 1964), 물질적 생활보장, 건강, 교육 등에 있어서 사회적 서비스와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권은 우리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에 주로 담겨져 있다. 마샬은 영국의 경우 사회권에 앞서 18세기에 공민권(civil rights), 19세기에 정치권(political rights)이 순차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지적하는데, 공민권은 법률 앞의 평등, 언론·사상·계약에 있어서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며,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편적 보장에 의해 정치참여와 권력행사의 기회를 보장한다.

노인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른 복지수요를 위축시키는 제로섬(zero sum)의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경계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한국처럼 국가의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심각하다. 셋째, 노인복지 지출의 확대에 추가 납세부담이 생길 젊은 연령층으로부터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은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복지 비용을 미리 적립하지 못해 현재의 젊은 인구에 그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세대간 소득이전체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노인복지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반드시 향상시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료들의 타성이나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투쟁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노인문제의 정치적 해법에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들이 극복되더라도 미래 고령 사회의 과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연성은 우선 노령화사회가 이전의 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생존하게 되면,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인구집단의 존재로 인해 사회 전체가 중요한 체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첫째, 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급격히 연장된 노년기를 보람있게 살기 위해 과거로부터 충분한 정보나 교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적 사회집단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둘째, 거대한 고령인구의 존재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세대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집단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들이 배태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고령인구의 수적 팽창에 비례해서 그 내부적 다양성이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화될 것이므로 서로의 사회·경제·문화적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노인들 자신에게 필요하며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넷째, 노령화사회는 인구구조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이론과 정책이념이 필요하다. 새롭게 전개되는 초고령자들의 집단적 노년기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하는 변화들에 대한 지적인 대응이 노인집단뿐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민주적 산업사회에서 다른 세대와 국가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고령인구와 국가 사이의 관계도 포괄적인 행복권 보장을 의미하는 '사회권' 혹은 '사회적 시민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회구성체의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고령(화)사회의 정의 자체를 감안하면 이러한 사회권의 내용을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 등을 참고해 미리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지국가 경험이 일천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확보한 혹은 확보될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고령인구를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단순 보호해주겠다는 사회정책은 재정적으로도 지탱하기 어렵고 나아가 고령사회의 주체인 고령자(노인)를 객체화시켜 이들이 가진 경제적·사회문화적 발전자원을 사장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고령사회는 고령자들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정치사회적 참여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들의 '새로운 역사적 진입'이 다른 세대와의 발전적 공존으로 이어지도록 경제구조 및 사회질서 상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자체에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샬(T. H. Marshall, 1964)의 지적처럼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공민권과 정치권의 순차적 확립

을 전제로 한 개념(이념)으로서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시민들의 활발한 사회적 토론과 정치적 참여를 당연한 기초로 한다. 고령사회만큼 사회권의 이러한 전제조건이 필수적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세권 외.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일. 1991.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한국가정복지정책과 노인문제]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제1회학술세미나 자료집), pp.41-63, 1991년 9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춘 외. 1995.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란·장경섭. 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I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 (II)], pp.154-6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숙자. 1999. “노인의 소득활동.”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pp.135-169.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성규탁. 1995. [새 시대의 효: 부모 자녀 관계의 재조명].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양옥남. 1999. “노인복지정책.”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pp.409-34.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이가옥 편저.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서울: 나남출판.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용. 1996.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한 효규범.” 미출간 연구발표문.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권 2호, pp.161-202.

정경희. 1999. “노인과 재산상속.”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pp.109-34.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정경희 외.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일보].

최성재. 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구보고서.

통계청. 1998-2005.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06. [2005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Chang, Kyung-Sup. 1997.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6(1):22-42.

Chang Kyung-Sup. 1999.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30-55.

Chang Kyung-Sup. 2006. "From Developmental Liberalism to Neo-Liberalism: Globalization, Dependent Reflexivity and Social Policy in South Korea." Goran Therborn, and Habibul Haque Khondker, eds., *Asia and Europe in Globalization: Continents, Regions and Nations*. Leiden: Brill.

Cogwill, D. O., and L. D. Holmes.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Donzelot, Jacques. 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Books.

Laslett, Peter. 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Doubleday.

O'Rand, Angela M. 1996. "The Cumulative Stratification of the Life Course." Robert H. Binstock and Linda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Fourth Edition, pp.188-207. New York: Academic Press.

Somerville, Jennifer. 1992. "The New Right and Family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21(2):93-128.

고령화 사회와 지자체 내 지역복지 계획

안 혜 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여 백

고령화 사회와 지자체 내 지역복지 계획

안 혜 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1. 서론

정보화, 지식사회,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의미가 갖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체제로 전환되어지면서 자유, 탈규제, 민영화, 유연화, 개방화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고, 중앙정부 책임의 감소 경향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정책에 대한 시장 구조적 영향을 강화시키게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은 약화되고 자활, 자조, 자립의 특성을 갖는 축소지향적 복지정책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국가 간 혹은 한 국가 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특히 국내적으로는 복지 대상자의 증가와 복지 확대의 욕구가 지속되는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과거의 소비적 제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는 복지 선진국들의 복지 개혁 장치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복지경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1970-80년대부터 진행된 지구 자본주의가 갖는 양면성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구제 금융체제하에서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폭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 중산층의 슬럼화, 빈곤계층의 증가 등에 따른 복지욕구 확대의 상반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은 복지의 발목을 잡는 어쩔 수 없는 인구학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2026년에 20.8%로 초고령사회로 추계되며, 동시에 독신여성의 증가, 출산기피 풍조확산으로 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과의 가시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복지의 지방화이며, 참여정부는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국정기조로 하여 중앙정부의 통제 대신 주민 스스로에 의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실제적 원인은 수요자의 서비스욕구변화에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일을 해도 가난한 신빈곤층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 및 노인을 노인이 돌보아야하는 가구 증가, 저소득 여성가구 및 장애출현율 증가 등으로 소득보장이외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이는 주민에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에서 필요한 욕구영역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등과 달리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이, 또 정부보다는 민관이 협력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정계획의 성격을 갖고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의 복지욕구에 긴밀한 접근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더해지는 노인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특히 재정분권이후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과 방향을 노인복지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시 도 노인복지현황과 지역사회복지 계획

1.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정향을 규정하여온 복지환경의 변화 및 분권화과정의 사회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수요의 발생과 대응방안의 모색은 지역복지수행의 올바른 방향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능동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지역복지계획을 수행해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이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숙정도에 따라 주민참여의 다양화와 복지욕구 표출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체제 도입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향을 증가 시킬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⁷⁴⁾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및 환경에 따라 지역복지의 수준도 차별화되어 질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정책 환경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고, 광역 및 중앙에서 고려하여야할 복지환경의 하나는 지역 간 격차의 문제가 예상되어 진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사회복지 영역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이 제약받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본다.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에서 조정하고, 지역 간 차별화가 당연한 부분은 기초단체의 계획과 실행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중앙 및 광역단위의 역할과 기초단위의 실제적인 기능 분담 및 파트너 인식은 현재의 복지현안을 푸는 기

74) 지방의회구성이후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 정향에 미친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정향에 미친 영향은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군의 사회복지정책정향에는 부정적인 것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치구의 사회복지정책정향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의 사회복지정책정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윤호, 2000) 그 원인으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의 지지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성장과 지역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경제성장에 해가 되는 사회복지 정책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군의 사회복지정책정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개발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군수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제 1의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정책정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자세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책에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마련을 요구하게 된다. 안전장치는 전문성의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및 광역단위와 기초단위간의 기능분담에서 마련되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복지확충과정에 있어서 기초단체의 재량과 광역단체의 조정의 조합은 기초단체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그에 부수하여 자치단체간의 사회복지 격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차원의 복지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고유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고유사업의 확대방안을 논의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지원, 지역 간 연계 조정 등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립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장에서는 2006년 법정계획이전의 지역복지계획의 성격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중인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진행과 방향등을 광역자치단체 계획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자치단체의 노인복지계획과 법정계획

[표 1] 시·도 노인인구추계현황

시도명	2006			2010			2018			2025			203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국	9.5	3.8	5.7	10.9	4.5	6.4	14.3	6.2	8.1	19.9	8.8	11.1	24.1	10.8	13.3
서울	7.6	3.3	4.3	9.4	4.1	5.3	13.6	6.0	7.6	19.1	8.3	10.8	22.6	9.8	12.8
부산	8.9	3.7	5.2	10.9	4.7	6.2	15.9	7.1	8.8	22.6	10.1	12.5	26.3	11.7	14.6
대구	8.2	3.3	4.9	9.9	4.1	5.8	14.3	6.1	8.2	20.5	8.9	11.6	24.9	10.9	14.0
인천	7.3	2.9	4.4	8.5	3.5	5.0	12.2	5.3	6.9	18.6	8.3	10.3	23.9	10.7	13.2
광주	7.4	3.0	4.4	8.9	3.7	5.2	12.6	5.3	7.3	17.6	7.5	10.1	21.3	9.2	12.1
대전	7.0	3.0	4.0	8.2	3.6	4.6	11.6	5.4	6.2	17.1	8.0	9.1	21.3	9.8	11.5
울산	5.6	2.2	3.4	6.9	2.8	4.1	11.3	5.0	6.3	18.3	8.2	10.1	23.9	10.8	13.1
경기	7.4	3.0	4.4	8.5	3.5	5.0	11.3	4.9	6.4	16.5	7.5	9.0	21.1	9.7	11.4
강원	13.3	5.5	7.8	15.1	6.3	8.8	18.4	7.8	10.6	25.1	11.0	14.1	29.8	13.3	16.5
충북	11.6	4.6	7.0	13.4	5.4	8.0	16.4	6.9	9.5	22.4	9.9	12.5	27.1	12.3	14.8
충남	14.6	5.9	8.7	15.5	6.3	9.2	17.2	7.2	10.0	21.1	9.3	11.8	24.3	11.1	13.2
전북	14.5	5.7	8.8	16.4	6.6	9.8	20.8	8.7	12.1	26.8	11.7	15.1	31.3	14.0	17.3
전남	18.1	6.9	11.2	20.3	7.9	12.4	24.5	9.9	14.6	30.3	12.9	17.4	34.8	15.4	19.4
경북	14.8	5.8	9.0	16.5	6.6	9.9	20.4	8.6	11.8	26.8	11.8	15.0	31.6	14.3	17.3
경남	11.1	4.2	6.9	12.4	4.7	7.7	15.9	6.6	9.3	22.1	9.7	12.4	26.8	12.1	14.7
제주	10.7	3.9	6.8	12.3	4.7	7.6	15.5	6.4	9.1	20.2	8.8	11.4	24.3	10.9	13.4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현황, 2005.

시·도 노인인구 추계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65세 노인이 10.9%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인 14%를 넘게 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약 24%로 국민의 4명당 1명꼴로 노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이미 약 15%이며, 충남 및 전북도 14%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군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의 경우가 노인인구와 관련한 문제 및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1) 시·도의 기존 노인복지계획 현황(1995-2005)

[표 2] 시·도별 복지계획 보고서 성격

시도명	계획명	계획기간	수요조사	지역의견수렴	노인복지사업 분석수준 ⁷⁵⁾
서울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	1997~2001년	기초수요조사	시민공청회 전문가간담회	노인복지기본방향설정 부문별5개년계획
인천	인천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2003~2007년	기초수요조사	전문가간담회	수요분석 및 여건분석 부문별 정책 및 세부추진전 략수립
경기	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	2006~2015년	기존자료분석 자원조사	시민공청회 전문가회의	수요분석 및 여건 변화분석 부문별정책도출
부산	산시사회복지 기초육구조사 보고서	2005년	기초수요조사	전문가회의	세부적 수요 및 자원분석
대구	대구복지기본계획	1996~2005년	없음	없음	부문별 사업계획
광주	사회복지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04~2008년	없음	없음	개괄적 사업계획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년	없음	없음	부문별 사업계획
울산	울산광역시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2006~2010년	기초수요조사	전문가회의	수요분석 부문별 사업 및 세부실행계 획
강원	강원사회복지종합계획	1998~2002년	기초수요조사	전문가회의	부문별 사업종합계획
충북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	2005~2009년	기존 자료분석	없음	관련계획 검토 부문별사업 및 세부계획 분 석
충남	계획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전북	전라북도사회복지중기종합계획	2003~2007년	없음	없음	없음
전남	전라남도노인복지5개년계획 수립연구보고서	2006~2010년	기초수요조사	전문가회의	부문별 사업개발 분석
경북	계획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경남	2006년농어촌보건복지추진계획		없음	없음	부문별 사업분석
제주	제주시사회복지발전5개년계획	2004~2008년	기초수요조사	시민공청회 전문가회의	수요분석 및 여건분석 부문별 사업전략분석

시·도별 노인복지계획 보고서의 성격을 보면, 노인복지영역을 별도로 장기계획수립을 한 지역은 전라남도 한 곳 뿐이며, 다른 지역은 전체적인 종합계획 안에 노인복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의 기간은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기획 진행된 계획보고서이다. 계획수립에 기초가 되는 노인육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계획수립을 한 지역은 7군데 정도로 전체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보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경우는 3개 지역에 불과하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한 곳은 8개 지역으로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계획의 주민참여 및 전문성 확보의 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분석수준을 보면 실행가능 계획의 성격을 갖고 부문별 세부실행 계획을 제시한 곳은 5개 지역

75) 노인복지사업 분석수준에 부문별 분석은 소득, 재가, 보건, 참여, 기타 사업별 정책목표와 주요 사업내용정도를 제시한 것을 의미 하며, 세부사업 분석은 각 주요사업별로 예산확보, 추진기간 및 세부일정을 제시한 실행계획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정도이며, 나머지 11개 지역은 대체적인 부문별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노인복지 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의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의 법정 지역복지계획에는 과학적 기초육구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실행적 내용 및 포괄적이고 주민 참여적 성격의 노인복지 계획수립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시·도 노인복지사업현황

시도명	노인복지사업현황						고령화 현황 (2005년기준)	
	소득	재가	시설	보건	사회참여	기타	인구비	노인 부양비
전체 (공통사업)	- 공적소득보장 (기초생활지원, 근로연금, 노인수당) - 일자리사업 기관지원 (공동작업장, 창업지원, 고용지원)	주·단기보호, 가정봉사파견, 경로식당 및 급식지원, 경로당·노인대학·운영비지원	노인요양·양로·전문요양·실비시설 등 지원	노인건강진단, 치매관리사업, 방문간호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 장요시설 등 지원 - 고령화친화사업 - 주거지원	9.0	12.3
서울	후원·결연사업	-	-	-	-	-	9.4	12.6
인천	노인고용 및 창업정책	-	-	-	-	실버산업	6.9	9.5
경기	- 노인박람회 - 사랑의식당 운영 - 결연사업	이동목욕서비스	-	-	-	-	7.1	10.0
부산	-	-	-	-	-	-	8.3	11.2
대구	노인능력행운영	-	-	-	-	- 주택자금할증지원 - 그룹홈	7.7	10.6
광주	-	-	-	-	-	-	7.0	9.8
대전	-	-	-	-	-	-	6.8	9.3
울산	-	-	-	-	-	-	5.3	7.2
강원	- 할머니장터 마련 및 지원 -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	-	예방적보건서비스	-	-	12.5	18.2
충북	-	-	-	-	-	-	11.6	16.9
충남	-	-	-	-	-	-	14.1	21.2
전북	노인복지기금조성	-	-	-	-	-	13.3	19.8
전남	-	-	-	-	-	-	16.4	25.5
경북	-	-	-	-	-	-	13.8	20.3
경남	-	-	-	-	-	-	10.6	15.4
제주	-	- 효사랑실천운동 - 노인생일상차려드리기 - 청소년효교실운영	-	-	-	-	10.1	14.9

시·도의 기존 지역복지계획에 나타난 노인복지현황은 중앙에서 위임한 사무중심으로 대부분 공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소득 영역에서는 공적 소득보장

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기관 지원정도이며, 재가복지사업은 주·단기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식당 및 급식지원, 재가시설의 운영비지원 등이고, 시설복지사업은 노인 요양·양로·전문요양·실비시설 등의 지원 등이다. 또한 보건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치매관리사업,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사업으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장묘시설, 실버타운 등 고령화 친화산업 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은 후원결연사업, 노인 교실프로그램운영, 이동목욕서비스, 효사랑 실천운동, 노인 암검진, 노인능력은행운영, 노인박람회, 노인세대주태자금할증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갖고 있는 노인의 특수욕구의 발견과 이에 대응한 복지서비스의 기획 및 실천이 아직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의 계획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욕구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들이 개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별 정부간 역할 분담

노인복지사업의 정부 간 역할분담은 크게 사업내용과 업무성격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노인복지의 업무영역은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등의 공정부조의 경우는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업무이며, 다만 지방정부는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실제조사 및 집행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노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복지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업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사무⁷⁶⁾는 6개의 영역⁷⁷⁾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민복지증진⁷⁸⁾에 관한 사무가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즉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빈곤노인보호, 노인건강증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묘지 등 운영관리 등 노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성격상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⁷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한 지역적 차별성 및 지역

7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77) 위의 시행령에 의하면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상공업 등 산업증진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7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영역은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곤궁자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염병 및 기타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수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79)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근거하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적 공공사무를 자기의 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고유사무라고도 함. 위임사무는① 단체위임사무로 개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와 ② 기관위임사무로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큰 사무를 의미함.

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은 어렵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증대하고 지역의 노인의 특수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개발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분권화 여건을 최적화하여 지역의 노인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노인복지사업의 역할분담을 서울시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노인복지사업별 재정 및 역할분담

사업구분		예산지원			역할분담	
영역	사업/시설명	국비	시비	구비	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노인복지사업	경로연금	●	●	●	시비보조	구비보조 및 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	●	"	"
	노인위생비		●		시비지급, 업무지침전달 정산보고 및 반납	수혜자 지급 전달
	노인교실		●	●	시비보조, 업무지침전달	구비보조, 지급전달, 지도·관리, 정산결과보고
	노인의 집		●	●	"	구비보조, 지도·감독
	노인건강진단	●	●	●	"	"
	가정도우미사업		●		"	지도·감독, 결과보고
	식사배달사업	●	●	●	시비보조, 업무지침전달, 감독	구비보조, 결산보고, 지도·관리
	경로식당운영		●	●	"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운영	●	●	●	"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		예산보조·지급, 업무지침, 감독	지도·감독, 결과보고
	노인자활후견사업	●	●			"
	대한노인회운영		●	●	시비보조, 총괄감독	구비보조, 지도·관리
	자치구 자체사업 ▪ 노인 컴퓨터 경진대회 ▪ 어르신바둑·장기선발대회 ▪ 노인노래자랑 ▪ 재가노인 나들이 봉사 ▪ 할아버지토요서당 ▪ 골목·교통봉사활동 ▪ 독거노인 이·미용봉사 ▪ 독거노인 세탁도우미 ▪ 독거노인요구르트/우유배달 ▪ 장수노인 위문축하 ▪ 장수노인 사진찍어주기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 노인복지카드 ▪ 장례차량서비스센터 ▪ 무료도배사업			●		프로그램 예산지원
노인복지시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		예산지급, 결과보고평가	지도·감독, 결과보고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		"	"
	시립노인요양원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		●		"	"
	노인수용시설		●		"	"
	치매노인 주·단기보호시설		●		"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		예산지원, 업무지침 전달·감독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	●	운영비 및 단위사업별	운영비·인건비 지원

					예산지원	
	경로당		●	●	운영비·난방비 보조 정산결과 평가	운영비·난방비보조, 지도·감독, 정산결과 보고

자료 : 김경혜(2003),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원, p19.

위의 노인복지사업역할 분담 예시에서 보듯이 중앙은 노인소득, 건강 등 노인계층의 공통적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통일적인 기준설정 등이 가능한 영역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고, 지자체의 사업 등을 심사, 조정, 평가하여 적절히 예산 및 지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시·도는 광역수준의 노인 정책들 즉, 노인교통수당, 노인관련시설지원, 경로식당 등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광역시차원의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비를 확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집행 체계적 성격을 갖고 특히 실제 개별 노인 욕구에 긴밀한 노인복지서비스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복지시설 등 현장의 지도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는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및 지도감독은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시·도 지역사회복지 법정계획수립

앞에서 점검한 기존의 복지계획수립의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중심의 노인사업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의 지방화는 정부 조직의 과대화와 시민 소외를 방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05년도 예산안 과정부터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실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비의 성격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는 예산과 정책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단순한 정부 간 기능 이전을 결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 분권화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자는 것과, 여기에 지역 주민이 긴밀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에 있다.

지역사회 복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축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이며, 둘째, 관료제적 복지체계의 고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방식과 수립의 과정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와 광역자치단체 단위 간 적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는 참여적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합리적 기획과 조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기초 단위의 복지계획수립 현실화를 위한 총괄적 점검과 지원, 연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복지의 역량 확충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1)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⁸⁰⁾의 주요내용 및 방향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목적은 시·도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가능 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시도 전체적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군·구 복지계획의 취합, 점검 및 조정을 하고, 시·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참여 과정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정책 계획’의 성격을 띠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실행 계획’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로서는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에서 제시된 계획에 근거해서 수립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개별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합 및 정리, 개별 계획들에 대한 분석·점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조정·권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한다.

(1) 법적근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서부터 제15조6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에의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⁸¹⁾.

80) 안혜영외, 2006,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보건복지부.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에 시도에 배포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관련 매뉴얼을 기초로 작성함.

81)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수립·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 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방향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적 계획수립절차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조정과 협력 매커니즘의 필요성 등 계획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각종 시책과의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 즉, 계획의 집행력 저하가 단순히 예산, 조직, 인력 등 조직 내부적인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계획과 시책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계획체계상의 문제에도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광역단위에서 지역복지계획을 계획체계 및 수립, 집행, 평가, 환류 등 계획과정의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체계 및 기능, 집행제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요구되는데 지역복지계획의 체계상 문제점이나 계획기능의 특별성 고려가 부족하고 집행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 및 기타 다양한사업 주체의 참여문제 그리고 이들 간의 조정 통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구체성으로 지역복지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계획수립에 대한 기획과정, 현안 및 과제, 비전 및 방향설정, 부문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각 부문별 실행계획이 전체적인 조정과 연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성으로 지역복지계획은 각 개별 지역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일임. 지역복지계획은 독자성을 갖되, 관련 법등 제도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기본적 형태는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즉, 국가의 정책적 영향을 근거로 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참여성으로 지역의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 공무원 등 지역사회에의 여러 주체들의 다각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계획주체들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 혹은 이용대상자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었는지 등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연계성으로 서비스별, 지역별로 상부정책과 하부정책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으로 합리적인 지역복지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경험적)자료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성격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방법의 체계적·비체계적인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등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점검기준에 따른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 등은 다음 [표 5]와 같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7.30.][시행일 2005.07.31.]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표 5] 노인복지계획수립 점검기준

기준	내용	지표
참여성	지역주민 혹은 이용대상자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었는가	- 계획수립과정참여의 적절성 - 서베이자료, 공청회 등 - 계획팀 구성여부 - 계획팀에 다양한 운영주체 포함여부 - 주요 참여자의 참여정도 - 참여주체 별 역할분담의 적절성 - 참여방식의 적절성 - 기타
구체성	- 부문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현안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각 부문별 실행계획을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기반조성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 지역사회진단 - 부문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사업의 수요 및 공급추정 - 연차별 계획 - 실천전략 - 과학적 수요추정 여부 - 과학적 공급추정여부 - 격차분석 여부 - 수요추정에 활용된 분석 기법의 수 - 사업계획에 행, 재정계획의 포함여부 - 기타
지역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이 되고 있는가	- 지역의 상황과 사업계획의 적절한 반영 - 지역현황과 특수성 서술 여부 - 지역자료분석과 계획수립의 연계성 서술 여부 - 기타
연계성	- 상위계획의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자원간의 연계방안이 고려되었는가	- 중앙 및 광역의 정책 점검 - 자원연계 및 전달체계 기반 조성파악 - 중앙, 광역, 기초 등 예산 부담 주체의 파악 여부 - 상위계획과의 연계점검 여부 - 세부계획내 공급기관간의 연계성 분석여부 - 기타
합리성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조사방법이 이루어졌는가	- 통계조사방법의 적절성 - 전문가집단의견수렴의 적절성 - 세부사업의 통계적 분석 여부 - F.G.I 분석 여부 - 전문가집단 간담회 결과수렴여부 - 연구진 및 TFT의견수렴 여부 - 기타

2)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시·도의 역할

2005년 7월부터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2006년 8월까지 해당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추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수립과정(절차 및 일정) - 시·군·구/시·도 단계비교

단계	시·군·구			시·도		
	역할	주요내용	일정	역할	주요내용	일정
1단계	준비구성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팀 구성	2005년 8월	준비구성	시·도 단위 평가준비단 총괄, 기획, 세부사업별 위원회 구성	2006년 9월초
2단계	전문가 집단 (전문연구기관)	조사(육구 및 자원), 분석	2005년 12월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보고서 평가 기획	
	전문가, 지자체, 지역사회 관계자, 주민	이전 계획의 평가		기획위원회 세부사업별위원회	평가 실시 : 서류평가, 면접평가	9월 ~10월초
3단계	전문가, 지자체, 지역사회 관계자, 주민	사업 계획, 추진전략 계획, 행정·재정계획 작성	2006년 7월	기획위원회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전반적 내용과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취합	
				사회복지위원회	평가 총괄 심의 및 조정	
4단계	시·군·구	사업계획의 시도에 제출	8월	계획수립위원회	시·도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작성	12월 중순
5단계	시·도	시·도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및 보고서 작성	12월 중순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계획 수립 보고서 심의	12월말
				시·도	시·도 계획 수립 보고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2) 시·군·구 계획수립 진행단계 및 예산

시·군·구에서는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6년 8월 기준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실제 계획수립 진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군·구 계획수립 진행 단계

[표 6] 계획수립 진행단계

(2006. 6월기준)

시도명 (시군구수)	계획수립 진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준비단계 (연구용역/예산확보/ 계획수립준비)	기초조사단계 (지역현황/복지육구)	연구용역단계 (전문가연구/분석)	사업영역별 검토단계 (협의체검토)	의견수렴단계 (공청회/공고 등)	최종검토단계	복지계획확정단계 (협의체/지자체장)
서울(25)	0	1	8	6	4	4	2
인천(10)	0	0	1	6	0	1	2
경기(31)	0	0	7	9	8	4	3
부산(16)	0	0	3	9	3	0	1
대구(8)	0	0	4	2	0	1	1
광주(5)	0	2	1	0	0	0	2
대전(5)	0	0	0	0	0	1	4
울산(5)	0	2	1	1	0	0	1
강원(18)	0	0	6	6	2	2	2
충북(12)	0	0	2	3	2	2	3
충남(16)	0	0	2	6	6	2	0
전북(14)	0	0	8	4	1	0	1
전남(22)	0	0	0	6	12	3	1
경북(23)	0	0	2	8	5	0	8
경남(20)	0	1	10	3	1	2	3
제주(4)	0	0	0	0	0	0	4
총(234)	0	6	55	69	44	22	38

2006년 6월 기준으로 계획수립진행의 7단계 중 연구용역을 주고 사업영역별로 분석단계에 있는 지역이 69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을 의견수렴하고 있는 지역도 44개 정도로 나타났다. 계획이 완료되어 확정단계에 있는 곳은 38개 지역으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시·군·구 계획수립과 관련 된 예산

[표 7] 시·군·구별 계획수립 관련 예산액

시도명 (시군구수)	계획수립 관련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06년 예산액					2005년 예산액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미책정지역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이상	미책정지역
서울(25)	0	7	4	1	13	1	3	7	0	14
인천(10)	1	2	2	0	5	0	4	1	1	4
경기(31)	2	8	12	4	5	0	5	6	2	18
부산(16)	4	5	1	0	6	1	5	1	0	9
대구(8)	0	1	4	1	2	0	1	2	1	4
광주(5)	1	1	1	0	2	0	3	0	0	2
대전(5)	0	0	0	0	5	0	2	3	0	0
울산(5)	0	2	3	0	0	0	0	0	0	5
강원(18)	1	2	10	2	3	0	3	2	1	12
충북(12)	0	3	4	1	4	0	2	0	0	10
충남(16)	1	3	5	4	3	0	2	3	1	10
전북(14)	1	3	6	1	3	0	0	1	1	12
전남(22)	1	8	12	0	1	0	3	3	0	16
경북(23)	0	5	11	3	4	0	5	3	0	15
경남(20)	1	2	4	10	3	0	0	2	0	18
제주(4)	2	0	0	1	1	0	0	2	0	2
총계(234)	15	52	79	28	60	2	38	36	7	151

계획수립관련 예산을 보면 2006년 예산은 3,000만원~5,000만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3분의 1 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곳도 60개 지역으로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계획으로 되기 이전인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05년도 예산 미책정 지역은 151개 지역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정화 이후 예산배당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3)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역할

시·군·구 234개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6년 8월까지 관련 시·도에 제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명시되어 있다.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시·군·구에 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정·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광역단위의 지역주민의 욕구수준별 우선순위, 자원활용의 효율성 등을 적절히 해나가는 데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시·군·구 계획수립의 조정 권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조정·권고는 시·군·구 계획의 취합/내용점검을 기반으로 시·도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영역을 조정·권고하는 것이다. 조정·권고해 나갈 영역은 다음의 6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 계획수립 과정의 조정·권고

계획수립의 과정의 점검은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절차를 중심으로 점검한 내용을 시도가 점검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에 대한 조정이나 권고를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려해나가는 데 있으며, 시도의 역할 중 하나는 시군구 계획수립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조정, 연계, 권고해 나가는 데 있으므로 계획수립 과정의 조정, 권고안이 필요하다. 계획수립의 과정의 조정·권고영역에서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 즉, 계획수립의 기본방침결정, 계획수립과제 심의회, 착수보고, 계획수립 작성과정을 욕구조사과정, 자원조사과정, 정책수립과정으로 파악하고, 중간보고,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심의, 기타 과정별로 빠졌거나 조정 권고할 사항을 시·군·구 별로 서술하는 것이다. 관할 시·군·구 개별로 조정 권고할 사항을 서술할 수 있으며, 또한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역별(강남권, 남부면권 등)로 조정 권고 사항을 서술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취합내용별 조정·권고

취합내용별 조정·권고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목차중심으로 조정·권고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이 사회사업법 제15조와 관련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정 권고할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취합내용별 조정·권고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차를 중심으로 즉, 총론, 지역현황, 관련계획검토, 비전 및 방향, 부문별 계획, 지역여건조성, 행·재정계획, 평가 및 향후과제, 기타 영역별로 빠져있는 내용을 조정·권고한다.

◎ 부분별 세부사업계획별 조정·권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내용의 점검을 기초로, 개별사업별 내용을 중심으로 시군구에서 조정하거나 연계 권고할 영역으로 취합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핵심은 지역의 욕구에 적절한 복지계획수립에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별, 혹은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계획이 세워졌는지의 분석과 시·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원 및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별 세부사업계획별 조정·권고의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대상별사업의 내용 즉, 저소득 사업, 노인사업, 장애인사업, 아동청소년사업, 여성보육사업, 보건사업, 지역주민참여사업, 기타사업 등에 관해 조정, 권고할 사항이 포함된다.

◎ 점검기준별 조정·권고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 방향이 되는 점검기준을 중심으로 시·군·구에서 조정하거나 연계 권고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핵심은 지역의 욕구에 적절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관할 시군구별, 혹은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계획이 세워졌는지의 분석과 시·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원 및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기준이 되는 참여성, 구체성, 지역성, 연계성, 합리성 등이 영역별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조정, 권고한다.

◎ 지역별 공급조정

시·도의 역할중 하나는 지역복지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점검을 통해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원공급이 형평적인가를 분석하고, 시·군·구 계획수립의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조정, 권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자원배정, 시설공급, 인력조정 등의 영역별로 지역별 조정, 권고 사항이 포함되며, 그 이외에 시·도별로 조정할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해 나간다.

◎ 지역별 중복누락조정

시·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별로 사업별, 자원별로 중복 혹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지역의 사업 및 자원이 중복, 누락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군구 계획수립의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조정, 권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자원 등 영역별 조정, 권고 사항이 포함되며, 그 이외에 시도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시 ·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보고서

[표 8] 시 · 도 계획보고서 작성과정 및 주체

과정	주체	의견수렴
계획방향 결정 및 예산확보	시/도	사회복지 위원회
계획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사회주체	- 시도공공분야 - 민간복지공급자 - 시민사회 - 주민 - 사회복지 위원회 등 주체별 참여
시 · 군 · 구 계획점검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취합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점검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정 · 권고 안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 세부사업위원회	- 분과별 · 영역별 자문 및 간담회 - 관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workshop개최
시 · 도 보고서 내용 시 · 도 계획의 개요 시 · 도 지역현황분석 및 관련계획검토 시 · 군 · 구 계획점검 내용정리 시 · 도 계획의 비전과 계획수립 첨부자료	계획수립위원회	- 지역주민 - 전문가의견공개수렴 - 토론회 - 공청회
종합의견수렴	총괄위원회	- 공청회 - 의회보고 - 사회복지심의위원회심의
심의	사회복지위원회	
보고서제출	시 · 도	

◎ 계획의 방식 및 팀 구성

계획의 집행기관은 시 · 도 행정기관이므로 시 ·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주관은 시 · 도 광역단체가 됨.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욕구 등을 총괄하는 지역복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식의 결정이 중요하다. 시 · 도 지역복지계획에 참여해야하는 주체는 관련 공무원 · 지역사회주민 · 관련 전문가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기 활동영역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계획수립방식은 계획수립 팀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팀 방식과 계획과정을 총괄하기 어려운 여건일 경우 학술 용역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술용역방식이라도 지역의 계획수립팀의 역할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계획팀의 구성은 총괄 위원회, 기획평가위원회, 세부사업평가 위원회, 계획수립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시도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며 이를 근거로 각

계획팀 및 위원회가 구성 되어 질 수 있다.

[표 9] 시도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례제정	'93. 5	'94.10	'05.8	'01. 1	'03.11	'99.12	'00.10	'00. 5	'00. 6	'05. 8	'05.7	'05.7	'02. 8	'05.7	'03.8	'05.3
현사회복지 위원수(명)	28	17	18	15	17	27	13	27	25	20	15	-	14	17	11	-

◎ 시도 계획서의 목차별 주요내용

시·도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주요 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⁸²⁾

[표 10] 계획수립 구성 및 주요내용

구성	주요 내용		비 고
I. 계획의 개요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략적인 청사진을 소개하는 총괄 부분임.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관련 총괄적인 배경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시·도 지역에 맞는 특성을 중심으로 서술함. - 계획의 목적과 시·도가 지향하는 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간략히 서술함 - 계획수립의 절차 및 추진경과 등을 제시함.
II.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지역현황	1) 일반현황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행되고 있는 관련계획들을 정리함. - 본 장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현황분석과 관련된 계획의 검토가 포함됨. - 본장의 서술 목적은 지역의 세부적 특성과 문제 및 취약점, 발전 가능한 측면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음
		2) 시·도 자체 욕구사정	
	2. 관련계획	1) 중앙계획	시·도 계획수립과 관련된 계획은 공공영역계획과 민간영역계획 등을 총괄할 수 있음. [공공영역계획] > 중앙계획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 중앙의 계획과 시·군·구의 추진계획 등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음.
		2) 시·군·구 계획	> 시·군·구 계획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시·군·구 계획 점검 과정 및 결과가 계획수립의 기초조사가 되는 것이므로, 시·군·구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점검은 계획수립 영역별 계획수립과정의 점검, 취합점검, 계획수립 내용의 점검으로 분류되어짐. [민간영역계획] - 대상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민간영역의 사업들의 정리 취합함. 위의 표 비교란을 민간영역의 계획을 지역에 따라 추가 활용할 수 있음.
III.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계획	1. 복지비전		
	2. 세부계획	1) 시·군·구 조정계획	
		2) 시·도 계획	
	3. 평가계획		
IV. 첨부자료			

82) 지역복지계획수립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4에 근거하고 있다.

3. 시·도 노인복지계획수립의 방향 및 과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지원은 이미 중앙의 역할을 벗어나 있으며,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인욕구에 밀접한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별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갖고 지역주체의 참여를 전제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일러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및 시·군·구 역할 수정으로 시·도에서 먼저 주요 노인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비중이. 큰 노인문제에 관해서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밀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노인관련 자원조사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여 자원의 양을 확대하고 자원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도도 크기나 유형별로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등 큰 도시의 경우는 기본적 데이터제공 등의 역할이 가능하며 대전, 울산, 포항, 광주 등(5개 지역정도로 나뉘는 시)의 경우는 관할 시·군·구의 계획을 총합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시·도 단위에서 세울 수 도 있다. 도 단위 경우는 시·군·구의 기초단위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기초단위의 계획수립이 중요하며 도는 지역별로 조정·연계하는 역할이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은 확일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 평가과정 및 활용과정도 중요한데,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평가의 과정 및 결과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2011-2014년도)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계획시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완수되지 못한 부분들은 세부적 분석을 통해 다음 기에서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문가 및 지역 주체별 참여를 주도하여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본래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 1998, 「강원사회복지종합계획1998-2002」.
- 강원호, 2000,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4권.
- 강혜규, 20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관제와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1998, “한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실험의 성과분석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 경기도, 2005, 「보건복지10개년발전계획2006-2015」.
- 경상남도, 2006, 「농어촌 보건복지추진계획」.
- 광주시, 2004, 「사회복지중단기종합발전계획2004-2008」.
- 김경혜, 1999, 「서울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경혜, 2003,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개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모, 2005,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사회복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중, 2005,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계의 대응,” 계간 복지인천, 73호.
- 김영중, 200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협의체의 역할,”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 김영중, 2006,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영중, 2000,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 김용득, 2005,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전략과 기제,” 「지역사회복지의 역량 및 책임성 강화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김용웅 외, 1993,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계획제도 개선방안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남정자·이상호·오영호, 199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원구지역개발연구회, 2001, 「중장기 노원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대구시, 1994, 「대구복지기본계획1996-2005」.
- 대전시, 2006, 「대전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 도쿄도, 1996, 「도쿄도 지역복지 추진계획」.
- 박광덕, 2000,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기능배분 및 권한이양,” 「사회정책논집」 제12권.
- 박광준, 200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7집.
- 박우서·허일도, 1982, 「도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 박태영, 2001,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 박태영, 2004,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관한 제언」 사회복지통권 제162호.
- 박태영·김덕진, 200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개혁 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 백종만, 1997, “전북발전 방향 모색: 사회복지,” 지방자치연구 제5집.
- 백종만, 2005,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보기·황성동, 1998, “한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재정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5집.
- 보건복지부, 1998,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 1999~2002년 계획.”
- 보건복지부, 200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 2003~2006년 계획.”
- 보건복지부, 2006,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 2007~2010년 계획.”
- 보건복지부, 1997,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 2003~2006년 계획.”

부산시, 2005, 「부산시사회복지기초육구조사보고서」.

서대문구, 2003,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서울시, 1997,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 1997-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지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 연구」.

서창원 외, 1991, 「도종합개발계획의 평가 및 수립지침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안혜영외, 2006,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 보건복지부.

울산시, 2006, 「울산광역시사회복지중장기발전계획2006-2010」.

이인재, 1996, “지방자치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사회복지연구소」, 4호.

이현주 외, 2000, 「지역단위 사회복지 연계 서비스 연계체계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업운영 분석 및 모형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20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호철, 1996, 「일본의 지방자치」 삼성경제연구소.

인천시, 2002, 「인천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2003-2007」.

임성일, 1996,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전라남도, 2005, 「전라남도노인복지5개년계획수립보고서2006-2010」.

전라북도, 2003, 「전라북도사회복지중기종합계획2003-2007」.

전병관, 200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경배·이성기·권선진, 1994,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주시, 2003, 「제주시사회복지발전5개년계획2004-2008」.

조기용, 2001, “지역복지계획의 지역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조창현, 2005, 「지방자치론」.

충청북도, 2004,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2005-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 복지정책,”

日本地域福祉研究所, 2003, 「福祉21ピーナスプランの挑戦」, 中央法規

Birmingham Council Plan 2006+. in website, <http://www.birmingham.gov.uk>

Department of Health. 2001. Community Care Plans - Proposals for Removal. in website, <http://www.dh.gov.uk>.

Improving Northfield District Community Plan 2005-2006. in website, <http://www.birmingham.gov.uk>

고령사회 노인인력 활용과 전망

원 영 희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여 백

고령사회 노인인력 활용과 전망

원 영 희(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게 진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개인주의로의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⁸³⁾은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1990년 1.6명, 1995년 1.65명, 2000년 1.47명, 2004년 1.16명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로 낮아졌으며 소위 ‘출산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통계청, 2005b).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채 못 되는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도 더욱 떨어지는 수치이다.

한편,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 사회 노인의 절대 인구와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2016년을 전후해서 생산가능(15-64세)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202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5년 전인 1970년 3.1%에 비해서는 6.0% 증가하였다(<표 1> 참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전체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고 2018년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Ultra Aged Society)’에 도달할 전망이다.

83)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표 1> 연령계층 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970-2050년)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34	49,956	49,771	49,329	42,348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0	8,013	6,495	6,297	5,796	5,538	3,799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671	35,852	36,276	35,838	33,618	31,892	22,755
65세+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162	7,821	10,357	11,899	15,7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34.0	25.6	21.1	19.1	16.3	13.0	12.6	11.6	11.2	9.0
15~64세	54.4	62.2	69.3	71.7	71.8	72.8	72.6	71.7	67.5	64.7	53.7
65세+	3.1	3.8	5.1	7.2	9.1	10.9	14.3	15.7	20.8	24.1	37.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는 아직까지 서구사회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즉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시간, 즉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 비율이 14%에서 20%에 이르는 기간은 프랑스 40년, 미국 16년, 일본 12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8년인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고령화 속도의 급속함을 드러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단위: 년도, 년수)

	도 달 년 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3). 인구통계자료집.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 노인부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산연령층의 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즉 노인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 5.7%, 2005년 12.6%이며, 2020년 21.3%, 2030년 35.7%로 높아질 전망이다(<표 3>. 참조). 즉, 노인 1 명당 생산가능 인구는 1970년 17.5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7.9명이고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표 3> 한국의 노인인구 관련 지수의 변화

(단위: %)

	노령화지수 ¹⁾	부양비		
		노인부양비(A) ²⁾	유년부양비(B) ³⁾	총 부양비(A+B)
1970	7.2	5.7	78.2	83.8
1980	11.2	6.1	54.6	60.7
1990	20.0	7.4	36.9	44.3
2000	34.3	10.1	29.4	39.5
2005	47.5	12.6	26.7	39.3
2010	62.0	14.8	23.9	38.8
2018	110.3	19.7	17.9	37.6
2026	178.7	30.8	17.2	48.0
2030	186.6	35.7	19.1	54.9
2050	328.4	62.5	19.0	81.6

1)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2) 노인부양비(A)=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3) 유년부양비(B)=0~14세 인구/15~64세 인구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 및 전통적 가족 구조나 가치의 와해로 인해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규범이 주류를 이루는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부부나 노인 혼자 독거하는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부양 규범도 희박해져서 노인들은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개인의 퇴직 후 여명(餘命)이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소득수준의 저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악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축소 및 급여지출 급증으로 재정 고갈,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부각된다.

2.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

‘인력(人力)’의 사전적 개념은 ‘인간의 노동력’을 의미하며 ‘활용(活用)’은 ‘충분히 이용’

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인력 활용’이란 ‘노인의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필요 및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인력 활용을 사회적 필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생산인구의 감소 및 비생산인구의 증가, 이로 인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에 의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기간의 장기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증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인력 활용이 필요하며, 이는 복지재정 지출 축소 및 사회보장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평균수명의 증대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년기 개인들의 노동 및 사회활동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11.8%가 일자리를 원하며, 또한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도 65세 이상 노인의 13%에 이른다. 다른 한편, 노년기 경제적 이유로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5 고령자 통계'(통계청, 2005a)에서는 고령층(55~79세)의 향후 취업 희망자 비율이 58.8%로,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에서는 참여노인의 67.4%가 경제적 이유로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경희 외, 2005)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67.2%에 해당되며,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30.8%에 불과했다. 비취업 노인의 17.5%가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69.9%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하여 노후소득의 불안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의 미취업 노인의 취업희망 이유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51.3%, 일본은 43.2%, 미국은 38.5%, 그리고 독일은 33.3%로 나타나 단연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변재관, 1999).

이와 같이 우리 사회 노인들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취업 내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부양을 위한 제반 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노인인력 활용은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 뿐 아니라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은 노인의 자존능력에 대한 가치 및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인권 보호 증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인계층이 의존적이며 비생산인구가 아니라 생산인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 노력이 필요한데, 노인인력 활용은 고령사회로 다가가는 우리 사회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인력 활용의 실태

1) 노인취업

일반적으로 '취업'은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며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유급노동을 의미하는데, 노인취업은 노인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일에 종사함으로써 유급의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취업은 개인적으로 노인층의 근로소득을 가져옴으로써 노년기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노년기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직업인'으로서의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노후에 갖기 쉬운 고독감, 소외감을 제거하는 등 심리적 만족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취업은 노인층의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인부양에 따르는 복지비용 부담을 절감시키는 등 사회적 부담의 완화와 같은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노인취업의 실태

①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오늘날 노인 취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년도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고령자(55세-79세)의 최근 5년 동안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의 평균보다 낮은 5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2006)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2006년 5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1%로 0.2%p 하락하였다.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 실업률은 2.6%였으며, 65~7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 실업률은 1.1%였다. 이는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4> 참조).

<표 4> 노인의 취업률 및 취업희망

(단위 : 천명)

	55~79세 인 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6. 5.	8,333	4,194	4,107	88	4,138	50.3	2.1
55~64세	4,363	2,719	2,647	72	1,644	62.3	2.6
65~79세	3,970	1,476	1,459	16	2,495	37.2	1.1
2005. 5.	8,099	4,045	3,952	93	4,055	49.9	2.3

자료: 통계청(200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정경희 외, 200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8%가 취업 중이며, 취업하지 않은 노인들 중에서도 12.1%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노인의 약 43%가 노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특히 65-69세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거의 60%에 달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노인의 취업률 및 취업희망율

구분	전체	연령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취업 중	30.8	41.0	31.6	16.2
미취업	69.2	59.0	68.4	83.8
근로희망	12.1	17.4	12.0	5.4
근로 원하지 않음	57.1	41.6	56.4	78.4
전체	100.0 (3,029)	100.0 (1,214)	100.0 (902)	100.0 (912)

자료: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② 평균 고용률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근로자 100명당 5명꼴(4.94%)로 전년대비 0.43%p 상승하였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평균 고용률 추이를 보면 '01년에는 100명당 3명(3.0%), '02년에는 100명당 3.7명(3.7%), 2003년에는 100명당 4.2명(4.19%), '04년에는 100명당 4.5명(4.51%)이었다. 업종별로는 광업(14.87%), 기타서비스업(10.82%), 부동산 및 임대업(10.00%), 운수업(8.13%) 등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신업(0.81%), 도매·소매업(0.85%), 금융·보험업(1.13%), 제조업(1.86%)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간 고용률의 편차가 나타났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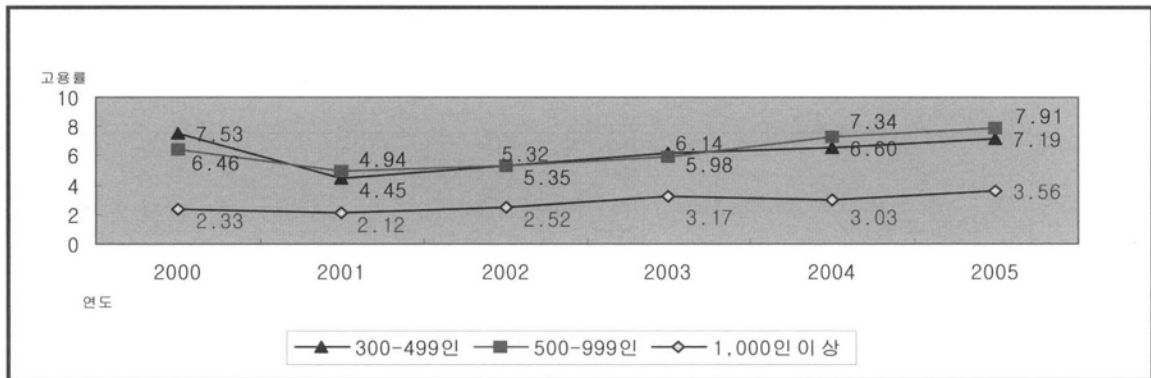
<표 6> 고령자 고용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장		상시근로자		고령자		
					고령근로자	고용률	전년대비
	계	1,852 (100.00)	2,162,947 (100.00)		106,796	4.94	0.43
업종별	농림어업	2 (0.11)	743 (0.03)		45	6.06	2.68
	광업	5 (0.27)	4,877 (0.23)		725	14.87	3.54
	제조업	737 (39.79)	830,820 (38.41)		15,452	1.86	0.07
	전기가스수도업	39 (2.11)	36,227 (1.67)		1,847	5.10	0.36
	건설업	52 (2.81)	63,336 (2.93)		3,209	5.07	△1.06
	도매 및 소매업	88 (4.75)	102,569 (4.74)		870	0.85	△0.20
	숙박 및 음식점업	40 (2.16)	38,474 (1.78)		1,009	2.62	0.08
	운수업	128 (6.91)	153,926 (7.12)		12,521	8.13	△0.39
	통신업	16 (0.86)	63,587 (2.94)		516	0.81	0.02
	금융 및 보험업	104 (5.62)	241,120 (11.15)		2,733	1.13	0.02
	부동산 및 임대업	4 (0.22)	1,870 (0.09)		187	10.00	2.45
	기타서비스업	637 (34.39)	625,398 (28.91)		67,682	10.82	0.61
규모별	계	1,852 (100.00)	2,162,947 (100.00)		106,796	4.94	0.43
	300-499인	746 (40.28)	289,659 (13.39)		20,840	7.19	0.59
	500-999인	648 (34.99)	443,689 (20.51)		35,076	7.91	0.57
	1000인 이상	458 (24.73)	1,429,599 (66.09)		50,880	3.56	0.53

주) 고령자 고용률 = 55세 이상 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100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7.19%, 500~999인 사업장이 7.91%로 비교적 높았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56%로 낮게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45.8%이고, 기준고용률⁸⁴⁾에 미달한 사업장은 54.2%였다.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은 광업(100.0%), 전기가스수도업(82.5%), 운수업(75.8%), 건설업(67.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신업(0%), 도매 및 소매업(7.9%), 금융 및 보험업(16.3%), 제조업(37.6%) 등은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사업장 규모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③ 고령자의 취업구조

(a) 산업별 분포

2006년 55~79세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31.9%로 가장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6.5%), '도소매 음식숙박업'(20.0%)의 순이었다. 55~64세 연령층의 경우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은 반면, 65~79세 연령층은 '농림어업'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농림어업 31.9%(1,310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6.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7%)이 가장 많았으며, 65~79세에서는 농림어업(52.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84)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표 7> 고령층의 산업별 취업분포

(단위 : 천명)

	55~79세 취업자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 창고·금융업
2006. 5.	4,107 (100.0)	1,310 (31.9)	360 (8.8)	355 (8.6)	2,438 (59.4)	247 (6.0)	822 (20.0)	1,090 (26.5)	280 (6.8)
55~64세	2,647 (100.0)	543 (20.5)	284 (10.7)	280 (10.6)	1,821 (68.8)	212 (8.0)	595 (22.5)	785 (29.7)	229 (8.7)
65~79세	1,459 (100.0)	767 (52.6)	76 (5.2)	75 (5.1)	617 (42.3)	35 (2.4)	227 (15.5)	304 (20.8)	51 (3.5)
2005. 5.	3,952 (100.0)	1,332 (33.7)	353 (8.9)	351 (8.9)	2,267 (57.4)	252 (6.4)	757 (19.2)	995 (25.2)	262 (6.6)

자료: 통계청(2006),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b) 직업별 분포

55~79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38.0%, 농림어업직 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5~64세에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42.0%)이 가장 많았고, 55~79세에서는 농림어업직(49.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고령층의 직업별 취업분포

(단위 : 천명)

	55~79세 취업자	전문·기술· 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	기능 ¹⁾	기계 ²⁾	단순 ³⁾
2006. 5.	4,107 (100.0)	348 (8.5)	117 (2.8)	853 (20.8)	1,230 (29.9)	1,559 (38.0)	292 (7.1)	317 (7.7)	950 (23.1)
55~64세	2,647 (100.0)	282 (10.7)	88 (3.3)	652 (24.6)	513 (19.4)	1,113 (42.0)	246 (9.3)	271 (10.2)	596 (22.5)
65~79세	1,459 (100.0)	65 (4.5)	29 (2.0)	201 (13.8)	717 (49.1)	447 (30.6)	46 (3.2)	47 (3.2)	354 (24.2)
2005. 5.	3,952 (100.0)	338 (8.5)	100 (2.5)	838 (21.2)	1,238 (31.3)	1,438 (36.4)	272 (6.9)	290 (7.3)	875 (22.2)

주: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 단순노무종사자

(c) 임금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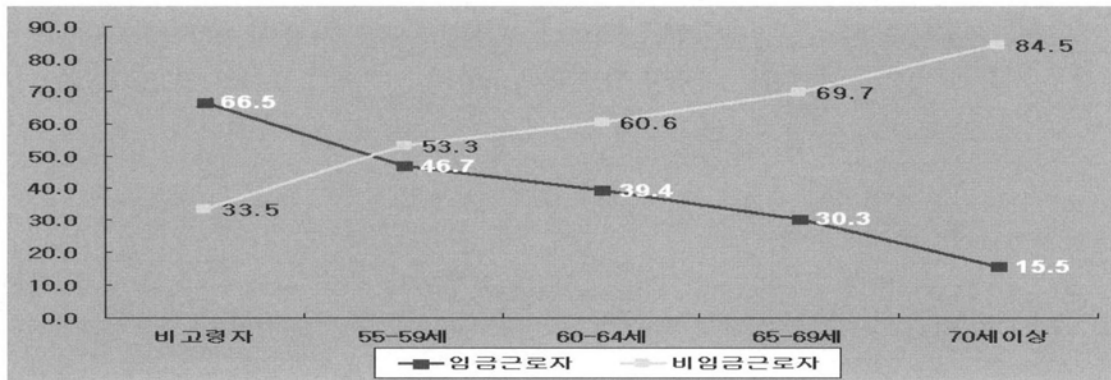
고령자의 년도별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갖는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상대적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9> 참조).

<표 9> 연도별 고령자 임금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령자	169.5	175.6	177.8
55~59세	146.9	156.2	154.3
60~64세	112.8	117.5	116.0
65~69세	79.7	89.0	86.7
70세 이상	55.9	56.1	59.3
전체	159.5	166.0	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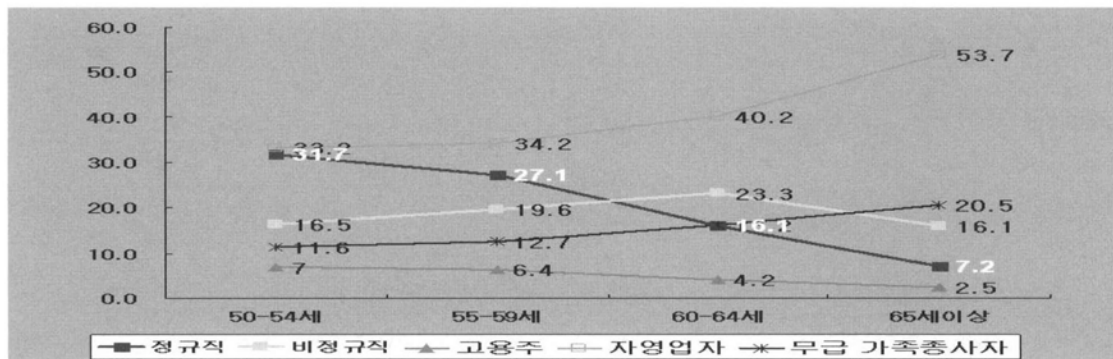
(d) 고령자 근로형태

고령자의 연령대별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연령대별 고용형태

고령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규직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자영업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부터는 비정규직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고령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열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연령대별 근로형태

2)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개인 및 가족에게 일정 부분 보충적 소득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연금 등 노인에게 소요되는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유용한 인적 자원의 활용으로 국가적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인 노인취업이나 노인고용과는 대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취업은 일정 정규직에 종사하여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정기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소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명칭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낮은 수입을 갖는 특성을 지닌다(원영희 · 김옥, 2006).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 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이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는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⁸⁵⁾의 일종으로 일부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①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2006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파견형, 시장형)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이다. ‘교육복지형’은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특정분야의 사람이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인 ‘교육형’과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인 ‘복지형’으로 구분된다. 자립지원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인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자리인 ‘인력파견형’과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체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인 ‘시장형’으로 구분된다(<표 10> 참조).

85)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복지와 고용의 중간 영역’ 혹은 ‘사회적 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변재관 · 김창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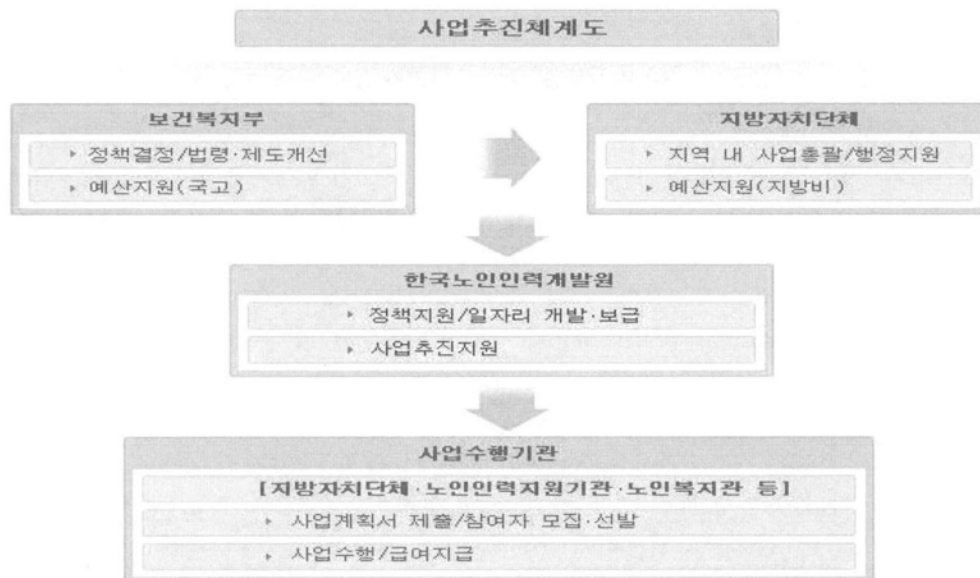
<표 10> 2006년도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종류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공 익 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영역(환경, 행정, 교통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자리	•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 복 지 형	교육형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경험을 소유한 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해설사, 문화재해설사, 교육강사(전통문화지도사, 1·3세대 연계 등), 건강관리(상담)사 등
	복지형 ○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독거노인, 중증노인 및 장애인등 소외계층 보호, 노-노(老-老)케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노인안전지킴이,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등
자 립 지 원 형	인력 과 전 환 형 ○ 수요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노인이 해당기관에 파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등 판매원, 운전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 형 ○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자체수익이 일부 창출되는 일자리	•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유기농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전통공예,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6).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안내.

② 사업 추진체계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 예산 지원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사업총괄, 예산지원을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정책지원,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연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사업계획서 제출, 참여자 모집, 선발, 사업수행, 보수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 및 사업실적

2006년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238개소, 시니어클럽 38개소, 노인복지회관 128개소, 대한노인회 248개소, 재가노인 시설 등 기타 196개소 기관을 합쳐 총 848개소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06).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며 필요시 위탁수행을 한다. 시니어클럽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며 교육복지형을 부분적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등은 교육복지형 일자리사업을 전담하면서 시장형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공익형 일자리사업 위탁수행 및 단순일자리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건강한 노인이 고령 및 중증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케어형 일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8대 전략사업(어르신 거리환경 개선사업, 숲 생태 해설가 사업, 시니어 문화유산 해설사업, 1·3세대 통합 프로그램, 급식 지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가사 도우미, 지역 지킴이)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 신규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경우 시험감독관, 전기검침원, 주유원, 실버모니터요원, 급식도우미 5개 사업으로 2만 일자리를 추진 예정에 있다.

200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총 47,309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 중 공익형이 65%, 교육형이 15%, 복지형 10%, 자립지원형이 10%에 해당되었다. 이는 원래 목표치 35,000개보다 훨씬 상향하여 달성된 실적이다. 한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목표 일자리수를 넘어섰지만, 자립지원형의 경우 이의 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 그만큼 자립지원형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11> 참조).

<표 11>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2005년)

구 분	총 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교육형	복지형	
목 표	35,000	22,750	5,250	1,750	5,250
(명)	(100%)	(65%)	(15%)	(5%)	(15%)
실 적	47,309	31,101	7,063	4,581	4,564
(명)	(100%)	(65%)	(15%)	(10%)	(10%)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외 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로 유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는 일정 근로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생계형 일자리'로 수익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이 주를 이룬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고령자 적합형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고령자 적합형 사업이라 함은 고령자(55세 이상)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주 20시간 이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 월 30만 원 이하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외 단순사무 등은 월58만원 이하, 일정기술 요구의 경우 월60만원 이하, 전문기술직종의 경우 월68만원 이하의 인건비가 지급되며, 이의 참여기간은 9~10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 계층 중에 5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04년 3,752명, '05년 3,910명)은 2004년 경우 118개의 일자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었는데 이의 비율이 3.2%에 해당되었고, 2005년의 경우 777개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추정된다(<표 12> 참조).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와 참여대상자에서 일부 중복되며, 현재로서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노인일자리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12〉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 인력(2005년)

참여자수	성별		연령별		
	남	여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 이상)
4,672	1,081	3,590	1,107	2,788	777

이외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등 정부 타 부처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추진되고 있다⁸⁶⁾. 그러나 각 부처별 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심으로 60세 미만의 청장년층을 주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은 노후의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노인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노인자원봉사활동은 퇴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는 중요한 대체역할이 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사회에 유용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고독감을 감소시키며,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제고시키고, 세대 간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크다.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양곤 외, 200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이지 자원봉사를 하는 주체자로 인식되지 않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낮은 현상에서 드러난다. 1988년 실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5%로 극히 저조하였다. 전국조사를 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1년 5.4%, 1999년 13.0%, 2003년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의 변화에서 15-19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1년 3.8%에서 1999년 6.7%

86)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장애아 및 특수학급 아동과 취약계층아동들의 학습보조를 하는 '장애아 교육 보조원' 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참여 대상은 60세 미만 여성들이 주 대상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생태보전지역 등의 생태해설요원을 배치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환경보전 교육과 홍보를 하는 '생태우수지역 환경안내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아이티관련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한 '지식정보 자원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청·장년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도 보육,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여성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60세 미만의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사업에 투입하는 '공공산림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청장년 실업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3년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3년 65세 이상 인구의 5.6%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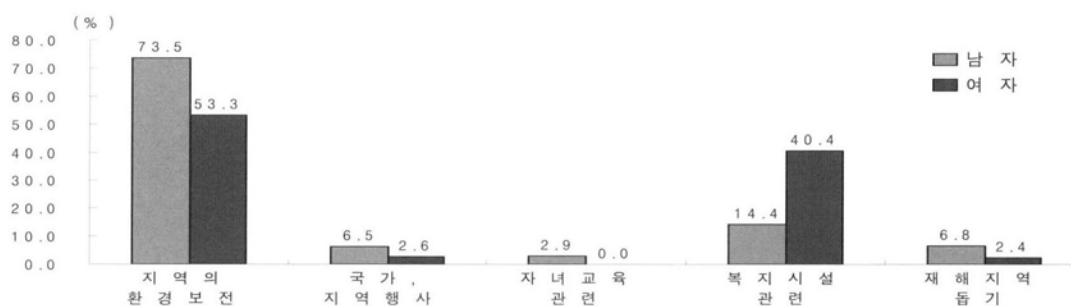
<표 13> 자원봉사참여율

(단위: %)

	1991	1999	2003
전체	5.4	13.0	14.6
15-19세	3.7	33.8	52.4
20-29세	4.4	7.8	10.3
30-39세	5.9	13.2	11.6
40-49세	7.9	13.0	14.2
50-59세	6.1	10.8	12.2
60세 이상	3.8	6.7	6.7
65세 이상	-	5.4	5.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1, 1999, 2003년 재구성.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주로 활동한 분야는 ‘지역의 환경보전’(65.4%)과 ‘복지시설 관련’(24.9%)활동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노인의 참여율은 8.4%로 여자노인의 3.7%보다 높았으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지역의 환경보전’, ‘국가 지역행사’, ‘재해지역 돕기’에 많이 참여하였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복지시설 관련’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림 5> 노인자원봉사활동 분야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초기엔 주로 대한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경로당 중심의 환경정화운동, 노인회 지회 중심의 지역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지도, 노인회 연합회 중심의

도덕윤리회복 교육 등을 벌여 왔다. 현재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노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부터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환경 감시할아버지봉사대, 자율방범할아버지봉사대를 운영하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소액의 봉사를 지급해 왔다. 경기도에서도 4주 과정의 노인자원봉사학교를 열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노인들이 거주지에 따라 담당지역을 배정받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실시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양곤 외, 2003).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운영사업의 기본사업의 하나로 자원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06)에 따르면 노인자원봉사사업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복지회관내 노인봉사대를 조직하여 기관 내의 행사보조, 안내, 식당배식 및 업무보조, 사회교육 강사와 외부의 환경보호, 도시락 배달, 교육기관 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유성호 외 2002).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초기 노인봉사활동은 주로 관내봉사활동을 위주로 실시하다가, 점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노인층의 경제적 특수성 및 사회활동 참여 진작 차원에서 유급자원봉사활동 역시 중요한 노인인력 활용의 범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정경희 외, 2005)에 의하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비율은 전체 노인의 4%로 나타났으며, 85.3%가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의 자료에서 노후생활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15.0%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중 약 71%가 유급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급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4. 노인인력 활용 관련 정책 현황

1) 노인취업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관련 정책은 노동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져 왔다. 노동부는 정년제 조정, 임금피크제, 노인의무고용제 도입,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제도적 조정과 고용장려정책 등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의 고령자 적합 직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1)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

노동부의 노인취업은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의 명칭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는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취업취약 계층으로 이에 따라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 수료자채용

장려금 등이 제공되는데, 이는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원영희 · 김옥, 2006).

<표 14> 고령자고용촉진금의 사업내용

구 분		요 건	수준 및 기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을 이상 고용 - 지원기준율: 제조업4%, 부동산업42% 등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	·지원기준을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매분기당 근로자 수의 15%(대규모 기업 10%)한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계속고용 1인당 월30만원을 6개월 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30만원
중장기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			-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 시 채용 후 6개월간 매월 60 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급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2) 고령자 적합직종 및 채용권고

노동부는 고령자,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 직종을 선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고령자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1992년부터 2002년까지 5차에 걸쳐 ‘고령자 적합 직종’이 선정된 바 있으며, 5차 적합 직종의 경우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등 160개의 업종을 선정·고시하였다. 이의 직종에는 경비원, 공원관리인, 주차장관리인과 같은 단순노무직종의 5차 고령자 적합 직종에는 학력자들이 취업 가능한 직종들로 인사노무관리자, 경영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ISO인증심사원 등의 전문분야가 포함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진입 가능성, 인력부족 직종, 육체적 활동 가능성, 환경조건, 위험가능성, 대기조건 등을 평가한 결과로 선정되었다.

(3)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07~2011년)

2006년 7월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직무순환(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전환), 파트타임제 등 고령자를 위한 고용연장형 근무형태가 오는 2009년부터 활발하게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008년 완료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이듬해부터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개인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이 제도로 탄력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는 소득 감소 부담 없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연봉 468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나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기간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년근로 계약' 체결을 장려키로 했다.

한편,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후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 차등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에 대해서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관련 고용연장 규제도 완화된다.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설립과 전직 지원 장려금 요건 완화,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특히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연금수령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 가산해 주며 현재 5%인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 오는 2008년에는 모집·채용, 훈련에 적용하고 오는 2010년에는 승진과 해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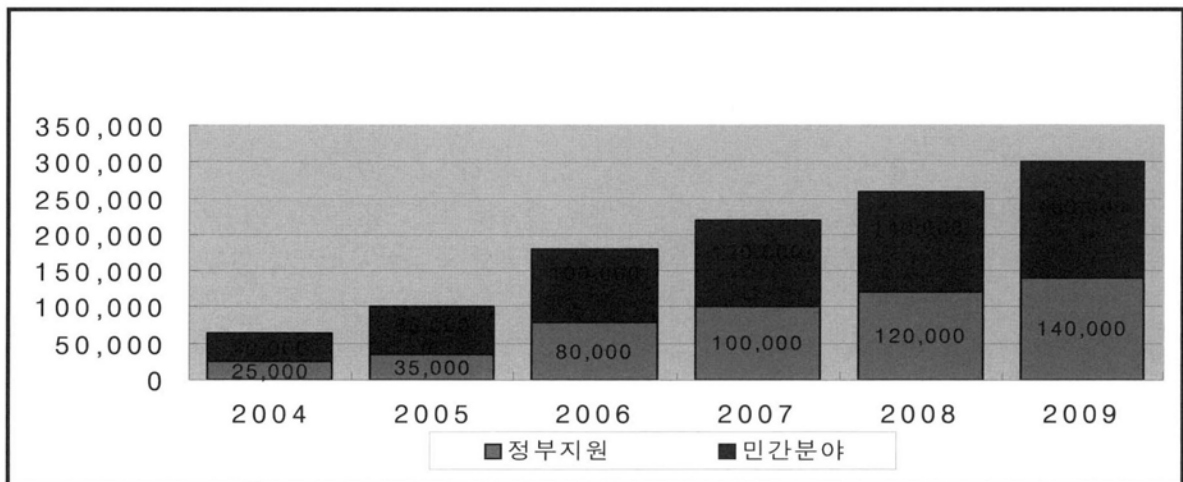
2) 노인일자리사업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 과제'의 하나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대두되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 생산적 복지 차원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상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제45조 제2항을 근거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충적 소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7496호, 2005년 5월)이 제정되었는데, 이의 법 제11조⁸⁷⁾에서는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을 명시하고 있다(원영희 · 김옥,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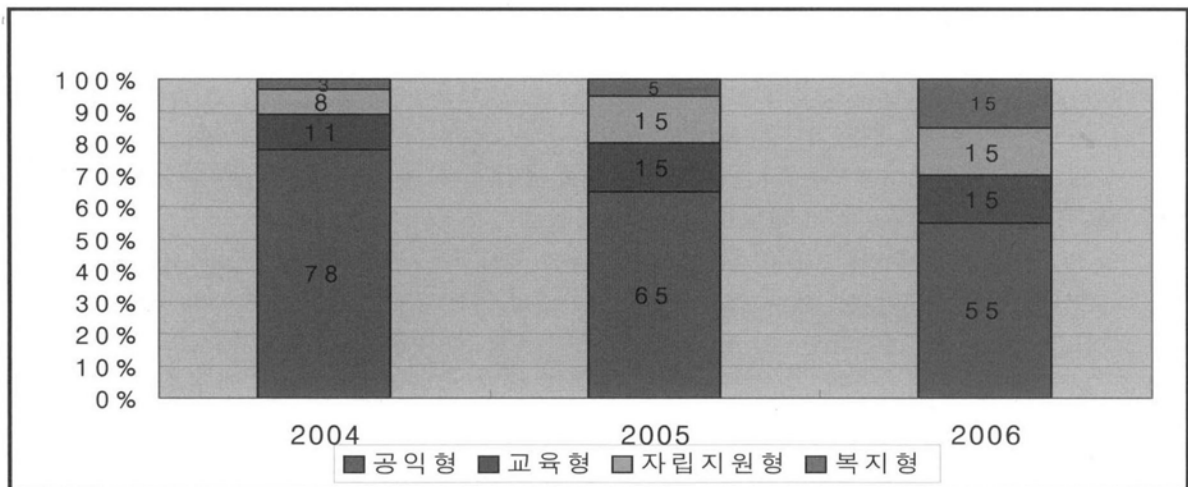
87)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항)”고 하였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는 사업이 시작한 2004년에 6만 5천명, 2005년 10만, 2006년 18만, 2007년 22만, 2008년 26만, 2009년 30만명을 하고 있다. 30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는 당초 2007년까지였지만, 여러 상황에 근거하여 이의 목표를 당초 목표보다 2년 늦춘 2009년으로 수정되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 및 인건비 비지원 형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인건비 지원은 8만개, 인건비 비지원은 10만개로 책정되었다. 8만개의 일자리는 보건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에서도 노인취업알선, 공동생산, 인력파견 등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에 10만명을 취업시킬 계획이다. 2009년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14만개, 인건비 비지원이 16만개로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연도별 노인일자리 계획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老)·노(老)케어(Care) 등 복지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05년 1,750개 → '06년 12,000개)하여,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증진토록 하고,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림 7> 사업별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비율

특히,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청소, 간병, 말벗, 세탁, 옷 갈아입히기, 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老)·노(老)케어(Care)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제품 수리, 장판교체, 창문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거리·자연환경개선, 청소·년·교통질서지킴이, 친절도우미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 4만 4천개('05년 2만3천개)와 숲생태·문화재해설가, 강사파견 등 교육형 일자리 1만 2천개('05년 5천개), 지하철 택배·도시락배달·떡방·세탁방·주유원·주례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1만2천개('05년 5천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부예산 1,106억원(국고 520억원, 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05년도 35,000개에 비해서 130% 증가된 규모이며, 사업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

노인자원봉사활동 정책은 노인취업이나 고용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실비의 비용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 고령자를 위한 노인인력활용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은 가시화되어 이루어 오진 못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거리 마련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최근 이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지자체 및 일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일거리를 마련하는 유급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기관의 노인일거리 사업에 있어서 대상은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보조하는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일거리를 마련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현재 시도와 시·군·구마다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근간으로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타 노인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프로그램도 초기의 청소·선도, 폐품수집, 지역내 청소 및 교통정리, 윤리교육 등에서 기관 행사보조, 안내, 식당 배식 및 업무보조, 교육강사, 환경보호, 도시락 배달, 외국어 통·번역, 또래노인돕기, 공원관리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유치원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할머니의 정을 유치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전국 8개 시·도교육청 286개 종일제 유치원에 50~60대 여성 유급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유급자원봉사자의 1인당 활동 지원비는 하루 15,000원(4시간이하), 월 300,000원(20일 기준)이다. 올해는 일단 총 예산 6억 9,000만원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 유치원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포함하여 유치원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며,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교육시킨 후 해당 유치원에 배치하게 된다. 유급자원봉사자는 책 읽어주기, 자유선택 활동보조, 급·간식준비 및 배식보조, 대·소변 돕기, 휴식 및 낮잠 지도, 특별행사(현장학습, 운동회)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자원봉사자의 건강 등 개인여건과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월 활동일수나 주중(週中) 활동 요일 및 1일 중 활동 시간은 유치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전망

향후 우리 사회에 곧 도래할 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노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이는 개인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에 있어서 노인층은 인구의 절대비율을 차지할 것이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층의 질적 측면도 지금의 노인층과 다른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사회적 변화 및 가치의 변화로 노년기 독립성,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대한 가치 규범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노인들의 욕구 또한 다양해 질 것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의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에 만족하지 않고 소속감, 자아실현 등 보다 고차원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원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짐으로써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력 활용은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의 당면 과제이자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최상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음에서 우리 사회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향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그동안 우리 사회 노인취업은 단편적인 노인취업 알선에 치중되어 왔고,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는 노인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노인취업을 위한 사회적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고

령자들의 취업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 노동정책, 고용정책, 노동환경 및 기업 환경 등을 재정립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⁸⁸⁾의 기준고용제 전환, 노인고용 의무 확대, 노인고용 장려금 등 인센티브 현실화,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연봉, 업무조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확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제안될 수 있다(변재관·김창규 2005; 선우 덕, 2003). 또한, 직무급제,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고,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장기간 휴가를 통한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 및 가족에게 일정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료비, 연금 등 노인에게 소요되는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시키며 유용한 인적 자원을 활용으로 국가적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특히 일자리 참여기간이 짧은데다가 단순 일자리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큰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접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질적 접근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일자리를 늘리는 수적 증가에 급급하기보다 일자리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나 아이템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적합 일자리 사업의 연계 및 조정,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노인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조사 및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재원 확보, 노인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변재관, 2005; 원영희 · 김옥, 2006).

3)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노인인력 활용은 단순히 고용과 취업부분에만 한정시키기 보다 다양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시켜나가야 한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이 일생을 통하여 축적되어온 경험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을 근간으로 노

88)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대상인 준·고령자 규정이 50~54세이므로 이들까지 실질적인 대상이 되므로, 65세 이상의 노인취업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편이다. 또한 임의 규정이 많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고령근로자 고용률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이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행정부처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교육법 등 여러 법률들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시켜야 한다.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제도의 도입, 자원봉사 저축제도, 행정위촉제도 및 보상제도 등의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자원봉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조정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양곤 외, 2001; 허준수 외, 2005). 최근 노인일자리와의 연계로 유급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가 시장내 고용뿐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 또는 유상자원봉사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는 유급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제안될 수 있으며 이의 활동을 비영리조직이나 비정부기구 분야까지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및 노인들의 위한 취업내지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훈련은 그 기간도 짧고 이의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순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 및 노인들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고령자 및 노인들을 위한 고용,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체계, 직업능력개발,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일자리창출 등의 다양한 조항이 있으나 법조항들의 강제성 미비, 예산 및 전달체계의 미비로 노인인력 개발과 활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노인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련 조항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관련 법규들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인력 교육훈련 내용의 개발 및 보급, 교육수준별 교육내용의 정비, 교육 강사 풀 마련, 교육장소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체계 구축 및 DB 구축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노인인력 활용 관련 행정업무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들간(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협력관계의 강화로 중복되고 산재된 노인인력 활용 정책의 일관성 및 노인인력 분야의 통합내지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정책들이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비전 아래 상호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부처간 산재한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부처 간 특히 노동시장 내 취업중심의 노동부 및 지역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중심의 보건복지부 역할 정립 및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변재관·김창규, 2005, 보건복지부 2005).

한편, 노인인력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구 단위의 지역간 지역협의체를 통한 노인의 고용과 교육훈련 기회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

역단위의 노인을 위한 복지, 고용 및 교육 기관들 간의 연계체계의 구축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인력 활용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더 이상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TV 기획방송, 매체 인터뷰 등 각종 홍보활동과 더불어 노후 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제공,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 등 교육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5).

참 고 문 헌

- 고양곤 외 (2001).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147-166.
- 고양곤 외 (2003). 노인과 자원봉사활동. 서울: 학지사.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변재관 (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91-131.
- 변재관 (2005).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전략(2005. 9).
- 변재관·김창규 (2005). 30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2005 노인일자리 사업 혁신 포럼' 자료집. pp.13-27.
- 보건복지부 (2005). 고령사회 대비 노인인력활용 실태 및 발전방안, 정책 과제 보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보건복지사업지침.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2005).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설문 분석결과(2005. 5).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안내.
- 선우덕 (2003). 고령사회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 33-43.
- 원영희·김옥 (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3). 인구통계자료집.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1991, 1999, 2003).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 (2005a). 2005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05b).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령층 (55-79세).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 허준수·이금룡·원영희(2005). 노인자원봉사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